연구보고 2021-15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이정원·박원순·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1-15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저 자 이정원, 박원순, 엄지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 정 원** (육아정책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원 순** (육아정책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엄 지 원** (육아정책구소 전문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1-15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86-9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식당에서 취학전 영유아가 엄마의 핸드폰으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본원에서 2013년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 실태에 관한 연구를 최초로 시작하였을 때만 해도 국내에서 스마트폰 이용이 이제 막 확대되는 상황으로, 각종 미디어 이용의 시작 시기가 영유아기로 하향화되고, 일부 영유아는 미디어, 특히 스마트폰 이용에 중독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충격이 상당하였다.

그러나, 뉴미디어의 지속적 등장과 가정 내 미디어 기기 보유의 다양화, 고도화에 따라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목적으로의 미디어 활용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영유아가 이용하는 미디어 기기의 특성, 생활습관처럼 관리해야 하는 미디어 이용 습관에 대한 가정·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서의 지도, 교육매체 등 긍정적이 측면에서의 이용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3년 연구 후 8년 만에 수행한 본 연구는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실태를 영유아가 이용하는 교육·보육 기관까지 확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고, 실태와 요구 파악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시키기에 '적정한' 이용을 이끌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4차산업시대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맞물려 향후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도 미디어 활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교육·보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 형성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조금이나마 영유아의 부모님과 교육·보육기관의 종사자들의 미디어 환경 조성의 책임자로서의 인식을 제고하여 국가 차원에서 건강한 시민의 양성을 위해 생애초기 부터의 적절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 지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Ⅰ. 서 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2. 연구 내용 ····· 22
3. 연구 방법 ····· 23
4. 주요 용어 정의 ····· 27

Ⅱ. 연구의 배경 29
1. 선행 연구 분석 ····· 31
2. 국내외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 현황 ····· 44
3. 국내외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분석 ····· 66

Ⅲ.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지도 실태 103
1. 응답가구 특성 ····· 105
2. 가정 내 미디어 보유 및 이용실태 ····· 112
3.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 116
4.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실태 ····· 146
5.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실태와 요구 ····· 158
6.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의견 ····· 170
7. 소결 ····· 175

Ⅳ. 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지도 실태 181
1. 응답자 특성 ····· 183
2. 보육·교육기관의 미디어 보유 및 보육·교육 활용 실태 ····· 185
3.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실태 ····· 189
4. 영유아 미디어 이용을 위한 교육 제공 실태 ····· 193
5. 보육·교육 활동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의견 ····· 201
6. 소결 ····· 212

Ⅴ.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과 정책 요구 215
1.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 ····· 217
2. 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 ····· 219
3.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현황과 대처 실태 ····· 220
4.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요구 ····· 227
5. 소결 ····· 233

Ⅵ. 정책제언 237
1. 정책방향 ····· 239
2.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육 확대와 교육 기반 조성 ····· 241
3. 보육·교육 활동에서의 미디어 이용 지침의 개발·배포 ····· 247
4. 영유아를 위한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의 배포처 확대와 제작·홍보 방식의 다양화 ····· 249
5. 영유아의 미디어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정책 방안 ····· 250
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보호 관련 법령의 영유아 대상 명시 ····· 251
7. 영유아용 콘텐츠의 적합성 제고 방안 ····· 252
8. 미디어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255

참고문헌 257

Abstract 273

부록 277
부록 1.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지 ····· 277
부록 2. 영유아 이용 기관용 설문지 ····· 305
부록 3. 부표 ····· 324

표 목차

〈요약 표 2-1〉 영유아에게 스마트폰·태블릿 PC를 허용하는 목적별 경험 ····· 4
〈요약 표 6-1〉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변경안) ····· 14
〈요약 표 6-2〉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전자미디어 노출'에 대한 건강 교육 및 상담 강화(안) ····· 14
〈요약 표 6-3〉 영유아의 미디어의 적정한 이용 능력 함양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안)' ····· 16
〈요약 표 6-4〉 영유아의 유해한 미디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16
〈표 Ⅰ-3-1〉 설문조사 개요 ····· 24
〈표 Ⅰ-3-2〉 심층면담 사례 ····· 25
〈표 Ⅰ-3-3〉 자문회의 개최 현황 ····· 26
〈표 Ⅰ-3-4〉 정책세미나 개최 ····· 27
〈표 Ⅱ-1-1〉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노출 관련 실태조사 선행연구 ····· 31
〈표 Ⅱ-2-1〉 아동권리위원회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권고 · 44
〈표 Ⅱ-2-3〉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되는 경우 ····· 48
〈표 Ⅱ-2-4〉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개정 연혁 ·· 51
〈표 Ⅱ-2-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52
〈표 Ⅱ-2-6〉 영유아의 디지털콘텐츠 노출 제한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과 국회 검토의견 ····· 54
〈표 Ⅱ-2-7〉 종합계획 수립 환경의 변화(1차~3차) ····· 57
〈표 Ⅱ-2-8〉 종합계획 주요정책의 변화(1차~3차) ····· 58
〈표 Ⅱ-2-9〉 영유아 관련 정책 과제(3차 계획) ····· 59
〈표 Ⅱ-2-10〉 영유아 관련 정책 과제(4차 계획) ····· 60
〈표 Ⅱ-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하는 영유아 및 영유아 부모 대상 미디어 정책 사업 ····· 63
〈표 Ⅱ-2-12〉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향후 추진 아동 및 부모 대상 미디어 정책 ····· 64
〈표 Ⅱ-3-1〉 ZERO to THREE의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미디어(TV) 이용 지도

지침 ····· 66
〈표 Ⅱ-3-2〉 AAP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권고 ····· 67
〈표 Ⅱ-3-3〉 MediaSmarts와 TELUS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용 가이드 ····· 69
〈표 Ⅱ-3-4〉 국외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 ····· 71
〈표 Ⅱ-3-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정보화진흥원) 개발 가이드라인 (2007~2021) ····· 77
〈표 Ⅱ-3-6〉 그 밖의 국내 미디어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 89
〈표 Ⅱ-3-7〉 영아, 유아, 부모교육을 위한 전자미디어 교육의 원리 (여성가족부, 2011b) ····· 98
〈표 Ⅱ-3-8〉 국내 주요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 100
〈표 Ⅲ-1-1〉 응답가구 특성 ····· 105
〈표 Ⅲ-1-2〉 영유아 부모의 특성 ····· 106
〈표 Ⅲ-1-3〉 응답대상 아동의 특성 ····· 107
〈표 Ⅲ-1-4〉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 ····· 108
〈표 Ⅲ-1-5〉 부모가 영유아와 하루 중 함께하는 시간(주중, 주말) ····· 108
〈표 Ⅲ-1-6〉 영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 ····· 109
〈표 Ⅲ-1-7〉 영유아 자녀의 하루중 기관 이용 시간 ····· 110
〈표 Ⅲ-1-8〉 자녀의 반일제 이상 기관 최초 이용 시기 ····· 111
〈표 Ⅲ-2-1〉 가정에서의 미디어 종류별 보유 및 이용 현황 ····· 114
〈표 Ⅲ-2-2〉 응답자 가구의 스마트폰 보유 현황 ····· 114
〈표 Ⅲ-2-3〉 영유아 가정에서의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 115
〈표 Ⅲ-3-1〉 영유아의 스마트폰 보유 현황 ····· 116
〈표 Ⅲ-3-2〉 영유아의 스마트폰 최초 보유 시기 ····· 118
〈표 Ⅲ-3-3〉 향후 자녀의 스마트폰 구입 계획 및 시기 ····· 118
〈표 Ⅲ-3-4〉 향후 자녀의 스마트폰 구입 계획 여부 ····· 119
〈표 Ⅲ-3-5〉 향후 자녀의 스마트폰 구입 계획 시기 ····· 119
〈표 Ⅲ-3-6〉 영유아의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시작시기 ····· 120
〈표 Ⅲ-3-7〉 영유아의 최근 1개월간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빈도 ····· 121
〈표 Ⅲ-3-8〉 영유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시간(평균) ····· 122
〈표 Ⅲ-3-9〉 영유아의 주중 하루 평균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시간 ····· 122
〈표 Ⅲ-3-10〉 영유아의 주말 하루 평균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시간 ····· 124
〈표 Ⅲ-3-11〉 영유아 자녀의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제한시간(1회 기준) ··· 126

〈표 Ⅲ-3-12〉 용도별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정도(하루 기준) ····· 127
〈표 Ⅲ-3-13〉 취학전 영유아 시기 용도별 스마트폰·태블릿 PC 적정 이용시간 (하루 기준) ····· 128
〈표 Ⅲ-3-14〉 영유아에게 스마트폰·태블릿 PC를 허용하는 목적별 경험 ····· 130
〈표 Ⅲ-3-15〉 장소별 영유아의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경험 정도 ····· 131
〈표 Ⅲ-3-16〉 영유아의 TV 시청 시작 시기 ····· 131
〈표 Ⅲ-3-17〉 영유아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평균) ····· 132
〈표 Ⅲ-3-18〉 영유아의 주중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 ····· 133
〈표 Ⅲ-3-19〉 영유아의 주말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 ····· 134
〈표 Ⅲ-3-20〉 영유아에게 TV 시청 허용하는 목적별 경험 ····· 136
〈표 Ⅲ-3-21〉 목적별 영유아의 TV 프로그램 시청 시간(하루 기준) ····· 136
〈표 Ⅲ-3-22〉 영유아의 PC 이용 시작 시기 ····· 137
〈표 Ⅲ-3-23〉 영유아의 하루평균 PC 이용시간(평균) ····· 137
〈표 Ⅲ-3-24〉 영유아의 목적별 PC 이용시간(하루 기준) ····· 138
〈표 Ⅲ-3-25〉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방법(중복응답) ····· 138
〈표 Ⅲ-3-26〉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 증가 여부 ····· 139
〈표 Ⅲ-3-27〉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이 증가한 이유(1순위) ····· 140
〈표 Ⅲ-3-28〉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이 증가한 이유(1+2순위) ····· 141
〈표 Ⅲ-3-29〉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이용이 가장 증가한 미디어 기기(1순위) ····· 142
〈표 Ⅲ-3-30〉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이용이 가장 증가한 미디어 기기(1+2순위) ····· 142
〈표 Ⅲ-3-31〉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기기 이용 증가 정도 ····· 143
〈표 Ⅲ-3-3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이용 기관에서의 원격수업 시행 여부 · 143
〈표 Ⅲ-3-33〉 원격수업 시행으로 인한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시간 증가 여부 (원격수업 시간 제외) ····· 144
〈표 Ⅲ-3-34〉 원격수업 후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 정도 ····· 146
〈표 Ⅲ-4-1〉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제한을 위한 기술적 방안 인지 및 적용 경험 147
〈표 Ⅲ-4-2〉 미디어 이용 제한 기술적 방안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 148
〈표 Ⅲ-4-3〉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 151
〈표 Ⅲ-4-4〉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연령적합성 확인 정도 · 152

〈표 Ⅲ-4-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개발) 영유아용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인지 여부 ····· 154
〈표 Ⅲ-4-6〉 영유아용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른 미디어 이용 지도 여부 ····· 155
〈표 Ⅲ-4-7〉 가이드라인대로 지도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이유 ····· 156
〈표 Ⅲ-4-8〉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 156
〈표 Ⅲ-4-9〉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 157
〈표 Ⅲ-4-10〉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158
〈표 Ⅲ-5-1〉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관한 교육 이수 경험 ····· 159
〈표 Ⅲ-5-2〉 영유아 미디어 이용지도 교육 제공 주체 ····· 161
〈표 Ⅲ-5-3〉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의 내용(중복응답) ····· 161
〈표 Ⅲ-5-4〉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의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도움이 된 정도 ····· 162
〈표 Ⅲ-5-5〉 부모가 받은 미디어 이용 교육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도움이 된 부분 ····· 163
〈표 Ⅲ-5-6〉 미디어 이용 교육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 164
〈표 Ⅲ-5-7〉 (교육 미경험자) 향후 자녀의 미디어 이용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이수 의사 ····· 164
〈표 Ⅲ-5-8〉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받으려는 이유(1순위) ····· 166
〈표 Ⅲ-5-9〉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을 받으려는 이유(1+2순위) ····· 167
〈표 Ⅲ-5-10〉 영유아 미디어 이용 교육에 희망하는 내용 ····· 168
〈표 Ⅲ-5-11〉 영유아 미디어 이용 교육시 선호하는 방식 ····· 169
〈표 Ⅲ-5-12〉 영유아 미디어 이용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 · 170
〈표 Ⅲ-6-1〉 미디어 유형별 적정 이용 시작 연령 및 적정 하루 최대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 ····· 171
〈표 Ⅲ-6-2〉 콘텐츠 유형별 취학전 영유아 이용에 대한 의견 ····· 172
〈표 Ⅲ-6-3〉 영유아를 위한 교육매체로 활용하기에 유용한 미디어 기기 (1+2+3순위) ····· 173

〈표 Ⅲ-6-4〉 영유아들의 '미래환경 준비'를 위해 활용이 필요한 미디어 기기 (1+2+3순위) ····· 174
〈표 Ⅲ-6-5〉 영유아의 '과의존'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기기(1+2+3순위) ····· 175
〈표 Ⅳ-1-1〉 조사대상 교사의 소속기관 특성 ····· 183
〈표 Ⅳ-1-2〉 조사대상 교사의 응답자 특성 ····· 184
〈표 Ⅳ-2-1〉 어린이집·유치원의 미디어 보유 및 보육·교육 활동에서의 활용 현황 ····· 185
〈표 Ⅳ-2-2〉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미디어 기기 활용 연령반(복수응답) ····· 186
〈표 Ⅳ-2-3〉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미디어 기기 주 활용 시간: 1순위 ····· 187
〈표 Ⅳ-2-4〉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미디어 기기 주 활용 시간: 1+2순위 ··· 187
〈표 Ⅳ-2-5〉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육 활동에서의 활용 현황 ····· 188
〈표 Ⅳ-3-1〉 보육·교육활동에서 미디어 이용 시, 지도 방법별 빈도 ····· 189
〈표 Ⅳ-3-2〉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인지여부 ····· 190
〈표 Ⅳ-3-3〉 미디어 이용시간 가이드라인의 적절성 ····· 191
〈표 Ⅳ-3-4〉 가이드라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192
〈표 Ⅳ-3-5〉 미디어 이용시간 가이드라인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 193
〈표 Ⅳ-4-1〉 보육·교육기관 재직 중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이수 여부 ····· 194
〈표 Ⅳ-4-2〉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제공 주체(복수응답) ····· 195
〈표 Ⅳ-4-3〉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내용(복수응답) ····· 195
〈표 Ⅳ-4-4〉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이 도움된 부분 ····· 196
〈표 Ⅳ-4-5〉 보육·교육기관 재직 중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필요 여부 ····· 197
〈표 Ⅳ-4-6〉 영유아 담당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미디어 교육 ····· 197
〈표 Ⅳ-4-7〉 선호하는 미디어 교육 방식 ····· 198
〈표 Ⅳ-4-8〉 세분화된 영유아 미디어 이용(지도) 시리즈 교육 참여 의사 ····· 198
〈표 Ⅳ-4-9〉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부모 대상 미디어 교육 제공 실태 ·· 199
〈표 Ⅳ-4-10〉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향후 미디어 교육 제공 계획 ····· 200
〈표 Ⅳ-4-11〉 영유아·학부모 대상 교육 제공주체(복수응답) ····· 200
〈표 Ⅳ-4-12〉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에 영유아/학부모 대상 교육의 도움수준 ····· 200
〈표 Ⅳ-5-1〉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의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 201
〈표 Ⅳ-5-2〉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정보/교육용 동영상 ····· 202
〈표 Ⅳ-5-3〉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오락용 동영상 ····· 202
〈표 Ⅳ-5-4〉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음악 동영상 ····· 203
〈표 Ⅳ-5-5〉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교육용 앱, 프로그램 ····· 204
〈표 Ⅳ-5-6〉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전자책 ····· 205
〈표 Ⅳ-5-7〉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인터넷 검색용 ····· 206
〈표 Ⅳ-5-8〉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화상통화, 메신저 ····· 207
〈표 Ⅳ-5-9〉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운동용 앱 ····· 208
〈표 Ⅳ-5-10〉 미디어 기기 및 콘텐츠 기반 보육활동의 효과 ····· 208
〈표 Ⅳ-5-11〉 영유아의 교육매체로 유용한 미디어 기기 ····· 209
〈표 Ⅳ-5-12〉 영유아의 '미래환경 준비'를 위해 활용이 필요한 미디어 기기 210
〈표 Ⅳ-5-13〉 영유아의 과의존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기기 ····· 212
〈표 Ⅴ-1-1〉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 지도에서 어려운 점 ····· 218
〈표 Ⅴ-2-1〉 미디어 활용 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 ····· 219
〈표 Ⅴ-3-1〉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의심 경험 및 과의존 의심 행동 비율 ·· 220
〈표 Ⅴ-3-2〉 제특성별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의심 경험 여부 ····· 221
〈표 Ⅴ-3-3〉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 양상(중복 응답) ····· 223
〈표 Ⅴ-3-4〉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한 대처 경험 ·· 223
〈표 Ⅴ-3-5〉 기관 내 미디어 과의존 의심 영유아 현황 ····· 224
〈표 Ⅴ-3-6〉 제특성별 기관 내 미디어 과의존성 의심 영유아 유무 ····· 224
〈표 Ⅴ-3-7〉 제특성별 기관 내 미디어 과의존성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 유무 ····· 225
〈표 Ⅴ-3-8〉 기관 내에서 관찰되는 미디어 과의존성으로 인한 문제행동의 유형 ·· 225
〈표 Ⅴ-3-9〉 기관에서의 미디어 과의존성으로 인한 문제행동 대처법(복수응답) ··· 227
〈표 Ⅴ-4-1〉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정도 ···· 229
〈표 Ⅴ-4-2〉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영유아 대상 미디어 이용 교육 강화 ····· 230
〈표 Ⅴ-4-3〉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아동용 앱, 아동용 채널(*** 키즈 등)의 광고 및 알고리즘 생성 제한 ··· 231
〈표 Ⅴ-4-4〉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정도 ···· 232
〈표 Ⅵ-2-1〉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변경안) ····· 242
〈표 Ⅵ-2-2〉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전자미디어 노출'에 대한 건강 교육 및 상담 강화(안) ····· 243
〈표 Ⅵ-2-3〉 '미디어 이용 지도'관련 교과목 보육교사 필수교과목 추가(안) · 245
〈표 Ⅵ-3-1〉 원격 수업 활용에 따른 가정용 미디어 이용 지침(안) ····· 247
〈표 Ⅵ-3-2〉 기관용 보육·교육 활동 미디어 활용 지침(안) ····· 248
〈표 Ⅵ-5-1〉 영유아의 미디어의 적정한 이용 능력 함양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안)' ····· 250
〈표 Ⅵ-6-1〉 영유아의 유해한 미디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51

그림 목차

[그림 Ⅱ-1-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연령별 과의존 위험군 현황 추이 ·· 36
[그림 Ⅱ-1-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현황 ··· 36
[그림 Ⅱ-2-1] BIK 전략 ····· 45
[그림 Ⅱ-2-2]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대응체계 ····· 61
[그림 Ⅱ-3-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영유아 대상 가이드라인 ····· 87
[그림 Ⅱ-3-2] 바른ICT연구소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바른 사용 가이드라인 ··· 93
[그림 Ⅱ-3-3] VDT관련 안과질환 예방수칙 ····· 100
[그림 Ⅳ-3-1]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른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여부 ····· 191
[그림 Ⅳ-5-1] 영유아의 교육매체로 유용한 미디어 기기 ····· 210
[그림 Ⅴ-4-1]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정도 (교사) ····· 233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Ⅲ-2-1〉 아버지가 하루 중 영유아와 함께 하는 시간(주중) ····· 324
〈부록 표 Ⅲ-2-2〉 어머니가 하루 중 영유아와 함께 하는 시간(주중) ····· 325
〈부록 표 Ⅲ-2-3〉 아버지가 하루 중 영유아와 함께 하는 시간(주말) ····· 326
〈부록 표 Ⅲ-2-4〉 어머니가 하루 중 영유아와 함께 하는 시간(주말) ····· 327
〈부록 표 Ⅲ-2-5〉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식사 중에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 328
〈부록 표 Ⅲ-2-6〉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잠자기 전에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 328
〈부록 표 Ⅲ-2-7〉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운전 중에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단순 통화 제외) ····· 329
〈부록 표 Ⅲ-2-8〉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누워서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 329
〈부록 표 Ⅲ-2-9〉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한 번에 여러 미디어를 동시에 이용함 ····· 330
〈부록 표 Ⅲ-4-1〉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1) 보호자와 함께 이용 ····· 331
〈부록 표 Ⅲ-4-2〉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2) 보호자와 이용 콘텐츠 함께 고르기 ····· 332
〈부록 표 Ⅲ-4-3〉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3) 보호자가 자녀와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하기 ···· 333
〈부록 표 Ⅲ-4-4〉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4) 유해하거나 이용을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사이트, 앱 차단 · 334
〈부록 표 Ⅲ-4-5〉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5) 자녀가 이용한 콘텐츠 확인 ····· 335
〈부록 표 Ⅲ-4-6〉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6) 미디어 이용 시간 제어 앱 활용 이용 시간 관리 ····· 336
〈부록 표 Ⅲ-4-7〉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7)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꺼놓기 ····· 337
〈부록 표 Ⅲ-4-8〉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8) 보호자가 있는 공간에서 이용하게 하기 ····· 338
〈부록 표 Ⅲ-4-9〉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 339
〈부록 표 Ⅲ-4-10〉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340
〈부록 표 Ⅲ-5-1〉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을 받으려는 이유 (1순위) ····· 341
〈부록 표 Ⅲ-5-2〉 영유아 미디어 이용 교육에 희망하는 내용(1순위) ····· 342
〈부록 표 Ⅲ-5-3〉 영유아 미디어 이용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 (1순위) ····· 343
〈부록 표 Ⅲ-6-1〉 다음의 미디어 유형에 따른 영유아의 적정 시작 연령: 1) TV ····· 343
〈부록 표 Ⅲ-6-2〉 다음의 미디어 유형에 따른 영유아의 적정 시작 연령: 2) 개인용 컴퓨터 (데스크톱 PC, 노트북) ····· 344
〈부록 표 Ⅲ-6-3〉 다음의 미디어 유형에 따른 영유아의 적정 시작 연령: 3) 태블릿 PC (갤럭시탭, 윈도우 탭, 아이패드 등) ····· 344
〈부록 표 Ⅲ-6-4〉 다음의 미디어 유형에 따른 영유아의 적정 시작 연령: 4) 게임콘솔 ····· 345
〈부록 표 Ⅲ-6-5〉 하루 최대 이용 시간: 모든 유형의 미디어 ····· 346
〈부록 표 Ⅲ-6-6〉 하루 최대 이용 시간: 1) TV ····· 347
〈부록 표 Ⅲ-6-7〉 하루 최대 이용 시간: 2) 개인용 컴퓨터 (데스크톱 PC, 노트북) ····· 348
〈부록 표 Ⅲ-6-8〉 하루 최대 이용 시간: 3) 태블릿 PC (갤럭시탭, 윈도우 탭, 아이패드 등) ····· 349
〈부록 표 Ⅲ-6-9〉 하루 최대 이용 시간: 4) 게임콘솔 ····· 350
〈부록 표 Ⅲ-6-10〉 하루 최대 이용 시간: 5) 기타(인공지능 스피커, 가상현실 기기 등) ····· 351
〈부록 표 Ⅲ-6-11〉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1) 정보/교육용 동영상 ····· 352
〈부록 표 Ⅲ-6-12〉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2) 오락용 동영상 ····· 353
〈부록 표 Ⅲ-6-13〉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3) 음악 동영상 및 음악용 앱 ····· 354
〈부록 표 Ⅲ-6-14〉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4) 교육용 앱, 프로그램 (교육용 게임 포함) ····· 355
〈부록 표 Ⅲ-6-15〉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5) 오락용 게임 ····· 356

〈부록 표 Ⅲ-6-16〉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6) 전자책 ····· 357
〈부록 표 Ⅲ-6-17〉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7) 인터넷 검색용 ····· 358
〈부록 표 Ⅲ-6-18〉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8) 화상통화·미팅, 메신저 ····· 359
〈부록 표 Ⅲ-6-19〉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9) SNS (인*타그램,페*스북 등) ····· 360
〈부록 표 Ⅲ-6-20〉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10) 운동용 앱 프로그램 ····· 361
〈부록 표 Ⅲ-6-21〉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11) 음악용 앱 (멜*) ····· 362
〈부록 표 Ⅲ-6-22〉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12) 사진, 동영상 촬영 ····· 363
〈부록 표 Ⅲ-6-23〉 영유아를 위한 교육매체로 활용하기에 유용한 미디어 기기
(1순위) ····· 364
〈부록 표 Ⅲ-6-24〉 영유아들의 '미래환경 준비'를 위해 활용이 필요한 미디어 기기
(1순위) ····· 364
〈부록 표 Ⅲ-6-25〉 영유아의 '과의존' 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미디어 기기
(1순위) ····· 365
〈부록 표 Ⅴ-3-1〉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 여부 ····· 365
〈부록 표 Ⅴ-4-1〉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1)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지침에 대한 홍보 강화 ····· 366
〈부록 표 Ⅴ-4-2〉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2)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사 교육 확대 ····· 367
〈부록 표 Ⅴ-4-3〉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3)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확대 ····· 368
〈부록 표 Ⅴ-4-4〉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4) 영유아 대상 미디어 이용 교육 강화 ····· 369
〈부록 표 Ⅴ-4-5〉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5)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 ····· 370
〈부록 표 Ⅴ-4-6〉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6)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연령별 적합한 미디어 콘테츠 기준

개발, 배포 ····· 371
〈부록 표 Ⅴ-4-7〉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7) 미디어 콘텐츠 공급자들이 지켜야 할 영유아용 콘텐츠 적합성 기준을 배포하고, 위반시 제재 마련 ····· 372
〈부록 표 Ⅴ-4-8〉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8) 영유아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373
〈부록 표 Ⅴ-4-9〉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9) 아동용 앱, 아동용 채널(ex. 유투브 키즈 등)의 광고 및 알고리즘 생성 제한 ····· 374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미디어 이용 시기의 하향화,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영유아의 적정한 미디어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미디어 이용이 취학전 영유아 시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유아기부터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교육콘텐츠가 활용되는 등 미디어 기기 이용의 필요성도 증가함.
- 영유아기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이 중독적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등 미디어가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부정적인 결과가 확인되고 있음.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준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주요하게 수행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 이에 부모들에게 미디어 매체 이용의 영향과 적절한 기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은 마련이 되어 있으나, 실제 영유아 가정에서의 인지나 활용도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목적

- 가정과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보육·교육 활용 실태 및 미디어 이용 지도 실태를 파악함.
- 적절한 미디어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국내·외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국내·외 영유아 미디어 관련 정책을 살펴봄.

□ 실태조사를 통해 가정 및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지도·관리 현황, 정책 요구도를 파악함.

□ 영유아의 적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둔 정책방안을 제안함.

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조사업체 패널을 활용해 전국의 0-6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함.
- 어린이집, 유치원 총 508개원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기관 교육·보육활동에서의 미디어 활용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

□ 심층면담

-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실태와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사례 6사례, 과의존 문제를 보이는 영유아 6사례 등 총 12사례에 대해 심층면담을 실시함.

□ 자문회의 개최

- 연구 방향설정, 질문지 검토, 가정 및 기관에서의 올바른 지도 방법에 대한 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함

□ 정책 세미나 개최

2.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지도 실태

가. 가정 내 미디어 보유 및 이용실태

□ 미디어 기기 보유 및 이용 현황

- 영유아 가정의 미디어 기기 보유는 스마트폰(99.6%), TV(94.3%),개인용 컴퓨터(90.7%), 태블릿 PC(74.4%),인공지능 스피커(46.9%), 게임콘솔(35.3%), 교육용 단말기(28.7%), 전자책 단말기(7.6%), 가상현실 기기(7.1%) 순으로 비교적 다양한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양육자는 스마트폰을 1일 평균 2~4시간 이용이 53.1%, 5시간 이상 이용이 22.4%로 비교적 긴 시간 이용하고 있음. 스마트폰을 가장 장시간 이용하며, TV를 그 다음으로 장시간 이용하고 있음.
- 보유 미디어 기기의 자녀 이용률은 교육용 단말기가 82.8%로 가장 높고, TV(79.0%), 태블릿 PC(58.1%), 스마트폰(44.6%), 게임콘솔(40.5%), 인공지능 스피커(38.5%), 전자책 단말기(24.6%), 개인용 컴퓨터(11.3%), 가상현실 기기(6.6%) 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의 경우 특히 태블릿PC의 이용과 관련한 주의점이 발견됨. 태블릿PC는 가정 보급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기기로, '동영상 시청'에 집중되어 있는 영유아의 사용 용도를 고려할 때 높은 휴대성을 지니면서 스마트폰보다 큰 화면을 갖춘 태블릿PC의 이용이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발현시킬 가능성도 높음.

□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 식사 중, 잠자기 전, 운전 중, 누워서 사용, 여러 미디어 멀티 사용 등으로 살펴본 결과 영유아 가구의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나.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1] 보유 실태

- 영유아 중 17.2%가 본인의 스마트폰(공기계포함)을 보유하고 있음.
- 영유아의 스마트폰 최초 보유 시기는 평균 3.6세임.

□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 실태

-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을 영아기(36개월 미만)에 시작한 경우가 69.2%임. 영유아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이용 시작 시기는 부모의 연령대가 어릴수록, 미취업모 가구인 경우, 출생 순위가 둘째 이상일수록 빠른 경향을 보임.
- 영유아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주중에는 하루 평균 55.3분, 주말에는 하루 평균 97.6분 이용하며, 부모 모두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연령이 많을수록 주중 평균 이용시간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1) 태블릿 PC: 갤럭시 탭, 아이패드 등

- 한편,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 시간을 1회 이용 시 평균 44.3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남. 1회당 평균 이용 제한시간은 영아 30.8분, 유아 51.8분임.
-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해당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동영상 시청 85.9%, 사진/동영상 촬영 50.6%, 게임/놀이 45.9%, 교육용 앱 42.4%, 통화 30.3%, 인터넷 검색 26.7%, 메신저 9.8%, SNS 5.8%, 웹툰/웹소설 4.0%, 기타 4.2% 등임.
- 영유아 부모는 취학 전 영유아 시기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의 이용시간으로 적정한 것은 하루평균 총 83.1분(약 1시간 23분)으로 인식함. 85.6%는 1시간 미만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영유아 자녀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이용용도는 성인의 시간확보나 편의를 위해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요약 표 2-1〉 영유아에게 스마트폰·태블릿 PC를 허용하는 목적별 경험

단위: %(명)

스마트폰·태블릿PC 허용 목적	있음	없음	계(수)
1)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	9.8	90.2	100.0 (1,496)
2)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등원 준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22.7	77.3	100.0 (1,496)
3) 자리에 앉아 식사를 빨리하게 하기 위해	38.2	61.8	100.0 (1,496)
4)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시키기 위해(식당, 카페, 병원, 관공서 등)	74.3	25.7	100.0 (1,496)
5) 보호자의 일을(예: 식사준비, 청소, 업무)자녀의 방해 없이 하기 위해	70.2	29.8	100.0 (1,496)
6) 교육용 어플, 동영상 이용, 온라인 수업(Zoom 등을 활용)을 위해	52.0	48.0	100.0 (1,496)
7)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 이용하게 함	56.2	43.8	100.0 (1,496)
8) 잠을 재우기 위해	12.1	87.9	100.0 (1,496)
9)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원할 때 허용함	42.4	57.6	100.0 (1,496)
10) 기타	5.1	94.9	100.0 (1,496)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TV 이용 실태

- 영유아의 TV 시청은 생후 6개월~12개월 미만 28.2%, 12개월~18개월 미만 29.4%로 돌 전후로 많은 경우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주중 약 1시간 18분, 주말은 약 2시간 11분임.

- 영유아 자녀에게 TV 시청을 허용하는 경우는 보호자의 일을 자녀의 방해없이 하기 위해(79.8%)가 가장 많았음. 이외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 이용(57.8%)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원할 때 허용(49.4%), 교육용 프로그램/어플, 온라인 수업을 위해(47.7%), 기관 등원 준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39.1%), 자리에 앉아 식사를 빨리 하게 하기 위해(37.8%),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2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PC(데스크톱·노트북) 이용 실태

- 영유아 자녀의 PC 이용 시작 시기는 만 3세 이상 유아기인 경우가 많음.
- 영유아의 하루평균 PC 이용시간은 주중 34.1분, 주말 43.6분임.
- 영유아 가구에서는 PC를 주로 여가/놀이 및 온라인 학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1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는 적음.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방법

- 영유아 자녀는 보호자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경우(66.9%)가 가장 많고,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녀에게 이용 허락(41.1%), 가족이 이용할 때 같이 이용함(19.7%), 자녀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이용 가능(10.5%), 기타(2.9%)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의 변화

- 66.8%의 영유아가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기기 이용이 증가함.
-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1+2순위)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심심해해서'(91.3%)이며, 영아는 '양육자와 미디어를 함께 이용할 기회가 많아져서'(51.4%), 유아는 '원격수업/온라인 학습지로 미디어에 친숙해져서'(34.0%)가 두 번째로 많이 응답된 이유임.
-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이용이 가장 증가한 미디어 기기는 TV(38.7%), 스마트폰(34.2%), 태블릿 PC(23.0%)의 순임.
- 코로나19 이후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2]에서 원격수업을 시행한 경우는 30.2%였음.
- 원격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평소 미디어 기기 이용시간에 비해 원격수업 시행 후 이용시간이 증가한 경우는 56.1%임.

2) 반일제 이상 기관, 시간제 학원 모두 포함

다.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실태

□ 가정에서의 미디어 기기 관리 현황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제한을 위한 기술적 방안 중 부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기기 비밀번호 설정'으로 39.4%가 적용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콘텐츠 제한(필터)설정 36.1%, 미디어 이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앱 설치가 23.0%로 적용 경험 비율이 가장 낮았음.

□ 가정에서의 미디어 이용 지도 현황

- 가정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로 가장 잘 활용되는 방법은 '보호자가 있는 공간에서만 미디어기기를 이용하게 하기'였음(항상 한다 52.3%, 자주 함 24.2%). 이밖에 '항상+자주'활용 비율이 높은 지도 방법은 '미디어 이용하지 않을 때 꺼놓기' 67.8%, '보호자와 함께 이용' 59.4%, '유해하거나 이용을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사이트, 앱 차단'이 58.7%, '자녀가 이용한 콘텐츠 확인' 54.3%, '보호자와 이용 콘텐츠 함께 고르기' 53.3%, '보호자가 자녀와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하기'48.1%, '미디어 이용 시간 제어 앱 활용 이용 시간 관리' 35.1% 순으로 나타남.
- 가정에서 보호자들이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미디어 콘텐츠가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지를 '항상+자주'확인한다는 비율이 64.1%에 달함.

□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 활용 실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는 '영유아용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72.6%임.
-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대로 지도하고 있다는 경우가 28.6%, 대부분 지켜서 지도한다는 경우가 35.7%임.

라.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실태와 요구

□ 부모교육 경험 실태

- 영유아 부모들 중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와 관련된 내용의 부모교육을 받은 경우는 1500사례 중 16.3%에 해당함.

□ 부모교육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도움 정도와 요구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 관련 부모교육을 받은 경우, '도움됨' 78.7%, '매우 도움됨' 6.1%로 '도움이 되었다(도움됨+매우 도움됨)'는 의견이 84.8%에 달함.

□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부모교육 미경험자의 향후 교육 이수 의사

- 미디어 관련 부모교육 미경험자의 향후 부모교육을 받을 의사는 82.0%임.
- 향후 미디어 지도 관련 부모교육을 받으려는 이유는 자녀가 영아인 경우 '자녀에게 어떤 미디어 기기를 언제부터, 얼마나 이용하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가 가장 많았음(27.2%).
- 자녀가 유아인 경우는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을 예방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24.5%), '자녀 연령에 맞는 좋은 콘텐츠 정보를 알고 싶어서' 23.8%, '자녀에게 어떤 미디어를 언제부터, 얼마나 이용하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23.7%로 응답됨.

마.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의견

- 부모가 생각하는 미디어 유형별 영유아의 적정 이용 시작 연령은 TV는 평균 만2.8세, 개인용 컴퓨터는 만5.8세, 태블릿PC는 만4.6세, 게임콘솔은 만6.7세로 나타남.
- 모든 유형의 미디어를 합하여 영유아 시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은 97.3분으로 응답됨.
- 미디어로 이용하는 콘텐츠 중 '정보/교육용 동영상'은 영유아 시기에 이용해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91.4%(매우 바람직 17.5%+바람직 72.9%)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았으나, SNS는 87.2%가 바람직하지 않다(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47.9%+바람직하지 않음 39.4%)고 응답함. 이외 '오락용 게임'(79.5%), '오락용 동영상'(74.6%)도 영유아 시기에 이용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은 콘텐츠 유형이었음.
- 영유아 부모들이 미디어 기기들 중 영유아를 위한 교육매체로 활용하기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기기는 '태블릿PC'(59.9%)이며, 영유아들의 '미래환경 준비'를 위해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기기도 '태블릿PC'(60.1%)가 가장 높게 응답됨.

- 영유아의 '과의존'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유형으로는 스마트폰이 가장 영유아의 과의존 위험성이 높은 미디어 기기로 인식되고 있었음(75.6%).

4. 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지도 실태

가. 보육·교육기관의 미디어 보유 및 보육·교육 활용 실태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보유하고 학급의 교육·보육 활동에서 활용하고 있음.

- TV, 개인용 컴퓨터, 빔프로젝터는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는 92.5%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며, TV 79.9%, 빔프로젝터 54.5%, 기관공용 카메라 31.5%, 태블릿 pc 26.2%의 보유율이 높았음.

□ 보유 기기에 따라 교육·보육에서의 활용율은 차이를 보임

- TV 학급에서의 활용률이 84.5%로 가장 높았음.
- 빔프로젝터는 미디어 기기 중 보유율은 상당히 높은 편인 54.5%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학급에서의 활용률은 55.6%로 보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도를 보임.
- 태블릿 PC는 전체 기관의 약 1/4인 26.2%만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학급 활용률은 72.2%로 높게 나타남. 인공지능 스피커, 가상현실(VR) 기기, 전자책 단말기 등은 현재 보유율을 10%를 하회하는 미미한 수준이나 담당학급의 활용율은 66.7%~76.9%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미디어의 교육·보육 활용률은 기관 유형·연령반에 따른 차이를 보임

- 교육·보육 활동에서의 미디어 활용률은 현재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서 높게 나타남. 유치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반의 미디어 활용도가 높아져, 5세반의 경우 거의 모든 유치원이(97.6%) 활용하고 있음.

□ 미디어는 정규 수업 시간 활용율이 높음

-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미디어를 정규수업시간(69.9%)에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외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시간(39.7%), 하원시간(34.7%) 순으로 나타남.

□ 담당학급 보육·교육활동에서의 미디어 활용 실태

- 기관에서 보유중인 미디어 중 가장 자주 이용하는 미디어는 TV로 주당 평균 4회 이용하며, 컴퓨터(주당 평균 3.5회), 인공지능 스피커(2.8회), 기관 공용 카메라(2.6회), 태블릿PC(2.3회) 순으로 사용 빈도가 높았음.
- 회당 평균 이용 시간은 전자책이 가장 짧아 12.5분이며 빔프로젝터가 가장 이용 시간이 길었으나(18.7분) 모두 20분 미만으로 길지 않았음.

나.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실태

□ 기관에서의 미디어 이용 지도 현황

- 교육·보육활동에서 미디어 이용 시, '연령별 권장 시간 내 이용 시간의 제한'은 기관에서 가장 일반적인 미디어 지도의 유형으로 파악됨(항상 함 73.7%). 특히 2세반 이하의 교사들이 연령별 권장시간 제한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 '항상 한다'의 기준으로 많은 교사가 하고 있는 지도방법은 '교사와 함께 이용'(58.4%), '영유아가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서 교사가 함께 이야기하기'(47.1%)이며,'영유아가 콘텐츠를 고르는 것을 교사가 함께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았음(29.6%).

□ 교사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활용 실태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16.9%에 불과함. 25.6%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
-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는 교사의 경우 대부분(95.4%)이 가이드라인을 대체로 지키거나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영유아 미디어 이용을 위한 교육 제공 실태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비교적 높음

- 전체의 70.3%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교사들이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을 통해 교육 받은 내용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 올바른 지도방법'(77.0%), '미디어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76.8%), '미디어 중독 및 과의존 관련 내용'(62.7%), '연령별 이용 시간 기

준' 49.3%순임.

- 상대적으로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나 유해 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기술적 방법, 법과 정책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저조하였음.

□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은 교육·보육 활동 시 교사들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 부분은 교육을 통해 영유아 교사가 '미디어 이용과 영유아의 발달간의 관계에 대해 인지하게 됨으로써 미디어 이용에 주의하게 된 부분'(42.9%)이었음.

□ 응답자 대부분은(94.9%)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3~5세반을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유치원 교사의 경우, 20~30대 연령의 교사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음.

- 교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미디어 교육의 내용은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 올바른 지도 방법'이었음(35.3%).

□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는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육에 65.8%가 참여 의사가 있음.

- 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부모 대상 미디어 이용 교육 제공 실태

- 올해 기관에서 실시한 미디어 교육에 대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은 54.3%, 부모교육은 27.8%가 실시하였다고 응답함.

- 기관에서 영유아나 부모를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사나 원장이 실시한 경우가 가장 많고(교사 59.3%, 원장 26.6%),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한 경우는 24.6%였음.

라. 보육·교육 활동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의견

□ 콘텐츠별로 교육·보육 활동에 적합성 정도는 차이가 있음.

- 교사들은 정보/교육용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고(매우 바람직+바람직 93.9%), 음악동영상 (89.0%), 사진, 동영상 촬영(88.8%), 인터넷 검색용(79.1%), 교육용 앱, 프로그램(76.6%), 음악용 앱

(76.0%) 순으로 응답됨.

□ 교사들은 미디어 기기 및 콘텐츠를 활용한 활동이 교육·보육 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이 미디어 콘텐츠별 교실내 활동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꼽은 것은 오락용 동영상, 화상통화 및 메신저였음.

□ 영유아의 교육매체로 유용한 미디어 기기

- 교사들은 영유아를 위한 교육매체로 가장 유용한 미디어 기기로 컴퓨터를 꼽았으며(1순위: 42.3%; 1+2순위 72.8%, 스마트TV(51.2%), 태블PC(45.3%), 스마트폰(28.1%), 인공지능 스피커(19.5%)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의 '미래환경 준비'를 위해 활용이 필요한 미디어 기기

- 영유아가 미래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많이 활용해야 할 미디어 기기로 1순위는 텔레비전이 가장 많이 꼽혔으나 1+2순위 및 1+2+3순위의 합계에서는 태블릿 PC가 가장 높았음.

□ 영유아의 과의존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기기

- 영유아가 이용할 경우 '과의존'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에 대해 교사들은 압도적으로 스마트폰을 꼽음(1순위 56.9%, 1+2순위 69.9%, 1+2+3순위 81.1%).

5.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과 정책 요구

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

□ 가정에서의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

- '자녀가 이용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음'이 38.4%, '가사 일 등으로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 시간이 부족함'(24.9%), '집에서 지도해도 외부에서 지켜지지 않음'(16.5%), '적절한 지도 방법을 모름'(12.7%)순으로 나타남.

□ 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과 요구

- 가정과의 지도 연계 어려움,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 업무 부담에 따른 적절한 미디어 이용 지도의 어려움 토로

나.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현황과 대처 실태

□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과의존 현황과 대응 실태

- 영유아가 미디어 과의존성을 의심해 본 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 1500사례 중 20.1%로 나타남. 이중 실제로 가정이나 기관에서 미디어 과의존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는 경우는 54.8%였음.
- 과의존 의심 행동을 보인 경우 '미디어 과의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확인해 본 비율이 17.6%, '전문적 상담·치료'를 받아본 경험 비율은 12.7% 였음.

□ 기관에서의 미디어 과의존 의심 영유아의 현황과 대응 실태

- 조사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중 31.7%에서 미디어 과의존이 의심되는 영유아가 있으며, 과의존 의심 영유아 중 미디어 과의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문제 행동을 보인 경우는 60.2%임.
-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과의존으로 의심되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부모면담을 통해 가정에서의 교육과 지도를 요청'하는 것이 주된 대처방법이었음(78.4%). 다음으로는 '주임교사나 원감, 원장과 상의하여 지도 방법을 모색함' 26.8%, '보조교사나 도움인력에게 문제 아동을 전담하여 돌보도록 함' 9.3%로 응답됨.
-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구함' 3.1%, '스마트쉼 센터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함'3.1% 등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전문인력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희소하였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우도 3.1%였음.

다. 영유아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요구

□ 부모의 요구

- 부모 조사 결과에서는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확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1%로 가장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정책으로 나타남.
- 이외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지침에 대한 홍보 강화' 93.2%, '영유아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93.2%,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연령별 적합한 콘텐츠 기준 개발, 배포' 91.3%, '아동용 앱, 아동용 채널(예:** 키즈 등)에서의 광고 및 알고리즘 생성 제한' 90.8% 등은

조사 응답자의 90% 이상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단,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의 경우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 됨(59.6%).

□ 기관의 요구

- 어린이집, 유치원의 담임교사는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는 의견이 98.0%로 필요성 정도가 가장 높은 방안으로 나타남.
- 이밖에 '영유아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96.5%,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지침에 대한 홍보 강화' 96.3%,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연령별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 기준 개발, 발표'95.7% 등이 정책필요성이 높은 방안으로 응답되었고, 제시된 대부분의 정책 방안의 필요성이 90%이상 높게 응답되었음.
- 단,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예: 연령별 이용 시간 제한 및 위반시 제재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5.0%에 달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었음.

6. 정책제언

가. 정책방향

□ 변화하는 영유아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

- 이처럼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도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시대의 변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
- 코로나19 지속, 일상화로 향후 미래교육의 방향에서는 원격교육의 방식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한 변화를 예견하고 있어, 영유아교육·보육활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를 전제한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임.

□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미디어 환경 조성

- 취학전 영유아에 있어서 미디어의 최초 이용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의해 말 그대로 '노출'된 결과임. '적정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미디어 환경'의 조성, 그것도 가급적 빠른 시기에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육 확대와 교육 기반 조성

□ 부모 대상 가정 내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강화

- 보육·교육 기관 이용 영유아 부모 대상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제공 의무화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54조에 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 외에 '영유아 부모'를 의무 교육 대상으로 추가를 제안

〈요약 표 6-1〉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변경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기관 이용 영유아	기관 이용 영유아, 영유아의 부모
비고		- 영유아 연령별 교육 내용의 차별화 - 전문화, 심화된 시리즈 교육 개발 -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을 활용한 기관 미이용 영유아 부모 미디어 이용 지도 강화
  - 이러한 영유아건강검진시의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여 제공. 영유아 건강검진 4차와 7차 사이의 간격이 다소 넓은 편으로 1회 정도 추가하여 제공

〈요약 표 6-2〉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전자미디어 노출'에 대한 건강 교육 및 상담 강화(안)

	제공 회차						
	1차 (생후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54~60개월)	7차 (66~71개월)
변경 전		■		■			■
변경 후		◎	◎	◎	◎		◎

□ 교직원 대상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강화

- 교직원 대상 보수 교육 강화
  - 교육 내용으로는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 올바른 지도 방법', '미디어 이용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필수 포함. 보육·교육 활동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미디어 콘텐츠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콘텐츠 식별 방법', '영유아를 위한 연령별 추천콘텐츠' 등도포함.
  - 고연령, 고경력 교사를 위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제공

- 교직원 양성 교육에 미디어 이용 지도 관련 필수이수과목 추가
  - 예비교사의 미디어리터러시를 함양하고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필수이수과목으로 관련 과목을 개설할 것을 제안

□ 휴대성 높은 스마트기기에 대한 보호자용 교육 강화

□ 미디어 교육 확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

-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욕구에 맞는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으로 제안함.

다. 보육·교육 활동에서의 미디어 이용 지침의 개발·배포

□ 원격 수업 활용에 따른 가정용 미디어 이용 지침 개발·배포와 교육 제공

□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용 미디어 이용 지침 개발·배포

- 현재 누리과정 포털(i-nuri.go.kr)에서 제공되고 있는 '유아 원격교육을 위한 교사 지원 자료(김은영 외, 2020)'와 구별되는'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용 미디어 이용 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을 제안함.

라. 영유아를 위한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의 배포처 확대와 제작·홍보 방식의 다양화

- 보건소·산부인과·소아과 등 부모와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을 주요 배포처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배포되도록 함.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추려 지하철 광고판 등을 활용한 홍보
- 가이드라인을 카드뉴스, 웹툰 등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배포

마. 영유아의 미디어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정책 방안

□ 영유아의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이용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 반영

- 3-5세 유아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도 영유아기 부터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이해와 선별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함.

〈요약 표 6-3〉 영유아의 미디어의 적정한 이용 능력 함양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안)'

제 13조(교육과정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보호 관련 법령의 영유아 대상 명시

〈요약 표 6-4〉 영유아의 유해한 미디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법률	개정(안)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청소년·**영유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영유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영유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과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 영유아용 콘텐츠의 적합성 제고 방안

□ 연령별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 선별 기준 개발 및 연령별 추천 콘텐츠 목록 제공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5항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의 분류기준을 세분화하여 취학전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것을 제안함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영유아의 건전한 미디어 이용을 돕기 위해 이러한 연령 기준에 의해 유익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연령별 추천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함.

□ 청소년 보호법의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와 유통 규제 영유아에 확대 적용

□ 영유아 대상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의 자체 동영상 심의 기구 설치 의무화

□ 아동용 앱, 아동용 채널에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광고에 한정한 게시 및 자동추천 알고리즘 배제

아. 미디어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I

서 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 내용
03 연구 방법
04 주요 용어 정의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통신기술과 뉴미디어의 발전으로 미디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미디어를 처음 이용하는 연령이 빠르게 하향화되어(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13) 영유아에게도 미디어 이용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2020년에 만3세 이상 만9세 이하 어린이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에서는 만3세~9세 이하 아동도 텔레비전 90.1%, 스마트폰 82.8% 등 미디어 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어떠한 미디어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62-63). 또한 이용 시간도 하루 평균 텔레비전 2시간 10분, 스마트폰 80.9분, 태블릿pc 48.3분, 컴퓨터 25.6분 등 4시간 45분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64). 그간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등 관련 조사에서 나타난 영유아 관련 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되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어 기기에 둘러싸여 자라나는 환경이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 조사의 필요성으로 2020년 처음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가 실시되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13).

'디지털 네이티브',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이 4차 혁명의 시대에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미디어 이용은 취학전 영유아 시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영유아기부터 스마트폰, pc 등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영유아기부터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교육콘텐츠가 활용되는 등 미디어 기기 이용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기관의 휴원에 따른 가정 보육의 증가로 유아의 경우 온라인 통신 교육의 이용 비중이 이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최효미 외, 2020: 167). 즉,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계기로 재조명된 '온택트[3]' 교육 방식의 활용이 활성화

되면 이러한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미디어의 이용은 이 시대의 필수적인 역량이 될 수 있다.

한편,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보편화되고 무엇보다 이용 시작 연령이 하향화되면서 미디어 이용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관련 연구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가 확인되고 있다(김종민 외, 2014; 홍광표·조준오, 2015; 김보라·신혜원, 2019). 즉,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길수록 언어발달 수준이 낮거나(이민주 외, 2015: 43; 배소영·정연구, 2015: 88), 초등학교 적응 또는 학교준비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희·오새니, 2019: 100; 이상희·이정미, 2019: 144).

또한 소아청소년기는 뇌 발달과 전두엽 발달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시기로 쉽게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되고 있는 바와 같이(이해국·신윤미, 2019: 71) 영유아기의 스마트 미디어의 이용이 중독적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3~9세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2.9%로 2017년 19.1%, 2018년 20.7%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청소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과의존 위험군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a: 34). 스마트폰 과의존은 영유아의 우울과 불안, 과잉행동, 공격성 등 성장기 유아의 정서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17a: 14).

그러나, 스크린 미디어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다(Linebarger & Vaala, 2010: 배소영·정연구, 2015: 72에서 재인용). 또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노출 시기가 부모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이정림 외, 2013: 76-77)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부모가 적절하게 개입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는 점은(김은지·전귀연, 2020)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는 적절

3)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가리킴. 대표적인 사례로 온라인을 통한 전시회·공연의 증가, 재택근무로 인한 화상회의, 온랄인 개학에 따른 교육 분야의 비대면 학습 이용자 증가 등을 들 수 있음(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온택트. https://terms.naver.com/print.nhn?docId=5944172&cid=43667&categoryId=43667에서 2021. 3. 17. 인출)

한 기준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주요하게 수행할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

부모들이 자녀의 미디어 매체 이용을 허용하는 주요한 이유는 매체별 공통적으로는 자녀가 미디어를 이용할 때 즐거워하거나 혼자 놀게 하기 위해서이며, 컴퓨터의 경우는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TV는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므로, 스마트기기는 최신 기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이정림 외, 2013: 85) 매체에 기대하는 특성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놀이, 언어발달, 학습능력 향상 등 다양한 효용을 기대하며 자녀에게 미디어 매체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미디어 매체 이용의 영향과 적절한 기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 시기의 적절한 미디어 이용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지침과 이에 기반한 관리가 필요한데, 영유아의 미디어 과몰입의 위험성에 대한 국가 수준의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19h; 2019i). 2017년에도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2016-2018)'에 맞춰 2013년 개발한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17a: 4) '영유아(0~5세)'. '영유아 학부모'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아동·청소년 학부모', '성인·고령층(19세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개발된 바 있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17a: 6) 영유아 대상의 미디어 이용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은 세계보건기구(2019), 미국 소아과학회(2016) 등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근거로 미디어의 적절한 이용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도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19h; 2019i). 그러나, 영유아의 가정에서 얼마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는 현재 파악되고 있지 않아,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파악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해외에서도 다양한 영유아용 미디어 이용 가이드라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자율적 활용에 맡기지 않고 법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입법을 통해 영유아의 적정한 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7344호)] 제 51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제54조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관련 교육을 연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영유아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미디어 이용 관련 입법의 전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정과 보육·교육기관에서 영유아들의 미디어 이용, 보육·교육 활용 실태를 살펴보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있는 미디어 이용의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가정과 기관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으며, 적절한 미디어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은 무엇인지 정책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과 같은 자율성에 기반한 관리 방안 외에 미디어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는 한편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함양하는 선에서 적절한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관련 이슈를 학술논문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교육학습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스마트기기, 인터넷, 게임 사용 및 지도, 중독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있고, 2019년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4) 앞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영유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아이뉴스24, 2018. 12. 17.). 「'영유아 셧다운제' 법제화 한다...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https://www.inews24.com/view/1146110 에서 2021. 3. 17 인출)

에서 영유아를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 바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19h; 2019i). 다만 이들 가이드라인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고 산재되어 개발·보급되어 있어, 이러한 국내 미디어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세부 구성과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국외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보급되고 있는 미디어 이용 지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셋째, 실태조사를 통해 가정 및 영유아가 이용하는 보육· 교육 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지도·관리 현황, 정책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영유아의 부모와 기관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정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에서 스마트폰, pc, TV, 태블릿 pc 등의 이용 현황을 놀이와 교육 용도로 구분한 이용 실태,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인지 및 활용 여부, 기타 영유아의 이용 지도 방법,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과 정책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넷째, 영유아의 가정과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에서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적정하게 유도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실태, 미디어 이용의 영향, 미디어 이용의 적정성 논의에 대한 선행 연구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의 아동·청소년 대상의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해외의 정책 사례를 파악하였다.

나. 설문조사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목적에 따른 이용 시간 등 이용 행태, 가정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는 지침과 관리 방법,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

해 0-6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면접 조사가 어려움에 따라 조사업체 패널을 활용, 전국의 0-6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997만 가구 중 1,991만 가구가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도 인터넷 이용률이 8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5) 전국의 영유아 가구를 목표 모집단으로 하여 아동의 연령, 맞벌이 비율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여 총 1,500사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활용 목적과 활용량(시간), 활용 방법, 활용 및 지도 지침과 행태,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부모교육, 영유아 대상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직중인 담임교사 대상의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어린이집 250개소, 유치원 250개원 등 총 500개원의 담임교사 대상의 조사를 목표로 실시하여 최종 508개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표 Ⅰ-3-1〉 설문조사 개요

조사 대상	조사 수행 시기	주요 내용
영유아의 부모	'21. 8월	• 가정의 미디어 환경과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미디어 보유 현황,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미디어 유형별 최초 이용시기, 최초 이용 시기, 이용 시간, 이용 목적) • 가정에서의 미디어 이용 지도 현황(지도 방법, 기술적 방안 이용 여부, 가이드라인의 인지 및 활용) • 코로나19 이후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변화 • 영유아의 적정한 미디어 이용에 관한 의견(적정한 이용 시기 및 시간, 콘텐츠) •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수혜 경험과 가이드라인의 활용 현황 • 미디어 과의존 영유아 현황 •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 및 정책요구
어린이집 ·유치원 담임교사	'21. 7~8월	• 기관의 미디어 보유 현황과 보육·교육활동의 활용 실태 (주요 이용 상황, 이용 시간대, 이용 시간,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 • 영유아의 적정한 미디어 이용에 관한 의견(적정한 이용 시기 및 시간, 콘텐츠, 이용 교육의 필요성) •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사교육 수혜 경험과 가이드라인의 활용 현황 • 가정과의 연계 지도(아동 대상 교육, 부모교육 제공 여부) • 미디어 과의존 영유아 현황 • 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 및 정책요구

다. 심층면담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실태와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인 영유아 가정과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보이는 영유아의 사례에 대한 심층면담을 추진하여 일반 사례 6사례, 과의존 문제를 보이는 영유아 6사례 등 총 12사례에 대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사례는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영유아 부모 대상의 설문조사 참여자 중 심층면담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 중 미디어 과의존 의심 사례가 50% 포함되도록 배분하여 섭외하였으며, 이외 영아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배분하였다. 미디어 과의존이 의심되는 사례는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지의 문항 23번에서 보기 ①번에 응답한 경우에 해당된다[5].

〈표 Ⅰ-3-2〉 심층면담 사례

번호	대상 아동 성별	대상 아동 연령	자녀 수	대상 아동 출생 순위	반일제 이상 기관	거주지역	맞벌이 여부	가구 소득 수준	대상아동 미디어 과의존 의심여부
1	여	1	1	1	어린이집	경북	맞벌이	400~500만원	○
2	여	4	1	1	어린이집	경기	맞벌이	700만원 이상	○
3	남	5	2	2	어린이집	경기	외벌이	400~500만원	○
4	남	4	1	1	유치원	서울	외벌이	700만원 이상	○
5	여	2	2	2	어린이집	경북	맞벌이	500~600만원	○
6	남	6	2	2	유치원	경기	외벌이	500~600만원	○
7	여	6	2	2	어린이집	서울	외벌이	700만원 이상	×
8	남	6	1	1	어린이집	전북	맞벌이	700만원 이상	×
9	여	3	2	2	어린이집	대전	외벌이	200~250만원	×
10	남	5	2	2	유치원	경기	외벌이	400~450만원	×
11	여	5	1	1	유치원	경남	외벌이	300~350만원	×
12	여	0	1	1	미이용	경기	외벌이	300~350만원	×

5) 문23. 귀댁의 응답대상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자녀를 돌봐주는 분으로부터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거나 귀하께서 자녀가 미디어에 과의존적이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 문 23-1) ② 없음

라. 자문회의 개최

연구 방향설정, 질문지 검토, 가정 및 기관에서의 올바른 지도 방법에 대한 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표 Ⅰ-3-3〉 자문회의 개최 현황

구분	일정	안건	대상
1차 (서면)	5.20 ~ 5.26	•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지도 실태 조사 설문지 2종(부모용, 기관용) 검토	관련 전공교수 3인 (유아교육, 사회복지, 아동학)
2차	5.27	• 영유아의 적정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연구방향 검토 - 영유아 미디어 이용 적정성 판단 기준 - 정책 방향(법적 규제의 가능성과 규제 방향, 영유아기 미디어리터러시 함양 지원의 필요성 등) • 설문 내용 검토	관련 분야 교수/박사 2인 (미디어학과, 관련 재단)
3차 (서면)	5.26 ~ 6.4	•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법적 규제의 가능성과 필요성, 해외사례 자문	언론학 전공 입법조사연구관 1인 (국회입법조사처)
4차	6.2	• 영유아의 적정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연구방향 검토 - 영유아의 적정한 미디어 이용의 의학적 기준과 근거 -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의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영향 - 영유아기 미디어 중독 위험성과 관련 사례 •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의학분야 교수 1인 (정신건강의학과)
5차 (중간보고 워크숍)	6.22	• 중간보고서 작성 방향 검토 및 향후 추진 방향 논의	학계전문가 2인, 정부부처 담당자 1인(서면)
6차 (최종보고 워크숍)	10.28	• 가정 및 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적정성 제고 방안 정책제언 공유와 자문 - 수정 방향 논의	학계 전문가 2인, 정부부처 담당자 1인(서면)

마. 세미나 개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및 지도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기 적정한 미디어 이용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환기, 영유아 미디어 이용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6].

6) 2021.12.16. 제3차 육아정책심포지엄 제2주제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서의 미디어 활용 실태와 요구' 발표.

〈표 Ⅰ-3-4〉 정책세미나 개최

목적	개최 시기
•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관심 환기 •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서 미디어의 적정한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 제안 발표	'21.12.16 ('21 제3차 육아정책심포지엄 주제 발표)

4. 주요 용어 정의

'미디어'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중매체(大衆媒體), 매개체(媒介體), 매체(媒體)로 순화"(표준국어대사전, 2018; 지옥정 외, 2018: 14에서 재인용)라고 정의하여 미디어와 매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지옥정 외, 2018: 14).

이러한 미디어의 정의를 학자들이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협의 또는 광의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책, 신문, 잡지, TV, 컴퓨터 등을 망라하는 것'(Buckingham, 2004; Hobbs, 2004; Potter, 2011; 지옥정 외, 2018: 14에서 재인용)으로 정의된 협의의 개념을 따르도록 한다. 또한 협의의 정의에 따른 다양한 매체 중에서도 최근 '중독'의 위험이 경고되어 문제시되는 디지털코드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디지털미디어[7]'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여, 본 연구에서의 '미디어'는 곧 '디지털미디어'를 의미함을 밝혀둔다.

7)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송신자와 수용자가 상호 전달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모든 미디어를 통칭하는 말로, 컴퓨터, 모바일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해 네트워크에 접속함으로써 정보의 전달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체를 말한다(PR용어사전. 디지털미디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11457&cid=42266&categoryId=67997, 2021. 7. 6. 인출)

Ⅱ

연구의 배경

01 선행 연구 분석
02 국내외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 현황
03 국내외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분석

Ⅱ. 연구의 배경

1. 선행 연구 분석

가.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노출 관련 실태조사

본 절에서는 영유아 대상의 미디어 이용 및 노출에 관한 실태조사 중 2013년에 실시한 '영유아 미디어 노출 실태조사'와 2019년에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표 Ⅱ-1-1〉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노출 관련 실태조사 선행연구

조사명	문헌	연구방법	조사대상	조사내용
영유아 미디어 노출 실태조사	이정림 외 (2013)	면접조사	서울·경기 영유아 부모 1,000명	- 가정 내 미디어 매체 구비 현황, 부모의 미디어 매체 이용 형태, 자녀의 미디어 매체 이용 행태, 자녀의 미디어 매체 이용에 관한 인식, 가정에서의 미디어 매체 활용에 대한 의견 및 요구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가구방문 면접조사	전국 10,000개 가구 내 만3~69세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자[1)2)]	- 스마트폰 이용현황(코로나19 관련 문항 포함),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현황, 과의존 예방 및 상담 서비스 이용현황, 과의존 문제해결에 관한 인식, 스마트폰 이용 관련 심리적 특성 - 만 3~19세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원인 및 영향력

주 : 1)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이용자로 가구 내 적격가구원을 전수조사 하였고, 유효표본은 총 30,927명이며 이중 유아동(만3~9세)은 2,890명임.
2) 유아동(만3~9세)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적격 조사대상이며, 주 관찰자(양육자)가 유아동의 행동.태도에 기반하여 응답함.

자료 : 1) 이정림·도남희·오유정(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 육아정책연구소. pp. 3-4, 8.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p. 3, 7-8.

1) 영유아 미디어 노출 실태조사(2013)

육아정책연구소가 2013년 수행한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 연구에서는 '영유아 미디어 노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이정림 외, 2013: 44).

조사내용은 가정 내 미디어 매체 구비 현황, 부모의 미디어 매체 이용 행태, 자녀의 미디어 매체 이용 행태, 자녀의 미디어 매체 이용에 관한 인식, 가정에서의 미디어 매체 활용에 대한 의견 및 요구이다(이정림 외, 2013: 3, 44). 동조사는 서울·경기지역 영유아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서울 경기지역을 표집한 이유는 인터넷 이용률과 인터넷 중독률이 타지역보다 높다는 선행연구(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3)를 근거로 한 것이다(이정림 외, 2013: 3-4, 8).

조사결과, 대부분의 가정이 TV(98.9%), 컴퓨터(97.4%), 스마트폰(98.5%)이 있으며, 대다수의 영유아가 TV시청(94.7%)을 하고, 과반의 영유아가 스마트폰(53.1%)을 이용하고 있으며, 영아의 스마트폰(34.9%) 이용이 적지 않다(이정림·도남희·오유정, 2013: 47, 100). 매체 최초 이용시기를 보면 TV는 영아기에 대부분(95.1%) 노출되며, 스마트 기기도 과반이 영아기(53.7%)에 노출되는 실정이다(이정림 외, 2013: 49). 특히, 미디어 매체 최초이용연령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분석했을 때, 0세에 미디어 매체를 최초 이용한 경우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이정림 외, 2013: 49). 매체별 이용빈도는 TV는 매일 시청이 56.9%로 가장 높았고, 컴퓨터는 일주일에 1~2회 49.5%, 스마트기기는 일주일에 1-2회가 41.3%로 가장 많아, TV에의 노출빈도가 가장 많았다(이정림 외, 2013: 50). 일일 미디어 이용 시간은 TV는 주중 94.91분(유아 103.26분, 영아 82.82분), 주말(공휴일) 121.43분(유아 138.60분, 영아 100.65분)으로 유아가 영아보다 이용시간이 더 유의하게 길었고, 컴퓨터는 주중 43.23분, 주말 54.07분, 스마트기기는 주중 31.65분, 주말 39.05분으로 영/유아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이정림 외, 2013: 50).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스마트기기는 이용빈도와 이용시간이 유아보다 영아가 조금 더 잦고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기기 노출 연령이 하향화되었음을 의미한다(이정림 외, 2013: 50-51). 특히, TV를 많이 시청하는 영유아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도 많았으며, 영유아의 이용시간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루에 모두 이용한다고 할 때 일일 3시간가량으로 집계되었다(이정림 외, 2013: 100).

자녀가 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상황은 TV는 기관 하원 후(24.8%), 기관 등원 전(21.8%)이 많았는데 영아는 저녁식사 전(21.4%), 식사중(20.0%)이 많았고, 유아는 기관 하원 후(34.0%), 기관 등원 전(27.0%)이 많아 영/유아 간 시청 상황이

상이하였다(이정림 외, 2013: 52). 컴퓨터는 기관 하원 후(36.9%)와 저녁식사 전(20.2%)이 가장 많았고, 스마트기기는 시간에 관계치 않고(39.2%, 영아 47.4%, 유아 35.8%), 기관 하원 후(18.8%), 저녁식사 전(14.8%), 주말동안만(13.1%)으로 상시적 이용이 많았는데 이는 영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이정림 외, 2013: 52). 습관적으로 TV를 시청하는 경우도 30.1%였고, 영아는 성인에 의한 TV 노출이 많았는데 주로 가족이나 친척의 TV시청 시 따라보는 경우가 약 25%였다(이정림 외, 2013: 64, 100).

영유아가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미디어 매체 이용을 좋아하기 때문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또래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함으로 나타났다(이정림 외, 2013: 100). 스마트기기는 자녀가 좋아해서가 70.9%로 매우 높아 영유아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이정림 외, 2013: 52).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미디어에 대한 높은 흥미도와 미디어 매체 이용이 확산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반영한다(이정림 외, 2013: 100).

자녀의 미디어 매체 이용 지도 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TV 23.7%, 컴퓨터 27.8%, 스마트기기 23.4%로 나타났고, TV는 영아보다 유아의 경우 지도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이정림 외, 2013: 54). 미디어 이용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TV, 컴퓨터, 스마트기기 모두 자녀의 고집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그 다음이었으며, TV는 지도방안을 몰라서, 지도시간의 부족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이정림 외, 2013: 54). 스마트기기에서는 자녀의 고집 때문이 영아에서 78.1%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나서 영아 부모를 위한 적절한 지도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정림 외, 2013: 54-55). 자녀가 미디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할 때 대처 방법으로는 '다른 활동으로 대체', '대화로 설득'이 대체로 높았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가 그다음으로 높았으며, 강제적 기기 종료, 하고 싶은 대로 둠, 체벌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정림 외, 2013: 55). 이는 부모가 대체활동이나 놀이를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정림 외, 2013: 55).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은 1시간 미만이 90.5%로 가장 많았고, 1~2시간 미만 7.0%, 2시간 이상 2.5%순이었다(이정림 외, 2013: 68). 스마트기기 이용장소는 가정 71.9%, 카페 및 식당 9.5%, 개인용 승용차 7.8%, 타인의 집 4.9%, 쇼핑몰

2.3%, 대중교통 1.7% 등의 순이었다(이정림 외, 2013: 69).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상황)은 영아와 유아의 차이가 있는데 유아는 자녀가 부모(가족)의 허용여부를 묻고 사용가능한 경우(78.2%)로 대다수 였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가능(12.5%), 가족이 먼저 자녀에게 사용하게 해줌(9.7%)순으로 나타났는데 영아는 자녀가 부모의 허용 여부를 묻고 사용이 48.1%, 가족이 먼저 자녀에게 사용하게 해줌(38.3%), 자녀가 원하는대로 사용 가능(13.6%)로 유아에 비해 영아는 가족이 먼저 자녀에게 허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이정림 외, 2013: 70). 스마트기기를 함께 이용하는 사람은 부모가 54.9%로 가장 많고, 형제 21.9%, 혼자 20.2% 순으로 나타났다(이정림 외, 2013: 70). 영유아가 선호하는 스마트폰 서비스는 만화(30.5%), 게임(26.0%), 음악(13.1%), 교육용 콘텐츠(12.1%), 카메라 및 사진첩(11.7%)순으로 나타났다(이정림 외, 2013: 71). 스마트폰 사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아와 유아부모의 응답이 차이가 있었는데, 영아는 별다른 영향없음(33.1%),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줌(26.6%), 긍정적 영향을 줌(21.4%), 부정적 영향을 줌(18.8%)순으로 나타났고, 유아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줌(35.2%), 별다른 영향 없음(29.3%), 부정적 영향을 줌(24.5%), 긍정적 영향을 줌(11.0%) 순으로 나타나 유아의 부모가 영아의 부모보다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았다(이정림 외, 2013: 73).

부모의 미디어 이용시간과 인식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과 밀접하였는데 부모가 미디어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많았으며, 부모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미디어 매체 노출 시기도 빨랐다(이정림 외, 2013: 100-101). 한편 부모가 미디어 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의 미디어 매체 이용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림 외, 2013: 101).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정림 외(2013)는 부모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행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다(이정림 외, 2013: 101).

또한 영유아 부모는 자녀의 매체 이용 지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이용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정림 외, 2013: 101). 스마트폰은 시간제한 없이 언제나 사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림 외, 2013: 101).

더불어 영유아 부모는 자녀의 건전한 미디어 매체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관련 개선사항으로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유해환경 차단 소프트웨어 공급'을 가장 많이 원했다(이정림 외, 2013: 101). 영유아의 건전한 미디어 사용을 위해 건전한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미디어 매체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동의하였다(이정림 외, 2013: 101).

동조사의 결과는 조사를 2013년에 실시하였고, 조사대상 영유아의 출생년도가 2008년~2013년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2010년경이었던 것(이정림 외, 2013: 49-50)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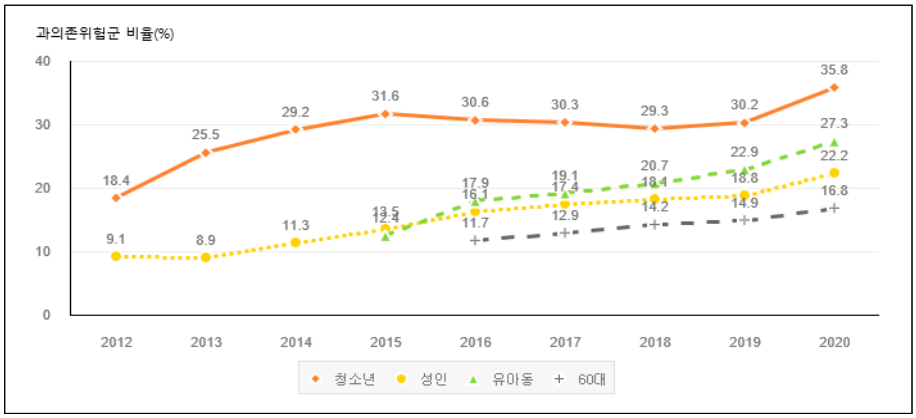
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8](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2004년부터 시작된 조사로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며, 청소년과 성인 위주의 조사였다가 2015년부터 유아동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가 개발되고 도입되면서 만3세 이상 유아가 포함되어 조사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5).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3%가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년 대비 상승폭으로는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19). 또한 유아동(만3~9세)의 27.3%가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이며, 이는 전년보다 4.4%p 상승하여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그림 Ⅱ-1-1〉에서 보듯이, 유아동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근래에 지속하여 높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 지속 증가 추세이며, 청소년과 더불어 매우 높은 비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vi).

8) 이 조사의 연령 분석단위가 유아동(만3~9세), 청소년(만10~19세), 성인(만20~59세), 60대(만60~69세)이므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21) 주로 유아동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함.

[그림 Ⅱ-1-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연령별 과의존 위험군 현황 추이



주 : 유아동은 초록색 선으로 만3~9세의 결과임.
자료 : e-나라지표,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61 인출일: 2021. 10. 20)

[그림 Ⅱ-1-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 20.

유아동(만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아가, 연령으로는 만6~9세가 만3~5세보다, 맞벌이 여부로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과의존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그림 Ⅱ-1-2 참조).

이 조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한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로 정의하며, 과의존 요인을 현저성, 조절실패, 문제적 결과의 3가지로 보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 이러한 과의존위험군의 3개 요인별 점수를 분석했을 때, 유아동은 현저성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조절실패, 문제적 결과 순으로 나타났고, 다른 연령대는 조절실패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인데, 즉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인 유아동은 스마트폰 이용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

과의존위험군인 유아동의 대체적인 특징은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90.3%[9]), 하루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 하며(90.0%),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89.8%)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46). 또한 이용 중인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으면 스스로 그만두지 않고(82.5%), 정해진 이용시간에 맞춰 스마트폰 이용을 잘 마무리 하지 않으며(72.3%),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60.6%) 것이 특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45). 더불어 과의존위험군의 50% 내외는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아이와 자주 싸우고(66.3%), 스마트폰을 하느라 다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으며(62.9%),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시력이나 자세가 안 좋은(58.4%)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47). 즉, 스마트폰 이용이 과도한 유아동은 어떤 놀이나 활동보다 스마트폰 이용을 선호하고, 이용을 제때 마무리할 수 있는 자기조절력이 부족하며,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부모-자녀 간 갈등이 있으며, 다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고, 시력저하나 자세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유아동의 이용량이 증가한 콘텐츠는 과의존위험군과 일반군 모두 영화/TV/동영상이 68.8%, 72.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게임이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5). 다른 연령대는 과의존위험군이 일반군보다 대부분의 콘텐츠 종류에서 이용량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에 유아동은 일반군이 오히려 대부분의 콘텐츠에서 과의존위험군보다 이용량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9) 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 이하 동 문단의 괄호 비율 동일한 의미임.

2020: 25). 게다가 다른 연령대는 과의존위험군이 일반군보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이용한 콘텐츠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반면에 유아동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이용한 콘텐츠가 있다는 응답이 일반군(32.8%)이 과의존위험군(29.3%)보다 높게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6). 이러한 결과를 통해 평소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유아동보다 보통의 유아동이 스마트폰 이용 행태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보통의 유아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량과 처음 이용한 콘텐츠의 종류가 모두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동이 동영상으로 이용하는 주요한 콘텐츠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및 교육/학습인 것으로 파악된다. 유아동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콘텐츠는 과의존의심군과 일반군 모두 애니메이션/만화가 75.8%, 78.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다음으로 과의존의심군은 게임 34.8%, 교육/학습 27.8%, 음악/라디오 15.9%, 음식/요리 11.0% 순이며, 일반군은 교육/학습 33.8%, 게임 30.1%, 음악/라디오 16.9%, 책/영화 9.9% 순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7).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매일' 이용하는 유아동은 53.6%로 모든 연령대 대비 가장 높았고, 주 3~4일 이상 이용하는 비율까지 합치면 93.2%로 유아동의 동영상서비스 이용빈도가 매우 높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71).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만3세 이상 유아의 부모 중 과의존 예방교육을 받은 경우는 7.5%에 불과하며, 예방교육을 받은 부모의 81.4%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107, 109). 유아 부모의 향후 과의존 예방교육 이용의향은 40.6%가 있었으며, 스마트쉼센터 인지도가 5.2%에 불과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110-111) 과의존 예방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홍보가 다소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유아동 부모는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주요 원인으로 '스마트폰 이용 훈육 방법을 잘 몰라서'가 41.6%로 가장 높았고, '맞벌이 증가 등으로 인한 훈육 시간 부족' 30.0%, '부모 편의에 의한 스마트폰 사용 방임' 19.0%, '스마트폰을 대체할 다른 놀이 환경의 부족' 9.3% 순으로 응답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121).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상황은 주로 '공공장소

에서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가사, 직업활동, 대인관계 활동 시간 확보를 위해' 31.6%, '식사/재우기 등 양육 보조수단으로' 13.1%, '자녀 교육/학습 수단으로' 10.4%, '자녀가 떼쓸 때' 2.9% 순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122). 자녀에게 스마트폰 이용이 '긍정적 영향력이 크다'고 보는 유아동 부모는 19.5%으로 '부정적 영향력이 크다'(28.7%)보다 낮게 나타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모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123). 자녀의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한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스마트폰을 대체할 놀이/콘텐츠의 부재'가 31.2%로 가장 높았고, '이용시간 조절/통제 어려움' 24.5%, '아이가 떼를 쓸 때 통제 어려움' 22.6%, 스마트폰을 대체할 양육 보조수단 부재' 21.3% 순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124). 종합하면 스마트폰은 유아동 부모가 공중도덕을 위해 자녀를 통제하거나 부모의 시간 확보, 양육의 보조수단으로 쓰는 등의 성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마트폰을 대체할 놀이수단이나 양육보조 수단이 다소 부족한 것이 과도한 사용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발달에 적합한 양육 및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정내에서 스마트폰을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놀이나 활동이 다양화되고, 부모교육 등을 통해 미디어 이용 지도를 적절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영유아 미디어 이용의 영향에 관한 연구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유아 시기의 미디어 이용에 관해서는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대부분 일방향적으로 주어지는 미디어의 소통 특성으로 인한 아동 발달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함께 존재한다.

미디어 이용의 아동 발달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인지 및 언어 발달(고희숙·권민균, 2008; 김은지·전귀연, 2020; 배소영·정연구, 2015; 이민주 외, 2015; 이영신 외, 2018; 조윤주, 2016; Linebarger, Vaala, 2010; Dore et al, 2020), 문제행동(권장희, 2012; 김보라·신혜원, 2019; 이경숙 외, 2005; 이진화·조인경, 2018), 미디어 중독(김종민 외, 2014; 홍광표·조준오, 2015; 최재정·유미숙, 2020)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유아 시기의 컴퓨터 이용이 발달적으로 충분히 적합하며(Davidson, 1989; 이영석, 1996: 98-99에서 재인용), 컴퓨터가 아동의 사회적 접촉 경험을 제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협동성이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킨다고 말하는 연구도 있다(Swigger & Swigger, 1984; Lieberman, 1985; 이영석, 1996: 100에서 재인용). 또한, 이영석(1996)은 컴퓨터가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협동놀이 활동의 증진, 자발적인 또래학습 및 조력 등 사회성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 정서 발달, 신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김선영, 1994; Clements, 1987; Clements, 1991; Clements, & Nastasi, 1993; Clements, Nastasi, & Swaminathan, 1993; Davidson, 1989; Kaden. 1990; 이영석, 1996: 104-107에서 재인용)

그러나, 스마트 기기의 본격적 보급과 함께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 시기가 만 2세 미만으로 하향화 됨에 따라(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과다한 미디어의 이용과 중독적 의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지 및 언어 발달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는 경향이다.

이민주 외(2015)의 연구에서는 만4세 유아의 언어발달을 분석한 결과, 미디어 이용이 2시간을 초과한 집단이 미디어 이용이 1시간 미만인 집단보다 언어 발달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주 외, 2015: 43). 전국의 6개월~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두 가지 언어발달 스크리닝 검사를 시행한 배소영과 정연구의 연구에서도(2015) 하루 2시간이 넘는 텔레비전 시청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러한 미디어 이용 정도가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24월령 미만 집단보다 24월령 이상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 미디어 이용의 누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배소영·정연구, 2015: 88).

영유아기의 미디어 이용이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 놀이시간은 초등학교 적응 및 사회적 유능감과 부적 상관을 보여 미디어 놀이 시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었다(이상희·오새니, 2019: 100). 또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권장시간(1시간) 이내일 경우 권장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집단에 비해 사회정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등으로 측정된 학교준비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희·이정미, 2019: 144)

스크린 미디어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주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지만(Linebarger & Vaala, 2010: 배소영·정연구, 2015: 72에서 재인용) 콘텐츠와 상관없이 미디어 이용의 양적인 증가만으로도 언어발달과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조윤주, 2016: 61). 미디어 이용 시간의 증가가 아동의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미디어의 일방적 소통이라는 특성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Hoff, 2005: 이영신 외, 2018: 97에서 재인용).

다만,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과 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어머니의 개입과 양육태도가 미디어의 이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제시되고 있어(윤보람·이영신, 2020; 이상희·이정미, 2019; 이정자, 2020; 장지우·김선희, 2020) '스마트한 이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3~9세 아동 중 미디어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1.1%에 불과하며, 텔레비전 90.1%, 스마트폰 82.8%에 이르는 이용률을 보이는 등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시대의 아동들에게(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5[10]) 미디어의 이용은 무조건적으로 차단해야 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미디어 이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은 미래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도구 습득의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도 될 수 있다.

다만, 많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미디어의 과다한 이용과 무분별한 노출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증거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부정적인 결과가 전혀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미디어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미디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선 내에서 적정한 미디어 이용을 유도해야 할 필요는 다분하다.

특히 뇌 발달과 전두엽 발달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시기인 소아청소년기에 쉽게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고(이해국·신윤미, 2019: 71), 신체적으로도 비만과 안구건조증, 거북목증후군 등과 연관된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만큼(중독포럼, 2016; 이해국·신윤미, 2019: 72에서 재인용)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의 '적정선'에 대한 기준 마련과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하겠다.

10) 요약(원문에 p 미 기재됨) 부분인 '우리 아이는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할까?' 부분의 내용임(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다. 영유아 미디어 이용의 적정성의 기준에 관한 연구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완벽하게 제한할 수도, 제한해서도 안 되는 시대에, '적정한' 이용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적정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적정성'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용 시간', '이용 시간대', '이용 시작 연령', '이용 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먼저, 그간 영유아 미디어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이용 시간의 적정성이었다. 많은 연구들이(이수기 외, 2014; 방효국·김낙흥, 2013; 천희영, 2015; 나용선, 2013; 김윤경·김경미, 2020)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길수록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 및 게임 과몰입을 연구한 이수기 외(2014)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초등학생에 비하여 유아의 과몰입 우려는 낮으나 주중, 주말 사용시간이 과몰입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5세 유아의 스마트폰 게임 사용에 대하여 연구한 방효국·김낙흥(2013)의 연구는 사용시간이 길수록 과의존 경향이 있으나, 초등 이후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우려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천희영(2015)의 연구는 4세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성별로 부정적인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여아의 경우 사용시간의 양과 문제행동 간에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수면시간이 부적 상관을 보여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면시간은 줄어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간접적으로 끼칠 수 있음을 밝혔다. 나용선(2013)의 연구 역시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질 때 중독현상이 심각해진다고 보고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유아에 대한 연구를 한 김윤경·김경미(2020)는 스마트폰 사용시간(3시간)을 기준으로 장시간 사용 집단과 단시간 사용 집단으로 구분하여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중에서도 사용시간의 차이가 중독 정도와 감각처리능력에 차이를 보인 것을 밝혔다.

위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유아의 스마트폰, 미디어, 인터넷 등의 사용시간이 길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일반적인 결과도 얻었으나 더불어 사용시간의 양은 매체의 종류나 성별, 이용 시간대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시간과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윤경 외(2018)의 연구는 미디어 노출 시간과 매체의 종류(스마트폰, TV, PC 등),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성욱준(2017)은 유아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주중과 주말이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장시간 사용하는 주말의 사용시간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김영란 외(2016)의 연구는 영유아의 사용시간에 따라 부모의 염려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기한 영유아의 미디어 사용시간의 적정성을 다룬 연구들에서 드러난 하나의 문제는 영유아 미디어 사용시간의 측정에 관한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영유아의 미디어 사용시간, 혹은 과의존 증상에 대한 결과를 부모의 보고에 의존하여 결과를 얻었는데, 최대훈(202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보고와 실제의 차이를 보여 스마트폰 과의존군의 비율이 약 2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 중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 미만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한편 미디어 사용시간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를 통해 영유아들은 미디어를 주중에 비하여 주말에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성욱준, 2017; 이수기 외, 2014; 방효국·김낙흥, 2013). 그리고 이수기 외(2014)의 연구에서는 하루 중 미디어 사용시간대가 언제 집중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원하여 저녁 식사 전까지의 시간이 가장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빈번한 것을 밝혔다. 그리고 하루 중 사용시간대에 따른 게임 과몰입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일부 연구들은 미디어 사용 시작연령의 적정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나용선, 2013; 이수기 외, 2014). 나용선(2013)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 심각해짐을 주장하였고, 이수기 등(2014)의 연구에서도 미디어 이용의 시작 연령이 빠를수록 게임 과몰입 등 부정적 영향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부 연구들은 콘텐츠 종류의 적정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게임 자체의 문제점을 확인한 연구(방효국·김낙흥, 2013)도 있었으나, 게임뿐 아니라 동영상 시청의 문제점, 그러나 부모의 인식이 콘텐츠 종류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하는 연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이수기 외, 2014; 최대훈, 2020).

이는 미디어 이용의 적정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용 시간뿐 아니라 콘텐츠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이용 시간의 적정성 수준이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2. 국내외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 현황

가. 국외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 현황

1) UN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1]

2021년 3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발표하였다[12].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관심 속에서 제안된 이번 일반논평은 아동이 디지털 생활을 영위하고, 사생활을 보호받고, 디지털 범죄나 위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다양한 권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는 다음과 같다.

〈표 Ⅱ-2-1〉 아동권리위원회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권고

▶ 국가는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지역사회와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아동 참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아동 주도활동을 지원하고, 아동 인권 옹호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국가는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 국가는 모든 관련기관을 비롯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곳에서 아동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행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기업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아동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디지털 서비스 및 제품에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및 설계 안전을 요구해야 한다.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아동의 디지털 기록을 활용해 아동을 분석하거나 표적화해서는 안된다.
▶ 국가는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특정 음식과 음료, 술, 약물, 담배 등 건강에 해로운 제품에 아동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이나 연령에 부적합한 광고, 마케팅 및 기타 관련 디지털 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와 관련된 국가 정책을 개발한다.
▶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와 보호자, 교사들이 아동을 돕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문해력(기술적 이해 및 능력,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법/비사법적 조치를 널리 알려 국내외 모든 아동과 그 대리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과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환경의 초국가적 특성에 주목해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출처 : 유니세프 (2021. 5. 4.)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톺아보기, (https://www.unicef.or.kr/news/story_view.asp?idx=136956 에서 2021. 6. 10. 인출).

11) 유니세프 (2021. 5. 4.)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톺아보기, (https://www.unicef.or.kr/news/story_view.asp?idx=136956 에서 2021. 6. 1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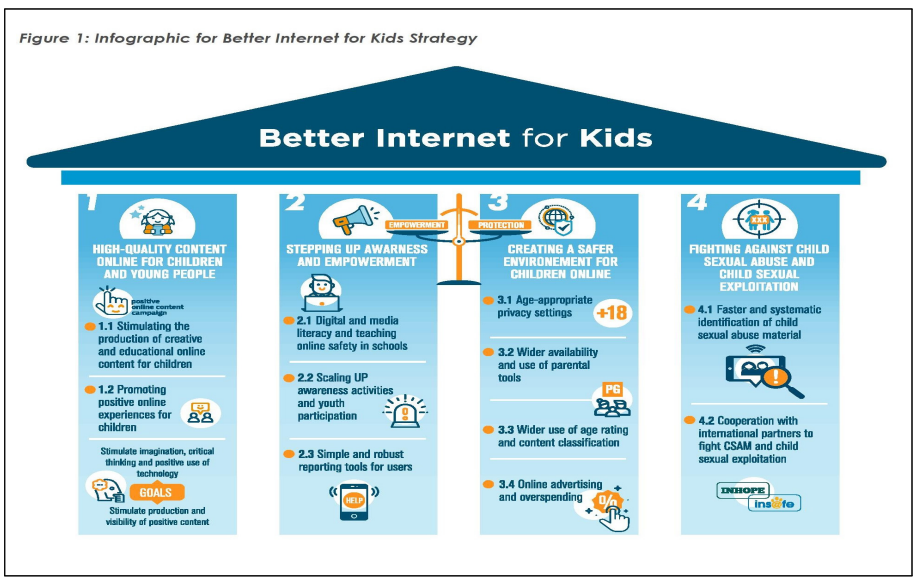
12)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1). General comment No. 25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GCChildrensRightsRelationDigitalEnvironment.aspx 에서 2021. 6. 10. 인출).

2) 유럽연합[13)]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인터넷 전략 (BIK strategy, Better Internet for Kids strategy)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가 회원국 및 업계와 함께 아이들이 인터넷 사용에서 접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제공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나은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BIK 전략은 4가지 주요 영역(pillars)이 있는데, 첫째, 아동을 위한 수준 높은 온라인 콘텐츠, 둘째,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서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와 총체적 관심 제고, 셋째, 온라인 안전 환경을 위한 규제, 넷째, 아동 성 학대 및 착취와의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그림 Ⅱ-2-1] BIK 전략



출처: BIK(2020). The Third Better Internet for Kids Policy Map: Implementing the European Strategy for a Better Internet for Children in European Member States, 10.

13) BIK(2020). The Third Better Internet for Kids Policy Map: Implementing the European Strategy for a Better Internet for Children in European Member States, 10.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2010년 수업 중이나 지정된 장소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8년 9월부터는 유·초등 및 중학생(9학년), 즉 3~15세의 학생은 학교에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가져 올 수 없거나, 교내에서는 전원을 끄도록 강제하는 법이 통과되었다(경향신문, 2018. 8. 1.)[14]. 또한 고등학교에서도 자체 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규제를 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교육부 홈페이지의 Q&A에 따르면 (Ministere De L'Education, 2020. 3.)[15], 학교의 자율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숙학교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어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교사 등 감독자의 감독 하에서 사용해야 한다. Le Comparateur Assurance (2019. 9. 13.)[16] 기사에 따르면 이 정책의 시행 1년 후, 조사에서 프랑스 국민 82%가 이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55세 이상은 92%가 이를 찬성하지만 18~4세에서는 52%가 찬성하여 이 정책에 대한 연령별 지지도는 차이가 있었다(디지털 시민, 2020. 8. 6.에서 재인용[17]). 하지만 법안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 등이 있고 전원을 끈 상태로 학생들이 보관할 수는 있기에 실제 규제에는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4) 스위스

스위스는 중부지역의 일부 학교들이 학생들의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였다 (Le News, 2016. 9. 16.)[18].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신체활동

14) 경향신문(2018. 8. 1). 프랑스 초·중등학교서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1808011354001에서 2021. 6. 10. 인출.)
15) Ministere De L'Education, (2020. 3.), (https://www.education.gouv.fr/interdiction-du-telephone-portable-dans-les-ecoles-et-les-colleges-7334에서 2021. 6. 10. 인출)
16) Le Comparateur Assurance (2019. 9. 13.). La plupart des Français sont favorables à l'interdiction du téléphone portable à l'école. (https://www.lecomparateurassurance.com/103390-actualites-autres-assurances/plupart-francais-sont-favorables-interdiction-telephone-portable-ecole 에서 2021. 6. 10. 인출.)
17) 디지털 시민(2020. 8. 6). 학교 휴대전화 규제, 무엇이 정답인가. (https://digital-citizen.tistory.com/47#_ftn8 에서 2021. 6. 10. 인출)
18) Le News (2016. 9. 16.). Some Swiss schools ban mobile phones in the playground.(https://lenews.ch/2016/09/16/some-swiss-schools-ban-mobile-phones-in-the-playground/ 에서 2021. 7. 7. 인출.)

을 하는데 휴대전화가 방해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더 나아가 일부 자치구에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Vaud) 자치구의 10개 시범학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모든 초등 및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 하였다(Swissinfo, 2020. 1. 30)[19].

그러나 한편으론, 코로나의 영향으로 학교가 전면 휴교 상태에 들어간 학교들에서는 원격교육을 시도하고 있어서 기존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에 부정적이던 정책이 가정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Swissinfo, 2020. 4. 2.)[20].

5) 호주

호주 역시 주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하고 있다. 빅토리아주의 경우는 초·중등학교에서의 일부 학습 활동, 건강 관련된 사용, 현장학습과 같이 학교 밖에서의 활동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Victoria, Australia, 2020. 6. 15.)[21]. 한편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전면 금하고 있지만, 중등학교에서는 학교별 규정을 통해 이를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NSW, Australia, 2020. 6. 15.)[22].

한편 호주에서는 1988년 제정된 Privacy Act를 수정하는 일명 Online Privacy 법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16세 이하 아동의 가입을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Australia Attornet-General's Department, 2021[23]; Sajid, 2021. 10. 25[24]).

---

19) Swissinfo(2020. 1. 30). Débat idéologique sur l'interdiction du smartphone à l'école. (https://www.swissinfo.ch/fre/politique/%C3%A9ducation-et-nouvelles-technologies_d%C3%A9bat-id%C3%A9ologique-sur-l-interdiction-du-smartphone-%C3%A0-l-%C3%A9cole/45525522 에서 2021. 6. 10. 인출.)

20) Swissinfo (2020. 4. 2.). School children adapt to distance learning. (https://www.swissinfo.ch/eng/homeschool_school-children-adapt-to-distance-learning/45662864 에서 2021. 7. 7. 인출.)

21)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Victoria, Australia (2020. 6. 15.). Mobile Phones — Student Use. (https://www2.education.vic.gov.au/pal/students-using-mobile-phones/policy?Redirect=1 에서 2021. 7. 7. 인출.)

22) Department of Education, NSW, Australia (2020. 6. 15.). Student Use of Digital Devices and Online Services Policy.(https://education.nsw.gov.au/content/dam/main-education/en/home/about-us/strategies-and-reports/our-reports-and-reviews/review-into-the-non-educational-use-of-mobile-devices-in-nsw-schools/Policy.pdf 에서 2021. 7. 7. 인출.)

6) 미국

미국의 아동 온라인 정보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법이다. 이 법률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의 정보를 요구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는 이들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Iubenda, 2021)[25].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교육구가 자체적으로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스마트폰 규제법(AB 272)이 통과되어 2020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Lozano Smith Client News Brief, 2019. 10. 1)[26]. 그러나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사용을 금지해서 안 된다.

〈표 Ⅱ-2-3〉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되는 경우

- 위급하거나 위협이 감지되는 상황 - 교사나 직원이 학생의 휴대폰의 소지나 사용을 허가한 경우 합리적 제약 조건 하에 - 의사가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학생의 개별화(IEP) 교육 목적에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 경우

출처 : Lozano Smith Client News Brief (2019. 10. 1). Legislature Addresses Student Use Of Smartphones At School. https://www.lozanosmith.com/news-clientnewsbriefdetail.php?news_id=2913 (2021. 6. 28. 인출).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 법안의 특징은 교육구, 카운티 교육당국,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면장 학교(charter school)가 학생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그리고 특히 유의할 점은 규제의 대상이 핸드폰이 아닌 스마트폰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Lozano Smith Client News Brief, 2019. 10. 1)[27].

---

23) Australia Attornet-General's Department (2021). Landmark privacy reforms to better protect Austalians online, (https://ministers.ag.gov.au/media-centre/landmark-privacy-reforms-better-protect-australians-online-25-10-2021#:~:text=Attorney%2DGeneral%20Michaelia%20Cash%20today,online%20platforms%20operating%20in%20Australia.에서 2021. 12. 10. 인출.)

24) Sajid, I. (2021. 10. 25). Australia plans tough law for social media platform to protect children: Under new law, social media platforms will seek parental consent for users younger than 16 years. Anadolu Agency, (https://www.aa.com.tr/en/world/australia-plans-tough-law-for-social-media-platform-to-protect-children/2402272 에서 2021. 12. 10. 인출.)

25) Iubenda (2021). Legal Requirements for Websites and Apps Used by Children, (https://www.iubenda.com/en/help/5717-legal-requirements-websites-apps-children 에서 2021. 12. 10. 인출.)

26) Lozano Smith Client News Brief (2019. 10. 1). Legislature Addresses Student Use Of Smartphones At School. (https://www.lozanosmith.com/news-clientnewsbriefdetail.php?news_id=2913 에서 2021. 6. 28. 인출.)

7) 영국

영국은 2012년부터 대부분의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고 있다(BBC News, 2021. 4. 7)[28]. 그러나 국가나 주 정부 차원의 법 제정이나 지침 등에 의한 규제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각 학교의 자율적인 규칙을 통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이 또한 외적인 통제보다는 개인의 자율적인 통제를 강조하는 풍토이다(BBC News, 2019. 2. 2.)[29].

8)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2020년부터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주 규정 (Provincial Code of Conduct)을 제정하였다(BBC News, 2019. 3. 12)[30].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전부터 이와 유사한 금지 규칙들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 규정은 각 학교들로 하여금 학교내 휴대전화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칙을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예외 없이 모든 학교에 이를 적용하게 한 것이다.

9) 대만[31]

대만은 2015년 1월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아동·청소년의 복지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영·유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부모 책임을 강화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세 이하 영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은 전면 금지하고, 2세~18세 아동의 과도한 이용에 대해서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것이다(Laws & Regulations Database of The Republic of China, 2021)[32].

---

27) Lozano Smith Client News Brief (2019. 10. 1). Legislature Addresses Student Use Of Smartphones At School. (https://www.lozanosmith.com/news-clientnewsbriefdetail.php?news_id=2913에서 2021. 6. 28. 인출.)
28) BBC News (2021. 4. 7). Mobile phones should be banned in schools - Gavin Williamson. (https://www.bbc.com/news/technology-56663010 에서 2021. 6. 10. 인출.)
29) BBC News (2019. 2. 2.). Ban phones in schools, says minister Nick Gibb. (https://www.bbc.com/news/uk-politics-47095053 에서 2021. 6. 10. 인출.)
30) BBC News (2019. 3. 12). Canada province to ban mobile phones in public classrooms.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47547135 에서 2021. 6. 10. 인출.)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d).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영·유아 보호자용.
32) Laws & Regulations Database of The Republic of China (2021). The Protection of Children

나. 국내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 현황

1) 영유아 관련 미디어 입법 현황

현재 미디어 관련 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7344호)'이다. 이 법은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된 후 2009년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20년 6월 다시 한 번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전부 개정되었다.

현행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 이밖에 동법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6조~12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제13조~19조),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촉진(제20조~33조),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제34조~43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제44조~63조), 보칙(제64조~70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에 포함되며, 제51조에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과 제54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 해당된다.

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 추진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행 법령으로는 지능정보화기본법(법률 제17344호) 54조를 들 수 있다[33]. 동법 54조의 내용은 2013년 5월 22일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 시 신설된 조항(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으로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조항 신설시 반드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기관으로 '유아교육법' 상의 '유치원'을 포함하였다. 이 조항은 2018년 2월 21일 동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누락되어 있었던 '영유아보육법' 상의 '어린이집'이 교육 실시 의무기관에 추가되었

and Youths Welfare and Rights Act,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D0050001 에서 2021년 12월 10일 인출.)

33)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

다. 한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2018년 2월 21일 개정을 통해 교육실시기관의 추가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교육 실시 횟수도 명시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연 1회 이상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표 Ⅱ-2-4 참조).

〈표 Ⅱ-2-4〉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개정 연혁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64호, 2013. 5. 22, 일부개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69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일부개정]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자료 :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연혁. (https://www.law.go.kr/lsJoHstProc.do?lsId=000028&lsiSeq=212081&joSeq=53258439&chrClsCd=010202&mode=100&lsiSeqs=140203,202275 에서 2021. 6. 16. 인출)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2018년 2월 개정 이유 중에는 초중고에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교육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추가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목적과 함께, 영유아의 스마트폰을 통한 과도한 인터넷 이용이 영유아의 언어능력, 신체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2275&lsId=&efYd=201808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에서 2021. 6. 8. 인출).

2020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이 전부개정을 통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로 변경되었는 바 현행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조항명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상의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으로 주요 용어가 변경되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④항에 따라 교육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규제등록카드, https://www.better.go.kr/ba.rgst.RegulCardSIPopup.laf?smoda=vies&s_ref-no=0000086728&s_ref_renew_no=01에서 2021. 6. 16. 인출).

〈표 Ⅱ-2-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시행 2021.6.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전부개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일부개정]

자료 :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연혁. (https://www.law.go.kr/lsJoHstProc.do?lsId=000028&lsiSeq=212081&joSeq=53258439&chrClsCd=010202&mode=100&lsiSeqs=140203,202275 에서 2021. 6. 16. 인출)

나) 영유아를 위한 보호 입법 추진 경과

한편, 2019년 2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영유아의 디지털콘텐츠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안번호 18583)을 발의한 바 있다(이지민, 2019. 3)[34]

이 개정안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연령의 하향화 경향에서 디지털콘텐츠가 주는 강한 자극은 아동들의 뇌에 악영향을 미치며, 의학적으로 2세 이하 영아의 언어능력, 정서 및 행동 발달에 더욱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2세 이하 영아의 디지털콘텐츠 노출을 제한하여 건강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제안되었다(이지민, 2019. 3.).

본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5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2세 이하 영유아의 디지털콘텐츠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제9조의2(보호자 교육)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실시할 수 있는 교육 내용 중 '2세 이하 영유아의 디지털콘텐츠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의 3항에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 2세 이하 영유아가 디지털콘텐츠를 가까이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지민, 2019.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정안에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검토 의견을 얻었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34) 이지민(2019.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U9B0Y2X1X2J1X4B3Q6Z1Z6R4S5E6 에서 2021. 5 .3. 인출)

〈표 Ⅱ-2-6〉 영유아의 디지털콘텐츠 노출 제한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과 국회 검토의견

개 정 안	검토의견
(시책 강구 의무) 제4조(책임)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2세 이하 영유아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이용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4조(①~④항)의 책임 규정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구체적인 영역에 대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음
(보호자 교육 및 보육교직원 책무)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2세 이하 영유아의 디지털콘텐츠 이용 제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경우 2세 이하 영유아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를 가까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현행법령이 보호자 교육의 내용이나 보육교직원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정 위해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사업 지침이나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 등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자료: 이지민(2019.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U9B0Y2X1X2J1X4B3Q6Z1Z6R4S5E6에서 2021. 5. 3. 인출)

이 개정안은 개정안 발의 당시 '영유아셧다운제'가 법제화된다는 제목으로 이슈화되었으나[35] 실제 영유아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이용을 금지하거나, 보호자나 보육교직원 등 보호자가 지도 의무를 어겼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2세 이하 영유아의 전자기기 이용을 금지하고 18세 미만의 자가 전자기기에 과몰입하는 경우 부모 및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대만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보호법(Child and Youth Welfare Protection Act)'이나(이지민, 2019. 3.) 중학교 과정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은 스마트미디어를 가지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프랑스에(관계부처 합동, 2018: 3) 비해서 개인에게 대단한 제한을 부과하는 법안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관련 사업지침 등을 통해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을 법제화하려 한 부분은 입법의 원칙 중 '과잉금지의 원칙'[36]을 위배한 측면이 있어

35) 아이뉴스24(2018.12.17.). '영유아셧다운제' 법제화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http://inews24.com/vie2/1146110에서 2021. 3. 17. 인출)

36)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이를 위배할 경우는

보인다. 이외에도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18조의2 3항의 “디지털 콘텐츠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도록”이라는 문구로는 어느 정도 가까이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규제 대상의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구의 명확성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37].

발의된 개정안의 경우 취지나 내용 자체의 부적합성을 떠나 영유아의 디지털콘텐츠 이용 제한을 반드시 법률을 통해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나 예상되는 효과성, 효율성이 적절한 제도나 정책을 통한 접근보다 높다고 판단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향후 영유아의 디지털콘텐츠의 과이용, 과몰입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이를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있어 입법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현재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은 「지능정보화 기본법[38]」에 근거한 범정부 정책으로 2010년부터 3개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최진응, 2020). 여기서는 3년 주기로 수립되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종합계획의 추진 경과

우리나라는 관계부처별로 각 소관분야에 따라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한 부분적인 법을 개정하고 대응해 왔으나 2010년 처음으로 7개 관계부처(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16개 시·도 합동으로 인터넷 안전국가 건설을 위한 중장기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이정림 외, 2013: 23). 이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에 따라 3년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으며, 2018년 12월 가장 최근의 종합계획인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안)(2019-2021)’이 발표되었다(관계부

위헌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과잉금지 원칙.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114&cid=43667&categoryId=43667 2021. 6. 7 인출)

37)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의 자문 의견임.

38) 舊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

처 합동, 2018).

1차 계획 수립 후 스마트미디어의 급속한 이용 확산, 모바일 인터넷 기반의 기술 발달에 따른 생활방식 및 소통양상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일상에서의 스마트미디어 의존 확산, 유아 및 장·노년층의 이용률 증가가 주목받으면서 2013년 발표된 2차 종합계획에서는 1차 계획에서 청소년 예방·상담 위주였던 정책범위를 유아부터 성인까지 예방·상담·치료·사후관리의 전 단계로 확대하여 개인별 맞춤형 치유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3: 9).

2차 계획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예방교육 의무화가 추진되었고, 관계부처 합동 캠페인을 통해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화산되었다고 평가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6: 10). 유아와 관련해서는, 유치원(누리과정) 예방교육 실시율이 '13년 88%에서 '15년 97.9%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며, 유아~성인 대상별 예방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상담센터 확충, 관련 제도 개선으로 효과적인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대응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6: 10).

한편, 2016년에 발표된 제3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안)은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안)(2016-2018)'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차 계획은 1, 2차 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과의존 위험군의 사용을 억제(제한)하는 '위험회피' 전략에서 균형과 조절을 통해 보다 의미있고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회 활용' 전략으로 전환하여 추진함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자율적 조절능력 강화, 2) 과의존 치유서비스 안정화, 3) 스마트폰· 인터넷 지식역량 강화, 4) 과의존 대응 협력체계 강화 등 4대 전략 및 52개 정책추진과제를 담고 있다(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16. 5. 13.)

이어 관계부처는 명칭이 다시 한번 변경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보도자료를 통해 4차 계획은 1인 1스마트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전 세대에 걸쳐 삶의 필수요소가 된 환경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을 지원하며, 정부·지자체-지자체-시민사회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9. 1. 24.). 4차 계획은 '디지털 시민으로의 성장 지원'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으로 이와 관련해 정책 영

역 중 '배움' 영역에서 기존의 예방교육 방식에서 정보화 역기능 원인과 해결에 대한 비판적 사고 증진으로의 전환, 정보, 게임,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능력 강화에 주력한다고 밝히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9. 1. 24.). 세대별로는 영유아와 고령층 대상 과제를 확대하여, 어린이집 원아 대상 과의존 예방 의무교육, 전문 강사 방문교육, 문화체험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 디지털 미디어 이용 습관의 조기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9. 1. 24.).

나) 1~3차 종합계획의 변화

〈표 Ⅱ-2-7〉, 〈표 Ⅱ-2-8〉은 1~3차 종합계획의 수립 시의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1~3차 계획의 정책변화를 보여준다.

〈표 Ⅱ-2-7〉에 따르면 주사용 미디어가 PC 중심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화하며 사용대상(이용층)이 청소년 중심에서 유아동, 고령층을 아우르는 전연령대로 확대되었고, 정책 방향은 제한과 규제를 통한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 뿐 아니라 자율조절 능력과 균형사용 습관 형성을 통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환경이 변화해 온 흐름을 알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6: 69).

〈표 Ⅱ-2-7〉 종합계획 수립 환경의 변화(1차~3차)

구분		1차('10~'12)	2차('13~'15)	3차('16~'18)
주사용 미디어		PC	PC (스마트폰 선제적 대응)	스마트폰(새로운 과의존에 선제적 대응) ※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통합
사용대상		청소년 중심	유아동·청소년·성인	유아동·청소년·성인(부모)·고령층 등 전 연령대
정책 여건	정책 방향	위험 회피 (제한, 규제)	위험 회피(조절)	위험 회피 & 기회 활용 (자율조절 능력, 균형사용 습관)
	유형	인터넷	인터넷·스마트폰	스마트폰·인터넷
	정책 수단	예방·상담·치료	예방·상담·치료 (사후관리)	예방(체험형 교육으로 다양화), 상담(진로·적성연계, 유형별 전문화), 치료·사후관리(커뮤니티 강화), 활용역량강화(특화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등)
	추진 체계	부처 협의체 발족	부처 협의회 운영, 전문기관 협의체 발족	민·관 협력체계 운영 ※ 스마트쉼 운동본부 발족 ※ 부처-전문기관 협력수준 고도화
	기타 사항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확충	예방교육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	예방 기술조치(가이드북, S/W개발 등) ※ 기초연구 강화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6). 건강한 스마트 사회 구현을 위한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안) [2016~2019]. p. 69.

또 이러한 환경 변화를 통해 종합계획의 주요 정책도 1차 계획이 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등 '안전'에 치중되었던 것에 비해, 2차, 3차로 진전되면서 스마트폰의 일상화를 통해 증진되는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Ⅱ-2-8 참조).

이에 3차 계획에서는 스마트폰 등 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데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자율적 조절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추진전략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스마트폰·인터넷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인터넷 지식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표 Ⅱ-2-8〉 종합계획 주요정책의 변화(1차~3차)

구분	1차('10~'12)	2차('13~'15)	3차('16~'18)
정책 비전	인터넷 안전 1등 국가 건설	건강하고 행복한 인터넷 이용생활 구현	건강한 스마트사회 구현
정책 목표	I-ACTION 2012: 인터넷 중독률 감축	인터넷 이용 조절능력 배양 및 회복기능 촉진	균형과 조절을 통한 스마트폰·인터넷 활용 기회 확산
추진 전략	• 포괄적 정책 • 전문적 대응 • 전문인력 양성 • 민관협력	• 미디어 변화 대응 • 생애주기별 차별화 • 거버넌스 활성화	• 자율적 조절능력 강화 • 과의존 치유서비스 안정화 • 스마트폰·인터넷 지식역량 강화 • 대응 협력체계 강화
추진 주체	7개 부처 및 16개 시도	8개 부처 및 17개 시도	9개 부처 및 17개 시도
정책 영역	ACTION	CHANGE	WISE
	• A(예방교육 및 홍보):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연령별 예방교육 • C(상담 및 치유): 단계별 상담 및 취약계층 집중 상담 • T(전문인력 양성):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I(법제도적 기반 조성): 인터넷중독 법제도 및 환경 개선 • O(정책 효과성 제고): 과학적 정책연구 및 정책내실화 진단 • N(민관협력 및 국제협력): 인터넷중독 예방SW 개발보급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 C(예방교육): 유아동, 청소년, 성인의 생애주기별 예방 의무화 • H(전문상담): 매체, 콘텐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문상담 강화 • A(전문치료): 스마트미디어 및 인터넷 중독 전문치료 체계화 • N(사후관리): 회복자 재발방지 위한 사후관리 도입 • G(협력체계): 국제, 정부, 민관산학, 지역 수준 협력체계 활성화 • E(정책기반): 사회적, 물적, 인적 정책·사업 기반 조성	• W(예방): 체험형 예방교육 강화, 부모 자녀교육 강화, 고령층·성인 교육 프로그램 확충 ※ '바른사용'으로 교육내용 개편 • I(상담·치유): 상담서비스 고도화, 고위험군 치유지원, 상담과정 개설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 S(지식역량 강화): 다양한 참여활동, 바른사용 아디이어 공모 및 우수사례 확산, 스마트쉼 실천운동 • E(체계·기반):대응체계 강화, 성과관리체계 구축, 조사연구 등 강화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6). 건강한 스마트 사회 구현을 위한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안)[2016~2019].). p. 70.

3차 계획에서는 '자율적 조절능력 강화' 전략에 관련된 정책과제 중 영유아 및 영유아 부모 대상의 정책과제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과제의 핵심내용은 '영유아 및 부모의 자녀교육(디지털 페어런팅) 확대'로 예방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스마트폰·인터넷의 바른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었다(관계부처 합동, 2016: 16).

〈표 Ⅱ-2-9〉 영유아 관련 정책 과제(3차 계획)

□ **누리과정 내 유아 예방 교육 강화(교육부, 복지부)**
- (누리과정 안정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통한 단계별 유아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의 안정적 운영(유치원 수 기준 연간 90% 이상 실시)
- (보육교사 직무연수) 유아의 건강한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습관 조기형성 지도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 교사 대상 직무교육 실시

□ **어린이집·유치원 등 과의존 예방 및 인터넷윤리 교육(미래부, 방통위)**
- (예방 교육) 유아 연령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발달단계에 따라 스토리텔링, 퍼즐놀이 등 교육방법을 차별화 한 예방교육 과정 운영
- (인터넷윤리 교육)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형성을 위해 유·아동 및 초등학생과 학부모·해당교원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교육 및 홍보 실시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6). 건강한 스마트 사회 구현을 위한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안) [2016~2019]. pp. 19-20.

다)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안)

한편 지능정보기술 확산과 정보화 역기능의 양상이 변화하고, 지능정보기술 보편화에 따라 이용자 역할이 수동적 소비자, 과의존·사이버범죄 등 역기능에 대한 보호 대상에서 능동적인 매개자·생산자로 역할이 확장되게 되면서 지능정보사회의 주역으로서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2). 이에 제4차 종합계획은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배움, 상담·치유, 사회기반, 소통·참여의 4개 정책영역에서 1) 역기능 방지에서 역량 강화로의 적극적 예방, 2) 예방, 회복, 성장으로 이어지는 역기능 대응 체계 구축, 3) 가정, 학교, 사회의 지원 환경 기반 강화, 4) 국민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라는 4개의 추진 전략하에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수립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8: 5).

즉, 앞서 살펴본 3차부터는 과의존에 따른 치유, 자율적 조절능력, 스마트폰·인터넷 지식역량 강화, 대응협력체계 강화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고 미디어의 순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배상률 외, 2020: 51).

4차 계획 내에서 영유아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담고 있는 것은 전략 1(배움), 전략 3(사회기반), 전략 4(소통·참여)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서 〈표 Ⅱ-2-10〉에서 제시한 3차 계획 중 영유아 관련 정책과 비교시 정책 방향의 큰 차별성은 없으며, 자발적 선택보다는 영유아를 둘러싼 환경(가정, 기관에서 제공되는 환경)에 좌우되기 쉬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특성을 고려해, 주로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한 교육과 가정과 기관의 영유아 보호자에 바른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지침의 제공이 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용 주체인 '영유아' 대상의 교육도 강조되고 있지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와 기관에 대한 교육과 책임이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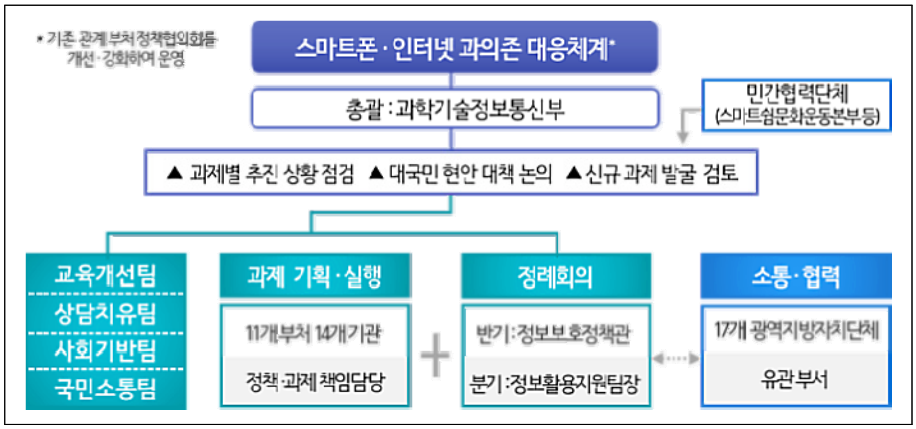
〈표 Ⅱ-2-10〉 영유아 관련 정책 과제(4차 계획)

□ **디지털 콘텐츠의 건강한 이용**
• (복지·과기정통부)유아 과의존 예방 교육 강화(누리과정 의무교육 관리·지원)
□ **온라인상에서의 배려와 포용**
• (방통위) 생애주기별 인터넷 윤리의식 교육 및 사이버폭력 대응 체험형 교육 강화
□ **스마트폰 바른 사용 보호자 코칭 교육 확대**
• (과기정통부)과의존 예방을 위한 학부모 코칭(유아체험교육 병행, 앱배포)
• (방통위) 가정에서 실천하는 인터넷 윤리교육('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및 학부모 교육용 인터넷윤리 온라인 콘텐츠 개발·배포
□ **생애주기별·채널별 소통 전략 다각화**
• (과기정통부) 국제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시간 및 활용 방법 지침 마련·배포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안)[2019-2021]. p. 6,8,9.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19~'21)' 후속조치와 5세대 이동통신 시대 이용자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범부처 대응체계 운영계획과 예방·해소 서비스 통합안내 방안을 마련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9. 4. 11).

[그림 Ⅱ-2-2]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대응체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4. 11.).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이용자 보호 강화' 일환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범부처 대응체계 운영 계획 및 예방·해소 서비스 통합안내 방안 마련

또한 제4차 계획을 합동으로 추진하는 부처 및 기관의 실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개 정책영역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실행과제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유관 부서, 민간협력단체를 대응체계의 협조 네트워크로 포함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9. 4. 11.).

3) 영유아 관련 미디어 정책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보건복지부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안(2019-2021)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이 2021년까지 전면 확대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의무 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소속된 모든 영유아이며, 단 만 3세 미만 영아는 '스마트폰 바른 사용실천 가이드' 등 교육 및 홍보 자료 등을 보급하여 보호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실시 안내, 2021. 6. 11. 인출)[39]. 교육내용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현황 및 사례,

39)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실시 안내, (https://childcare.gangbuk.go.kr:60447/index.php?mm=oxbbs&mt=&mp=6_1&oxid=1&cpage=1&key=TITLE_CONTENT&val=%BD%BA%B8%B6%C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그 밖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며, 교육 실시 후 결과는 온라인실적제출시스템(스마트쉼센터: www.iapc.or.kr)을 통해 실시결과를 입력하게 하고 있다(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실시 안내, 2021. 6. 11. 인출)[40].

스마트쉼센터에서 예방교육 표준안, 온라인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이용한 기관 자체 교육,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교육,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체험형 교육(인형극, 뮤지컬) 등 기관별 여건에 맞게 교육 방법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실시 안내, 2021. 6. 11. 인출)[41].

다만, 관련법령에서 유치원은 2013년, 어린이집은 2018년부터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점검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 중 33%, 유치원 중 19%가 법으로 정해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42] 4차 종합계획에 따른 예방교육의 확대가 현실화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기관인 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스마트폰과의존예방, 사이버폭력예방교육 등 건강하고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와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이외 전국 18곳에 스마트

6%AE%C6%F9%20%B0%FA%C0%C7%C1%B8(%C1%DF%B5%B6)%20%BF%B9%B9%E6%B1%B3%C0%B0&BID=5901&cmd=view에서 2021. 6. 11. 인출)

40)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실시 안내, (https://childcare.gangbuk.go.kr:60447/index.php?mm=oxbbs&mt=&mp=6_1&oxid=1&cpage=1&key=TITLE_CONTENT&val=%BD%BA%B8%B6%C6%AE%C6%F9%20%B0%FA%C0%C7%C1%B8(%C1%DF%B5%B6)%20%BF%B9%B9%E6%B1%B3%C0%B0&BID=5901&cmd=view에서 2021. 6. 11. 인출)

41)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실시 안내, (https://childcare.gangbuk.go.kr:60447/index.php?mm=oxbbs&mt=&mp=6_1&oxid=1&cpage=1&key=TITLE_CONTENT&val=%BD%BA%B8%B6%C6%AE%C6%F9%20%B0%FA%C0%C7%C1%B8(%C1%DF%B5%B6)%20%BF%B9%B9%E6%B1%B3%C0%B0&BID=5901&cmd=view에서 2021. 6. 11. 인출)

42) 소비자를 위한 신문(2020. 9. 24). 스마트폰 중독 아이들, 예방교육은 유명무실. (http://www.consumertimes.kr/sub_read.html?uid=40007&section=sc4 에서 2021. 5. 27. 인출)

쉼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배상률 외, 2020: 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정책 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표 Ⅱ-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하는 영유아 및 영유아 부모 대상 미디어 정책 사업

정책영역	정책대상	주요 내용
스마트폰 과의존예방	전국민 (전연령)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 생애주기별 전국민 맞춤형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 (레몬교실) 전 연령 대상 수요기관으로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 영유아 및 보호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찾아가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 (유아·부모 체험교육)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르기 위해 유아·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인형극, 뮤지컬 등 운영 • 정책지원 – (실태조사) 과의존 심화 계층 변화에 대응하여 유아동, 고령층 시범조사를 포함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실시(국가승인통계) – (의무예방교육 실시결과 조사) 전년도 의무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파악하여 예방교육 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근거)
	교원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 –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원직무연수 제공
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 (방송통신위원회)	전국민	• 유아대상 스마트폰 활용 및 인터넷 이용 교육 – 인터넷 시작기인 유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정립 및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안내를 위해 유아가 이해하기 쉬운 공연교육(인형극)과 교구를 활용한 강사파견형 교육 실시 • 바른인터넷 유아학교 – 정보검색·판별·사이버폭력예방 등 교육(인형극, 교구활용)

주 : 자료 중 영유아 및 영유아 부모, 영유아 교사 대상 정책 선별 재구성함.

자료 : 배상률 외(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Ⅰ. pp.64~67. 〈표 Ⅱ-15〉~〈표 Ⅱ-17〉 ; 최진응(2020).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 p3 〈표 1〉

다)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2에 의거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주요 사업은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생활 미디어참여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접근 보장, 방송제작 장비·시설의 이용 지원, 시청자 권익보고 사업이다.(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목적. https://kcmf.or.kr/cms/board/content.php?menuIdx=98에서 2021. 6. 16. 인출).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주요 사업 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없으나, 초등학생 및 유아와 같은 어린 세대를 위해서는 미디어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와 미디어 기술에 대한 사용법 습득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라고 여겨 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개발할 예정이다(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부 최종숙 부장 서면자문 자료, 2020.7.8.; 배상률 외, 2020: 57에서 재인용).

〈표 Ⅱ-2-12〉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향후 추진 아동 및 부모 대상 미디어 정책

정책영역	정책대상	세부사업내용
유아를 위한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및 교육지원	유아(6~7세)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과 가정 내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재개발 및 교육지원 지속 추진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및 교육지원	유아, 초·중·고 학부모	

자료: 배상률 외(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Ⅰ. p.58. 〈표 Ⅱ-12〉 일부 발췌.

다. 시사점

해외 사례를 통해 프랑스, 스위스,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대만 등 많은 국가에서 주로 학교 내 인터넷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의 사용을 금하는 법안 및 규정을 제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혹은 교육구 차원의 법률이나 규정으로 정한 경우도 있고, 법률이나 정부 차원의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학교 차원에서 자율 규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위원회나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바일 기기 및 인터넷 등의 폐해로 인한 우려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권리라는 인식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학습에의 이용이 필요

하다는 권고도 있기에 단순한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아동이 실질적으로 이익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실효적인 법안, 혹은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국가의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영유아 미디어 관련 정책은 아직까지는 주로 인터넷·스마트폰 등 미디어의 오·남용으로부터의 보호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오·남용으로부터의 보호도 법과 같은 강제적인 수단을 이용한 적극적인 규제 보다는 교육을 통한 예방과 사후 상담 및 치료에 한정되어 있다. 양 극단의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영유아 시기의 적절한 미디어 이용에 대해 보호자에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우는 법적 규제의 가능성과 함께 미래 인재로서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영유아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는 정책 지원을 동시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실시되고 있는 종합계획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지만 관련 부처가 부처와 관련된 사안에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중으로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과 관련해 기관 간 유사·중복 사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최진응, 2020).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는 사업추진 및 관리에 있어서의 업무중복성·비효율성 문제뿐 아니라 사업의 복잡성으로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을 제한하고 체감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 유사·중복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강혜규 외, 2015; 최진응, 2020에서 재인용)고 평가된다.

그러나, 영유아 및 영유아 부모를 위한 관련 사업은 현재 추진 예정인 사업을 제외하면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학령기 아동·청소년에 비해 영유아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는 한정되어, 영유아 미디어 정책에 관해서는 현재 ·유사·중복의 문제보다는 해당 교육의 실행률 제고와 영유아 관련 추가 정책 개발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추진중인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의 조속한 현실화가 필요해 보이며, 현재 중점사업인 교육에 있어서도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미이용 아동(및 부모)를 위한 교육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국내외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분석

이절에서는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에 관해 국내외에서 제시된 주요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국외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1) ZERO to THREE: 0~3세 아동의 영상미디어 이용 지도방법(2009)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ZERO to THREE'에서는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출발'과 최대한의 잠재력 발휘, 밝은 미래 보장을 위해 영유아를 돌보는 어른을 지원한다는 사명과 비전 아래[43], 2009년 0~3세 아동의 영상미디어 이용 지도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AAP의 권고와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TV가 아동에게 미치는 교육적인 효과는 제한적으로, 최상의 배움은 아동을 돌보는 사람과 아동간의 상호작용과 실제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ZERO to THREE, 2009).

이 지침에서는 아동에게 적절한 스크린 타임과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Ⅱ-3-1〉 ZERO to THREE의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미디어(TV) 이용 지도 지침

구분	지도 지침
일반적으로 좋은 영유아용 프로그램	• TV 등장인물들이 아동에게 종종 직접 말을 건다 • TV 등장인물들이 이런저런 형태로 아동이 Show에 참여하도록 한다 (e.g. 단어 따라하기) • 탄탄한 줄거리와 이야기 구성(도입, 중간, 종결)이 있는 Show
영유아의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	• 아동과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Show를 보면서 생각한 것, 어떤 등장인물이 좋고, 싫었으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 아동의 질문에 대답하기(아동은 본 것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 화면에서 본 것을 지적하고 이름 짓기 • 보는 동안 활동하기(음악에 맞춰 춤추고, 뛰기 등) • 아동이 TV에서 본 것과 현실을 연결시켜 주기 • TV 시청 후 시청한 내용을 가지로 다양하게 활동해 보기(인형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기) • 아동을 재울 때 TV나 비디오 등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기

자료 : ZERO to THREE(2009). Television and the Under 3 Crowd: Making Good Decisions About "Screen Time" for Young Children(https://www.zerotothree.org/resources/149-television-and-the-under-3-crowd에서 2021. 6. 11. 인출)

43) ZERO to THREE. Our mission and vision. (https://www.zerotothree.org/about/our-mission-and-vision 에서 2021. 6. 11. 인출)

2) 미국소아과학회의 권고(2016)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에서는 1999년 2세 이하의 영유아들에게는 텔레비전 시청 금지를 권고하였으며, 2011년에는 1999년 권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2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미디어 매체는 교육이나 발달상 이득이 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2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미디어 매체 이용은 잠재적인 건강과 발달상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2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미디어매체 사용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이해국·신윤미, 2019: 72). 한편 2016년에 다시 제시된 소아과학회의 권고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 관한 논문을 통해 미디어 이용의 잠재적인 교육적 효과, 영유아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성을 리뷰하였다. 또한 소아과의사들이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로 시간이나 콘텐츠와 같은 특정 측면에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관리하는 지침을 제공할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미디어 이용을 함께 하고 자녀가 다른 발달상 건강한 활동을 하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하였다(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6).

미국소아과학회의 권고에는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소아과의사, 영유아의 부모, 관련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Ⅱ-3-2〉 AAP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권고

대상	내용
소아과 의사	• 영유아의 부모에게 가정의 미디어 이용, 자녀의 미디어 이용 습관, 미디어 이용 장소를 질문할 것. • 부모와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된 가정의 미디어 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것. • 부모에게 영유아기 뇌발달의 특징과 비구조화된 사회적 놀이의 중요성을 교육할 것. • 18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스크린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원하는 18~24개월 아동의 부모에게는 양질의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할 것. • 부모에게는 양질의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자원을 소개할 것.(eg. Common Sense Media, PBS Kids, Sesame Workshop) • 2세 이상 유아에게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 • 식사시간과 잠들기 전 1시간 이내 스크린미디어 이용을 하지 않도록 조언할 것.
부모	• 18~24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영상통화 외에는) 허용하지 말 것. • 18~24개월 영아에게는 (꼭 원한다면)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아이와 함께 이용할 것. 아이가 홀로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지 않게 할 것.

대상	내용
	• 2~5세 유아에게는 고품질의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여 하루 1시간 이내 이용을 허용하고, 아이와 함께 보고 아이가 보는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울 것. • 빠른 속도로 전개되거나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앱이나 콘텐츠는 피할 것. • 이용하지 않을 때는 모든 미디어 기기를 꺼 놓을 것. • 미디어 이용이 아이를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자녀가 이용한 미디어 콘텐츠와 앱을 알고 있어야 함. • screen free time을 가지고 이 시간에는 부모의 기기도 통신 차단 기능(do not disturb)을 사용할 것(잠자리, 식사시간, 부모와 자녀의 놀이시간 등) •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미디어 기기를 잠자는 방에서 치우고 이용하지 말 것.
관련 업계	•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설계를 위해 발달 심리전문가, 교육전문가와 협업할 것. 18개월 미만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18개월 미만의 아동용 App 개발을 중지할 것. • 교육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공식적이고 과학적으로 제품을 평가할 것. • 저소득 가정도 사용 가능하고 다양한 언어로 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것. • 아동용 App에서 광고와 불건전한 메시지를 사용하지 말 것. • 제품의 자동 설정으로 부모가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자료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2016). Media and Young Minds.

3) MediaSmarts 부모용 가이드라인(2018)

MediaSmarts는 캐나다의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비영리 자선단체로[44] 1990년대초 캐나다 Radio-Television 및 통신위원회(CRTC)에 의해 착수된 TV폭력에 관한 계획에서 시작되었다[45]. MediaSmarts는 1996년부터 캐나다 가정, 학교, 커뮤니티를 위한 디지털 및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보급해오고 있다[46].

MediaSmarts의 사명과 비전에 공감하는 회사, 조직들의[47]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TELUS는 2002년 이후 학교와 커뮤니티를 위한 MediaSmarts의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해왔으며[48], MediaSmarts의 부모용 가이드(Helping our kids navigate our digital world: A TELUS Wise parents guide)도 TELUS와 함께 개발하였다(MediaSmarts &

44) MediaSmarts. Our mission and beliefs. (https://mediasmarts.ca/about-us/our-mission-beliefs에서 2021. 6. 11. 인출.)
45) MediaSmarts. History (https://mediasmarts.ca/about-us/history에서 2021. 6. 11. 인출.)
46) MediaSmarts. What we do(https://mediasmarts.ca/about-us/what-we-do에서 2021. 6. 11. 인출.)
47) Telus, Cira, Bellmedia, Facebook, Google 등이 포함됨
MediaSmarts. Sponsors(https://mediasmarts.ca/about-us/sponsors에서 2021. 6. 11. 인출.)
48) MediaSmarts. Telus(https://mediasmarts.ca/about-us/sponsors/telus에서 2021. 6. 11. 인출.)

TELUS, 2018).

이 부모용 가이드는 4세 미만 아동의 3분의 1 이상이 본인 소유의 태블릿PC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들이 가장 최신의 App들과 게임, SNS를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아동이 평생 안전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일반적인 지침과 영유아를 위한 지침, 쌍둥이와 십대 자녀를 위한 지침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MediaSmarts & TELUS, 2018, https://mediasmarts.ca/teacher-resources/helping-our-kids-navigate-our-digital-world-parent-guide에서 2021. 5. 30. 인출).

MediaSmarts의 가이드라인은 적절한 스크린타임의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뿐 아니라, 안전한 미디어 이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자녀보호기능의 사용, 재생목록 이용 등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영유아 이용 지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Ⅱ-3-3〉 MediaSmarts와 TELUS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용 가이드

구분	가이드 내용
적절한 screen time 지도	• 규칙을 정하고 스크린 미디어 이용이 허용되는 때와 아닌때를 아동에게 이해시킨다. 미디어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때는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다(식사시간, 잠자리 들기 전 제한, 평일 금지 등) • multi-screening은 금지한다. 한번에 두 가지 이상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용하지 않는 미디어는 끈다(ex. background TV 금지) • 긍정적인 미디어 활동을 장려한다. 단지 흥미·오락을 위한 활동이 아닌 창조적, 교육적, 사회적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활동도 장려한다. • 오프라인 활동을 장려한다. 온라인 외에도 재미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 아이와 함께 보고 참여한다. 이는 부적절한 콘텐츠나 행동에 관해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모범을 보인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큰 소리로 말한다("나는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정하기 전에 날씨를 확인하고 있어"). 이는 디지털 기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무모 자신의 이용 습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효과도 있다.
온라인 이용으로부터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 대부분의 기기, browser, app, 검색엔진, 영상 사이트 등이 가지고 있는 자녀보호기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자녀보호기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관리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 자녀에게 적합한 좋은 콘텐츠를 선별한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 나중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구분	가이드 내용
	– 반복적인 것 대신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창의적인 놀이가 가능한 App을 찾는다. – 광고나 게임 내 구매가 있거나, 음향 효과, 애니메이션이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추가 버튼이 있는 App은 피한다. – 채팅 기능이 있는 게임을 주의한다. 자녀에게 게임을 허용하기 전에 채팅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재생목록을 만든다. 사전에 승인된 재생목록을 만들어 자녀가 스스로 동영상을 찾지 못하도록 한다. – 자동재생과 댓글기능도 끈다. – 자녀가 팔로우하고 싶어하는 스트리머의 콘텐츠 적정연령을 확인한다. – 자녀가 미리 허락된 재생목록 외에 이용하려할 때는 허락을 구하도록 요청한다.
자녀의 올바른 온라인 습관 형성을 돕는 방법	• 1단계: 명확한 규칙과 절차를 정한다. – 부모나 다른 어른이 미리 확인하지 않은 link는 클릭하지 않는다. – 부모에게 물어보지 않고 새로운 website를 방문하거나 새로운 App을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 허락받지 않고 기본 세팅을 변경하지 않는다. – 게임이나 가상공간에서 채팅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뭔가 잘못되었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즉시 부모에게 알린다. • 2단계: 공감능력을 키운다. – 자녀가 게임을 하다 실망하거나 영상을 보고 슬퍼할 때 같이 이야기 해보고 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탐구한다. – 자녀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느낀다는 사실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한다. • 3단계: 자녀가 했으면 하는 행동을 모델링한다. 자녀가 아직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했으면 하는 행동을 부모가 보여주어야 한다.

자료 : MediaSmarts & Telus (2018). Helping our kids navigate our ditital world. A TELUS Wise parent's guide (https://mediasmarts.ca/sites/default/files/guides/guide_helping_kids_navigate_digital_world.pdf, 2021. 5. 30. 인출)

4)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 5세 미만 영유아의 신체활동, 좌식행동, 수면에 관한 지침(2019)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19년 4월, 5세 미만 영유아의 스크린 미디어 이용에 관한 첫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49]. 이 가이드라인은 최상의 건강을 위해 영유아들은 24시간 중 신체활동, 좌식행동, 수면에 대한 모든 권고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WHO, 2019).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세 미만의 영아는 하루 중 다양한 방식으

49) 동아사이언스(2019. 4. 25). 한국어린이 하루 1시간18분 스마트폰 본다는데... WHO "1시간 이상 보면 안돼" 경고(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28308에서 2021. 5. 27. 인출)

로 여러 번 신체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내야 하며, 깨어 있는 동안 적어도 30분 이상 엎드려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모차나 하이체어, 보호자의 등에 업혀 있는 등의 구속된 시간이 한 번에 1시간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양질의 수면 시간이 12~16시간(4~11개월), 14~17시간(0~3개월)은 되어야 한다. 또한 앉아서 스크린 미디어를 보는 시간(sedentary screen time)은 금지되어야 한다(WHO, 2019).

세계보건기구는 또한 1~2세 아동의 경우는 하루 중 최소 180분 이상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이 필요하며, 한 번에 한 시간 이상 구속된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되고, TV 보기, 게임 하기 등의 앉아서 스크린 미디어를 보는 시간은 추천되지 않으나 2세 아동에게는 1시간 이하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WHO, 2019).

3~4세 아동도 하루 최소 180분 이상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것이 권고되며, 스크린 타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며, 하루 10~13시간 양질의 수면시간을 가질 것이 권장된다(WHO, 2019).

이러한 세계보건기구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가이드라인은 신체활동의 부족이 야기하는 과체중과 비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WHO, 2019)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 위해 신체활동과 건강 관련 요인 간의 관계에 관해 수많은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신체 활동이 운동, 인지, 심리사회 및 복합적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WHO, 2019: 6). 즉,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은 활발한 신체활동이 필요한 영유아기에 스크린 미디어 이용은 영유아기의 발달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좌식활동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앞서 제시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국외 주요 가이드라인을 요약하면 〈표 Ⅱ-3-4〉와 같다.

〈표 Ⅱ-3-4〉 국외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

제목	주요 내용	개발처	발행연도	비고
0-3세 아동의 영상미디어 이용 지도방법	- 좋은 프로그램 선별 방법 - 부모의 지도 방법	ZERO to THREE	2009	주로 TV와 관련된 지침
미국 소아과학회 권고 (Media and Young Minds)	- 소아과의사, 가정, 관련 산업 관계자에 대한 영유아 미디어 관련 권고 제시	AAP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6	18~24개월 미만/18~24개월/ 2~5세 아동에 대한 미디어 이용 지침 제안

제목	주요 내용	개발처	발행연도	비고
부모용 가이드 (Helping our kids navigate our digital world)	- 온라인 이용에서의 영유아 보호 방법 -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지도 방법과 규칙	MediaSmart, TELUS	2018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적 접근
5세 이하 영유아의 신체활동, 좌식행동, 수면에 관한 지침 (WHO guidelines on physical activity, sedentary behavior and sleep for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 영유아 연령별 하루 중 적절한 신체활동 시간, 수면시간, 좌식활동 시간 제시	WHO	2019	영유아기 발달과 건강의 측면에서 접근

자료 : 1) ZERO to THREE (2009). Television and the Under 3 Crowd: Making Good Decisions About "Screen Time" for Young Children (https://www.zerotothree.org/resources/149-television-and-the-under-3-crowd) (2021. 6. 11. 인출)
2)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6). Media and Young Minds.
3) MediaSmarts & Telus (2018). Helping our kids navigate our digital world: A TELUS Wise parent's guide (https://mediasmarts.ca/teacher-resources/helping-our-kids-navigate-our-digital-world-parent-guide) (2021. 5. 30. 인출)
4) WHO (2019). Guidelines on physical activity, sedentary behavior and sleep for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나. 국내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본 고에서는 국내 미디어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영유아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 관련 가이드라인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영유아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필수 포함사항, 활용도가 높은 내용 및 미흡한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가이드라인(2007~2021)

국내 가장 대표적인 미디어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영유아가 처음 관련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된 것은 2013년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에서 유아동부모용에 유치원 재원아가 포함되면서부터이며, 이후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유아동부모용),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가이드 활용매뉴얼(영유아부모용),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

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영아 보호자용, 유아 보호자용) 및 매뉴얼(영유아 보호자용)로 발전되어왔다. 이 기관은 영유아 보호자뿐만 아니라 성인 및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별 미디어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고, 2매~4매의 간략한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8매 분량의 브로셔 형태의 워크북형 가이드라인, 근거와 방법론 및 과의존 척도 활용 등을 포함한 30매 분량의 상세한 매뉴얼까지 다양한 상세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영아는 미디어 노출 제한을, 유아는 1시간 이내의 이용을 권장하는 것처럼 영아와 유아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발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최근에는 영아 보호자용과 유아 보호자용을 세분화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러나 그 세부내용은 발달단계에 맞는 부모지도의 대원칙(영아에 대한 제한, 유아에게 허용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발달특성의 강조, 바르고 건강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이용규칙 확립 방법, 부모의 미디어 이용의 영향력과 과의존 줄이기의 중요성 강조 등 세부내용이 원칙, 내용수준, 발달 적합성에 맞게 잘 다듬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에 다소 집중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처럼 스마트미디어 기기를 넓은 의미로 접근한다면 전체를 포괄하기는 어려워 보완될 필요가 있다.

가)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2007)

미디어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의 시초는 2007년 개발된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이며 약 30페이지 분량의 중고등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의 3종으로 개발하였다. 학생용에서는 인터넷 이용현황과 영향, 인터넷중독의 정의와 증상, 건강한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법을 제시하였고, 교사용에는 지도요령과 진단검사, 전문상담기관 안내 등이 포함되었고, 학부모용에는 관련 부모교육 내용과 자녀지도지침을 포함하였다(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a; 2007b; 2007c). 이후 2008년에 초등학생용을 추가하여 4종의 가이드북을 개정 배포하였고, 기존 가이드북에 주중 인터넷을 하루 쉬는 休(휴)요일 프로그램, 게임중독 자가진단, 인터넷중독 해소 프로그램인 Rainbow 프로그램[50] 등이 부가적으로 포함되었다(행정안

50)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현 스마트쉼센터)에서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해 인터넷 중독 진단, 예방교육 콘텐

전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a; 2008b; 2008c; 2008d).

나)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2013)

초창기 가이드라인이 인터넷중독 예방 차원이 강했다면 2013년에는 스마트폰의 건강한 사용에 초점을 둔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스마트폰 사용 약속 On Off」가 약 8페이지 분량의 브로셔 형태로 유아동 부모용, 초등고학년용, 중고등용의 3종으로 개발되었다(미래창조과학부 외, 2013a; 2013b; 2013c). 이는 영유아 중에서는 유치원 재원아가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것이다. 유아동 부모용을 보면 스마트폰이 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도입으로 제시하고, 약 4주 간 주간별 목표를 주고 스마트폰 사용 자가점검을 하고, 사용규칙을 만들어본 후, 계획을 실천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로 되어있고, 마지막으로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미래창조과학부 외, 2013a). '유아동 부모용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가이드라인'에는 스마트미디어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 자녀가 스마트미디어 이용할 때 부모님이 함께 할 것, 최대한 접하는 시기 늦추기, 가정에서 허용장소와 시간 정하기, 아이 스스로 사용을 종료하도록 돕기, 지나친 사용이 위험함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구체적인 약속하기, 미디어 사용 종료 후 자녀와 놀이 함께 하기, 부모의 미디어 사용습관을 아이들이 따라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외, 2013a: 7). 최신 영유아 보호자용 가이드라인의 가장 골자가 되는 내용은 2013년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2014)

2014년에는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이 유아학부모용, 청소년용, 청소년 학부모용, 성인용, 임산부용, 일반용의 6종으로 세분화하여 개정되었고, 유아학부모용의 내용은 2013년과 유사하며, 임산부용이 별도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4a; 2014b; 2014c; 2014d; 2014e; 2014f).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 보호자용 가이드라인은 2017년에서야 개발되었다(과학기

츠, 온라인 상담 기능을 탑재한 웹소스를 개발하여 전국 학교에 보급한 프로그램(행정안전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c: 16)

술정보통신부 외, 2017b). 2017년에는 2매 분량으로 가이드라인과 척도를 구성하였는데, 가이드라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지행동주의이론을 토대로 '문제 인식', '사용상태 점검', '실천방안 및 대안 제시', '관계 형성 강화'의 4단계의 가이드라인 프레임(R.E.S.T)[51]을 개발하여 대상자별 가이드라인 제시틀을 통일한 점(스마트쉼센터, 2019: 1),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함께 제시하여 과의존 위험군인지 자가점검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17b: 2). 2017년 영유아용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은 만 2세 전에 스마트폰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지나친 사용의 해로움, 아이와 보호자의 사용습관 점검, 이른 시기 노출되어도 단번에 끊는 것도 방법임, 스마트폰 내 유해요소의 정리, 바른 사용자세 습관화, 교육용 앱보다 책 읽히기, 발달단계에 맞게 사용규칙 구체적으로 정하기, 아이의 오감자극, 보행·이동 시/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기 등으로 영아기 노출제한, 유아기 제한적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17b: 1).

라)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가이드 활용매뉴얼(2017)

더불어 2017년에 배포한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가이드 활용매뉴얼」은 2013년에 개발한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가이드라인'을 확장하여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2016~2018)'에 맞춰 전면 개편한 것으로, 전 연령대별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용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며,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과의존 위험을 줄이고 바르고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17a: 4). 이는 전술한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안내서로 개발한 것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고령층까지 대상별 실천 가이드(상세버전)와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과도한 사용이 미치는 영향, 상담사례, 바른사용 Q&A 등을 담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17a: 4). 특히, 약 2매의 간략한 가이드라

51) R(1단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인식): Problem recognition
E(2단계: 과의존 척도를 활용한 사용 상태 점검): State check
S(3단계: 바른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 제시): Suggest alternatives
T(4단계: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 형성 강화): Connect

인만으로는 부모가 실천수칙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매뉴얼을 통해서 11가지 실천수칙별로 구체적인 근거(실태, 연구결과, 국내외 사례, 증상 및 질환. 발달사항 등)와 실천방법(지도내용과 요령, 기기설정 및 사용관리 프로그램, 바른자세의 예, 사용규칙의 구체적 예, 대체 놀이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설명력과 실천력을 높였고, 영아기에는 노출을 피하고, 만 2세 이후에도 스마트 기기 하루 이용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지도하도록 시간량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심야시간과 식사 시간처럼 사용을 허락지 말아야 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17a: 12-29).

마)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안내서, 매뉴얼(2019)

2019년에는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매 분량)과 더불어「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안내서」(4매 분량)를 대상별로 7종[52]씩 개발하였는데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였고 고령층까지 대상자를 세분화하였으며, 2017년 활용매뉴얼 안에 대상별 실천가이드로 있었던 내용을 재개정하여 별도의 분권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영·유아 보호자용」을 배포하였다. 다만, 2017년에도 제시된 원칙이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2세 미만 영아에게 미디어 노출을 되도록 하지 않는게 좋다'는 원칙은 오히려 2019년 영아 보호자용에 명시되지 않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19a: 1). 가이드라인과 안내서를 영아용과 유아용을 구분한 것은 영유아 발달상 매우 적합한 접근이나, 제시내용은 연령 세분화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영아기 미디어 이용 지도의 기본 원칙은 생략되고 무심코 노출될 경우의 과의존 위험성[53]만을 제시하고 있고, 다른 세부내용도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가이드라인만 접할 경우 내용전달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4매 분량의 안내서도 마찬가지로 영아 부모용과 유아 부모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의 수칙 외에도 보호자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상황, 뇌발달에의 영향, 올바르게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방법, 아이와 함께하는 연령별 놀이 등을 제시하여 보다 부모의 이해를 도왔다는 점이 장점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19h; 2019i). 그러나 영아 보호자용 가이드라인(4

52) 영아 보호자, 유아 보호자, 아동(6~9세), 청소년, 아동청소년 보호자, 성인, 고령층
53) 아이에게 무심코 보여주는 10분의 모바일 콘텐츠로 인해 아이는 스마트폰에 과의존할 수 있습니다.

매) 여전히 여기에서도 영아에 대한 미디어 노출 제한이라는 기본원칙이 명시되지 않고 무심코 노출될 경우의 과의존 위험성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우며, 연령 구분의 장점을 살리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매뉴얼은 2017년 버전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각 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개발 근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d: 4).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영유아 보호자용」에서는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증가 실태, 발달상의 해로움과 부정적 영향, 과의존 수준 점검, 보호자와 가정환경의 영향, 가정의 스마트폰 활용 규칙을 정하고 실천,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d). 전체적으로 4단계 구분이 다소 강조되고 가이드라인 수칙은 오히려 덜 강조되면서 방대한 근거자료가 제시되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유의해서 읽지 않으면 부모가 기본적인 사항을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부내용에서 영아기는 영상통화 기능만 보호자와 상호작용하며 사용하고, 유아기에는 한 시간 이내로 이용시간을 제한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d: 9), 부모가 꼭 기억해야할 사항들은 대원칙 수준에서 제시해주었다면 보호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하는데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가장 최신 가이드라인은 2021년 버전이다. 이는 2019년 가이드라인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기관 개칭으로 인해 재배포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2019년 내용으로 갈음한다.

〈표 Ⅱ-3-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정보화진흥원) 개발 가이드라인(2007~2021)

개발 년도	가이드 라인명	대상	주요 내용	발행처
2007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중고등 학생용 (즐겨라)	1) 인터넷 알기(이용현황, 생활 변화, 인터넷의 영향) 2) 인터넷중독(정의, 증상, 결과) 3) 건강한 인터넷 사용방법(예방지침, 과다사용 탈출법, 사용조절), 건강한 휴대전화 사용법(현황, 순/역기능, 자가점검, 중독예방방법)	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교사용 (키워라)	1) 청소년 인터넷문화와 인터넷중독 2) 인터넷중독 지도요령(자가진단검사, 지도방안, 전문상담기관 안내)	

개발 년도	가이드 라인명	대상	주요 내용	발행처
		학부모용 (통하라)	1) 인터넷과 청소년 문화, 인터넷 중독이란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심리적 특성, 환경특성, 징후 3)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부모교육 4)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한 자녀지도 지침 5) 휴대전화 사용지도 방안	
2008 / 2009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초등학생용 (즐겨라)	1) 우리들의 사이버 문화, 청소년 인터넷중독 실태 2) 인터넷중독 이해, 친구들의 인터넷중독 탈출 사례 3)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스스로의 약속 4) 인터넷 休(휴)요일 프로그램, 5) 게임중독 자가 진단 6) 휴대전화 사용 길라잡이	2008년 행정안전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년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중고등 학생용 (누려라)	1) 우리들의 사이버 문화, 인터넷중독 실태 2) 인터넷중독 이해, 사례, 예방을 위한 스스로의 약속 3) 인터넷 休(휴)요일 프로그램 4)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 5) 휴대전화 사용 길라잡이	
		교사용 (키워라)	1) 청소년과 사이버 문화, 청소년 인터넷중독 실태 2) 인터넷중독 이해, 사례, 예방 학생지도 요령 3) 인터넷 休(휴)요일 프로그램, Rainbow 프로그램 안내 4)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 5) 휴대전화 사용 길라잡이 부록. 인터넷중독 예방 지침	
		학부모용 (통하라)	1) 청소년과 인터넷 문화, 실태 2) 인터넷중독 이해, 사례, 예방 자녀지도 요령 3) 인터넷 休(휴)요일 프로그램 4)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 5) 휴대전화 사용 길라잡이 부록. 인터넷 이용관리 프로그램 안내	
2013 / 2014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8매 브로셔)	유아동 부모용 (유치원, 초등 1,2학년)	도입) 스마트폰이 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1주차) 확인과 계획(스마트폰 사용 자가점검, 규칙만들기) 2주차) 최초의 성공을 위하여(계획 실천 점검하기) 3주차)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계획 실천 점검하기) 4주차) 계속되는 나와의 약속(계획 실천 점검하기) 마무리)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가이드라인 10가지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한국정보화진흥원
		초등고 학년용 (3~6학년)	도입)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시 유발증상 1주차) 확인과 계획(스마트폰 사용 자가점검 및 계획) 2주차) 최초의 성공을 위하여(계획 실천 점검하기) 3주차)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계획 실천 점검하기) 4주차) 계속되는 나와의 약속(계획 실천 점검하기) 마무리)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라인 7가지	
		중고등용	도입)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시 유발증상 1주차) 확인과 계획(스마트폰 사용 자가점검 및 계획) 2주차) 최초의 성공을 위하여(계획 실천 점검하기)	

개발 년도	가이드 라인명	대상	주요 내용	발행처
			3주차)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계획 실천 점검 하기) 4주차) 계속되는 나와의 약속(계획 실천 점검하기) 마무리)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라인 7가지	
2014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 (1매)	유아학부모용	7가지 실천수칙 1면에 간략 제시 1) 아이가 스마트미디어 이용 시 부모가 함께 하기 2) 최대한 스마트미디어 접하는 시기 늦추기 3) 가정에서 스마트미디어가 허용되는 장소와 시간 정하기 4) 아이 스스로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끝내도록 도와주기 5) 지나치게 사용하면 위험함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6) 사용시간을 정할 때 아이연령과 수준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약속하기 7)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재밌는 놀이 부모가 함께하기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청소년용	7가지 실천수칙 1면에 간략 제시 - 목적과 장소에 맞게 사용하기, 메시지 답장 늦어도 집착하지 않기, 의심스러운 어플 다운않기, 스마트폰으로 스트레스 풀리지 않는다, 자신의 사용량 알기, 오프라인 퀘스트 놓치지 않기, 중독 테스트 해보기	
		청소년 학부모용	7가지 실천수칙 1면에 간략 제시 - 사용 자제할 시간/장소 정하기, 끌 때는 반드시 스스로 끄도록 유도, 과다사용 유해성에 대해 대화, 건전사용을 돕는 어플 설치, 자녀가 스마트미디어로 무엇하는지 관심갖기, 평소 자녀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마음상태 관심갖기,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 취미 즐기기	
		성인용	7가지 실천수칙 1면에 간략 제시 - 스마트미디어 기기 눈앞에 두지 않기, 보행/운전/회의중 자제, 정기적 사용습관 점검, 무심결 사용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 필요어플만 다운, 메시지 즉각 답장않아도 괜찮음, 의심되면 테스트 받기	
		임산부용	7가지 실천수칙 1면 간략 제시 - 부주의한 사용의 위험성 상기, 아이의 스마트미디어 교육 어머니부터 준비, 의심되면 테스트 받기, 정기적 사용점검, 전자파 차단 주의, 무심결 사용 방지, 태교로 기기대신 다른 활동 찾기	
		일반용	7가지 실천수칙 1면 간략 제시 - 메시지 답장이 늦어도 집착않기, 계단/횡단보도/수업/운전중 사용자제, 필요어플만 다운, 아이에게 스마트폰보다 부모의 사랑을, 폰 대신 오프라인 활동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기	

개발 년도	가이드 라인명	대상	주요 내용	발행처
2015	스마트 중독예방 가이드북 (8매 브로셔)	유아동 부모용	2014년 가이드북과 동일 내용	미래창조 과학부· 교육부· 한국정보화 진흥원
		초등고 학년용	2014년 가이드북과 동일 내용	
		중고등용	2014년 가이드북과 동일 내용	
2017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 스마트폰 쉼(REST) 하세요 (2매)	영유아 (0~5세) 보호자용	1) 실천수칙 11가지 4단계(R.E.S.T)로 제시 - 만2세전 노출하지 않기, 과다사용이 해로움을 가르치기 - 아이와 보호자 사용습관 점검하기(과의존 척도 제시) - 이른시기 노출된 경우 단번에 끊는 것도 방법임 - 스마트폰 내 유해요소 정리, 바른사용자세 습관화 - 교육용 앱보다 책읽어주기, 사용규칙은 발달단계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기 - 아이의 오감 꾸준히 자극, 보행이용시 사용하지 않기 - 외출시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고 놀잇감 챙기기 2)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제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 진흥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
		아동용 (6~12세)	1) 실천수칙 8가지 4단계(R.E.S.T)로 제시 - 사용 후 눈 건강 체조와 스트레칭하기 - 스마트폰 이용습관 자가점검(척도 제시) - 구체적 사용시간 정하고 스스로 멈추기, 사용하지 않는 앱 정리, 가족의 사용 약속 정하기, 보행이동시 사용하지 않기, 공공장소에서 기본매너 지키기 2)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제시	
		청소년용	1) 실천수칙 10가지 4단계(R.E.S.T)로 제시 - 바른자세, 스마트폰 과다사용 자가점검(척도 제시) - 사용종료시간 정해 수면골든 타임 지키기, 메신저 다이어트, 진로 학업에 유용한 앱 이용, 약속된 장소에 보관하기, 가족과 식사시 사용하지 않기, 학교에서 정한 규칙 지키기, 보행이동시 사용않기, 공공장소서 기본매너 지키기 2)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제시	
		아동· 청소년 보호자용 (6~18세)	1) 실천수칙 10가지 4단계(R.E.S.T)로 제시 - 과다사용 부정적 결과 대화하기, 과의존 점검(척도 제시) - 청소년 문화이해, 자녀활동 관심갖기, 수면지도, 유용한 앱 지도, 사용규칙 자녀 스스로 정하게 격려 등 2)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제시	
		성인· 고령층용 (19세 이상)	1) 4단계(R.E.S.T), 실천수칙 13가지 2면에 간략 제시 - 보행/운전 시 금지, 바른자세, 과의존 점검(척도 제시) - 수면습관 점검, 메신저 다이어트, 스마트 에이징 실천 등 2)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제시	

개발 년도	가이드 라인명	대상	주요 내용	발행처
2017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가이드 활용매뉴얼	영·유아부터 성인·고령층 용까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바른 사용 안내 - 영·유아 보호자,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 학부모, 성인·고령층 등 대상별로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고 과의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천 중심의 안내서 - 대상별 실천 가이드 5종 제시(영·유아 보호자용, 아동용, 청소년용, 아동·청소년 보호자용, 성인·고령층용) -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과도사용이 미치는 영향, 상담사례, 바른사용 Q&A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2매)	영아 보호자용	1) 실천수칙 7가지 4단계(R.E.S.T)로 제시 - 무심코 보여주는 행동의 위험성, 보호자의 이용습관 닮아감, 스마트폰을 육아도구로 이용하는 것도 방임일 수 있음. 영상통화 외 이용자제, 가정 내 스마트폰 활용 규칙 지키기, 보호자와의 친밀한 시간이 발달에 도움되는 시기 2)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
		유아 보호자용	1) 실천수칙 7가지 4단계(R.E.S.T)로 제시 - 스마트폰 작동능숙이 스마트를 의미하지 않음. 보호자 이용습관과 과의존이 아이에게 영향 줌. 규칙없는 이용은 방임임. 아이의 발달단계와 기질을 고려한 스마트폰 사용규칙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키기. 학습용 앱보다 책읽어주기, 근무/외출시 놀잇감 주기, 아이가 규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칭찬하고 격려하기 등 2) 유아 및 보호자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제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영유아 보호자용	영·유아 보호자용	1) 개발 개요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 1단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인식(사례, 개념, 실태, 영향) - 2단계: 사용상태 점검(보호자와 아이의 과의존 수준 점검) - 3단계: 바른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 제시(보호자와 가정환경의 영향, 가정의 활용규칙 정하고 실천, 놀이의 중요성 - 4단계: 주변 사람과의 관계 형성 강화(스마트폰 대신 부모가 함께 놀아주기) 3) 과의존 이해하기(개념, 위험군 분류, 척도 및 결과 해석), 스마트쉼센터 소개, 국외동향	
	생애 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2매)	영아 보호자	상기 가이드라인과 내용 같음(생략)	
		유아 보호자	상기 가이드라인과 내용 같음(생략)	
		아동	1) 실천수칙 10가지 4단계(R.E.S.T)로 제시 - 과의존 위험성, 자가진단, 바른자세, 사용규칙 정하고, 문제해결과 협력에 활용, 미이용시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 폰 외에 재밌고 유익한 활동 즐기기 등 2)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제시	

개발 년도	가이드 라인명	대상	주요 내용	발행처
		청소년	1) 실천수칙 10가지 4단계(R.E.S.T)로 제시 - 과의존 위험성, 자가진단, 사용규칙 정하기, 믿을 수 있는 콘텐츠 이용, 미이용시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 디지털 기술 활용 문제해결, 폰 외에 재밌고 유익한 활동참여 등 2)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제시	
		아동청소년 보호자	1) 실천수칙 10가지 4단계(R.E.S.T)로 제시 - 과의존 위험성, 보호자와 자녀 자가진단, 수면지도, 사용규칙 정하고 실천 격려, 스마트폰 선용 및 디지털 활용역량 개발 지원, 청소년의 이용문화 이해, 자녀의 다양한 여가사회활동 권장,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소통, 관심 등 2)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제시	
		성인	1) 실천수칙 10가지 4단계(R.E.S.T)로 제시 - 과의존 위험성, 자가진단, 사용내역 주기적 확인, 디지털 디톡스 실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개발, 여가생활 등 2)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제시	
		고령층	1) 실천수칙 10가지 4단계(R.E.S.T)로 제시 - 과의존 위험성, 자가진단, 사용내역 주기적 확인, 스마트폰 활용 교육 참여, 콘텐츠와 정보 비판적 선용, 스마트 에이징, 여가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 등 2)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제시	
	생애 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안내서 (4매)	영아 보호자	1) 보호자가 아이에게 스마트폰 주는 상황 2) 스마트폰 이용이 영유아기 뇌발달에 미치는 영향 3)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4) 영아에게 올바르게 스마트폰을 주는 방법, 영아기 노출 되도록 권장 않음, 아이와 함께하는 연령별 놀이 제시	
		유아 보호자	1) 보호자가 아이에게 스마트폰 주는 상황 2) 스마트폰 이용이 영유아기 뇌발달에 미치는 영향 3)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4) 유아에게 올바르게 스마트폰을 주는 방법, 3~4세 1시간 이내 허용, 아이와 함께하는 연령별 놀이 제시	
		아동 (6~9세)	1) 나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 2) 스마트폰 사용습관의 중요성 3)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4) 사용습관 약속 및 실천사항, 뇌발달 놀이 제시	
		청소년 (10~19세)	1) 스마트폰 사용모습 2)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실태(청소년이 가장 높음) 3)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4) 청소년기가 사용조절 취약이유, 조절 및 활용방법 실천	

개발 년도	가이드 라인명	대상	주요 내용	발행처
		아동청소년 보호자	1)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상황 2)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3)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4) 청소년기가 사용조절 취약이유, 생산적 활용방법 실천	
		성인	1)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상황 2)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3)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4) 생산적 활용방법 실천, 성인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고령층 (만60세 이상)	1) 고령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상황 2) 고령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3)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4) 사용조절 방법, 생산적 활용으로 스마트 에이징 실천, 고령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생애 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영유아 보호자	상기 가이드라인 매뉴얼과 동일함(생략)	
		아동	1) 개발 개요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 1단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인식(사례, 개념, 실태, 영향) - 2단계: 사용상태 점검(과의존 수준 점검) - 3단계: 바른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 제시(바른자세, 체조 및 스트레칭, 수면보호, 불필요기능 삭제, 사용규칙 정하고 실천, 앱 활용, 바른사용 및 활용 등 - 4단계: 관계 형성 강화(가족과 친구함께 할 때 사용치 않기. 스마트폰 예절 지키기) 3) 과의존 이해하기(개념, 위험군 분류, 척도 및 결과 해석), 스마트쉼센터 소개	
		청소년	1) 개발 개요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 1단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인식(실태, 영향) - 2단계: 사용상태 점검(과의존 수준 점검) - 3단계: 바른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 제시(바른 사용습관 형성, 디지털 활용 역량 개발, 더 중요한 것 가꾸기 - 4단계: 관계 형성 강화(가족과 친구 소통늘리기. 조심할 사항) 3) 과의존 이해하기(개념, 위험군 분류, 척도 및 결과 해석), 스마트쉼센터 소개	
		성인	1) 개발 개요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 1단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인식(실태, 영향) - 2단계: 사용상태 점검(과의존 수준 점검) - 3단계: 바른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 제시(관리 앱 사용,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활용역량 개발, 사회현안 참여, 취미 개발) - 4단계: 관계 형성 강화(관계의 소중함, 스마트폰 예절) 3) 과의존 이해하기(개념, 위험군 분류, 척도 및 결과 해석), 스마트쉼센터 소개, 국외동향	

개발 년도	가이드 라인명	대상	주요 내용	발행처
		아동청소년 보호자	1) 개발 개요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 1단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인식(실태, 영향) - 2단계: 사용상태 점검(과의존 수준 점검) - 3단계: 바른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 제시(수면, 규칙, 디지털 활용 역량, 생산적 활용지도, 이용문화 이해, 다양한 여가활동 권장) - 4단계: 관계 형성 강화(긍정적 양육태도, 관계양상 변화시키기, 소통과 공감 등) 3) 과의존 이해하기(개념, 위험군 분류, 척도 및 결과 해석), 스마트쉼센터 소개, 국외동향	
		고령층	1) 개발 개요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 1단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인식(실태, 영향) - 2단계: 사용상태 점검(과의존 수준 점검) - 3단계: 바른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 제시(스마트 에이징, 스마트폰 활용교육 참여 실천, 비판적 선용, 여가생활) - 4단계: 관계 형성 강화(소통공간 넓히기, 조심할 점) 3) 과의존 이해하기(개념, 위험군 분류, 척도 및 결과 해석), 스마트쉼센터 소개, 국외동향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2매)	영아 보호자용	2019년 가이드라인과 내용 동일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지능 정보사회 진흥원· 스마트쉼 센터
		유아 보호자용	2019년 가이드라인과 내용 동일함.	
		아동용 (만 6-9세)	2019년 가이드라인과 내용 동일함.	
		청소년용	2019년 가이드라인과 내용 동일함.	
		아동청소년 보호자용	2019년 가이드라인과 내용 동일함.	
		성인용	2019년 가이드라인과 내용 동일함.	
		고령층용	2019년 가이드라인과 내용 동일함.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4매)	영아 보호자용	2019년 안내서와 내용 동일함.	
		유아 보호자용	2019년 안내서와 내용 동일함.	
		아동용 (만 6-9세)	2019년 안내서와 내용 동일함.	
		청소년용	2019년 안내서와 내용 동일함.	
		아동청소년 보호자용	2019년 안내서와 내용 동일함.	
		성인용	2019년 안내서와 내용 동일함.	
		고령층용	2019년 안내서와 내용 동일함.	

주 : 1) 8매 이내 간략한 가이드북은 가이드라인명에 매수를 기재하였고, 영유아 대상은 볼드처리함.
2) 2008년과 2009년 가이드북, 2013년과 2014년 가이드북은 내용과 구성이 거의 동일함.

자료 : 1) 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a).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즐겨라(중고등학교 학생용).
2) 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b).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키워라(교사용).
3) 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c).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통하라(학부모용).
4) 행정안전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a).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즐겨라(초등학생용)
5) 행정안전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b).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누려라(중고등학생용)
6) 행정안전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c).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키워라(교사용)
7) 행정안전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d).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통하라(학부모용)
8)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09a).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즐겨라(초등학생용)
9)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09b).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누려라(중고등학생용)
10)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09c).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키워라(교사용)
11)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09d).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통하라(학부모용)
12) 미래창조과학부 외(2013a). 부모님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부모용).
13) 미래창조과학부 외(2013b).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초등 3학년~6학년용).
14) 미래창조과학부 외(2013c).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중·고등학생용).
15) 미래창조과학부 외(2014a). 부모님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부모용).
16) 미래창조과학부 외(2014b).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초등 3학년~6학년용).
17) 미래창조과학부 외(2014c).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중·고등학생용).
18)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a).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 유아학부모용.
19)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b).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 청소년용.
20)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c).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 청소년학부모용.
21)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d).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 성인용.
22)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e).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 임산부용.
23)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f).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 일반용.
24) 미래창조과학부 외(2015a). 부모님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부모용).
25) 미래창조과학부 외(2015b).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초등 3학년~6학년용).
26) 미래창조과학부 외(2015c).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중·고등학생용).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7a).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가이드 활용매뉴얼: 영유아부터 성인·고령층까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바른 사용 안내.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7b).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스마트폰 쉼(REST)하세요): 영유아 보호자용.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7c).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스마트폰 쉼(REST)하세요): 아동용.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7d).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스마트폰 쉼(REST)하세요): 청소년용.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7e).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스마트폰 쉼(REST)하세요): 아동·청소년 보호자용.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7f).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스마트폰 쉼(REST)하세요): 성인·고령층용.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영아용.
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c).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유아용.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d).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영·유아 보호자용.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a).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영아 보호자용.
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b).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유아 보호자용.
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c).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아동용.
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d).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청소년용.

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e).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아동청소년 보호자용.
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f).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성인용.
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g).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고령층용.
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h).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안내서: 영아 보호자용.
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i).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안내서: 유아 보호자용.
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j).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안내서: 아동용.
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k).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안내서: 청소년용.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l).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안내서: 아동청소년 보호자용.
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m).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안내서: 성인용.
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n).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안내서: 고령층용.
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o).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아동용.
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p).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청소년용.
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q).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성인용.
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r).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아동청소년 보호자용.
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9s).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고령층용.
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1a).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영아 보호자용.
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1b).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유아 보호자용.
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1c).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아동용.
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1d).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청소년용.
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1e).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아동청소년 보호자용.
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1f).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성인용.
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1g).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고령층용.
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1h).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4p): 영아 보호자용.
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1i).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4p): 유아 보호자용.
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1j).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4p): 아동용.
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1k).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4p): 청소년용.
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1l).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4p): 아동청소년 보호자용.
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1m).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4p): 성인용.
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1n).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4p): 고령층용.

[그림 Ⅱ-3-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영유아 대상 가이드라인

주 : 좌상) 2013년(유치원, 초등 1~2학년 부모용), 우상) 2017년(영유아 보호자용),
좌하) 2021년(영아 보호자용), 우하) 2021년(유아 보호자용)

자료 : 1)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3a). 부모님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부모용). p.7.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7b).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스마트폰 쉼(REST)하세요): 영유아 보호자용. p.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1a).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영아 보호자용. p.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1b).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유아 보호자용. p.1.

2) 그 밖의 미디어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다음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의 국내 미디어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바른ICT연구소의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바른 사용 가이드라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외 「안전하고 건강한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권고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디지털 교과서 건강하게 활용하기」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녀 게임 이용지도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의 「유아를 위한 미디어 교육」, 대한안과학회의 「VDT관련 안과질환 예방수칙」 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바른ICT연구소의 가이드라인은 영아와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원칙과 발달사항 및 사용법이 간략형으로 알기 쉽게 구성되어 있고 디지털 미디어 전체를 포괄한다는 점이 장점이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권고안 또한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전반 포괄하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과도한 스크린타임이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아동청소년 보호자를 위한 전반적인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이용 권고사항 9가지를 시간기준, 사용환경 지도,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준 판단, 금지할 상황, 부모 모범 등을 담고 있어 적절히 상세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가이드라인은 학교에서의 디지털교과서와 실감형콘텐츠 사용에 대해 다루므로 학습과 경험에서의 잇점을 강조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부작용 우려에 대해 불식하려는 근거 제공이 중립성이 없고 다소 편파적인 측면이 있으나, 바른 사용자세와 신체건강 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체조나 스트레칭을 상세히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자가점검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등의 실용적인 측면의 장점이 있다. 여성가족부의 유아를 위한 미디어 교육 가이드라인은 교사용에 기술된 원리가 영아와 유아, 부모교육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어 상당히 참고할만하며, 대한안과학회에서 제공한 수칙은 휴식시간의 주기, 화면각도 및 밝기조정 등 눈 건강 관련 VDT증후군 예방을 위해 참고할만 하다. 결론적으로 바른ICT연구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외, 여성가족부 자료 등이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미디어 이용 가이드라인과 적합성 기준 구성에 가장 참고할만하다고 볼 수 있겠다.

〈표 Ⅱ-3-6〉 그 밖의 국내 미디어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년도	가이드 라인명	대상	주요 내용	발행처
2020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바른 사용 가이드라인	영아용	1) 부모 자녀 모두 눈맞춤 시간 늘리기 2) 발달단계: 뇌발달 급격, 오감활용 감각 발달, 시력 성장기, 부모애착 형성, 쌍방향 언어상호작용 중요 3) WHO 권고사항: 24개월 이하 미디어 비권장 4) 바른사용법 - 0~12개월: 사용금지, 오감으로 사물탐색 지원 - 13~24개월: 상호작용 용도(영상통화)로 짧게, 달래는 목적 사용금지, 특정공간(차안/식당)에서 반복시청은 나쁜습관 기름, 외출 시 놀잇감 필참 - 25~36개월: 제한적 사용(스크린 타임, 선별 컨텐츠 부모와 함께), 눈 보호(블루라이트 차단), 부모 스마트폰 과의존 줄이기, 외출용 놀잇감 지참	연세대학교·바른ICT연구소·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실
		유아용	1) 영상 간접경험이 아닌 직접 경험을 시켜줄 것 2) 발달단계 특징: 인지발달 급속한 시기, 신체활동으로 대소근육 발달, 시력 만 7~8세 완성, 폭발적 언어발달, 사회적 관계 확장 3) WHO 권고 미디어 이용시간: 1시간 미만 4) 바른사용법 - 건강한 사용법: 짧게 사용, 보호자와 함께 보고 키즈전용 콘텐츠, 블루라이트 설정, 스트레칭 - 건강한 정보 활용법: 다양한 쓰임 알려주기(날씨, 미세먼지, 궁금한 정보 등), 자녀 관심 콘텐츠로 이야기 나누기,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줄이기 - 놀이를 통해 성장하기: 자녀가 좋아하는 놀잇감 상비,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 부모가 함께해주기	
2015	안전하고 건강한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권고안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1)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권고안이란? 2) 과도한 스크린타임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 발달 및 인지, 정신건강, 신체적, 사회적 영향 3)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이용 권고안 9가지 - 만2세 미만 노출 피하기, 만 2세 이후에도 하루 2시간 초과하지 않기, 사용환경 적절히 살피기, 기기와의 거리나 소리크기 등 기기조작 및 사용환경에 대한 지도, 평소 어떤 콘텐츠를 보고 느끼는지 관심 갖고 대화하기, 부모가 콘텐츠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가정 내 이용계획을 세우고 관리, 심야시간 이용 가급적 금지, 부모가 모범 보이기	대한신경정신의학회·한국중독정신의학회·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20	디지털교과서 건강하게 활용하기	학생용	1) 디지털교과서와 실감형콘텐츠 알아보기 2) 디지털기기의 건강한 활용법(활용수칙, 체조) 3) 실감형콘텐츠의 안전한 활용법 부록. 디지털교과서의 효과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사용	1) 디지털교과서와 실감형콘텐츠 이해하기	

개발 년도	가이드 라인명	대상	주요 내용	발행처
			2)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확인하기(뇌기능 영향, 활용효과, 중독과의 관계) 3) 디지털기기와 실감형콘텐츠의 건강한 활용법 지도하기	
2014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건강하게 활용하기 가이드북	학생용	1) 디지털교과서를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한 환경을 갖춰요! 2) 건강한 스마트기기 활용법을 실천해 보세요! 3) 건강한 스마트기기 활용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요! 부록. 디지털교과서와 건강과의 관계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사용	1) 디지털교과서 이해하기 2)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건강과의 관계 확인하기 3) 디지털교과서 건강하게 활용하기 부록. 건강한 스마트기기 활용 여부 자가진단도구	
		학부모용	1) 디지털교과서 이해하기 2)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건강과의 관계 확인하기 3) 디지털교과서 건강하게 활용하기 부록. 건강한 스마트기기 활용 여부 자가진단도구	
2018	가상현실(VR) 기술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연구	이용자	VR 이용자 안전 가이드라인 1) 이용 전 – 기기 정보 및 상태 확인, 활용 공간 점검, 위생 점검, 콘텐츠 선정, 건강상태 확인 2) 이용 중 – 건강 및 인지 상태 확인, 이용 상태 확인(휴식 가이드라인 포함), 기기상태 확인 3) 이용 후 – 건강 및 인지 상태 확인, 기기 상태 확인 *이용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관리자 체크리스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콘텐츠 개발자	V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 1)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용연령, 공간확보 기준, 등급분류, 이용시간 등) 2) 사용자 감각 정보의 일체화(시야각, 색상, 소리) 3) 상태·상황의 식별 기준(불쾌감, 감각혼란, 불편감, 피로감, 입체감, 형태감, 재생속도 등) 4) 편의성 원칙(구매, 설치, 사용 전 과정의 불편감 해소) 5) 인터페이스 디자인(그래픽, 사운드) 6) 컨트롤러(입력장치) 7)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실시하고, 콘텐츠에 의해 발생가능한 사고와 질병의 위험성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구성시스템에 표시해야 함) 8) 작동 오류 9) 조작과 인지의 부조화(최소화할 것) 10) 동작 범위(플레이 영역)	
2016	자녀 게임이용지	부모용	1) 아이에게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주기 2) 게임 시간을 정해두고 꼭 그 시간을 지키게 하기	한국콘텐츠진흥원

개발 년도	가이드 라인명	대상	주요 내용	발행처
	도 가이드라인		3) 아이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정기적으로 살펴보기 4) 게임 아이템을 사달라고 할 때는 확실하게 상한선 정하기 5) 가끔 아이와 같이 게임해보기 6)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시켜달라 할 때 단호하게 거절 7) 가급적 PC방에 가게 하기 보다는 집에서 게임 시켜주기 8) 게임 이외의 여가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기 9) 정당한 방법으로 게임을 이용하도록 지도 10) 게임을 아이의 생활의 일부로 인정해주기	
2011	유아를 위한 미디어 교육: 건강한 미디어 사용으로 가족사랑을 키워요	유아 부모용	가정에서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활동안 제시 1) 텔레비전 이용 활동안 8개: 이로움과 해로움, 바른 시청습관 형성 활동, 적절한 상호작용 방법 2) 전자게임 이용 활동안 8개: 자녀의 게임 습관과 부모의 통제방법 점검, 문제상황에서 상호작용 방법, 바른 습관형성을 위한 약속,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 3) 인터넷 이용 활동안 7개: 인터넷의 쓰임새,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 유해사이트 보호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유아를 위한 미디어 교육: 미디어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요	유아 교사용	영유아기에 적합한 전자미디어 교육의 실천을 위한 교재 1) 유아기 전자미디어 교육: 필요성, 순기능과 역기능, 효율적 교육방법, 교육활동 모형 2) 활동의 실제(26개 활동안 제시): 바른 사용법 익히기, 자기조절력 기르기,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정보 활용하기, 규칙 준수하기, 가족과 즐겁게 생활하기 등	
2012	눈건강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일반인용	수칙 1. 약시 조기발견하려면 만 4세 이전 시력검사를 받는다. 수칙 7. (중략) 장시간 컴퓨터 사용을 자제한다. - 컴퓨터 사용 시 50분마다 10분씩 눈을 감고 휴식 수칙 8. 지나친 근거리 작업을 피하고 실내 조명을 밝게 유지한다. - 텔레비전 시청은 적어도 2.5미터 이상 도는 텔레비전 화면 크기의 5배 이상의 거리에서 보는 것이 좋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안과학회
2015	VDT관련 안과질환 예방수칙	일반인용	1) 50분 VDT작업 후 10분 쉬기, 2시간 이상 VDT 사용 No 2) 너무 춥거나 건조한 환경은 No 3) VDT 화면의 높이는 눈보다 낮게, 화면 밝기는 적절히	대한안과학회

개발 년도	가이드 라인명	대상	주요 내용	발행처
			4) 흔들리는 곳에선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금지 5) 눈이 피로할 땐 눈을 자주 깜박이고, 정기적 안과 방문	

주 : 스크린타임이란 디지털스크린을 이용해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외, 2015: 4)
자료 : 1) 연세대학교·바른ICT연구소·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실(2020a).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바른 사용 가이드라인: 36개월 미만 영아용.
2) 연세대학교·바른ICT연구소·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실(2020b).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바른 사용 가이드라인: 만 3세 이상 유아용.
3) 대한신경정신의학회·한국중독정신의학회·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2015). 안전하고 건강한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권고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독특임위원회.
4)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4a).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건강하게 활용하기 가이드북: 학생용.
5)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4b).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건강하게 활용하기 가이드북: 교사용.
6)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4c).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건강하게 활용하기 가이드북: 학부모용.
7)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a). 디지털 교과서 건강하게 활용하기: 학생용.
8)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b). 디지털 교과서 건강하게 활용하기: 교사용.
9) 게임문화재단(2020). 알쓸게상: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게임 상식. pp. 22-23에서 재인용[54]
10) 여성가족부(2011a). 유아를 위한 미디어 교육(부모용): 건강한 미디어 사용으로 가족사랑을 키워요.
11) 여성가족부(2011b). 유아를 위한 미디어 교육(교사용): 미디어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요.
12) 계보경 외(2018). 가상현실(VR) 기술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12. 3. 21.). 질병관리본부-대한안과학회, '눈 건강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 발표. pp.3-5.
14) 대한안과학회(2015). VDT관련 안과질환 예방수칙.

가)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바른 사용 가이드라인(2020)

바른ICT연구소는 SKT와 연세대학교가 건전한 ICT(정보통신기술) 문화 구축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에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2020년에는 영유아 대상 디지털 미디어 바른 사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인공지능신문, 2020. 11. 6 기사)[55]. 가이드라인은 만 36개월 미만의 영아와 만 3세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성장기에 중요한 발달 단계를 고려한 미디어 사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아용과 유아용을 각각 1매의 그래픽 형태로 구성하였다(인공지능신문, 2020. 11. 6 기사)[56]. 내용구성은 발달에 적합한 핵심 주안점을 먼저 짚고, 발달단계상의 특징들과 WHO 권고사항, 바른사용법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연세대학교·바른ICT연구소·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실, 2020a; 2020b).

54) 원문출처는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자녀 게임이용지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해당기관에서 원문을 찾을 수 없어 재인용함.
55) 인공지능신문(2020. 11. 6 기사). SKT-바른ICT연구소, '빠른' 보다 '바른' 디지털 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시.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8293 (2021. 6. 12 인출).
56) 인공지능신문(2020. 11. 6 기사). SKT-바른ICT연구소, '빠른' 보다 '바른' 디지털 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시.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8293 (2021. 6. 12 인출).

[그림 Ⅱ-3-2] 바른ICT연구소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바른 사용 가이드라인

주 : 좌) 36개월 미만 영아용, 우) 만 3세 이상 유아용
자료 : 1) 연세대학교·바른ICT연구소·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실(2020a).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바른 사용 가이드라인: 36개월 미만 영아용.
2) 연세대학교·바른ICT연구소·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실(2020b).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바른 사용 가이드라인: 만 3세 이상 유아용.

세부적인 내용은 먼저 영아용에서는 부모 자녀 모두 눈맞춤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WHO 권고사항을 근거로 영아기는 미디어 이용을 비권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바른사용법으로 만 0세, 만 1세, 만 2세로 월령을 구분지어 발달에 적합한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연세대학교·바른ICT연구소·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실, 2020a). 유아용에서는 영상 간접경험이 아닌 직접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함을 짚고, WHO 권고사항을 근거로 1시간 미만의 이용시간이 권고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바른사용법으로 짧게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고, 다양한 쓰임을 알려주고, 관심 콘텐츠로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는 것이 좋고, 부모가 함께 놀아주도록 권고하고 있다(연세대학교·바른ICT연구소·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실, 2020b). 연령별 1매의 간략한 분량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고, 발

달상의 중요한 특징, 유념할 원칙과 사용법의 구체적인 제시로 발달단계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안전하고 건강한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권고안(2015)

대한신경정신의학회·한국중독정신의학회·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2015년에 발표한 「안전하고 건강한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권고안」은 아동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이 개발한 안내서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외, 2015: 4). 과도한 스크린타임이 신체적(또는 신체) 및 정신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 규범을 전달하여 아동청소년과 이들을 지도하는 부모와 교사, 그 밖의 성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외, 2015: 5). 이를 위해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홍콩보건, 호주왕립의사회 등이 발표한 4가지 권고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 연구들을 근거로 권고안을 작성하였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외, 2015: 5).

과도한 디지털 미디어 스크린타임이 시력 저하, 근골격계 이상, 수면 장애, 비만과 체형변화 초개 등 신체적 영향, 학습 및 인지기능 저하, 행복감·자존감·만족감 저하, 가족간 유대감 상실, 여가 등의 삶의 질 저하 등 발달 및 인지적 영향, 우울, 자살, 불안, ADHD, 충동성, 중독, 물질 오남용 등 정신건강에의 영향, 사이버 왕따 및 폭력, 폭행 및 성추행 등 각종 범죄 관련 위험행동 가능성 증가 등 사회적 영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이용 권고안으로 9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외, 2015: 6, 13-15).

특히, 만 2세 미만 영아는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노출을 가급적 피해야 하고, 만 2세 이후에도 초등학생까지는 가급적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지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외, 2015: 13). 또한 미디어 기기가 아동청소년의 침실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행중이나 주의를 기울일 상황에서 휴대기기 및 이어폰(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대화중이나 식사중에도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보았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외, 2015: 13). 더불어 시력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미디어 기기와의 물리적 일정거리 유지, 청력 손실 예방을 위해 미디어 재생 음량의 크기

나 지속시간의 주의가 필요하고, 자녀의 일상생활, 경험, 관심사 등에 관심을 갖고 소통하며, 미디어 기기를 함께 시청하고 공유하며 대화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외, 2015: 14). 미디어 기기를 접하기 전부터 가정 내 이용계획을 미리 세우고, 이용 이후에는 계획대로 지키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휴식을 위해 심야시간 가급적 이용을 금지하고,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외, 2015: 15).

다) 디지털교과서 건강하게 활용하기 가이드북(20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20년 개발한 「디지털교과서 건강하게 활용하기 가이드북」은 디지털교과서와 실감형콘텐츠의 건강하고 안전한 활용법을 담은 자료로 2014년에 먼저 개발된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건강하게 활용하기 가이드북」과 2018년 「가상현실(VR) 기술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a: 26).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교과내용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실감형콘텐츠, 평가문항, 보충심화 학습자료 등 다양한 학습자료와 학습지원 및 관리 기능과 에듀넷 등의 외부자료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에듀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a: 4-5). '2015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안에는 직접 체험이 어려운 상황을 현실처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실감형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데, 증강현실(VR), 가상현실(VR), 360° 사진 및 영상 콘텐츠가 주제별로 해당단원에 배치되어 있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a: 7).

디지털교과서를 활용의 장점으로 서책 교과서 활용 시보다 더 넓은 영역의 두뇌를 활용하고 더 다양한 정보와의 상호작용이 두뇌에서 일어나 뇌기능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보았고(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a: 9), 반대로 중독예방교육과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교육을 하고 있고, 디지털교과서 정보탐색을 협업의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학습을 위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것과 인터넷 중독은 연관성이 없다고 제시했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a: 14).

학습적 측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용 시 생겨나는 건강문제를 방지하도록 컴퓨터단말기(VDT)증후군[57] 등을 설명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눈체조(상

57) 컴퓨터작업으로 발생하는 눈의 피로와 시력저하, 목과 허리 통증, 만성 피로감, 짜증, 초조 등의 복합

하좌우 안구운동) 방법, 컴퓨터단말기(VDT)증후군 예방수칙을 제시하고, 근골격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체조(손목, 발목, 목, 팔, 어깨, 옆구리, 다리, 등, 가슴 등)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a: 18-23). 또한 실감형 콘텐츠 안전 활용법으로 이용 전, 이용 중, 이용 후 지켜야 할 수칙을 제시하고, 건강상태 확인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a: 25-27), 교사나 보호자의 안내와 지도 필요, 교사 선체험 후 사용지도, 충분한 공간확보, 주변장애물 안전하게 정리, 위험한 장소 사용금지, 공용기기 이용시 일회용 VR마스크 착용, 화면 초점 조절방법 지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a: 25). 교사용 가이드라인도 학생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b).

2014년에 먼저 개발된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건강하게 활용하기 가이드북」은 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의 3종으로 구성되었다. 2014년 가이드북은 실감형콘텐츠는 빠져있고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활용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학생용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한 환경 갖추기, 건강한 활용법 실천방법(눈 체조, 안구운동, 눈의 건강문제 체크리스트, 스트레칭, 정신과 마음관리, 건강한 스마트기기 활용 여부 점검 체크리스트(27개 문항), 디지털교과서와 건강의 관계 등의 구성내용을 담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4a). 교사용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개념, 서책형교과서와의 비교, 교실환경, 디지털교과서와 건강과의 관계, 건강한 교실환경 만들기 위한 지침, 스마트기기의 건강한 활용을 위한 방법(눈 건강 체조, 스트레칭 등), 건강한 스마트기기 활용 여부 자가진단도구 등을 담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4b). 학부모용은 교사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라) VR 이용자 가이드라인 및 V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2018)

전술한 디지털교과서 건강하게 활용하기 가이드라인에서 참고한 자료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가상현실(VR) 기술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VR 이용자 가이드라인」은 교육상황에서 VR 이용자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VR을 사용하고 교육적인 목적

증상(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a: 15)

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이다(계보경 외, 2018: 78). 가이드라인 구성에 이용자[58]의 건강과 안전(신체적, 정서적, 안전적 측면), 사용성 증진(사용기기, 콘텐츠, 이용자 측면)의 휴먼팩터 요소를 고려하였고, 이용자를 위한 이용 전, 이용 중, 이용 후 가이드라인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른 3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고, 여기에는 건강상태 점검을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였다(계보경 외, 2018: 79-80). 또한 교사와 부모 등의 보호자, 가상현실 서비스 안내자 등 관리자를 위한 이용 전, 이용 중, 이용 후 시기별 점검용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였다(계보경 외, 2018: 80).

또한 해당연구에서 개발한 「V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는 VR 콘텐츠 제작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용연령, 공간 확보 기준, 등급분류, 이용시간 등), 기기 이용 시 이용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측면(감각혼란, 피로감, 재생속도, 불편감 등), 이용자의 사용 전 과정에 대한 편의성 원칙(구매, 설치방법 등),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의 실시 의무, 발생가능한 사고와 질병의 위험성 고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계보경 외, 2018: 104-105, 110-114, 119-121). 이러한 구성항목은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 가이드라인 구성 시 고려사항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자녀 게임이용지도 가이드라인(2016)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6년에 발표한 '자녀 게임이용지도 가이드라인'은 부모용 가이드라인으로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는 10가지 지침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아이 본인 계정을 열어주고, 게임 시간을 정하고 지키게 하며, 어떤 게임을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게임 아이템 구입의 상한선을 정하며, 아이와 가끔 같이 게임을 해보고,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은 단호히 거절하며, PC방보다는 집에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외의 여가를 찾도록 도와주며, 정당한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지도하며, 게임을 아이의 생활의 일부로 인정해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문화재단, 2020: 22-23에서 재인용).

58) 산업계에서는 가상현실에 대한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VR 이용연령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음(p.81)

바) 유아를 위한 미디어 교육(2011)

여성가족부는 유아의 건강한 매체이용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유아를 위한 미디어 교육 교재를 개발하였는데, 부모용과 교사용의 2종으로 구성되었다(여성가족부, 2021. 6. 14 인출)[59]. 먼저 부모용 교재는 텔레비전, 전자게임, 인터넷을 주제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매체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자녀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화법을 담고 있으며, 올바른 전자매체 사용 습관을 스스로 조절해나갈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하고 함께 지킬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11a: 5).

교사용 교재는 영유아 교사가 영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전자미디어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유아가 전자미디어의 기능과 가치를 알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며, 자신을 둘러싼 가족, 이웃, 사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전자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자미디어에 관한 교육'과 '전자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었다(여성가족부, 2011b: 7).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루고, 효율적인 교육의 방법으로 유아를 위한 미디어교육의 원리 5가지, 영아를 위한 미디어 교육의 원리 4가지, 미디어에 관한 부모교육의 원리 3가지를 다루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b: 16-20). 유아를 위한 전자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유아의 건전한 미디어 활용, 능동적 사용자로서 자기조절력 형성, 미디어와 관련된 윤리의식 함양,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이다(여성가족부, 2011b: 25). 이러한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미디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안 2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b).

〈표 Ⅱ-3-7〉 영아, 유아, 부모교육을 위한 전자미디어 교육의 원리(여성가족부, 2011b)

구분	기본 원리
영아를 위한 전자미디어 교육의 원리	- 전자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 영아는 전자미디어를 통해 학습하기 어려움을 인식해야 한다. - 부모와 영아의 상호작용의 매개물로 활용한다. - 일상생활 속에서의 전자미디어 노출 여부를 예민하게 파악해야 한다.
유아를 위한 전자미디어 교육의 원리	- 예방이 최우선이다. -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활동하며 확인한다.

59) 여성가족부, 주제별 정책자료,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902RbfDGyU7-XJcKKUo37ygN.mogef10?mid=plc502&bbtSn=629177 (2021. 6. 14 인출)

구분	기본 원리
	- 선택권을 가진 이용주체로서 서게 한다. - 구체적인 상황을 교육의 기회로 삼아 순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돕는다. - 정보통신 이용 윤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미디어에 관한 부모교육의 원리	- 가정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한다. - 부모가 강력한 미디어 모델링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 미디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과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자료: 여성가족부(2011b). 유아를 위한 미디어 교육(교사용): 미디어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요. pp.1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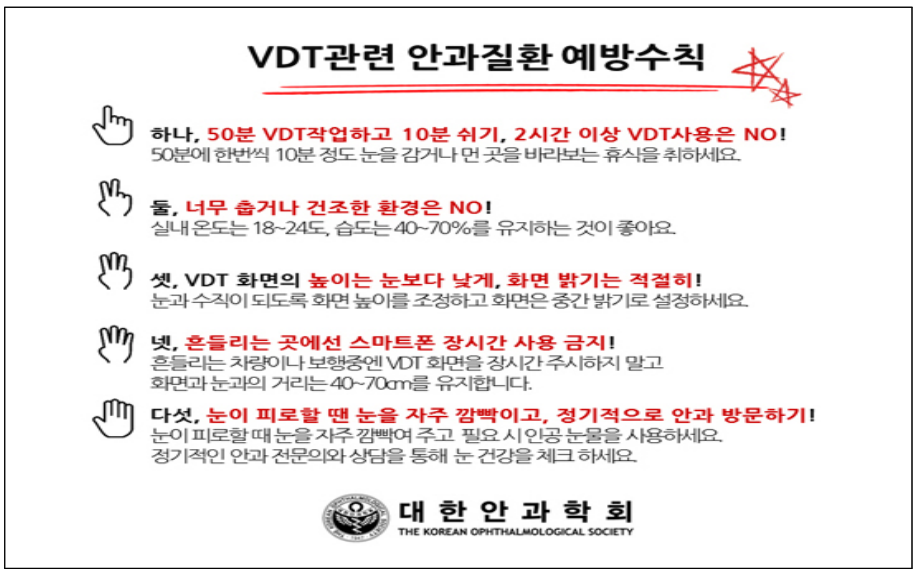
사) VDT관련 안과질환 예방수칙(2015)

마지막으로 대한안과학회에서 2015년에 발표한 VDT관련 안과질환 예방수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VDT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이란 장시간 동안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때 생기는 각종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르는 말이다(서울아산병원, 2021. 6. 14 인출)[60]. 이러한 VDT작업 시 안과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50분 VDT작업 후 10분간 휴식하며, 2시간 이상 사용은 금하는 것이 좋으며,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필요하고, 화면 높이는 눈보다 낮게, 화면 밝기는 적절한 것이 좋으며, 흔들리는 곳에서는 장시간 사용을 금하며 화면과 눈의 거리는 40~70cm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눈이 피로할 때는 눈을 자주 깜빡여주며,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대한안과학회, 2015).

그 이전의 관련 수칙으로는 2012년에 대한안과학회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발표한 '눈 건강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이 있는데 눈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눈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처음 제작된 것으로 약시발견을 위해 4세 이전 시력검사를 할 것, 컴퓨터 사용 시 50분마다 10분씩 휴식, 텔레비전 시청은 적어도 2.5미터 이상 또는 화면 크기의 5배 이상의 거리에서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 언급되었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2012. 3. 21.: 1,3,5). 2015년 수칙은 이러한 일반적인 수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유아기에 시력 발달이 지속되므로 미디어 이용 시 눈 건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속 안내될 필요가 있다.

60)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VDT 증후군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2566 (2021. 6. 14 인출)

[그림 Ⅱ-3-3] VDT관련 안과질환 예방수칙



자료: 대한안과학회(2015). VDT관련 안과질환 예방수칙.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국내 주요 가이드라인을 요약하면 〈표 Ⅱ-3-8〉과 같다.

〈표 Ⅱ-3-8〉 국내 주요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제목		주요내용	개발처	발행연도	비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2매)	- 7가지 실천수칙을 제시 - 영아는 영상통화 외 이용 자제하고, 유아는 발달과 기질을 고려하여 규칙을 정하여 이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21/ 2019	- 스마트폰 관련 지침 - 영아 보호자용과 유아 보호자용으로 나누어 발달에 맞게 지침 제시
	안내서 (4매)	- 뇌발달 영향,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올바르게 스마트폰 주는 방법 (영아기 노출 권장 않음, 3~4세 1시간 이내 허용), 연령별 놀이 제시			- 스마트폰 관련 지침 - 가이드라인의 상세 버젼으로 영아와 유아 보호자용으로 나누어 발달에 맞게 지침 제시
	매뉴얼 (30매)	- 문제인식,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통한 사용상태 점검 - 바른사용 실천 방안 - 관계형성 강화(부모가 함께 놀아주는 것이 중요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 스마트폰 관련 지침 - 영유아 보호자용으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매뉴얼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바른 사용 가이드라인 (1매)		- 주요지침, 발달단계 주요사항 - WHO 권고사항(영아는 비권장, 유아는 1시간 미만 이내 권고) - 시기별 바른사용법	바른ICT 연구소	2020	- 스마트 미디어 사용에 관한 지침 -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구분한 1매 분량 간략형

제목		주요내용	개발처	발행연도	비고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 스마트폰 쉼(REST)하세요 (2매)		- 실천수칙 11가지 제시 - 만2세전 노출 않기, 아이와 보호자 사용습관 점검, 사용규칙을 발달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기, 보행외출시 사용않기 등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 스마트폰 관련 지침 - 영유아 보호자용으로 1매 분량 간략형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가이드 활용매뉴얼		- 대상별로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고 과의존 예방하도록 돕는 실천 중심의 안내서 - 11가지 가이드라인 수칙별로 상세한 근거, 현황, 지도방법이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 스마트폰 관련 지침 - 영유아부터 성인 고령층까지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한 상세 매뉴얼
안전하고 건강한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권고안		- 과도한 스크린타임이 미치는 영향 - 권고안 9가지(만2세 미만 노출 삼가, 만2세 이후 하루 2시간 초과하지 않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외	2015	- 의학계 입장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자 대상으로 영유아 관련 지침도 제시함
유아를 위한 미디어 교육	건강한 미디어 사용으로 가족사랑을 키워요 (부모용)	- 가정에서 유아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 활동안 - 텔레비전, 전자게임, 인터넷을 이용한 활동안	여성가족부	2011	- 가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놀이 제시
	미디어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요 (교사용)	- 영유아기 미디어 교육 실천을 위한 유아 교사용 교재 - 유아기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순기능과 역기능, 효율적 교육방법, 교육활동 모형, 활동의 실제	여성가족부	2011	- 기관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활동을 아우른 미디어교육 교재

자료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a).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영아 보호자용.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b).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유아 보호자용.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h).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4p): 영아 보호자용.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i).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4p): 유아 보호자용.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영아용.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c).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유아용.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d).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영·유아 보호자용.
8) 연세대학교·바른ICT연구소·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실(2020a).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바른 사용 가이드라인: 36개월 미만 영아용.
9) 연세대학교·바른ICT연구소·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실(2020b).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바른 사용 가이드라인: 만 3세 이상 유아용.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2017b).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스마트폰 쉼(REST)하세요): 영유아 보호자용.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2017a).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가이드 활용매뉴얼: 영유아부터 성인·고령층까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바른 사용 안내.
12) 대한신경정신의학화·한국중독정신의학화·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2015). 안전하고 건강한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권고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독특임위원회.
13) 여성가족부(2011a). 유아를 위한 미디어 교육(부모용): 건강한 미디어 사용으로 가족사랑을 키워요.
14) 여성가족부(2011b). 유아를 위한 미디어 교육(교사용): 미디어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요.

다. 시사점

국내외에서 개발된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살펴 본 결과,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유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국가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에 비해 영유아 시기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은 다소 늦었지만 2013년 이후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2017년에는 영유아용, 2019년에는 영아와 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영·유아를 구분하여 개발된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고 있어 영유아기의 바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해외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며, 정부부처와 민간에서 개발된 내용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내용상으로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AAP의 권고가 아동용 APP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계를 대상으로 한 권고까지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공급자가 영유아용 미디어 상품을 생산할 때 지켜야 할 지침의 개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렇게 영유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많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와 활용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는 없는 상황으로 이제는 개발 이후의 실질적 활용에 대해 좀 더 집중할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Ⅲ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지도 실태

01 응답가구 특성

02 가정 내 미디어 보유 및 이용실태

03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04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실태

05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실태와 요구

06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의견

07 소결

Ⅲ.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지도 실태

1. 응답가구 특성

본 절에서는 가정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지도 실태 조사에 참여한 응답가구의 특성을 가구특성, 아동특성, 아동의 양육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응답가구 특성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는 총 1,500명이다. 조사참여 가구의 가족구성은 부모+자녀 구성이 92.4%로 가장 많고, 조부모+부모+자녀의 3세대 구성이 5.9%, 한부모+자녀 0.9%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는 전체 가구의 0.7%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이 25.2%, 400~500만원 미만 22.0%, 500~600만원 미만이 16.3%였고, 300만원 미만 14.6%, 700만원 이상 12.7%로 나타났다.

〈표 Ⅲ-1-1〉 응답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1,500)
가족구성		
부모+자녀	92.4	(1,386)
한부모+자녀	0.9	(13)
조부모+부모+자녀	5.9	(88)
조부모+한부모+자녀	0.7	(11)
기타	0.1	(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4.6	(219)
300~400만원 미만	25.2	(378)

구분	비율	(수)
400~500만원 미만	22.0	(330)
500~600만원 미만	16.3	(245)
600~700만원 미만	9.2	(138)
700만원 이상	12.7	(190)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여부		
예	0.7	(11)
아니오	99.3	(1,489)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조사대상 가구의 부모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평균 38.5세, 어머니는 평균 36.6세로 부모의 연령은 대부분 30~40대였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과반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모두 약 90% 내외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취업상태는 아버지의 97.3%가 취업중이었고, 휴직중 1.8%, 미취업 0.9%였고 학업중은 없었으며, 어머니의 43.7%가 취업중이었고, 휴직중 16.4%, 미취업 38.9%, 학업중 0.9%로 나타났다. 취업중인 부모의 주당 근로시간은 아버지 평균 44.1시간, 어머니 평균 39.1시간으로 나타났고, 아버지는 대부분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였으며, 어머니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도 많은 편이나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18.2%가 있었다.

〈표 Ⅲ-1-2〉 영유아 부모의 특성

단위: %(명), 세, 시간

구분	아버지		어머니	
	비율	(수)	비율	(수)
전체	100.0	(1,480)	100.0	(1,496)
연령				
20~29세	1.2	(18)	3.0	(45)
30~39세	57.9	(857)	15.9	(1,135)
40~49세	40.5	(599)	21.1	(316)
50~59세	0.4	(6)	0.0	(0)
평균	38.5	-	36.6	-
최종학력				
고졸 미만	0.5	(7)	0.2	(3)
고졸	10.3	(153)	9.5	(142)

구분	아버지		어머니	
	비율	(수)	비율	(수)
전문대 졸업	19.5	(288)	24.9	(373)
4년제 대학 졸업	56.6	(837)	54.9	(821)
대학원 이상	13.2	(195)	10.5	(157)
취업상태				
취업	97.3	(1,440)	43.7	(654)
휴직중	1.8	(26)	16.4	(246)
학업중	0.0	(0)	0.9	(14)
미취업	0.9	(14)	38.9	(582)
취업 중 전체	100.0	(1,440)	100.0	(654)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2.9	(42)	10.2	(67)
30~40시간 미만	1.3	(18)	8.0	(52)
40~50시간 미만	65.8	(948)	72.3	(473)
50시간 이상	30.0	(432)	9.5	(62)
평균	44.1	-	39.1	-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나. 응답대상 아동 특성

응답대상 아동의 성별은 남아 50.1%, 여아 49.9%로 유사한 비중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아가 48.5%로 가장 많고, 둘째아 43.9%, 셋째아 이상 7.6% 순이었다. 아동의 연령은 영아 35.7%, 유아 64.3%이다.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전체의 81.5%이다.

〈표 Ⅲ-1-3〉 응답대상 아동의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1,500)	아동연령	
성별		0세	8.7 (131)
남아	50.1 (752)	1세	10.7 (161)
여아	49.9 (748)	2세	16.3 (244)
출생순위		3세	14.6 (219)
첫째	48.5 (727)	4세	16.4 (246)
둘째	43.9 (659)	5세	16.7 (251)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셋째이상	7.6 (114)	6세	16.5 (248)
아동연령 2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여부	
영아(36개월 미만)	35.7 (536)	이용	81.5 (1,222)
유아(36개월 이상)	64.3 (964)	미이용	18.5 (278)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2) 영유아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막내 자녀 기준으로 응답함.

다. 응답대상 아동의 양육 특성

대상 아동의 양육 특성은 주양육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주양육자 및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는 어머니가 65.3%로 가장 많고 아버지 2.8%를 포함하면 부모가 68.1%로 대부분이며, 기타 13.9%, 조부모 11.9%, 육아도우미 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4〉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

단위: %(명)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기타친인척	지인, 이웃	육아도우미	기타	계(수)
65.3	2.8	11.9	0.7	0.1	5.3	13.9	100.0 (1,500)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부모가 영유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주중에는 하루 평균 어머니 약 7시간 17분, 아버지가 약 2시간 27분이며, 주말에는 하루 평균 어머니가 약 10시간 53분, 아버지가 약 8시간 18분으로 나타났다. 주중에는 어머니의 함께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긴 편이며, 주말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하는 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5〉 부모가 영유아와 하루 중 함께하는 시간(주중, 주말)

단위: 분

구분	아버지	어머니
주중	147.3 (약 2시간 27분)	437.0 (약 7시간 17분)
주말	498.3 (약 8시간 18분)	653.6 (약 10시간 53분)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2) 영유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영유아 자녀 중 50.0%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30.4%는 유치원, 그 외의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은 1.1%가 다니고 있고, 기관 미이용은 18.5%로 나타났다. 영아의 52.2%가 어린이집에 다니며, 46.8%가 기관 미이용이며, 유아의 48.8%가 어린이집을, 46.9%가 유치원을 다니며, 기관 미이용은 2.8%에 불과하여 유아의 대부분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영유아의 이용기관은 주양육자, 맞벌이 여부, 모취업 여부,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맞벌이 가구이거나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율이 높은 편이며, 부모가 주양육자인 경우, 외벌이 가구의 경우, 어머니가 휴직중이거나 미취업인 경우, 영아의 경우 기관 미이용 비율이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Ⅲ-1-6〉 영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전체	50.0	30.4	1.1	18.5	100.0 (1,500)
주양육자					
부모(어머니, 아버지)	43.3	31.9	1.1	23.7	100.0 (1,022)
조부모	49.4	35.4	1.1	14.0	100.0 (178)
기타	73.0	22.3	1.0	3.7	100.0 (300)
χ^2(df)			101.767***(6)		
맞벌이 여부					
맞벌이	60.8	31.5	1.0	6.7	100.0 (613)
외벌이	42.5	29.7	1.1	26.7	100.0 (887)
χ^2(df)			103.352***(3)		
모취업 여부					
취업	61.3	30.6	1.1	7.0	100.0 (654)
휴직 중	35.8	20.3	0.8	43.1	100.0 (246)
학업 중	57.1	28.6	0.0	14.3	100.0 (14)
미취업	42.8	34.7	1.2	21.3	100.0 (582)
χ^2(df)			174.053***(9)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52.2	0.7	0.2	46.8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48.8	46.9	1.6	2.8	100.0 (964)
χ^2(df)			608.425***(3)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01

영유아 자녀의 기관 이용시간은 5~8시간 미만이 74.9%로 가장 많았고, 8시간 이상 13.1%, 5시간 미만 12.0% 순이다. 맞벌이 가구는 8시간 이상 이용이 25.2%이며, 외벌이 가구는 5시간 미만 이용이 18.5%로 맞벌이 여부에 따른 기관 이용시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외에도 기관 이용 시간은 월 가구소득, 주양육자, 모취업 여부,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8시간 이상 기관 이용이 많은 편이다. 영아와 유아 모두 5~8시간 미만 이용이 가장 많지만, 영아가 유아보다 5시간 미만 이용이 조금 더 많다.

〈표 Ⅲ-1-7〉 영유아 자녀의 하루중 기관 이용 시간

단위: %(명)

구분	5시간 미만	5~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수)	
전체	12.0	74.9	13.1	100.0	(1,222)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0.4	74.1	5.6	100.0	(162)
300~400만원 미만	12.9	81.6	5.4	100.0	(294)
400~500만원 미만	12.8	75.2	12.0	100.0	(274)
500~600만원 미만	7.5	71.4	21.1	100.0	(213)
600~700만원 미만	5.2	70.7	24.1	100.0	(116)
700만원 이상	11.7	70.6	17.8	100.0	(163)
χ^2(df)			65.157***(10)		
주양육자					
부모(어머니, 아버지)	15.9	78.6	5.5	100.0	(780)
조부모	9.2	85.6	5.2	100.0	(153)
기타	3.1	59.2	37.7	100.0	(289)
χ^2(df)			218.45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4.7	70.1	25.2	100.0	(572)
외벌이	18.5	79.1	2.5	100.0	(650)
χ^2(df)			170.910***(2)		
모취업 여부					
취업	5.3	70.6	24.2	100.0	(608)
미취업	18.7	79.2	2.1	100.0	(610)
χ^2(df)			161.474***(2)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17.2	67.4	15.4	100.0	(285)
유아(36개월 이상)	10.5	77.2	12.4	100.0	(937)
χ^2(df)			12.598**(2)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1, ***p 〈 .001

영유아 자녀가 기관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는 평균 23.9개월이며, 가장 일찍 이용한 경우는 생후 2개월부터이며, 가장 늦게 이용한 경우는 70개월부터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기관 최초 이용 시기는 월 가구소득, 주양육자,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로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최초 이용 시기가 빠른 편이며, 부모가 주양육자인 경우가 최초 이용 시기가 늦은 편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초 이용 시기가 19.9개월로 외벌이 가구보다 평균 7.6개월 가량 빠르다.

〈표 Ⅲ-1-8〉 자녀의 반일제 이상 기관 최초 이용 시기

단위: %(명), 개월

구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18개월 미만	18~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체	3.3	11.4	20.2	17.2	23.8	24.1	100.0 (1,222)	2.0	70.0	23.9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2	7.4	15.4	22.2	24.1	29.6	100.0 (162)	4.0	60.0	26.9
300~400만원 미만	2.4	6.5	15.6	15.3	33.0	27.2	100.0 (294)	3.0	70.0	26.6
400~500만원 미만	4.4	12.0	21.9	19.0	20.4	22.3	100.0 (274)	2.0	60.0	22.7
500~600만원 미만	3.3	16.0	23.0	15.5	18.3	23.9	100.0 (213)	2.0	61.0	22.3
600~700만원 미만	5.2	17.2	18.1	19.0	23.3	17.2	100.0 (116)	2.0	60.0	20.9
700만원 이상	3.7	12.9	28.2	13.5	20.2	21.5	100.0 (163)	2.0	61.0	22.5
F										7.208***
주양육자										
부모(어머니, 아버지)	2.1	6.8	17.1	18.7	26.3	29.1	100.0 (780)	2.0	61.0	26.3
조부모	1.3	11.8	30.1	19.6	19.6	17.6	100.0 (153)	3.0	60.0	21.4
기타	7.6	23.5	23.5	11.8	19.4	14.2	100.0 (289)	2.0	70.0	18.9
F										39.678***
맞벌이 여부										
맞벌이	5.6	16.3	26.4	15.9	21.0	14.9	100.0 (572)	2.0	60.0	19.9
외벌이	1.2	7.1	14.8	18.3	26.3	32.3	100.0 (650)	2.0	70.0	27.5
t										-10.827***
모취업 여부										
취업	5.4	16.6	26.2	16.6	20.1	15.1	100.0 (608)	2.0	70.0	19.9
미취업	1.1	6.1	14.1	17.9	27.7	33.1	100.0 (610)	2.0	61.0	27.9
t										-11.326***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01$

2. 가정 내 미디어 보유 및 이용실태

본 절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가정 내 미디어 보유 및 이용실태를 기기 보유 및 이용 현황,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미디어 기기 보유 및 이용 현황

영유아 가구의 미디어 기기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은 99.6%로 보유율이 가장 높았고, TV(94.3%)와 개인용 컴퓨터(90.7%), 태블릿 PC(74.4%)도 보유율이 높은 편이며, 인공지능 스피커(46.9%), 게임콘솔(35.3%), 교육용 단말기(28.7%), 전자책 단말기(7.6%), 가상현실 기기(7.1%) 순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기기별 주양육자의 1일 평균 미디어 기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은 2~4시간 이용이 53.1%이며, 5시간 이상도 22.4%로 비교적 이용시간이 긴 미디어 기기이다. TV는 1~3시간 48.6%, 1시간 미만 15.8%, 3~4시간 12.8%로 스마트폰 다음으로 이용시간이 긴 편인 미디어 기기이다. 개인용 PC는 43.3%가 거의 이용하지 않고, 26.7%가 1시간 이내 이용하고 있다. 태블릿 PC와 교육용 단말기도 비슷한 경향인데, 51.4%, 51.5%가 거의 이용하지 않고, 24.8%, 27.4%가 1시간 이내로 이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 게임콘솔, 교육용 단말기, 전자책 단말기 또한 거의 이용하지 않음이 41.7%~62.6%였고, 1시간 이내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상현실 기기는 81.1%가 기기는 있으나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고, 이용하더라도 1시간 이내인 경우가 많다.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기기의 자녀 이용률은 교육용 단말기가 82.8%로 가장 높았고, TV(79.0%), 태블릿 PC(58.1%), 스마트폰(44.6%), 게임콘솔(40.5%), 인공지능 스피커(38.5%), 전자책 단말기(24.6%), 개인용 컴퓨터(11.3%), 가상현실 기기(6.6%) 순으로 나타났다.

TV는 가장 보편적으로 보유하는 미디어 기기이면서 주양육자의 이용도 보편적인 편이며, 자녀이용률도 높은 기기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거의 모든 부모가 보유한 미디어 기기이고, 주양육자의 평균 이용시간이 가장 긴 편이나, 자녀 이용률은 절반에 약간 못미친다. 태블릿 PC도 4가구 중 3가구가 보유하여 보유한 가정

이 많은 편이나, 자녀 이용율은 과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개인용 컴퓨터는 보유율이 매우 높지만 자녀이용률이 매우 낮은 기기이다. 반대로 교육용 단말기는 영유아 4가구 중 1가구가 보유하고 있어 보유율은 높지는 않지만, 보유한 가정의 자녀 이용률이 매우 높다.

이러한 미디어 기기별 자녀 이용률의 결과로부터 영유아의 경우 특히 태블릿PC의 이용과 관련한 주의점이 발견된다. 과의존성에 대한 경고는 다양한 기기 중 그간 스마트폰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으며(관계부처 합동,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d), 이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급적 스마트폰 이용을 미루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특정 기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인식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의 이용 용도는 '동영상 시청'에 집중되어 있으며[61], 이 경우 높은 휴대성을 지니면서 스마트폰보다 큰 화면을 갖춘 태블릿PC의 이용이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발현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 실태에 대한 초기 연구였던 이정림 외(2013)의 연구에서 '스마트패드'로 표현된 태블릿PC의 가정 내 보유율이 22.9%에 불과하였고, 보유 가정에서의 영유아 이용률이 42.4%였던 것에 비해(이정림 외, 2013: 47) 2021년 실시된 본 조사에서는 가정 내 보유율 74.4%, 보유가정에서의 영유아 이용률 51.4%로 크게 증가하였다. 즉, 태블릿 PC의 가정 내 보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유아의 노출가능성 또한 증가하였는데, 스마트폰과 유사한 휴대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영상 시청에 적합한 태블릿PC의 특성으로 인해 영유아의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어 스마트폰 이상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영유아의 이용률이 높은 TV의 경우 물리적으로 일정 공간에서만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모의 지도·감독의 가능성이 높고, 스마트 TV가 아닌 경우에는 콘텐츠의 제한이 커서 유해 콘텐츠 접촉의 가능성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다.

61) 〈표 Ⅲ-3-12〉, 〈표 Ⅲ-3-24〉 참조할 것.

〈표 Ⅲ-2-1〉 가정에서의 미디어 종류별 보유 및 이용 현황

단위: %(명)

미디어 유형	보유율[주1)]	주양육자의 1일 평균 이용시간						자녀 이용률	(사례수)
		5시간 이상	3~4 시간	2~3 시간	1~2 시간	1시간 미만	거의 이용 않음		
스마트폰	99.6[주2)]	22.4	28.1	25.0	15.8	5.4	3.3	44.6	(1,495)
TV	94.3	7.6	12.8	21.0	27.6	15.8	15.1	79.0	(1,415)
스마트TV	78.5							50.2	(1,111)
지상파 이외 유료 TV 사용 (케이블TV/IPTV/위성TV 등)	85.3							59.2	(1,207)
개인용 컴퓨터 (데스크톱, 노트북)	90.7	4.6	4.2	6.5	14.7	26.7	43.3	11.3	(1,360)
태블릿 PC (교육용 단말기 사용 제외)	74.4	0.7	1.5	5.8	15.7	24.8	51.4	58.1	(1,116)
인공지능 스피커	46.9	2.0	1.7	4.1	10.5	40.0	41.7	38.5	(703)
게임콘솔	35.3	0.2	1.1	2.6	11.2	22.3	62.6	40.5	(529)
교육용 단말기	28.7	0.2	1.4	6.0	13.5	27.4	51.5	82.8	(431)
전자책 단말기	7.6	0.9	0.0	5.3	16.7	28.9	48.2	24.6	(114)
가상현실(VR) 기기	7.1	0.0	0.0	1.9	2.8	14.2	81.1	6.6	(106)

주: 1) 미디어 보유률은 전체 1,500사례를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스마트폰 보유현황은 부모의 보유율임.

영유아 가구의 스마트폰 보유 현황은 부모의 경우 99.6%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영유아의 17.2%가 부모가 쓰던 공기계를 포함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표 Ⅲ-2-2〉 응답자 가구의 스마트폰 보유 현황

단위: %, (명)

부모 보유율	영유아 보유율	(수)
99.6	17.2	(1,500)

주: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2) 영유아의 스마트폰 보유는 부모가 이용하던 스마트폰 공기계 보유를 포함하는 수치임.

나.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영유아 가구에서의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을 식사 중, 잠자기 전, 운전 중, 누워서 사용, 여러 미디어 멀티 사용 등으로 살펴본 결과, 미디어 기기를 종종 또는 매번 이용하는 경우[62]는 누워서 75.4%, 잠자기 전 73.6%, 한 번에 여러 미디어 기기 동시 이용 57.7%, 식사중 43.3%, 운전중 21.5%로 나타났다. 안전과 직결되는 운전중 사용은 다른 이용습관에 비해 '전혀 안함' 비율이 높다.

〈표 Ⅲ-2-3〉 영유아 가정에서의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단위 : %(명)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전혀 안함	거의 안하는 편	종종 하는 편	매번 함	계(수)
1) 식사중에 미디어 기기주[2]를 이용함	22.3	34.4	33.7	9.6	100.0(1,500)
2) 잠자기 전에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12.0	14.4	38.7	34.9	100.0(1,500)
3) 운전중에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통화 제외)	45.7	32.8	17.2	4.3	100.0(1,500)
4) 누워서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9.9	14.7	48.5	26.9	100.0(1,500)
5) 한 번에 여러 미디어를 동시에 이용함 (예: TV를 보면서 스마트폰 검색)	19.5	22.8	43.0	14.7	100.0(1,500)

주: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2) 미디어 기기: 스마트폰, TV, 태블릿 PC 등

부록 〈부표 Ⅲ-5〉~〈부표 Ⅲ-9〉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에서 영유아와 함께 거주하거나 영유아를 돌보는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은 운전중 이용만 남성 응답자의 빈도가 높은 편이고, 식사 중, 잠들기 전, 누운 자세, 한 번에 여러 미디어 동시 이용에 있어서는 여성 응답자의 빈도가 높은 편이며, 부모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잦은 빈도가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부록 부표 Ⅲ-5~부표 Ⅲ-9 참조).

62) 종종 하는 편 + 매번 함

3.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본 절에서는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폰·태블릿 PC, TV, PC의 이용 실태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습관,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63] 이용 실태

1) 스마트폰 보유 실태

먼저 영유아용 스마트폰(부모가 쓰던 공기계 포함)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17.2%로 나타났다. 영유아 스마트폰 보유 여부는 지역규모, 부 학력, 모 학력, 모 취업 여부, 아동 연령,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보유율이 높으며, 부와 모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보유율이 낮았고, 취업모 가구가 미취업모 가구보다 보유율이 약간 높으며,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율이 높으며, 출생순위가 둘째인 경우가 첫째보다 보유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Ⅲ-3-1〉 영유아의 스마트폰 보유 현황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7.2	82.8	100.0 (1,500)
지역 규모			
대도시	16.5	83.5	100.0 (588)
중소도시	16.1	83.9	100.0 (710)
읍면지역	23.3	76.7	100.0 (202)
$x^2(df)$		6.078*(2)	
부 학력			
고졸 이하	28.1	71.9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24.7	75.3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13.1	86.9	100.0 (837)
대학원 이상	11.8	88.2	100.0 (195)
$x^2(df)$		38.849***(3)	

63) 태블릿 PC: 갤럭시 탭, 아이패드 등

구분	있음	없음	계(수)
모 학력			
고졸 이하	26.2	73.8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23.1	76.9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12.9	87.1	100.0 (821)
대학원 이상	15.9	84.1	100.0 (157)
$x^2(df)$		28.202***(3)	
모취업 여부			
취업	19.3	80.7	100.0 (654)
미취업	15.3	84.7	100.0 (842)
$x^2(df)$		4.052*(1)	
아동 연령			
0세	4.6	95.4	100.0 (131)
1세	11.2	88.8	100.0 (161)
2세	9.4	90.6	100.0 (244)
3세	16.4	83.6	100.0 (219)
4세	15.4	84.6	100.0 (246)
5세	25.9	74.1	100.0 (251)
6세	29.0	71.0	100.0 (248)
$x^2(df)$		67.428***(6)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8.8	91.2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21.9	78.1	100.0 (964)
$x^2(df)$		41.631***(1)	
출생순위			
첫째	14.2	85.8	100.0 (727)
둘째 이상	20.1	79.9	100.0 (773)
$x^2(df)$		9.108**(1)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영유아가 처음 스마트폰을 보유한 시기는 평균 3.6세이며, 주로 유아기에 처음 보유하게 된 경우가 많다. 특이점은 아동의 모든 연령에서 2020년과 2021년에 처음 보유했다고 보고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보유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게 한다.

〈표 Ⅲ-3-2〉 영유아의 스마트폰 최초 보유 시기

단위: %(명), 세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계(수)	평균
전체	3.9	8.9	13.6	19.8	17.8	21.7	14.3	100.0 (258)	3.6
아동 연령									
0세	100.0	0.0	0.0	0.0	0.0	0.0	0.0	100.0 (6)	0.0
1세	11.1	88.9	0.0	0.0	0.0	0.0	0.0	100.0 (18)	0.9
2세	4.3	21.7	73.9	0.0	0.0	0.0	0.0	100.0 (23)	1.7
3세	0.0	2.8	30.6	66.7	0.0	0.0	0.0	100.0 (36)	2.6
4세	2.6	0.0	5.3	34.2	57.9	0.0	0.0	100.0 (38)	3.4
5세	0.0	1.5	3.1	18.5	24.6	52.3	0.0	100.0 (65)	4.2
6세	0.0	0.0	4.2	2.8	11.1	30.6	51.4	100.0 (72)	5.2
F									125.945***

주: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2) 음영셀은 2020년과 2021년에 최초 보유한 경우임.
*** $p < .001$

영유아 자녀에게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향후 자녀용 스마트폰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질문한 결과, 향후 구입계획이 있는 가구가 67.7%이며, 구입 시기는 평균 만 8.5세로 나타났다.

〈표 Ⅲ-3-3〉 향후 자녀의 스마트폰 구입 계획 및 시기

단위: %, 세, (명)

자녀용 스마트폰 구입 계획 있음	전체(수)	자녀용 스마트폰 구입 계획 시기 (평균)	(수)
67.7	100.0(1,242)	8.5	(841)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향후 자녀의 스마트폰 구입계획 여부는 응답자 성별과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다.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 보다, 취업모가 미취업모 보다 구입계획 있음 비율이 높았다.

〈표 Ⅲ-3-4〉 향후 자녀의 스마트폰 구입 계획 여부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수)
전체	32.3	67.7	100.0 (1,242)
응답자 성별			
남성	36.9	63.1	100.0 (510)
여성	29.1	70.9	100.0 (732)
$\chi^2(df)$		8.289**(1)	
모취업 여부			
취업	28.8	71.2	100.0 (528)
미취업	34.8	65.2	100.0 (713)
$\chi^2(df)$		4.991*(1)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5$, ** $p < .01$

향후 자녀의 스마트폰 구입 계획 시기에 대해 자녀연령 만7~8세가 57.2%로 가장 많았고, 만10세 이상은 27.1%이며, 만6세 이하 영유아 시기는 6.9%에 불과하였다. 즉, 자녀가 초등학생이 된 후에 구입을 계획중인 경우가 많고, 영유아시기에 구입계획을 가진 경우는 드물다.

〈표 Ⅲ-3-5〉 향후 자녀의 스마트폰 구입 계획 시기

단위: %(명), 세

6세 이하	7세	8세	9세	10세 이상	계(수)	평균
6.9	28.5	28.7	8.8	27.1	100.0 (841)	8.5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2)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 실태

영유아 자녀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최초 이용 시작 시기는 영아기(36개월 미만)에 시작한 경우가 69.2%이며, 만 3세 이상 유아기에 시작한 경우는 30.8%로 영아기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고, 생후 12개월 미만에 노출된 경우도 17.7%로 적지 않았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이용 시작 시기는 응답자 연령대, 맞벌이 여부, 모취업 여부,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있다.

부모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영유아 자녀의 이용 시작 시기는 빠른 편이며, 미취업모 가구가 취업모 가구보다 이용 시작 시기가 빠른 편이며, 출생순위가 첫째보다

둘째 이상일수록 시작 시기가 빠른 편이다. 특히, 20대 부모의 26.9%가 생후 6개월 미만에, 30.8%가 6개월~12개월 미만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나 20대 부모가 30대~40대 부모에 비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영유아 자녀에게 일찍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6〉 영유아의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시작시기

단위 : %(명)

구분	생후 6개월 미만	6개월~12개월 미만	12개월~18개월 미만	18개월~24개월 미만	24개월~36개월 미만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계(수)
전체	4.8	12.9	20.5	13.4	17.6	13.2	9.6	6.1	1.8	100.0 (1,496)
응답자 연령대										
20대	26.9	30.8	7.7	15.4	11.5	7.7	0.0	0.0	0.0	100.0 (26)
30대	5.6	14.8	22.6	14.7	17.5	11.5	7.4	4.5	1.5	100.0 (1,037)
40대	1.6	7.4	16.2	10.4	18.2	17.8	15.5	10.4	2.5	100.0 (433)
$x^2(df)$					123.134***(1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5	12.9	21.0	15.8	17.0	13.1	10.8	6.9	1.1	100.0 (613)
외벌이	7.1	12.9	20.0	11.8	18.0	13.4	8.8	5.7	2.3	100.0 (883)
$x^2(df)$					33.739***(8)					
모취업 여부										
취업	1.5	12.5	21.7	15.6	17.0	13.3	10.9	6.4	1.1	100.0 (654)
미취업	7.4	13.2	19.5	11.8	18.0	13.1	8.6	6.0	2.4	100.0 (838)
$x^2(df)$					37.029***(8)					
출생순위										
첫째	3.2	14.6	22.3	14.2	19.1	13.1	7.7	4.7	1.1	100.0 (726)
둘째 이상	6.4	11.3	18.7	12.7	16.1	13.4	11.4	7.5	2.5	100.0 (770)
$x^2(df)$					30.207***(8)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01$

영유아 자녀의 최근 1개월간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 빈도는 주 1~2회 22.7%, 매일 22.1%, 월 1~2회 19.1%, 주 3~4회 14.6%, 주 5~6회 13.2%, 월 3~4회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72.6%이고, 주 5회 이상 매일 사용하는 경우도 35.3%로 적지 않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 빈도는 맞벌이 여부, 모취업 여부, 아동 연령,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며, 특히 0세, 1세, 2세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월 1~2회 이하의 낮은 이용 빈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영아보다 유아의 경우 이용 빈도가 대체로 높다. 취업모 가정이 미취업모 가정보다 이용 빈도가 높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고,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구가 미이용 가구보다 이용 빈도가 대체로 높다.

〈표 Ⅲ-3-7〉 영유아의 최근 1개월간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빈도

단위 : %(명)

구분	월 1~2회 이하	월 3~4회 이하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계(수)
전체	19.1	8.2	22.7	14.6	13.2	22.1	100.0 (1,49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7	7.3	24.1	17.8	14.0	23.0	100.0 (613)
외벌이	22.9	8.8	21.6	12.5	12.7	21.5	100.0 (883)
$\chi^2(df)$				25.775***(5)			
모취업 여부							
취업	13.8	7.5	23.4	17.0	13.9	24.5	100.0 (654)
미취업	23.3	8.8	22.1	12.8	12.8	20.3	100.0 (838)
χ^2(df)				26.171***(5)			
아동 연령							
0세	79.2	2.3	7.7	3.8	4.6	2.3	100.0 (130)
1세	34.4	12.5	22.5	7.5	5.0	18.1	100.0 (160)
2세	21.8	12.3	21.8	16.0	11.1	16.9	100.0 (243)
3세	11.0	7.3	23.3	19.2	13.7	25.6	100.0 (219)
4세	8.5	9.8	28.0	13.4	13.8	26.4	100.0 (246)
5세	7.6	5.6	23.2	19.6	17.6	26.4	100.0 (250)
6세	4.4	6.5	25.0	15.7	19.8	28.6	100.0 (248)
$\chi^2(df)$				457.581***(30)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39.6	9.9	18.6	10.5	7.7	13.7	100.0 (533)
유아(36개월 이상)	7.8	7.3	24.9	16.9	16.3	26.8	100.0 (963)
$\chi^2(df)$				246.034***(5)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11.1	8.6	24.5	16.3	14.8	24.7	100.0 (1,220)
미이용	54.7	6.5	14.5	7.2	6.2	10.9	100.0 (276)
$\chi^2(df)$				280.237***(5)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01$

영유아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 시간은 주중에는 하루 평균 55.3분, 주말에는 하루 평균 97.6분이다.

〈표 Ⅲ-3-8〉 영유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시간(평균)

단위 : 분

주중(월~금) 1일 평균 이용시간	주말
55.3	97.6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영유아가 주중에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 60분 미만이 52.0%로 가장 많고, 60분~120분 미만 29.5%, 120분~180분 미만 12.0% 순이었고, 4시간 이상인 경우는 1.9%에 불과하였다. 영아는 주중 하루 평균 38.8분 이용했고, 유아는 주중 하루 평균 64.4분을 이용하였다. 특히, 0세의 경우 90.0%가 60분 미만 이용하고 있고, 평균 이용시간도 14.9분으로 매우 짧은 편이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주중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월 가구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부 학력, 모 학력,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다. 부모 모두 학력이 낮을수록 주중 평균 이용시간이 많았고,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주중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많았다.

〈표 Ⅲ-3-9〉 영유아의 주중 하루 평균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시간

단위 : %(명), 분

구분	60분 미만	60분~120분 미만	120분~180분 미만	180분~240분 미만	240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52.0	29.5	12.0	4.6	1.9	100.0 (1,496)	55.3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1.6	26.3	13.4	6.5	2.3	100.0 (217)	58.8
300~400만원 미만	50.9	31.3	11.9	3.7	2.1	100.0 (377)	55.4
400~500만원 미만	49.8	29.8	12.5	6.4	1.5	100.0 (329)	58.1
500~600만원 미만	54.3	30.6	9.8	3.7	1.6	100.0 (245)	51.9
600~700만원 미만	49.3	32.6	12.3	4.3	1.4	100.0 (138)	56.5
700만원 이상	57.4	25.8	12.1	2.6	2.1	100.0 (190)	50.0
F							0.873
부 학력							
고졸 이하	44.7	30.8	14.5	6.3	3.8	100.0 (159)	66.0

구분	60분 미만	60분~120분 미만	120분~180분 미만	180분~240분 미만	240분 이상	계(수)	평균
전문대(2~3년제) 졸업	46.3	31.4	14.6	5.6	2.1	100.0 (287)	62.0
4년제 대학 졸업	54.7	29.5	10.7	3.8	1.3	100.0 (835)	50.7
대학원 이상	56.9	25.6	10.8	4.6	2.1	100.0 (195)	53.1
F							5.465**
모 학력							
고졸 이하	36.4	34.3	16.8	8.4	4.2	100.0 (143)	76.4
전문대(2~3년제) 졸업	45.6	33.0	13.7	6.2	1.6	100.0 (373)	60.7
4년제 대학 졸업	56.2	28.0	11.0	3.3	1.6	100.0 (819)	49.9
대학원 이상	60.5	25.5	8.3	4.5	1.3	100.0 (157)	49.7
F				(1,491)			11.351***
맞벌이 여부							
맞벌이	52.7	28.9	12.2	4.6	1.6	100.0 (613)	55.5
외벌이	51.5	30.0	11.8	4.6	2.0	100.0 (883)	55.2
t							0.083
아동 연령							
0세	90.0	8.5	0.8	0.0	0.8	100.0 (130)	14.9
1세	68.1	22.5	6.9	2.5	0.0	100.0 (160)	36.6
2세	51.0	32.9	9.9	5.3	0.8	100.0 (243)	53.0
3세	45.7	27.9	14.2	8.7	3.7	100.0 (219)	69.5
4세	47.6	34.6	12.2	3.3	2.4	100.0 (246)	58.3
5세	45.2	32.4	16.4	4.4	1.6	100.0 (250)	62.2
6세	39.5	35.5	16.5	5.6	2.8	100.0 (248)	68.3
F							21.405***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65.7	23.8	6.8	3.2	0.6	100.0 (533)	38.8
유아(36개월 이상)	44.4	32.7	14.8	5.4	2.6	100.0 (963)	64.4
t							-9.296***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영유아가 주말에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97.6분이며, 60분 미만 33.9%, 60분~120분 미만 25.4%, 120분~180분 미만 18.2%, 180분~240분 미만 11.3%, 240분 이상 11.2%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주말 평균 이용시간은 60.1분이며, 유아는 118.4분으로 영아 및 유아 모두 주중의 약 2배

이다. 특히, 0세는 주말에도 대부분 60분 미만 이용(86.2%)하고 있으며, 주말 하루 평균 이용시간도 19.7분으로 짧은 편이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주말 평균 이용시간은 월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부 학력, 모 학력,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다. 부모 모두 학력이 낮을수록 평균 이용 시간이 긴 경향이 있고,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이용 시간이 길다.

〈표 Ⅲ-3-10〉 영유아의 주말 하루 평균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시간

단위 : %(명), 분

구분	60분 미만	60분 – 120분 미만	120분 – 180분 미만	180분 – 240분 미만	240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3.9	25.4	18.2	11.3	11.2	100.0 (1,496)	97.6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7.8	21.7	17.1	10.6	12.9	100.0 (217)	96.9
300~400만원 미만	34.7	26.0	17.0	11.4	10.9	100.0 (377)	95.6
400~500만원 미만	31.6	24.6	19.1	12.2	12.5	100.0 (329)	103.0
500~600만원 미만	31.8	24.9	22.0	11.8	9.4	100.0 (245)	99.2
600~700만원 미만	29.7	29.0	16.7	11.6	13.0	100.0 (138)	103.8
700만원 이상	37.4	27.9	16.8	9.5	8.4	100.0 (190)	86.8
F							0.964
부 학력							
고졸 이하	25.2	22.6	20.8	16.4	15.1	100.0 (159)	117.9
전문대(2~3년제) 졸업	27.9	24.4	19.5	11.8	16.4	100.0 (287)	113.8
4년제 대학 졸업	36.3	27.4	17.4	10.4	8.5	100.0 (835)	87.9
대학원 이상	40.5	21.0	18.5	9.7	10.3	100.0 (195)	94.1
F							9.337***
모 학력							
고졸 이하	23.8	14.7	25.9	18.9	16.8	100.0 (143)	127.3
전문대(2~3년제) 졸업	27.6	27.9	17.2	13.7	13.7	100.0 (373)	108.6
4년제 대학 졸업	37.9	25.8	17.1	9.3	10.0	100.0 (819)	89.9
대학원 이상	38.2	26.8	19.7	9.6	5.7	100.0 (157)	83.5
F							10.535***
아동 연령							
0세	86.2	9.2	1.5	2.3	0.8	100.0 (130)	19.7
1세	58.1	20.6	11.9	7.5	1.9	100.0 (160)	54.9
2세	37.9	29.2	16.9	7.8	8.2	100.0 (243)	85.3

구분	60분 미만	60분 – 120분 미만	120분 – 180분 미만	180분 – 240분 미만	240분 이상	계(수)	평균
3세	26.0	26.9	21.9	11.9	13.2	100.0 (219)	111.8
4세	24.0	28.5	22.4	14.2	11.0	100.0 (246)	109.7
5세	20.4	28.4	23.2	14.4	13.6	100.0 (250)	114.5
6세	17.3	25.8	20.2	15.3	21.4	100.0 (248)	136.7
F							39.081***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55.7	21.8	11.6	6.4	4.5	100.0 (533)	60.1
유아(36개월 이상)	21.8	27.4	21.9	14.0	14.8	100.0 (963)	118.4
t							-13.419***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01$

한편,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1회 이용 시 평균 44.3분으로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이용 시 제한시간은 60분~120분 미만이 36.4%로 가장 많았고, 30분 ~ 60분 미만 30.4%, 30분 미만 26.4%, 120분 이상 6.8% 순이었다. 영아의 1회당 평균 이용 제한시간은 30.8분이며, 유아는 51.8분이다.

1회 기준 평균 이용 제한시간은 부 학력, 모 학력, 모 취업 여부, 아동 연령, 출생 순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부모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제한 시간이 짧았고, 미취업모 가구가 취업모 가구보다 이용제한 시간이 약간 짧았으며,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이용제한 시간이 짧으며, 둘째 이상보다 첫째아에 대해 이용제한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회당 이용시간 제한을 많이 하고, 취업모 가구, 둘째 이상인 경우 제한을 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아는 제한시간이 다소 길지만 0세아는 12.8분으로 어릴수록 시간을 많이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3-11〉 영유아 자녀의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제한시간(1회 기준)

단위 : %(명), 분

구분	30분 미만	30분 – 60분 미만	60분 – 120분 미만	120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6.4	30.4	36.4	6.8	100.0 (1,496)	44.3
부 학력						
고졸 이하	23.3	27.0	36.5	13.2	100.0 (159)	52.1
전문대(2~3년제) 졸업	23.0	29.3	38.3	9.4	100.0 (287)	48.3
4년제 대학 졸업	28.3	29.9	36.2	5.6	100.0 (287)	42.5
대학원 이상	28.7	34.9	33.8	2.6	100.0 (195)	38.9
F						5.588**
모 학력						
고졸 이하	21.7	25.2	37.8	15.4	100.0 (143)	54.5
전문대(2~3년제) 졸업	22.0	27.3	42.1	8.6	100.0 (373)	49.6
4년제 대학 졸업	29.3	31.5	33.9	5.3	100.0 (819)	40.8
대학원 이상	26.8	36.3	34.4	2.5	100.0 (157)	39.6
F						9.822***
모취업 여부						
취업	22.5	31.8	37.8	8.0	100.0 (654)	46.6
미취업	29.6	29.2	35.3	5.8	100.0 (838)	42.3
t						2.233*
아동 연령						
0세	75.4	16.2	8.5	0.0	100.0 (130)	12.8
1세	51.9	27.5	17.5	3.1	100.0 (160)	28.4
2세	31.3	29.6	32.5	6.6	100.0 (243)	42.1
3세	20.5	35.6	37.0	6.8	100.0 (219)	46.2
4세	17.5	32.9	42.3	7.3	100.0 (246)	49.4
5세	10.8	34.4	45.2	9.6	100.0 (250)	53.4
6세	9.3	29.4	51.6	9.7	100.0 (248)	57.4
F						33.486***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48.2	25.7	22.1	3.9	100.0 (533)	30.8
유아(36개월 이상)	14.3	33.0	44.2	8.4	100.0 (963)	51.8
t						-10.944***
출생순위						
첫째	31.7	28.8	34.4	5.1	100.0 (726)	40.5
둘째 이상	21.4	31.9	38.2	8.4	100.0 (770)	47.9
t						-3.886***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해당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동영상 시청 85.9%, 사진/동영상 촬영 50.6%, 게임/놀이 45.9%, 교육용 앱 42.4%, 통화 30.3%, 인터넷 검색 26.7%, 메신저 9.8%, SNS 5.8%, 웹툰/웹소설 4.0%, 기타 4.2% 등이다. 용도별로는 영유아가 동영상 시청을 위해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용시간도 다른 기기에 비해 긴 편이며, 그 다음으로 사진/동영상 촬영, 게임/놀이, 교육용 앱 이용이 두드러지는 편이고, 메신저 이용, SNS, 웹툰/웹소설 이용은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영상 시청은 영유아의 14.1%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나, 30분~1시간 이내 28.5%, 10분~30분 이내 25.7%, 1시간 이상 19.9%로 이용 정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게임/놀이는 54.1%가 이용하지 않지만, 이용하는 경우 10분~30분 이내 17.3%, 30분~1시간 이내 11.4%, 10분 이내 11.4%로 1시간 이내 이용이 두드러진다. 교육용 앱 이용도 57.6%는 이용하지 않고, 이용가구 중에서는 10분~30분 이내 19.5%, 10분 이내 10.6%, 30분~1시간 이내 9.4%로 1시간 이내 이용이 두드러진다. 사진/동영상 촬영은 49.4%는 이용하지 않지만, 이용하는 경우 10분 이내 이용이 37.9%로 가장 많다. 통화도 영유아가 69.7%는 이용하지 않고, 10분 이내 이용이 23.5%로 가장 많다. 인터넷 검색은 영유아의 73.3%가 이용하지 않으나, 10분 이내 13.5%, 10분~30분 이내 8.4%로 대체로 30분 이내 이용이 많다. 90% 이상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SNS, 메신저, 웹툰/웹소설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Ⅲ-3-12〉 용도별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정도(하루 기준)

단위: %(명)

구분	전혀 이용 않음	10분 이내	10분~30분 이내	30분~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계(수)
1) 인터넷 검색(학습, 관심사 등을 위한 정보 찾기)	73.3	13.5	8.4	3.5	1.2	100.0 (1,496)
2) 동영상 시청(애니메이션, 유튜브, 동영상, 드라마 등)	14.1	11.8	25.7	28.5	19.9	100.0 (1,496)
3) 게임, 놀이	54.1	11.4	17.3	11.4	5.9	100.0 (1,496)
4) 교육용 앱 이용	57.6	10.6	19.5	9.4	2.9	100.0 (1,496)

구분	전혀 이용 않음	10분 이내	10분~30분 이내	30분~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계(수)
5) SNS 이용(소통)	94.2	2.5	1.7	1.1	0.5	100.0 (1,496)
6) 메신저 이용 대화(카톡, 라인 등)	90.2	5.0	2.5	1.8	0.5	100.0 (1,496)
7) 사진, 동영상 촬영	49.4	37.9	9.7	2.3	0.7	100.0 (1,496)
8) 통화	69.7	23.5	5.2	1.3	0.3	100.0 (1,496)
9) 웹툰, 웹소설 보기	96.0	1.7	1.3	0.8	0.2	100.0 (1,496)
10) 기타	95.8	1.6	1.4	0.5	0.7	100.0 (1,496)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한편 〈표 Ⅲ-3-13〉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는 취학 전 영유아 시기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의 이용시간으로 적정한 것은 하루 평균 총 83.1분(약 1시간 23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 총 적정 이용시간에 대해 20분 미만(34.0%), 20분~40분 미만(31.6%), 40분~60분 미만(20.0%) 등 부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으며 85.6%는 1시간 미만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루 기준 용도별로 비교적 긴 적정 이용시간으로 응답된 것은 동영상 시청으로 평균 40.2분으로 가장 길었고, 교육용 앱 이용 31.7분, 인터넷 검색 23.7분, 게임 및 놀이 20.1분이었다. 영상통화(8.9분), 메신저 이용(6.8분), SNS 이용(5.5분), 웹툰/웹소설(3.5분)은 적정 이용시간이 10분 이내로 나타났다. 동영상 시청과 교육용 앱 이용에 대해서는 20분 미만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25.6%, 41.6%로 비교적 보수적인 기준을 가진 부모도 있지만, 반대로 60분 이상을 응답한 경우도 각각 36.0%, 29.3%로 나타나 이용에 비교적 허용적인 부모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Ⅲ-3-13〉 취학전 영유아 시기 용도별 스마트폰·태블릿 PC 적정 이용시간(하루 기준)

단위 : %(명), 분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용도별 적정 이용 시간	20분 미만	20분 – 40분 미만	40분 – 60분 미만	60분 이상	계(수)	평균
1) 인터넷 검색	56.0	23.7	0.9	19.3	100.0 (1,496)	23.7
2) 동영상 시청(애니메이션, 유튜브, 동영상, 드라마 등)	25.6	34.0	4.4	36.0	100.0 (1,496)	40.2
3) 게임, 놀이	57.6	27.0	1.5	13.9	100.0 (1,496)	20.1
4) 교육용 앱 이용	41.6	26.1	3.0	29.3	100.0 (1,496)	31.7
5) SNS 이용(소통)	89.9	6.4	0.1	3.6	100.0 (1,496)	5.5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용도별 적정 이용 시간	20분 미만	20분 – 40분 미만	40분 – 60분 미만	60분 이상	계(수)		평균
6) 메신저 이용 대화(카톡, 라인 등)	87.9	7.4	0.5	4.1	100.0	(1,496)	6.8
7) 사진, 동영상 촬영	83.1	12.0	0.4	4.5	100.0	(1,496)	11.7
8) 영상통화	89.7	7.6	0.3	2.4	100.0	(1,496)	8.9
9) 웹툰, 웹소설 보기	93.3	3.7	0.1	2.9	100.0	(1,496)	3.5
10) 하루 총 이용 시간	34.0	31.6	20.0	14.4	100.0	(1496)	83.1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영유아에게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허용하는 목적으로는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시키기 위해(74.3%), 보호자의 일을 방해 없이 하기 위해(70.2%)가 가장 많았다. 영유아 가구의 절반 정도는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 이용(56.2%), 교육용 어플/동영상 이용 및 온라인 수업을 위해(52.0%),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원할 때 허용(4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자리에 앉아 식사를 빨리하게 하기 위해(38.2%), 기관 등원준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22.7%), 잠을 재우기 위해(12.1%),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9.8%)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영유아 자녀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이용 용도는 성인의 시간 확보나 편의를 위해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원해서 혹은 자녀의 학습이나 해야 할 일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등 자녀를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절반 가량 되며, 양육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자녀의 일과시간을 단축하는 용도로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심층면담에서는 이러한 목적의 도구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자녀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 정립에는 점점 더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TV를 틀어줘야 이제 저희도 일을 조금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아니면 아기가 아직 의사소통이 잘 되는 편이 아니라서 계속 놀아줘야 되고 케어해줘야 되니까 좀 약간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던가 다른 일을 하던가 이런 편이라서.…(중략)…혼자 놀게 하면 금새 저한테 와서 같이 놀자고 하거나 이거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사례 1. 경북 거주, 1세 여아]

> 너무 밥을 안 먹어서 이제 미디어를 틀어줘야 밥을 먹고요.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도 밥 먹을 때도 꼭 미디어를 틀어줘야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꼭 제안을 걸어서 "미디어를 보여주겠다. 이걸 끝내면"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사례 3. 경기 거주, 5세 남아]

(만약에 미디어를 안보여준다 한다면) 말을 안들을 것 같아요. 말을 안 듣거나 밥을 안 먹는다거나 … 공부를 안한다거나 양치를 안한다고 하고,…(중략)…저희가 개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둘이서 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조금 놀다가 “이거 보면 안돼?게임 하면 안돼? *투브 보면 안돼?” 이런식으로 계속 접근하거든요.[사례 3. 경기 거주, 5세 남아]

〈표 Ⅲ-3-14〉 영유아에게 스마트폰·태블릿 PC를 허용하는 목적별 경험

단위 : %(명)

스마트폰·태블릿PC 허용 목적	있음	없음	계(수)
1)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	9.8	90.2	100.0 (1,496)
2)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등원 준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22.7	77.3	100.0 (1,496)
3) 자리에 앉아 식사를 빨리하게 하기 위해	38.2	61.8	100.0 (1,496)
4)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시키기 위해(식당, 카페, 병원, 관공서 등)	74.3	25.7	100.0 (1,496)
5) 보호자의 일을(예: 식사준비, 청소, 업무)자녀의 방해 없이 하기 위해	70.2	29.8	100.0 (1,496)
6) 교육용 어플, 동영상 이용, 온라인 수업(Zoom 등을 활용)을 위해	52.0	48.0	100.0 (1,496)
7)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 이용하게 함	56.2	43.8	100.0 (1,496)
8) 잠을 재우기 위해	12.1	87.9	100.0 (1,496)
9)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원할 때 허용함	42.4	57.6	100.0 (1,496)
10) 기타	5.1	94.9	100.0 (1,496)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한편 영유아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장소별로 이용하는 정도는 다음과 같다. 이용 빈도가 가장 많은 장소는 집안과 식당/카페로 볼 수 있는데, 집안에서는 88.7%가, 식당/카페에서는 76.2%는 가끔에서 매번 이용하고 있고, 매번 이용은 집안 29.1%, 식당/카페는 10.3%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집, 공공장소, 승용차 안은 이용하지 않는 가구도 각각 36.2%, 45.7%, 36.2%이나 이용하는 가구도 49.4%, 40.9%, 54.0%로 나타났는데, 이용 정도는 가끔 이용하는 가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대중교통 안과 유모차 안은 이용하지 않는 가구와 간 적이 없는 경우를 합하면 83.2%, 87.1%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술한 〈표 Ⅲ-3-14〉의 결과에 비추어보면,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시키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식당/카페에서 필요도가 크고, 그 외의 공공장소에서는 필요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표 Ⅲ-3-15〉 장소별 영유아의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경험 정도

단위 : %(명)

스마트폰 이용 장소	이용 않음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매번 이용함	해당 없음	계(수)
1) 집안	11.3	30.7	28.8	29.1		100.0 (1,496)
2) 다른 사람의 집(친구 집 등)	36.2	33.8	12.4	3.2	14.4	100.0 (1,496)
3) 식당, 카페	15.6	38.7	27.1	10.3	8.2	100.0 (1,496)
4) 공공장소(마트, 은행, 관공서 등)	45.7	24.8	12.6	3.4	13.4	100.0 (1,496)
5) 승용차 안	36.2	32.6	15.5	5.9	9.8	100.0 (1,496)
6) 대중교통 안	62.8	9.9	5.4	1.5	20.4	100.0 (1,496)
7) 유모차 안	64.8	9.3	2.3	1.2	22.3	100.0 (1,496)
8) 기타	62.6	0.3	0.2	0.5	36.4	100.0 (1,478)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2) '해당 없음'은 해당 장소에 영유아가 간 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나. TV 이용 실태

영유아의 TV 시청 시작 시기는 생후 6개월~12개월 미만 28.2%, 12개월~18개월 미만 29.4%로 돌 전후로 많은 경우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 이상 유아기에 시청을 시작한 경우는 9.7%에 불과하며, 생후 6개월 미만의 신생아 시기에 노출된 경우도 6.2% 있다. 영유아의 TV 시청 시작 시기는 응답자 연령대, 출생 순위에 따른 차이가 있다. 20대 부모가 30~40대 부모보다 자녀의 TV 시청 시작 시기가 빠른 편이며, 둘째 이상인 경우가 첫째아인 경우보다 TV 시청 시작 시기가 빠른 편이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3-16〉 영유아의 TV 시청 시작 시기

단위 : %(명)

구분	생후 6개월 미만	6개월~ 12개월 미만	12개월~ 18개월 미만	18개월~ 24개월 미만	24개월~ 36개월 미만	만 3세 이상	계(수)
전체	6.2	28.2	29.4	14.4	12.1	9.7	100.0 (1,118)
응답자 연령대							
20대	16.7	41.7	25.0	0.0	16.7	0.0	100.0 (12)
30대	7.3	30.5	28.0	15.6	10.1	8.4	100.0 (750)
40대	3.4	22.8	32.6	12.4	16.0	12.9	100.0 (356)
χ^2(df)	33.797**(14)						

구분	생후 6개월 미만	6개월~ 12개월 미만	12개월~ 18개월 미만	18개월~ 24개월 미만	24개월~ 36개월 미만	만 3세 이상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5.4	30.9	30.9	12.9	11.8	8.1	100.0 (482)
외벌이	6.8	26.1	28.3	15.6	12.3	11.0	100.0 (636)
χ^2(df)				10.060(7)			
출생순위							
첫째	4.9	23.7	30.6	16.8	13.8	10.3	100.0 (507)
둘째 이상	7.2	31.9	28.5	12.4	10.6	9.3	100.0 (611)
χ^2(df)				16.438*(7)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5$, ** $p < .01$

영유아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주중은 약 1시간 18분이며, 주말은 약 2시간 11분으로 주말이 주중보다 1.6배 길었다.

〈표 Ⅲ-3-17〉 영유아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평균)

단위: 분

주중(월~금) 1일 평균 시청 시간	주말(토, 일) 1일 평균 시청 시간
78.1 (약 1시간 18분)	131.4 (약 2시간 11분)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영유아의 주중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은 60분~120분 미만이 40.7%로 가장 많았고, 60분 미만 30.9%, 120분~180분 미만 19.4%, 180분~240분 6.0%, 240분 이상 3.0%로 대체로 2시간 30분 이내인 것으로 파악된다. 영유아의 주중 하루평균 TV 시청시간은 월 가구소득, 부 학력, 모 학력, 맞벌이 여부,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다.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중 TV 시청시간이 짧은 경향이 있고, 부모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TV 시청시간이 짧은 경향이 있으며,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TV 시청 시간이 짧다. 아동연령에 따라서는 2세가 89.5분으로 평균 TV 시청시간이 가장 길고,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시청시간이 긴 편이다.

〈표 Ⅲ-3-18〉 영유아의 주중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

단위 : %(명), 분

구분	60분 미만	60분 ~ 120분 미만	120분 ~ 180분 미만	180분 ~ 240분 미만	240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0.9	40.7	19.4	6.0	3.0	100.0 (1,118)	78.1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7.2	37.7	20.5	7.9	6.6	100.0 (151)	87.9
300~400만원 미만	25.5	42.1	22.3	7.2	2.9	100.0 (278)	84.0
400~500만원 미만	32.4	36.1	21.3	7.0	3.3	100.0 (244)	79.6
500~600만원 미만	37.8	38.9	16.8	4.9	1.6	100.0 (185)	70.6
600~700만원 미만	29.2	54.7	11.3	2.8	1.9	100.0 (106)	67.4
700만원 이상	34.4	40.9	18.8	3.9	1.9	100.0 (154)	72.1
F							2.618*
부 학력							
고졸 이하	19.2	39.2	27.7	10.0	3.8	100.0 (130)	94.0
전문대(2~3년제) 졸업	27.4	36.1	24.3	7.8	4.3	100.0 (230)	87.8
4년제 대학 졸업	32.7	43.1	16.5	5.1	2.6	100.0 (606)	73.9
대학원 이상	39.0	39.0	16.2	3.7	2.2	100.0 (136)	67.4
F							6.633***
모 학력							
고졸 이하	25.0	37.5	25.9	8.0	3.6	100.0 (112)	89.6
전문대(2~3년제) 졸업	28.5	36.6	22.8	7.0	5.0	100.0 (298)	88.0
4년제 대학 졸업	29.9	45.1	17.7	5.3	2.0	100.0 (586)	73.9
대학원 이상	47.5	33.1	11.9	5.1	2.5	100.0 (118)	63.1
F							6.683***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6	43.2	16.8	4.1	2.3	100.0 (482)	72.5
외벌이	28.8	38.8	21.4	7.4	3.6	100.0 (636)	82.4
t							-2.630**
아동 연령							
0세	61.4	22.7	9.1	4.5	2.3	100.0 (44)	46.1
1세	44.3	37.1	12.4	4.1	2.1	100.0 (97)	62.7
2세	30.9	32.6	20.6	10.3	5.7	100.0 (175)	89.5
3세	31.6	37.4	21.6	7.6	1.8	100.0 (171)	77.1
4세	25.8	48.3	18.2	5.3	2.4	100.0 (209)	76.9
5세	25.8	45.5	21.5	4.8	2.4	100.0 (209)	80.5
6세	27.7	43.2	21.1	4.2	3.8	100.0 (213)	82.1
F							3.981**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영유아의 주말 하루평균 TV 시청시간은 120분~180분 미만이 27.6%로 가장 많았고, 60분~120분 미만 25.9%, 60분 미만 15.0%, 180분~240분 미만 13.9%, 240분 이상 17.5%로 나타났다. 주말 시청시간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반이 많은 편이나 4시간 이상도 장시간 시청하는 영유아도 17.5%로 적지 않다.

주말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은 부 학력, 모 학력,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다. 부모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주말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이 짧았고, 아동연령이 높을수록 주말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이 길었다. 영아의 주말 평균 TV 시청시간은 113.0분이며, 유아는 138.6분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중 시청시간과 달리 월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3-19〉 영유아의 주말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

단위 : %(명), 분

구분	60분 미만	60분 ~ 120분 미만	120분 ~ 180분 미만	180분 ~ 240분 미만	240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5.0	25.9	27.6	13.9	17.5	100.0 (1,118)	131.4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6.6	27.2	23.8	11.3	21.2	100.0 (151)	132.8
300~400만원 미만	12.2	26.6	25.5	17.3	18.3	100.0 (278)	138.2
400~500만원 미만	13.5	25.4	27.9	14.8	18.4	100.0 (244)	135.8
500~600만원 미만	17.8	24.9	31.9	10.8	14.6	100.0 (185)	121.2
600~700만원 미만	13.2	28.3	34.9	10.4	13.2	100.0 (106)	124.5
700만원 이상	18.8	24.0	24.7	14.9	17.5	100.0 (154)	127.6
F							0.991
부 학력							
고졸 이하	11.5	14.6	30.0	13.8	30.0	100.0 (130)	160.8
전문대(2~3년제) 졸업	13.9	22.2	25.2	13.9	24.8	100.0 (230)	148.8
4년제 대학 졸업	15.0	29.7	27.2	14.7	13.4	100.0 (606)	121.9
대학원 이상	20.6	25.7	31.6	10.3	11.8	100.0 (136)	116.5
F							10.187***
모 학력							
고졸 이하	17.0	21.4	24.1	15.2	22.3	100.0 (112)	143.6
전문대(2~3년제) 졸업	11.4	23.2	28.9	13.1	23.5	100.0 (298)	146.2
4년제 대학 졸업	14.7	28.0	28.2	14.8	14.3	100.0 (586)	125.2
대학원 이상	23.7	28.0	24.6	10.2	13.6	100.0 (118)	112.8
F							5.486**

구분	60분 미만	60분 ~ 120분 미만	120분 ~ 180분 미만	180분 ~ 240분 미만	240분 이상	계(수)	평균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7	27.4	28.6	13.5	17.8	100.0 (482)	133.9
외벌이	16.8	24.8	26.9	14.2	17.3	100.0	129.4
t							0.787
아동 연령							
0세	56.8	15.9	13.6	4.5	9.1	100.0 (44)	66.7
1세	32.0	30.9	22.7	8.2	6.2	100.0 (97)	87.1
2세	16.6	25.1	29.1	8.0	21.1	100.0 (175)	138.9
3세	14.6	27.5	27.5	15.8	14.6	100.0 (171)	125.2
4세	12.0	23.0	30.1	15.3	19.6	100.0 (209)	141.0
5세	9.1	29.2	29.7	12.0	20.1	100.0 (209)	138.8
6세	6.6	24.9	27.2	22.1	19.2	100.0 (213)	146.9
F							9.252***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26.9	25.6	25.0	7.6	14.9	100.0 (316)	113.0
유아(36개월 이상)	10.3	26.1	28.7	16.3	18.6	100.0 (802)	138.6
t							-4.124***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영유아 자녀에게 TV 시청을 허용하는 경우는 보호자의 일을 자녀의 방해없이 하기 위해(79.8%)가 가장 많았다.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 이용(57.8%)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원할 때 허용(49.4%), 교육용 프로그램/어플,온라인 수업을 위해(47.7%) 이용하는 경우도 영유아 가구의 절반 가량 된다. 기관 등원 준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39.1%), 자리에 앉아 식사를 빨리 하게 하기 위해(37.8%),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22.1%) 등 자녀의 일과준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용하며, 잠을 재우기 위해 TV를 허용하는 경우는 8.5%에 불과하였다.

〈표 Ⅲ-3-20〉 영유아에게 TV 시청 허용하는 목적별 경험

단위 : %(명)

TV 시청 허용 목적	있음	없음	계(수)
1)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	22.1	77.9	100.0(1,118)
2)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등원 준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39.1	60.9	100.0(1,118)
3) 자리에 앉아 식사를 빨리 하게 하기 위해	37.6	62.4	100.0(1,118)
4) 보호자의 일을 자녀의 방해 없이 하기 위해(예: 식사준비, 청소, 업무)	79.8	20.2	100.0(1,118)
5) 교육용 프로그램(예: EBS)교육용 어플, 온라인수업(Zoom 등을 활용)을 위해	47.7	52.3	100.0(1,118)
6)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 이용하게 함	57.8	42.2	100.0(1,118)
7) 잠을 재우기 위해(잠자리 들기 전 책읽기처럼 활용)	8.5	91.5	100.0(1,118)
8)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원할 때 허용함	49.4	50.6	100.0(1,118)
9) 기타	2.8	97.2	100.0(1,101)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영유아의 TV 프로그램 시청 시간은 여가·놀이를 위해서는 30분~1시간 이내가 가장 많았고, 교육 용도로는 30분 이내가 많았다. 여가·놀이의 경우, 하루 기준 30분~1시간 이내 32.9%, 1시간 이상 25.5%, 10분~30분 이내 24.0%, 10분 이내 7.3%로 1시간 내외가 많았고, 여가·놀이 용도로 전혀 시청하지 않음도 10.3%로 나타났다. 교육을 위한 시청 시간은 10분~30분 이내 29.4%, 30분~1시간 이내 23.6%, 10분 이내 12.3%였고, 1시간 이상은 8.0%에 불과했으며, 교육을 위해서 시청하지 않음도 26.7%로 적지 않았다.

〈표 Ⅲ-3-21〉 목적별 영유아의 TV 프로그램 시청 시간(하루 기준)

단위 : %(명)

TV 프로그램	전혀 시청 않음	10분 이내	10분~30분 이내	30분~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계(수)
1) 여가·놀이 (애니메이션, 예능·오락, 드라마 등)	10.3	7.3	24.0	32.9	25.5	100.0 (1,118)
2) 교육 (EBS, 교양·시사프로그램)	26.7	12.3	29.4	23.6	8.0	100.0 (1,118)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다. PC(데스크톱·노트북) 이용 실태

영유아 자녀의 PC 이용 시작 시기는 만3세 이상 유아기인 경우가 많았다. 유아기에 이용을 시작한 경우는 63.6%였으며, 영아기에는 만2세 12.3%, 만1세 18.8%이고, 12개월 미만은 5.1%로 매우 적었다.

〈표 Ⅲ-3-22〉 영유아의 PC 이용 시작 시기

단위 : %(명)

생후 6개월 미만	6개월~ 12개월 미만	12개월~ 18개월 미만	18개월~ 24개월 미만	24개월~ 36개월 미만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계(수)
0.6	4.5	7.8	11.0	12.3	13.0	18.8	20.8	11.0	100.0 (154)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영유아의 하루 평균 PC 이용시간은 주중 34.1분, 주말 43.6분으로 1시간 이내였으며, 주말이 주중보다 이용시간이 약간 더 길었다.

〈표 Ⅲ-3-23〉 영유아의 하루평균 PC 이용시간(평균)

단위 : 분

주중(월~금) 1일 평균 이용 시간	주말(토, 일) 1일 평균 이용 시간
34.1	43.6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이용 목적별 PC 하루 이용시간은 정보와 지식 검색용으로는 10분 이내 16.9%, 10분~30분 이내 13.6%, 30분~1시간 이내 6.5%였고, 1시간 이상 사용은 없었고,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63.0%로 많은 편이다. 온라인 학습용으로는 10분~30분이 27.9%로 가장 많았고, 30분~1시간 16.2%, 1시간 이상 7.8%, 10분 이내 7.1%순이었으며, 온라인 학습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40.9%였다. 여가 놀이용은 10분~30분 이내 27.9%로 가장 많았고, 30분~1시간 이내 22.1%, 10분 이내 13.6%, 1시간 이상 12.3% 순이며,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24.0%였다.

영유아 가구에서는 PC를 주로 여가/놀이 및 온라인 학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1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적은 것이 특징이며, 기기는 있으나 영유아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표 Ⅲ-3-24〉 영유아의 목적별 PC 이용시간(하루 기준)

단위 : %(명)

PC 이용 목적	전혀 이용 않음	10분 이내	10분~ 30분 이내	30분~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계(수)
1) 정보와 지식 검색	63.0	16.9	13.6	6.5	0.0	100.0(154)
2) 온라인 학습을 위해(온라인 수업참여, 온라인 교육 콘텐츠접속)	40.9	7.1	27.9	16.2	7.8	100.0(154)
3) 여가 놀이용(동영상, SNS, 게임 등)	24.0	13.6	27.9	22.1	12.3	100.0(154)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라.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방법

영유아 자녀가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녀가 원할 때 보호자 허락 후 이용 가능(66.9%)이 가장 많았고,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녀에게 이용 허락(41.1%), 가족이 이용할 때 같이 이용함(19.7%), 자녀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이용 가능(10.5%), 기타(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3-25〉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방법(중복응답)

단위 : %, (명)

자녀가 원할 때 보호자의 허락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음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녀에게 이용하도록 함	가족이 이용할 때 같이 이용함	자녀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이용가능함	기타	(수)
66.9	41.1	19.7	10.5	2.9	(1,500)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마.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이용 증가 여부, 이용이 증가한 이유, 이용이 증가한 미디어 기기, 원격수업의 영향 등을 파악해보았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이 증가했는지에 대해 전체의 66.8%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이용 증가여부는 주양육자, 아동 연령, 출생순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주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에 다른 집단보다 '증가함' 응답이 많았고, 아동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함' 응답이 높은 경향이다. 통상 미디어 노출을 꺼리는 0세(35.9%)와 1세(46.6%)에서도 '증가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영아의 절반이 증가했고, 유아의 7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경우에 첫째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특히,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미이용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현저하게 높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미이용 아동보다 연령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외에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시행하거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관등원을 못하는 경우가 증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Ⅲ-3-26〉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 증가 여부

단위 : %(명)

구분	증가함	증가하지 않음	계(수)
전체	66.8	33.2	100.0 (1,500)
주양육자			
부모(어머니, 아버지)	67.9	32.1	100.0 (1,022)
조부모	70.2	29.8	100.0 (178)
기타	61.0	39.0	100.0 (300)
$x^2(df)$		6.056*(2)	
모취업 여부			
취업	68.8	31.2	100.0 (654)
미취업	65.3	34.7	100.0 (842)
$x^2(df)$		2.019(1)	
아동 연령			
0세	35.9	64.1	100.0 (131)
1세	46.6	53.4	100.0 (161)
2세	65.6	34.4	100.0 (244)
3세	65.8	34.2	100.0 (219)
4세	76.4	23.6	100.0 (246)
5세	75.7	24.3	100.0 (251)
6세	79.8	20.2	100.0 (248)
$x^2(df)$		124.664***(6)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52.6	47.4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74.7	25.3	100.0 (964)
$x^2(df)$		75.703***(1)	

구분	증가함	증가하지 않음	계(수)
출생순위			
첫째	62.2	37.8	100.0 (727)
둘째 이상	71.2	28.8	100.0 (773)
$x^2(df)$		13.617***(1)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72.2	27.8	100.0 (1,222)
미이용	43.2	56.8	100.0 (278)
$x^2(df)$		85.950***(1)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이 증가한 이유는 1순위만 분석했을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심심해해서(78.8%)가 현저하게 높았고, 그 외에는 원격수업/온라인 학습지로 미디어 기기에 친숙해져서(8.5%), 양육자와 함께하는 시간 증가로 함께 미디어를 이용할 기회가 많아서(6.8%), 부모와의 놀이보다 미디어 이용을 아이가 더 좋아해서(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이유는 아동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영아와 유아 모두 심심해해서가 가장 높았지만, 영아는 그다음으로 양육자와의 시간 증가로 함께 미디어 이용기회가 많아서(10.6%)가 높은 편이었고, 유아는 원격수업/온라인 학습지로 미디어 기기에 친숙해져서(10.4%)가 높은 편이었다.

〈표 Ⅲ-3-27〉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이 증가한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심심해해서	부모와 함께 하는 놀이나 책읽기보다 미디어를 이용한 영상 시청, 놀이를 더 좋아해서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온라인 학습지를 하게 되어 미디어 기기에 친숙해져서	양육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양육자가 이용하는 미디어를 같이 이용하게 될 기회가 많아져서	기타	계(수)
전체	78.8	5.0	8.5	6.8	0.9	100.0(1,002)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81.6	3.5	3.5	10.6	0.7	100.0(282)
유아(36개월 이상)	77.8	5.6	10.4	5.3	1.0	100.0(720)
x^2(df)	22.019***(4)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01$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 증가에 대해 1+2순위로 분석하면 심심해해서(91.3%)가 압도적으로 높다. 영유아에 따라서는 영아에서는 양육자와 미디어를 함께 이용할 기회가 많아서(51.4%)가 두 번째로 높은 편이며, 유아는 원격수업/온라인 학습지로 친숙해져서(34.0%)가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자녀가 미디어 이용 자체를 선호한다기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녀가 자주 심심해하고, 부모가 미디어 이용 외에 실내에서 가능한 다른 놀이나 활동을 제시하거나 자녀와 함께 충분히 놀아주기가 어려웠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가정 내 양육 의존도가 높아진 팬데믹 상황에서 영유아 부모가 자녀와 함께 미디어 외의 놀이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부모가 영유아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미디어 콘텐츠가 필요하며, 또한 부모교육 등을 통해 영유아의 적절한 미디어 이용을 부모가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Ⅲ-3-28〉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이 증가한 이유(1+2순위)

단위 : %, (명)

구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심심해해서	부모와 함께 하는 놀이나 책읽기보다 미디어를 이용한 영상 시청, 놀이를 더 좋아해서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온라인 학습지를 하게 되어 미디어 기기에 친숙해져서	양육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양육자가 이용하는 미디어를 같이 이용하게 될 기회가 많아져서	기타	(수)
전체	91.3	26.9	28.4	37.0	3.5	(1,002)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91.8	26.2	14.2	51.4	2.5	(282)
유아(36개월 이상)	91.1	27.2	34.0	31.4	3.9	(720)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이용이 가장 증가한 미디어 기기는 TV(38.7%), 스마트폰(34.2%), 태블릿 PC(23.0%)가 가장 현저했고, 개인용 컴퓨터(2.0%), 게임콘솔(0.5%), 인공지능스피커(0.2%), 가상현실 기기(0.1%), 전자책단말기(0.1%), 기타(1.2%) 등으로 나머지는 매우 낮은 비율이다.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이용이 증가한 미디어 기기는 아동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영아의 경우 TV(50.0%)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스마트폰(29.4%), 태블릿 PC(18.1%)순이었고, 유아의 경우 스마트폰(36.1%), TV(34.3%), 태블릿 PC(24.9%)가 비슷하게 증가하여 영아와 유아의 양상이 상이했다.

〈표 Ⅲ-3-29〉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이용이 가장 증가한 미디어 기기(1순위)

단위 : %(명)

구분	스마트폰	TV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PC	게임 콘솔	인공지능 스피커	가상현실 (VR)기기	전자책 단말기	기타	계(수)
전체	34.2	38.7	2.0	23.0	0.5	0.2	0.1	0.1	1.2	100.0(1,002)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29.4	50.0	1.4	18.1	0.0	0.4	0.0	0.0	0.7	100.0(282)
유아(36개월 이상)	36.1	34.3	2.2	24.9	0.7	0.1	0.1	0.1	1.4	100.0(720)
χ^2(df)	24.235**(8)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1$

1+2순위로 분석했을 때는 영아와 유아 모두 TV,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이용이 여전히 뚜렷하나, 유아의 경우 개인용 컴퓨터(5.6%)와 게임콘솔(4.6%)에서 증가한 경우도 있다.

〈표 Ⅲ-3-30〉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이용이 가장 증가한 미디어 기기(1+2순위)

단위 : %, (명)

구분	스마트폰	TV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PC	게임 콘솔	인공지능 스피커	가상현실 (VR)기기	전자책 단말기	기타 (수)
전체	63.0	72.2	4.6	39.7	3.5	1.3	0.1	0.2	1.5 (1,002)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67.0	73.8	2.1	33.0	0.7	1.8	0.0	0.4	1.1 (282)
유아(36개월 이상)	61.4	71.5	5.6	42.4	4.6	1.1	0.1	0.1	1.7 (720)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기기 이용 증가 정도에 대해 30~50% 이내 증가함(30.4%)이 가장 높았고, 15~30% 이내 증가함(29.7%), 15% 이내 증가함(17.0%), 50~70% 이내 증가함(15.2%) 순으로 나타났고, 70%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은 7.7%였다.

이용 증가 정도는 아동 연령과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영아는 15~30% 이내의 낮은 폭으로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유아는

30~50% 이내 증가에 응답이 많아 유아가 영아보다 이용 증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이 미이용 아동보다 이용증가 정도를 높게 응답한 경향이 있다.

〈표 Ⅲ-3-31〉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기기 이용 증가 정도

단위 : %(명)

구분	15% 이내	15~30% 이내	30~50% 이내	50~70% 이내	70~100% 이내	100% 이상	계(수)
전체	17.0	29.7	30.4	15.2	3.5	4.2	100.0(1,002)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26.6	32.3	22.3	13.1	2.8	2.8	100.0(282)
유아(36개월 이상)	13.2	28.8	33.6	16.0	3.8	4.7	100.0(720)
$x^2(df)$				34.039***(5)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15.5	29.7	31.2	15.4	3.6	4.5	100.0(882)
미이용	27.5	30.0	25.0	13.3	2.5	1.7	100.0(120)
$x^2(df)$				13.006*(5)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이용 기관[64]에서 원격수업을 시행한 경우는 30.2%로 나타났다. 원격수업 시행여부는 지역규모,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다.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원격수업을 시행한 경우가 많았고,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행한 경우가 많았다. 영아 중 원격수업을 경험한 경우는 14.4%, 유아는 35.0%로 유아가 더 많았다.

〈표 Ⅲ-3-3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이용 기관에서의 원격수업 시행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30.2	69.8	100.0(1,222)
지역 규모			
대도시	35.4	64.6	100.0(477)
중소도시	28.6	71.4	100.0(576)
읍면지역	20.7	79.3	100.0(169)

64) 반일제 이상 기관, 시간제 학원 모두 포함

구분	있음	없음	계(수)
$x^2(df)$		14.070**(2)	
아동 연령			
0세	7.1	92.9	100.0(14)
1세	10.4	89.6	100.0(77)
2세	16.5	83.5	100.0(194)
3세	19.9	80.1	100.0(201)
4세	27.9	72.1	100.0(240)
5세	41.0	59.0	100.0(249)
6세	48.2	51.8	100.0(247)
$x^2(df)$		97.426***(6)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14.4	85.6	100.0(285)
유아(36개월 이상)	35.0	65.0	100.0(937)
$x^2(df)$		44.079***(1)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원격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평소 미디어 기기 이용시간에 비해 원격수업 시행 후 이용시간이 증가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증가한 경우가 56.1%이고 변함없음 43.9%로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 시간 증가여부는 월 가구 소득, 모 학력,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모학력이 높을수록 원격수업 시행으로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취업모 가구가 미취업모 가구보다, 둘째 이상 자녀가 첫째 자녀보다 원격수업 시행으로 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반면 원격수업 시행으로 인한 이용시간 증가여부는 주양육자, 모취업 여부나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표 Ⅲ-3-33〉 원격수업 시행으로 인한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시간 증가 여부(원격수업 시간 제외)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변함없음)	계(수)
전체	56.1	43.9	100.0(369)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43.1	56.9	100.0(51)
300~400만원 미만	54.8	45.2	100.0(93)
400~500만원 미만	47.5	52.5	100.0(61)

구분	예	아니오(변함없음)	계(수)
500~600만원 미만	55.1	44.9	100.0(69)
600~700만원 미만	66.7	33.3	100.0(39)
700만원 이상	73.2	26.8	100.0(56)
χ^2(df)		13.812*(5)	
주양육자			
부모(어머니, 아버지)	53.4	46.6	100.0(262)
조부모	64.7	35.3	100.0(51)
기타	60.7	39.3	100.0(56)
χ^2(df)		2.773(2)	
모 학력			
고졸 이하	41.7	58.3	100.0(36)
전문대(2~3년제) 졸업	50.0	50.0	100.0(94)
4년제 대학 졸업	58.0	42.0	100.0(207)
대학원 이상	77.4	22.6	100.0(31)
χ^2(df)		10.472*(3)	
모취업 여부			
취업	60.1	39.9	100.0(158)
미취업	52.9	47.1	100.0(210)
χ^2(df)		1.933(1)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65.9	34.1	100.0(51)
유아(36개월 이상)	54.9	45.1	100.0(328)
χ^2(df)		1.783(1)	
출생 순위			
첫째	49.3	50.7	100.0(138)
둘째 이상	60.2	39.8	100.0(231)
χ^2(df)		4.166*(1)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5$

원격수업 후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해 15~30% 이내 증가(44.4%), 30~50% 이내 증가(25.1%), 15% 이내 증가(19.3%), 50% 이상 증가(1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3-34〉 원격수업 후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 정도

단위 : %(명)

15% 이내	15~30% 이내	30~50% 이내	50% 이상	계(수)
19.3	44.4	25.1	11.1	100.0(207)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종합하면, 영유아 중 66.8%는 코로나 19 이후 미디어 기기 이용이 증가했으며, 영아 중 52.6%, 유아 중 74.7%가 이용이 증가하여 유아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증가한 이유는 영아와 유아 모두 90% 이상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 심심해해서이고, 영아는 양육자와 함께 미디어를 이용할 기회가 많아져서, 유아는 원격수업/온라인 학습지로 미디어 기기에 친숙해져서가 그 다음으로 꼽혔다. 이용이 증가한 미디어 기기는 주로 TV, 스마트폰, 태블릿 PC이다. 코로나19 이후 기관에서 원격수업을 시행한 경우는 30.2%이며, 영아는 14.4%, 유아는 35.0%가 기관에서 원격수업을 했으며, 특히 5세(41.0%)와 6세(48.2%)가 원격수업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원격수업 시행으로 인해 원격수업 시간을 제외한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 시간이 증가했는지에 대해 56.1%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4.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실태

본 절에서는 가정에서 영유아들의 미디어 이용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가정에서 미디어 기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용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국가 기관에서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는 영유아 미디어 이용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상술하였다.

가. 가정에서의 미디어 기기 관리 현황

먼저, 가정에서 미디어 기기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들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Ⅲ-4-1〉에 따르면 미디어 기기들의 비밀번호 설정, 미디어에서 이용하는 콘텐츠 제한(필터 등) 설정, 미디어 이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앱 설치 등 세가지의

미디어 기기 관리를 위한 기술적 방안에 대해 이를 알고 있는지 및 적용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기의 비밀번호 설정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15.3%로 콘텐츠 제한 설정의 19.1%, 미디어 이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앱 설치에 대한 응답 25.1%에 비해 '모른다'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미디어 이용 제한 기술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은 가장 높은 경우(관리프로그램 또는 앱 설치 방법)가 25.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오히려 이러한 기술적 방안을 알고 있지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모든 관리 방법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즉, '알고 있지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기기 비밀번호 설정의 경우 45.3%, 미디어의 콘텐츠 제한 설정은 44.8%, 미디어 이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앱 설치는 51.9%에 달하였다.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제한을 위한 기술적 방안 중 부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기기 비밀번호 설정' 으로 39.4%가 적용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콘텐츠 제한(필터)설정 36.1%, 미디어 이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앱 설치가 23.0%로 적용 경험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Ⅲ-4-1〉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제한을 위한 기술적 방안 인지 및 적용 경험

단위 : %(명)

미디어 이용 제한 기술	모른다	알고 있지만 적용하지 않는다	알고 있으며 실제 적용해봤다	계(수)	
1) 기기 비밀번호 설정	15.3	45.3	39.4	100.0	(1,500)
2) 콘텐츠 제한(필터)설정	19.1	44.8	36.1	100.0	(1,500)
3) 미디어 이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앱 설치	25.1	51.9	23.0	100.0	(1,500)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이러한 미디어 이용 제한 기술을 알지만 적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자녀의 미디어 접근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50.2%가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외 '기타' 25.9%, '설치·적용 방법이 어렵거나 번거로워서' 13.6%, '시간 여유가 없어 미루다 못함' 10.4%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제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응답자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 '설치/적용 방법이 어렵거나 번거로워서'에 15.0%가 응답하여 남성의 11.5%에 비

해 미디어 이용 제한 기술 설치나 적용에 여성이 좀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즉 가정에서 자녀와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들을 위해 쉽고 간편하게 미디어 이용 제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설치/적용 방법이 어렵거나 번거롭다는 응답은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일 경우 유의하게 높았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시간이 없어 미루다 못하였다는 응답이 13.4%로 외벌이 가구에(8.3%) 비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

〈표 Ⅲ-4-2〉 미디어 이용 제한 기술적 방안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시간 여유가 없어서 미루다 못함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설치/적용 방법이 어렵거나 번거로워서	기타	계(수)
전체	10.4	50.2	13.6	25.9	100.0 (981)
응답자 성별					
남성	9.1	56.5	11.5	22.9	100.0 (407)
여성	11.3	45.6	15.0	28.0	100.0 (574)
χ^2(df)			11.307*(3)		
모 학력					
고졸 이하	8.7	54.3	18.5	18.5	100.0 (92)
전문대(2~3년제) 졸업	8.3	60.7	12.0	19.0	100.0 (242)
4년제 대학 졸업	11.6	45.5	13.4	29.5	100.0 (536)
대학원 이상	11.1	45.4	13.0	30.6	100.0 (108)
χ^2(df)			22.638**(9)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4	49.4	11.5	25.7	100.0 (409)
외벌이	8.2	50.7	15.0	26.0	100.0 (572)
χ^2(df)			8.579*(3)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5$, ** $p < .01$

나. 가정에서의 미디어 이용 지도 현황

다음으로 가정에서 영유아가 미디어를 이용할 때 미디어 이용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Ⅲ-4-3〉에 따르면 가정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로 가장 잘 활용되는 방법은 '보호자가 있는 공간에서만 미디어기기를 이용하게 하기'로 항상 한다는 응답이 52.3%, 자주 함 24.2%로 나타나 '항상+자주' 활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밖에 '항상+자주'활용 비율이 높은 지도 방법은 '미디어 이용하지 않을 때 꺼놓기' 67.8%, '보호자와 함께 이용' 59.4%, '유해하거나 이용을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사이트, 앱 차단'이 58.7%, '자녀가 이용한 콘텐츠 확인'54.3%, '보호자와 이용 콘텐츠 함께 고르기' 53.3%, '보호자가 자녀와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 하기'48.1%, '미디어 이용 시간 제어 앱 활용 이용 시간 관리' 35.1% 순으로 나타났다. 앱 등을 활용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관리하는 경우는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그 외에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들은 영유아가 홀로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지 않도록 보호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 이용하지 않을 때는 미디어를 꺼놓아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고 접근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노력하는 비율이 높고 영유아가 이용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함께 고르고, 이용하며 이야기 나누는 등 영유아가 이용하는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지도 방법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심층 면담에서도 영유아 부모들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의 규율과 지도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몇몇 사례에서는 이용 시간, 영유아가 이용하는 콘텐츠를 엄격히 관리할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TV 등을 없앤 경우도 있었다.

> 저희 집은 TV가 없다 보니깐요. 사실 평일은 거의 미디어를 볼 시간이 없어요…(중략)…콘텐츠는 저희가 *투브라든지 *플릭스나 이런거도 안봐요. 가입을 안해놓다보니 거의 제가 선정을 해서 다운 받아 놓은 그런 애니메이션들 위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례 7. 서울 거주, 6세 여아]

> 첫째 세 살 때부터 TV가 없었다 보니까 둘째는 태어날때부터 집에 TV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해 좀 집착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거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중략)…(TV를) 없애고 한 일주일 정도는 금단 현상처럼 미치겠는 거에요. 집에 와도 할 것도 없고…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게 생활패턴이 변하는 거죠.…애들하고도 그 전에는 같이 앉아서 TV 보고 하다가, 할게 없어지니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이렇게 패턴이 바뀌더라구요.…"TV 없어도 살 만하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사례 7. 서울 거주, 6세 여아]

> 일단 보기 시작할 때 AI스피커로 스스로 알람을 맞추게 해요. 그걸 맞춰놓고 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끄는 형태이고요,[사례 10. 경기 거주, 5세 여아]

> 저희집은 TV가 일단 없고요. TV는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태블릿을 볼때나 게임을 할 때 AI 스피커로 일단 시간을 먼저 설정을 해요. 아이들이.[사례 10. 경기 거주, 5세 여아]

심층면담 사례 중 현재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는 사례 중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 미디어 과다 노출에 대한 우려를 경험한 후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게 되어 지도를 철저하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 아이가 한 세 살 이전까지는 좀 자유롭게 미디어 시청을 하게끔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격하게 하게 된 이유가 아기가 말이 늦었었어요. 영유아 검진을 갔을 때 소아과 의사선생님이 "아기한테 미디어를 많이 시청하게 했나?" 이렇게 물어 보시더라구요.…(중략)…"당장 미디어를 끊고 책을 많이 보여줘라"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영유아 검진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미디어를 안보게 하고 책을 많이 읽어줬더니 한 달 두 달 이내에 아기가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딱 시간을 30분,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례 8. 전북 거주, 6세 남아]

한편 '미디어 이용 시간 제어 앱 활용한 이용 시간 관리'(49.3%), '유해하거나 이용을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사이트, 앱 차단'(28.3%) 등 기술적 방안을 통한 관리 방법은 '전혀 하지 않음'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자녀의 미디어 이용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술에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기술적 방안들은 영유아의 보호자들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불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일과 양육, 가사의 병행으로 인한 부담으로 미디어 이용 지도에 꾸준한 관리가 어려운 부모들에게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4-3〉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단위 : %(명)

지도 방법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가끔 함	③ 자주 함	④ 항상 함	③+④	계(수)
1) 보호자와 함께 이용	7.6	33.0	31.9	27.5	59.4	100.0 (1,500)
2) 보호자와 이용 콘텐츠 함께 고르기	15.8	30.9	28.4	24.9	53.3	100.0 (1,500)
3) 보호자가 자녀와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하기	20.3	31.7	29.9	18.2	48.1	100.0 (1,500)
4) 유해하거나 이용을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사이트, 앱 차단	28.3	12.9	15.5	43.2	58.7	100.0 (1,500)
5) 자녀가 이용한 콘텐츠 확인	23.9	20.7	24.3	31.0	54.3	100.0 (1,500)
6) 미디어 이용 시간 제어 앱 활용 이용 시간 관리	49.3	16.5	14.4	19.7	35.1	100.0 (1,500)
7)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꺼놓기	19.5	127.	17.5	50.3	67.8	100.0 (1,500)
8) 보호자가 있는 공간에서 이용하게 하기 (예: 태블릿PC, 스마트폰, 게임콘솔 등을 혼자 방에서 이용하게 하지 않음)	11.6	11.9	24.2	52.3	76.5	100.0 (1,500)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한편, 가정에서 보호자들이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미디어 콘텐츠가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지 확인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항상 확인함' 36.6%, '자주 확인함' 27.5%, '가끔 확인함' 21.0%, '확인하지 않음' 8.2%로 '항상+자주'확인한다는 비율이 64.1%에 달해 영유아 부모들이 영유아가 이용하는 콘텐츠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콘텐츠 외에는 미디어 기기에서 차단되도록 조치한다는 경우도 6.7%로 보호자들이 영유아의 연령, 발달수준에 적합한 콘텐츠인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콘텐츠의 연령적합성 확인 정도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어머니의 취업 여부, 아동의 연령,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항상 확인함(40.3%)', '자주 확인함(28.3%)'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항상 확인함'의 비율이 높아 20대의 44.4%, 30대의 38.2%, 40대의 3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어린이용 콘텐츠 외에는 차단 조치함'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한 경우 '항상 확인함'의 비율이 33.9%,

미취업의 경우 38.6%로 미취업모 가정에서 콘텐츠의 연령적합성을 좀더 철저히 관리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0~36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콘텐츠의 연령적합도를 항상 확인하는 비율이(42.5%) 유아인 경우에 비해(33.2%) 높았으며 출생순위는 첫째인 경우(42.5%) 둘째 이상인 경우에(31.0%) 비해 '항상 확인함'의 비율이 높았다.

〈표 Ⅲ-4-4〉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연령적합성 확인 정도

단위 : %(명)

구분	항상 확인함	자주 확인함	가끔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어린이용 콘텐츠 외에는 차단되도록 조치함	계(수)
전체	36.6	27.5	21.0	8.2	6.7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31.1	26.3	26.1	9.3	7.2	100.0 (601)
여성	40.3	28.3	17.6	7.5	6.5	100.0 (899)
χ^2(df)				23.075***(4)		
응답자 연령대						
20대	44.4	25.9	7.4	7.4	14.8	100.0 (27)
30대	38.2	26.6	18.8	9.2	7.2	100.0 (1,039)
40대	32.3	29.7	27.2	5.8	5.1	100.0 (434)
χ^2(df)				26.625**(8)		
모취업 여부						
취업	33.9	27.1	24.9	7.6	6.4	100.0 (654)
미취업	38.6	27.9	17.9	8.7	6.9	100.0 (842)
χ^2(df)				11.434*(4)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42.7	20.0	14.0	14.2	9.1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33.2	31.6	24.9	4.9	5.4	100.0 (964)
χ^2(df)				88.692***(4)		
출생순위						
첫째	42.5	24.1	17.9	9.2	6.3	100.0 (727)
둘째 이상	31.0	30.7	23.9	7.2	7.1	100.0 (773)
χ^2(df)				28.007***(4)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본 연구를 위한 심층면담에서 이처럼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나름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그러한 지도 철학이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를 질문하였는 바, 전문가의 권고나 뉴스나 신문기사의 관련 내용 등에 대해 부모가 공감하고 실생활에서의 적용을 통해 그러한 기준의 유용성을 확인하면서 형성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 저희가 네이버라든지 혹은 뉴스나 이런걸 보면 팝콘 브레인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애들을 보다 보면 무분별하게 자극적인거에 노출되고 그렇다더라 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전에 30 분 정도는 항상 책을 읽어주자." 이렇게 (부부간에) 합의가 된거고 또 이렇게 실천을 한거죠.[사례 7. 서울 거주, 6세 여아]

> 영유아 검진때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신게 가장 컸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말이 트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된거죠. 미디어는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는. [사례 8. 전북 거주, 6세 남아]

다.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 활용 실태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의 영유아 부모들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하기 보다는 콘텐츠를 확인하고 함께 고르며, 함께 이용하고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등 부모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 적극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지도 현황을 통해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에 대해 많은 부모들이 상당한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정보화진흥원)에서 2017년 이후 영유아 보호자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는 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통해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표 Ⅲ-4-5〉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는 '영유아용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을 부모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모른다'는 응답이 72.6%로 아직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 있음'이 22.5%, '책자 등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본 적 있음' 4.0%,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음' 0.9%로 가이드라인의 인지율도 낮고 내용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현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인지 정도는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 대상 자녀가 영아보다는 유아일 때,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일 때,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보다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모름'의 응답 비율이 69.9%로 미이용의 경우 84.5%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였고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들어보았거나 내용까지 알고 있는 비율이 미이용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므로 기관 이용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Ⅲ-4-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개발) 영유아용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모름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음	가이드라인을 본 적 있음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음	계(수)
전체	72.6	22.5	4.0	0.9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75.7	19.5	3.8	1.0	100.0 (601)
여성	70.5	24.5	4.1	0.9	100.0 (899)
χ^2(df)			5.469(3)		
응답자 연령대					
20대	77.8	18.5	3.7	0.0	100.0 (27)
30대	73.5	21.7	3.8	1.0	100.0 (1,039)
40대	70.0	24.7	4.4	0.9	100.0 (434)
χ^2(df)			2.512(6)		
모 취업 여부					
취업	70.8	24.0	4.0	1.2	100.0 (654)
미취업	73.9	21.4	4.0	0.7	100.0 (842)
χ^2(df)			2.639(3)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76.7	19.4	2.6	1.3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70.3	24.2	4.8	0.7	100.0 (964)
χ^2(df)			10.654*(3)		
출생순위					
첫째	76.5	20.2	2.6	0.7	100.0 (727)
둘째 이상	69.0	24.6	5.3	1.2	100.0 (773)
χ^2(df)			13.784**(3)		
반일제이상 기관					

구분	모름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음	가이드라인을 본 적 있음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음	계(수)
이용	69.9	2 4.5	4.7	1.0	100.0 (1,222)
미이용	84.5	13.7	1.1	0.7	100.0 (278)
χ^2(df)			25.894***(3)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른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이드라인대로 지도하고 있다는 경우가 28.6%, 대부분 지켜서 지도한다는 경우가 35.7%로 가이드라인의 내용까지 알고 있는 사례가 매우 희소하긴 하나(1,500사례 중 14사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부모들의 지도 방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4-6〉 영유아용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른 미디어 이용 지도 여부

단위 : %(명)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도하지 않음	가이드라인 대로 대부분 지도하지 못하고 있음	매번 가이드라인대로 지도하지는 못하나 대부분 지키려 함	가이드라인대로 지도하고 있음	계(수)
0.0	35.7	35.7	28.6	100.0 (14)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가이드라인대로 지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는 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영유아에게 적절한 이용)시간이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80.0%를 차지하였고, 여러 명의 자녀들을 돌보며 지키기에는 어려운 지침이어서 20%로 나타났다. 즉, 가이드라인대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침이 적절하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현실에서 지키기가 어려워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 응답 대상 사례가 5사례에 불과하여 이러한 이유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Ⅲ-4-7〉 가이드라인대로 지도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이유

단위 : %(명)

가이드라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가이드라인상의 시간이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지침이어서	여러 명의 자녀들을 돌보며 지키기에는 어려운 지침이어서	기타	계(수)
0.0	80.0	20.0	0.0	100.0 (5)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한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한 기준[65]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부모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는데, 적절하다는 의견(적절함 + 매우 적절함)이 79.4%에 달하여 대부분의 영유아 부모들이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시간 기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하였고 '적절하지 않음' 11.5%, '잘 모르겠음' 6.3%로 응답 비중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대, 부모의 학력이나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 가구의 제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Ⅲ-4-8〉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적절함	매우 적절함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2.8	11.5	56.9	22.5	6.3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4.0	9.7	56.1	24.1	6.2	100.0 (601)
여성	2.0	12.8	57.4	21.5	6.3	100.0 (899)
χ^2(df)				9.442(4)		
응답자 연령대						
20대	0.0	18.5	63.0	11.1	7.4	100.0 (27)
30대	3.2	11.3	56.4	21.8	7.4	100.0 (1,039)
40대	2.1	11.8	57.6	25.1	3.5	100.0 (434)
χ^2(df)				14.409(8)		
부 학력						

65) 만2세 미만에서는 가급적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만 2세~취학전 유아는 하루 1시간 이내로 미디어 노출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침

구분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적절함	매우 적절함	잘 모르겠음	계(수)
고졸 이하	5.0	10.6	60.0	19.4	5.0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2.8	13.9	55.9	20.5	6.9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2.2	11.0	57.5	23.3	6.1	100.0 (837)
대학원 이상	4.1	11.3	51.8	25.6	7.2	100.0 (195)
χ^2(df)				11.303(12)		
모 학력						
고졸 이하	5.5	13.8	57.9	17.2	5.5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3.5	13.1	55.2	20.6	7.5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1.9	10.4	57.2	24.6	5.8	100.0 (821)
대학원 이상	3.2	12.1	58.6	19.7	6.4	100.0 (157)
χ^2(df)				15.233(12)		
모 취업 여부						
취업	3.4	11.8	57.0	22.6	5.2	100.0 (654)
미취업	2.4	11.4	56.9	22.2	7.1	100.0 (842)
χ^2(df)				3.532(4)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영유아의 연령별 미디어 이용 시간 가이드라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제약이어서'라는 응답이 58.1%, '콘텐츠에 따라 적절한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인 제한이어서'라는 응답이 30.2%, '연령이 어리다고 해서 시간 제약을 둘 정도로 해로운 것 같지는 않아서'가 7.9%, '기타'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9〉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지나친 제약인 것 같아서	이용하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령이 어리다고 해서 시간 제약을 둘 정도로 해로운 것 같지는 않아서	기타	계(수)
58.1	30.2	7.9	3.7	100.0 (215)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한편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영유아의 연령별 미디어 이용 시간 가이드라인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례의 경우 그 이유로는 '장시간 미디어 이용은 영유

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에 45.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미디어 과의존 및 중독이 될 수 있으므로' 32.2%, '장시간 미디어 이용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발달에 필요한 다른 활동이 부족해지므로' 22.5%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Ⅲ-4-10〉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장시간 미디어 이용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시간 미디어 이용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발달에 필요한 다른 활동이 부족해지므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미디어 과의존 및 중독이 될 수 있으므로	기타	계(수)
45.1	22.5	32.2	0.2	100.0 (1,191)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5.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실태와 요구

이 절에서는 영유아의 적절한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기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육 실태와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았다.

가. 부모교육 경험 실태

앞서 영유아의 부모들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안을 활용하고 있으며, 영유아가 이용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영유아 시기 미디어의 이용이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지식과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모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관한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표 Ⅲ-5-1〉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본 조사의 응답자인 영유아 부모들 중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와 관련된 내용의 부모교육을 받은 경우는 1,500사례 중 16.3%에 해당하여 부모교육 경험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성별과 어머니의 학력, 아동의 연령, 아동의 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먼저 응답자 성별에 따라서는 응답자가 여성일 경우 20.5%가 관련 부모교육 경험이 있어서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10.0%)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교육 이수 경험이 높았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대체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영유아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경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서, 고졸 이하인 경우 14.5%가 관련 부모교육 경험이 있으나 4년제 대학 졸업의 경우 15.8%로 상승하고, 특히 대학원 이상의 경우 27.4%가 관련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동이 영아일 경우 보다는 유아일 경우, 아동이 기관을 이용할 경우 부모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관련 부모교육 경험이 높았다.

이같은 결과는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가 관련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의미하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관한 관심과 인식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영유아와 관련된 많은 교육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녀가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미이용의 경우에 비해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와 관련된 부모교육 경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영아보다는 유아의 기관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자녀가 유아일 경우 영아인 경우에 비해 부모교육 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Ⅲ-5-1〉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관한 교육 이수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6.3	83.7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10.0	90.0	100.0 (601)
여성	20.5	79.5	100.0 (899)
χ^2(df)		29.066***(1)	
모 학력			
고졸 이하	14.5	85.5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13.4	86.6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15.8	84.2	100.0 (821)
대학원 이상	27.4	72.6	100.0 (157)

구분	있음	없음	계(수)
χ^2(df)		16.914**(3)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11.9	88.1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18.7	81.3	100.0 (964)
χ^2(df)		11.461**(1)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18.2	81.8	100.0 (1,222)
미이용	7.6	92.4	100.0 (278)
χ^2(df)		19.018***(1)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전체적으로 부모들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육을 직접 받은 경험은 적었는데 최근 1~2년간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한 심층 면담을 통해서는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직접 이러한 교육을 받지는 못했으나 보육·교육기관으로부터 안내 책자나 서면을 통해 관련 교육 내용을 전달받은 경우는 발견되었다.

> 종이 안내문으로 온 적은 있어요. 미디어 시청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절을 해달라 하는 그런 공지문 같은걸 받은 적은 있어요.[사례 8. 전북 거주, 6세 남아]

> 그런 부모 교육은 없었구요, 책자 같은거 QR코드에 찍힌 책자 같은거는 왔었어요.[사례 9. 대전 거주, 3세 여아]

> 따로 교육을 받은 적은 없는데 유치원에서 안내책자를 나눠 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젠 미디어로 *투브 영상을 보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아이와 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영상이더라구요. 아이에게 이제 영상을 조금 봐라 하는 식의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은 있어요.[사례 10. 경기 거주, 5세 남아]

이러한 부모교육을 받아 본 경우 교육을 제공한 주체는 '자녀가 다니는 보육/교육기관'인 경우가 52.0%로 가장 많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의 육아지원기관이 29.5%로 보육·교육기관과 지역의 육아지원기관이 주요한 부모교육의 제공 주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2〉 영유아 미디어 이용지도 교육 제공 주체

단위 : %(명)

자녀가 다니는 보육/교육기관	지역 육아지원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도서관	직장	종교기관	기타	계(수)	
52.0	29.5	2.0	2.9	1.2	12.3	100.0	(244)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한편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서 제공되었던 주요 내용은 '미디어 이용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69.7%,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 올바른 지도 방법' 62.7%, '영유아 시기의 적정 이용 시간 기준' 60.7%, '영유아 미디어 중독 위험성과 예방법 등' 33.6%, '유해프로그램 등 차단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방법' 16.8%, '영유아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 식별 방법' 13.9%, '영유아를 위한 연령별 추천콘텐츠' 13.5%, '관련 법과 정책' 1.2% 순으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와 영유아의 발달간의 관계나 지도방법, 적정 이용 시간 기준 등은 관련 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내용으로 보이며, 영유아의 미디어 중독(과의존) 관련 내용도 많이 제공되는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 나아가 실생활에서 영유아를 지도하는 상황에서 당장 활용이 필요한 영유아용 콘텐츠를 선택하거나 영유아의 과도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에 대한 교육은 다소 미흡한 상황으로 사료된다.

〈표 Ⅲ-5-3〉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의 내용(중복응답)

단위 : %, (명)

미디어 이용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 시기의 적정 이용 시간 기준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 올바른 지도방법	유해프로그램, 사이트, 앱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방법	영유아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방법	영유아를 위한 연령별 추천콘텐츠	영유아 시기 미디어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법, 미디어 중독 상담기관 등 정보	관련 법과 정책	사례수
69.7	60.7	62.7	16.8	13.9	13.5	33.6	1.2	(244)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나. 부모교육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도움 정도와 요구

1) 부모교육 도움 정도와 이유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 관련 부모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실제로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도움됨' 78.7%, '매우 도움됨' 6.1%로 '도움이 되었다(도움됨+매우 도움됨)'는 의견이 84.8%에 달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를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자녀가 영아일 경우 유아인 경우에 비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움됨'은 영아 81.3%, 유아 77.8%로 자녀가 영아인 경우 3.5%p 높게 나타났고, '매우 도움됨'은 자녀가 영아일 경우 10.9%, 유아일 경우 4.4%로 격차가 6.5%p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부모교육의 내용이 지도해야 할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Ⅲ-5-4〉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의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도움이 된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전체	2.5	12.7	78.7	6.1	100.0 (244)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4.7	3.1	81.3	10.9	100.0 (64)
유아(36개월 이상)	1.7	16.1	77.8	4.4	100.0 (180)
χ^2 (df)			11.329*(3)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5$

한편 부모교육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는 바, 1순위로 응답된 결과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미디어 이용과 영유아의 발달간의 관계를 알게 되어 미디어 이용에 주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47.8%), 이외 '영유아 미디어 이용 정책의 방향을 알게 되었음' 11.6%, '자녀의 미디어 이용 중독 경향을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자녀의 상태를 관찰할 때 도움이 됨' 11.1%, '영유아에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 등 구체적 지침을

활용할 수 있게 됨' 11.1%, '자녀를 위한 좋은 콘텐츠를 고를 수 있게 됨' 9.7%, '미디어 유해 환경을 차단하는 실제적 기술을 알고 활용할 수 있게 됨' 8.2% 등 가장 주요한 응답 외에는 유사한 비율로 응답되었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총합한 결과에서도 '미디어 이용과 영유아의 발달간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어 미디어 이용에 주의하게 됨'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65.2%), 1순위 응답에 비해 '자녀 상태 관찰에 도움 됨'과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의 구체적 지침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대한 응답이 '영유아 미디어 이용 정책의 방향을 알게 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통해 현재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관련 부모 교육은 주로 부모에게 영유아기의 미디어 이용이 영유아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지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 제고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적정한 이용을 지도하기 위한 지침' 보다는 영유아기의 미디어 이용의 부정적인 사례(중독·과의존 등)에 대해 경고하면서 중독 예방의 차원에서의 지침 제공에 초점을 둔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 내용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디어 이용 연령이 하향화되고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보편화되는 현실에서는 부모에게도 좀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좋은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으며, 유해한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서 부모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된다.

〈표 Ⅲ-5-5〉 부모가 받은 미디어 이용 교육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도움이 된 부분

단위 : %(명)

구분	영유아 미디어 이용 정책의 방향을 알게 되었음	미디어 이용과 영유아의 발달간의 관계에 알게 되어 미디어 이용에 주의하게 됨	미디어 유해 환경을 차단하는 실제적인 기술을 알고 활용할 수 있게 됨	자녀를 위한 좋은 미디어 콘텐츠를 고를 수 있게 됨.	자녀의 미디어 중독 경향을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자녀의 상태를 관찰할 때 도움 됨.	영유아에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 등 구체적인 지침을 활용할 수 있게 됨.	기타	계 (수)
1순위	11.6	47.8	8.2	9.7	11.1	11.1	0.5	100.0 (207)
1+2순위	20.3	65.2	16.4	15.9	34.8	33.8	0.5	(207)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미디어 이용 지도 관련 부모교육을 받았으나 도움이 안되었다고 응답한 사례의 경우 어떤 이유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는 바,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활용하기에 제약이 많아서'(54.1%)와 '다 아는 일반적인 내용이어서'(37.8%)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표 Ⅲ-5-6〉 미디어 이용 교육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다 아는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활용하기에 제약이 많아서	가정보다는 기관에서 지도할 내용이어서	교육시간이 짧아 내용이 상세하지 못해서	기타	계(수)
37.8	54.1	2.7	2.7	2.7	100.0 (37)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2)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부모교육 미경험자의 향후 교육 이수 의사

한편 미디어 관련 부모교육 미경험자를 대상으로 향후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의 기회가 있다면 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해당 사례중 82.0%가 이러한 부모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미디어 이용 지도 관련 영유아 부모의 교육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의사는 응답자가 여성일 경우 84.8%로 남성의 78.4%에 비해 높았으며, 대체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을 받을 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이나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5-7〉 (교육 미경험자) 향후 자녀의 미디어 이용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이수 의사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82.0	18.0	100.0 (1,256)
응답자 성별			
남성	78.4	21.6	100.0 (541)
여성	84.8	15.2	100.0 (715)
$\chi^2(df)$		8.500**(1)	
응답자 연령대			
20대	90.0	10.0	100.0 (20)

구분	있음	없음	계(수)
30대	82.8	17.2	100.0 (864)
40대	79.8	20.2	100.0 (372)
$x^2(df)$		2.378(2)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79.8	20.2	100.0 (183)
300~400만원 미만	81.1	18.9	100.0 (318)
400~500만원 미만	80.1	19.9	100.0 (282)
500~600만원 미만	85.5	14.5	100.0 (207)
600~700만원 미만	84.7	15.3	100.0 (111)
700만원 이상	83.2	16.8	100.0 (155)
$x^2(df)$		3.858(5)	
부 학력			
고졸 이하	76.0	24.0	100.0 (129)
전문대(2~3년제) 졸업	77.6	22.4	100.0 (241)
4년제 대학 졸업	84.2	15.8	100.0 (710)
대학원 이상	83.8	16.3	100.0 (160)
$x^2(df)$		9.070*(3)	
모 학력			
고졸 이하	69.4	30.6	100.0 (124)
전문대(2~3년제) 졸업	81.4	18.6	100.0 (323)
4년제 대학 졸업	84.1	15.9	100.0 (691)
대학원 이상	84.2	15.8	100.0 (114)
$x^2(df)$		15.873**(3)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5$, ** $p < .01$

향후 미디어 지도 관련 부모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어떤 미디어 기기를 언제부터, 얼마나 이용하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교육을 받으려 한다는 경우가 전체 사례의 27.2%로 가장 많았고, '미디어를 보여달라고 떼쓰는 아이를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24.4%,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중독)을 예방하고 싶어서' 23.1%, '자녀 연령에 적합한 좋은 콘텐츠 정보를 알고 싶어서'가 21.4%로 주된 이유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응답 대상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영아의 경우 '자녀에게 어떤 미디어 기기를 언제부터, 얼마나 이용하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부모교육을 희망한다는 경우가 32.9%로 유

아인 경우에 비해(23.7%)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미디어를 보여달라고 떼쓰는 아이를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도 27%로 유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영아의 경우 미디어에 막 노출되어 이용을 시작한 경우와 아직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영아 부모의 경우 자녀가 미디어에 노출되기 전에 적절한 미디어 노출의 시기와 이용 방법에 대해 미리 교육을 받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미디어 이용을 조절하기 힘든 영아가 떼를 쓰는 경우의 지도 방법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녀가 유아인 경우는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을 예방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24.5%), '자녀 연령에 맞는 좋은 콘텐츠 정보를 알고 싶어서' 23.8%, '자녀에게 어떤 미디어를 언제부터, 얼마나 이용하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가 23.7%로 유사한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또한 '미디어를 보여달라고 떼쓰는 아이를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도 22.7%로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유아인 경우 부모는 다양한 미디어 종류에 따라 언제부터 얼마나 이용을 시작하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은 욕구도 물론 있으나, 이미 어느 정도 미디어 이용을 시작한 경우가 많아 미디어 과의존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거나, 긍정적으로는 좋은 콘텐츠를 선택하여 적절한 이용에 도움을 받고 싶은 욕구가 좀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Ⅲ-5-8〉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받으려는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자녀에게 어떤 미디어 기기를 언제부터, 얼마나 이용하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자녀 연령에 적합한 좋은 미디어 콘텐츠 정보를 알고 싶어서	미디어를 보여달라고 떼쓰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유해한 프로그램, 사이트, 앱 등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중독)을 미리 예방하고 싶어서	미디어 과의존(중독) 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고 싶어서	계(수)
전체	27.2	21.4	24.4	3.1	23.1	0.9	100.0 (1,030)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32.9	17.3	27.0	1.3	20.9	0.5	100.0 (392)
유아(36개월 이상)	23.7	23.8	22.7	4.2	24.5	1.1	100.0 (638)
χ^2(df)	23.351***(5)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01$

부모교육을 받고 싶은 1,2순위 응답을 총합한 결과,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을 받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적절한 미디어 이용 시기와 이용 방법을 알고 싶어서'가 44.4%, '미디어를 보여달라고 떼쓰는 아이의 지도 방법을 알고 싶어서' 43.9%, '자녀연령에 적합한 콘텐츠 정보를 얻고 싶어서' 39.5%, '유해한 프로그램, 사이트, 앱 등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11.0%,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중독)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서' 4.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 '과의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디어 과의존을 예방하고 적절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도 방법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5-9〉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을 받으려는 이유(1+2순위)

단위 : %, (명)

자녀에게 어떤 미디어 기기를 언제부터, 얼마나 이용하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자녀 연령에 적합한 좋은 미디어 콘텐츠 정보를 알고 싶어서	미디어를 보여달라고 떼쓰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유해한 프로그램, 사이트, 앱 등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중독)을 미리 예방하고 싶어서	미디어 과의존(중독) 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고 싶어서	사례수
44.4	39.5	43.9	11.0	51.6	4.2	(1,030)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이러한 이유에서 부모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표 Ⅲ-5-10〉에 제시하였다.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서 1순위로 희망하는 교육 내용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것은 '부모가 해야 할 행동, 지도 방법 등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35.1%). 다음으로는 '미디어 이용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22.0%), '좋은 프로그램 식별 방법을 포함한 연령별 적정 콘텐츠 정보'(17.1%), '연령별 적정 이용 시간'(13.6%), '미디어 중독 체크리스트와 예방법'(8.4%), '유해프로그램, 사이트, 앱 차단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방법'(3.3%)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친 결과에서도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66.3%), 두 번째로 많이 응답된 내용은 '연령별 적정 콘텐츠 정보(좋은 프로그램 식별 방법 포함)'(36.6%)로 1순위에서의 응답 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전에 관련 부모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부모들은 가장 먼저 당장 가정에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부모가 해야 할 행동, 지도 방법을 포함한 '부모의 역할' 자체에 대한 교육을 가장 희망하고 있고, 미디어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교육을 희망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영유아에게 왜 부모의 지도와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궁금증도 드러나고 있었다.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부모의 역할과 미디어 이용 지도의 필요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을 가장 우선하여 희망하고 있고 영유아가 이용할만한 콘텐츠 정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제한을 위한 기술적 방법 등을 희망하는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Ⅲ-5-10〉 영유아 미디어 이용 교육에 희망하는 내용

단위 : %(명)

구분	미디어 이용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연령별 적정 이용 시간	연령별 적정 콘텐츠 정보 (좋은 프로그램 식별 방법 포함)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 (지도방법)	유해 프로그램, 사이트, 앱 차단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방법	미디어 중독 체크리스트와 예방법 (미디어 중독 상담기관 등 관련기관 정보 포함)	관련 법과 정책, 지원 정보	기타	계(수)
1순위	22.0	13.6	17.1	35.1	3.3	8.4	0.3	0.1	100.0 (1,030)
1+2순위	34.7	25.9	36.6	66.3	9.6	22.3	0.5	0.2	(1,030)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한편, 교육을 받을 경우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58.3%), 이외 '1:1 컨설팅, 멘토링 등 소규모 대화형 교육' 18.3%,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은 17.2%, '집합교육' 6.1%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시간의 제약이 없는 동영상 교육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육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적다는 것이 장점이어서 시간이 부족한 취업모 가구에 더 선호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응답 결

과에서는 취업모 여부에 따른 교육 방식의 선호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취업모 가구인 경우 오프라인 집합교육과 온라인 중에서도 실시간 교육을 선호하는 비율이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Ⅲ-5-11〉 영유아 미디어 이용 교육시 선호하는 방식

단위 : %(명)

구분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동영상)	1:1 컨설팅, 멘토링 등 소규모 대화형 교육	기타	계(수)
전체	6.1	17.2	58.3	18.3	0.1	100.0 (1,030)
모 취업 여부						
취업	6.6	18.0	54.6	20.5	0.2	100.0 (438)
미취업	5.8	16.5	61.1	16.7	0.0	100.0 (588)
χ^2(df)	5.854(4)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한편 지금까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와 관련된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사례들 중 향후 부모교육 기회가 있더라도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그 이유를 질문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답하도록 하였다. 우선 〈표 Ⅲ-5-12〉에 제시된 1순위 응답 결과에서는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가 29.2%로 미디어 이용 지도 관련 부모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다음으로 '(자녀가 미디어 이용을 적절하게 잘하고 있어서) 교육받을 필요가 없어서'가 26.1%,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방법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서'가 18.1%, '부모교육 내용이 부실해서'와 '가정에서의 지도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가 각각 12.4%로 집계되었다.

1순위와 2순위를 총합한 결과에서도 가장 많이 응답된 부모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는 '교육받을 필요가 없어서'(44.2%)로 약간의 응답 순위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교육받지 않으려는 가장 주된 이유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라 할 것이다.

다만, 자녀가 미디어 이용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는 부모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부모의 판단에 의해 영유아에게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현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영유아 부모들에게 기본적인 지도 방법

에 대한 교육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접근하여 필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과 시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5-12〉 영유아 미디어 이용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법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서	부모교육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	교육받을 필요가 없어서 (자녀가 적절하게 하고 있음)	교육 받을 시간이 없어서	가정에서의 지도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기타	계(수)
1순위	18.1	12.4	26.1	29.2	12.4	1.8	100.0 (226)
1+2순위	27.4	22.1	44.2	42.5	26.1	3.1	(226)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6.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의견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 다양한 측면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조사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유형별로 영유아가 이용을 시작하기에 '적정한' 연령이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하루 기준 적정한 수준의 최대 이용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여기서 '적정'의 의미는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발달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나아가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표 Ⅲ-6-1〉에 제시된 응답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생각하는 미디어 유형별 영유아의 적정 이용 시작 연령은 TV는 평균 만2.8세, 개인용 컴퓨터는 만5.8세, 태블릿PC는 만4.6세, 게임콘솔은 만6.7세로 TV가 가장 어린 연령부터 이용해도 되는 미디어로 생각하고 있으며, 게임콘솔의 이용은 가장 늦게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유형의 미디어의 적정한 이용 시작 시기라 생각하는 연령에서 하루 기준 이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최대 이용 시간을 응답하도록 하

였는데, TV의 경우 만2.8세 기준 하루 최대 54.1분까지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적정한 최대 이용 시간이 모든 유형의 미디어 중 가장 길었으며, 개인용 컴퓨터는 41.4분, 태블릿 PC는 45.6분, 게임콘솔 39.3분이 적정한 하루 최대 이용시간으로 응답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영유아의 부모가 생각하는 적정 이용 시작 연령이 늦을수록 적정한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은 짧게 응답되었다는 점이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용을 허용하는 시기가 이른 미디어일수록 영유아에게 잠재적인 위험성이 적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긴 시간 이용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모든 유형의 미디어를 합하여 영유아 시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은 97.3분으로 응답되어, 영유아 부모들은 하루동안 영유아가 여러 종류의 미디어를 이용하더라도 총 시간은 1시간 37.3분 정도 내에서 이용하여야 영유아의 발달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1〉 미디어 유형별 적정 이용 시작 연령 및 적정 하루 최대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

단위 : 세, 분

미디어 유형	적정한 이용	
	시작 연령[주2](평균)	하루 최대 이용 시간(평균)
모든 유형의 미디어		97.3
1) TV	2.8	54.1
2)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PC, 노트북)	5.8	41.4
3) 태블릿 PC(갤럭시 탭, 윈도우 탭, 아이패드 등)	4.6	45.6
4) 게임콘솔	6.7	39.3
5) 기타(인공지능 스피커, 가상현실 기기 등)		19.9

주: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2) 연령은 만 연령임.

한편 미디어를 통해 이용하는 콘텐츠도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는데 용도별로 구분한 각각의 콘텐츠유형별로 취학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해 부모들이 얼마나 바람직하다 생각하는지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Ⅲ-6-2〉에 따르면, 다양한 콘텐츠 중에서도 '정보/교육용 동영상'의 경우 영유아 시기에 이용해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91.4%(매우 바람직 17.5%+ 바람직 72.9%)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은 콘텐츠였으며 이외에도 '교육용 앱, 프

로그램(교육용 게임 포함)'(85.2%), '사진, 동영상 촬영'(76.0%), '음악 동영상 및 음악용 앱'(68.7%), '인터넷 검색용'(56.8%), '전자책'(54.5%) 순으로 영유아 시기에 이용하기에 바람직성이 높은 콘텐츠에 해당하였다.

반대로 SNS는 87.2%가 바람직하지 않다(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47.9%+바람직하지 않음 39.4%)는 의견이 가장 높은 콘텐츠 유형이었고, 이외 '오락용 게임'(79.5%), '오락용 동영상'(74.6%)도 영유아 시기에 이용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은 콘텐츠 유형이었다. 또한 '화상통화·미팅, 메신저'(58.0%), '운동용 앱 프로그램'(57.8%), '음악용 앱'(52.3%)도 반수 이상의 부모들이 영유아 시기에 이용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즉, 부모들은 콘텐츠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영유아가 이용하기에 바람직한지 여부를 차별적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6-2〉 콘텐츠 유형별 취학전 영유아 이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콘텐츠유형	바람직성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② 바람직하지 않음	①+②	③ 바람직함	④ 매우 바람직함	③+④
1) 정보/교육용 동영상	2.5	7.1	9.6	72.9	17.5	**91.4**
2) 오락용 동영상	24.9	49.7	**74.6**	24.4	0.9	25.3
3) 음악 동영상 및 음악용 앱	7.5	23.7	31.2	64.4	4.3	**68.7**
4) 교육용 앱, 프로그램(교육용 게임 포함)	4.7	10.1	14.8	66.1	**19.1**	**85.2**
5) 오락용 게임	**31.7**	47.8	**79.5**	19.7	0.8	20.5
6) 전자책	16.7	28.8	45.5	46.2	8.3	54.5
7) 인터넷 검색용	15.5	27.6	43.1	50.7	6.1	56.8
8) 화상통화·미팅, 메신저	24.8	33.2	**58.0**	39.1	2.9	42.0
9)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47.9**	39.4	**87.2**	12.1	0.7	12.8
10) 운동용 앱 프로그램	27.9	29.9	57.8	38.1	4.1	42.2
11) 음악용 앱(멜*)	23.1	29.2	52.3	44.9	2.9	47.8
12) 사진, 동영상 촬영	5.7	18.3	24.0	67.3	8.7	**76.0**

주: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2) 1500사례를 대상으로 한 응답 결과임

마지막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미디어 기기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선입견을 포함한)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미디어 기기들 중 영유아를 위한 교육매체로 활용하기에 유용한 미디어 기기라 생각하는 순서대로 3순위까지 답하도록 한 결과 '태블릿PC'가 교육매체로 활용하기에 가장 유용한 미디어 기기로 응답되었다(59.9%). 이외 '스마트 TV'(47.1%), '케이블 TV/IP TV/위성 TV 등'(41.6%), '공중파 TV'(34.6%), '스마트폰'(31.3%), 'PC'(20.5%), '전자책 단말기'(16.5%), '인공지능 스피커'(6.7%), '게임콘솔'(2.7%), '가상현실 기기'(1.3%) 순으로 나타났다. 태블릿PC는 인터넷 검색, 동영상 시청, 다양한 앱 실행 등 다용도로 이용 가능하면서 휴대성을 갖추고 있어 온라인교육매체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 교육용 매체로서의 활용도가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장 이른 시기부터 이용하기 시작하는 TV의 교육매체로의 활용도도 높게 인식되고 있는 점이 흥미로운데, TV는 상대적으로 다른 매체에 비해 화면이 크고 EBS 등에서 공급되는 교육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양질의 콘텐츠가 어느 정도 공급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Ⅲ-6-3〉 영유아를 위한 교육매체로 활용하기에 유용한 미디어 기기(1+2+3순위)

단위 : %,(명)

공중파 TV	케이블TV /IPTV/ 위성 TV	스마트 TV	PC	게임 콘솔	태블릿 PC	전자책 단말기	스마트폰	가상현실 (VR) 기기	인공지능 (AI)스피커	사례수
34.6	41.6	47.1	20.5	2.7	**59.9**	16.5	31.3	1.3	6.7	(1,500)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다음으로 미디어 기기들 중 영유아들의 '미래환경 준비'를 위해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기기를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태블릿PC'가 미래환경 준비를 위해 가장 활용이 필요한 미디어 기기로 응답되었다(60.1%). 이외 '스마트폰'(39.9%), '스마트 TV'(38.0%), 'PC'(24.2%), '인공지능 스피커'(21.3%), '전자책단말기'(19.7%), '가상현실 기기'(19.4%), '공중파 TV'(16.5%),'게임콘솔'(2.9%) 순으로 응답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교육매체로 활용도는 낮게 인식되었던 가상현실 기기와 인공지능스피커가 영유아의 '미래환경 준비'를 위해서 활용이 필요한 미디어 기기로는 비교적 높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현실 기기와 인공지능 스

피커의 경우 본 조사에서 영유아 가구에서의 보유율과 이용률이 극히 낮은 미디어 기기에 해당되나, 부모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성장하여 살아갈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막연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6-4〉 영유아들의 '미래환경 준비'를 위해 활용이 필요한 미디어 기기(1+2+3순위)

단위 : %, (명)

공중파 TV	케이블TV /IPTV/ 위성 TV	스마트 TV	PC	게임 콘솔	태블릿 PC	전자책 단말기	스마트폰	가상현실 (VR) 기기	인공지능 (AI)스피커	사례수
16.5	20.2	38.0	24.2	2.9	**60.1**	19.7	39.9	19.4	21.3	(1,500)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한편 영유아가 이용할 경우 '과의존'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유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76.5%가 '스마트폰'을 응답하여 스마트폰이 가장 영유아의 과의존 위험성이 높은 미디어 기기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태블릿PC'에 51.7%가 응답하여 두 번째로 과의존 위험성이 높은 미디어 기기로 응답되었고, '게임콘솔' 33.8%, '스마트TV' 30.6%, '케이블 TV/IP TV/위성 TV 등 유료TV' 24.7%, 'PC' 17.0%, '공중파 TV' 15.4%, '가상현실(VR) 기기' 8.9%, '인공지능(AI)스피커' 2.8%순으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부모들이 영유아들이 이용할 경우 가장 미디어 과의존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결과에서 실제 영유아들의 이용률은 TV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바 있다[66]. 그러나, TV는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 가정에 머무는 시간 내에만 이용할 수 있고 접하는 콘텐츠도 스마트TV를 제외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어 영유아가 이용하는데 일종의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 반면 스마트폰은 높은 휴대성으로 인해 장소의 제약이 없고 콘텐츠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거의 무한대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스마트폰이 중독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

66) 〈표 Ⅲ-2-1〉 참조.

PC의 경우도 스마트폰과 유사한 휴대성과 인터넷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유사한 맥락에서 중독성이 높은 기기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Ⅲ-6-5〉 영유아의 '과의존'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기기(1+2+3순위)

단위 : %, (명)

공중파 TV	케이블TV /IPTV/ 위성 TV	스마트 TV	PC	게임 콘솔	태블릿 PC	전자책 단말기	스마트폰	가상현실 (VR) 기기	인공지능 (AI)스피커	사례수
15.4	24.7	30.6	17.0	33.8	**51.7**	2.5	**76.5**	8.9	2.8	(1,500)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7. 소결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지도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가구가 보유한 미디어 기기의 종류는 다양화되었고, 전반적인 보급률도 높아진 경향이다. 영유아 가구는 TV, 스마트폰, PC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17.2%[67]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특히, 태블릿 PC는 74.4%가 보유하여 2013년 조사[68](이정림 외, 2013: 46)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 외 인공지능 스피커와 게임콘솔도 각각 47.9%, 35.3%가 보유하고 있고, 교육용 단말기도 29.7%가 보유하고 있어 이전 조사[69]에 비해 증가한 추세다. 전자책 단말기와 가상현실 기기를 보유한 가구도 각각 7.6%, 7.1%로 파악되었다.

둘째, 영유아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TV는 영유아의 79.0%가 이용하고 있다. 그 외에 인공지능 스피커, 게임콘솔의 이용도 절반 가까이 된다. 교육용 단말기는 1/3가구가 보유 중이지만 보유가구의 자녀이용률은 매우 높다. 다만 PC는 매우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으나 영유아의 이용은 매우 적다. 이렇듯 다양한 미디어 기기의 이용이 영유아기까지 하향화 되었으며, 특

67) 부모가 쓰던 공기계를 포함한 수치임
68) 2013년 조사결과, 스마트패드 보유율 22.9%, 자녀이용률 42.4%(이정림 외, 2013: 46)
69) 2013년 조사결과, 휴대용게임기 보유율 14.8%, 자녀이용률 58.8%, 비디오 게임기 보유율 9%, 자녀이용률 58.9%, 교육용 로봇 보유율 4.5%, 자녀이용률 84.4%(이정림 외, 2013: 46)

히 휴대성이 강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이용이 두드러지며, 주로 동영상 시청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3년[70]에 비해 영유아의 TV와 컴퓨터의 이용이 줄었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이용은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별 이용률로부터 특히 태블릿 PC 이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그간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과의존성에 대한 경고가 높아 영유아 부모들도 스마트폰의 이용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보이나, 미디어 이용 시 주로 '동영상'시청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영유아의 경우 오히려 스마트폰 보다 향후 태블릿 PC의 이용이 문제될 소지도 엿보인다. 태블릿 PC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아무런 제재가 없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범위가 너무 넓고, 휴대성은 높아 공간적으로 부모의 관리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특성을 지니며, 아동용 교육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용단말기[71]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등 교육 용도로 갖추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특히 영유아기에는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이상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영유아 부모는 자녀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적정한 시간으로 하루 평균 83.1분 가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하루에 동영상 시청은 40.2분, 교육용 앱 이용은 31.7분, 게임/놀이 20.1분, 인터넷 검색 23.7분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1회당 이용 제한시간은 평균 44.3분이며, 영아는 30.8분, 유아는 41.8분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장 이용이 많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TV의 이용 용도나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에 대한 응답을 고려할 때 영유아에게 필요해서보다는 성인의 필요 때문에 영유아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영유아에게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TV 시청을 허용하는 경우는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시키거나, 보호자의 일을 자녀의 방해 없이 하기 위해서, 자녀가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 이용 등 성인의 시간 확보나 편의를 위해, 혹은 보상수단으로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학습용으로 사용하거나, 자녀가 원해서 등의 아이가 원하거나 필요해서 허용하는 경우는 절반 정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매체를

70) 2013년 조사결과, 자녀이용률 TV 94.7%, 스마트폰 53.1%, 스마트패드 42.4%, 컴퓨터 33.3%(이정림 외, 2013: 46).

71) 초등학생과 유아용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기업에서 '학습지'를 대체하는 온라인 교육의 매체로 각종 태블릿pc를 이용하고 있음.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아이가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2013년 조사결과(이정림 외, 2013: 85, 100)와 다소 상이하다. 게다가 이번 조사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가 집안과 더불어 식당/카페가 가장 많이 꼽혔던 것을 감안하면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이 보편적인 상황이 된 것에는 단지 미디어 이용이 대중화된 사회적 상황이나 아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보다 오히려 영유아를 돌보는 성인의 시간 확보와 양육의 수월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미디어에 노출 시키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섯째, 영유아의 적정한 미디어 이용 습관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본 조사의 결과에서 성인이 '식사 중', '잠자기 전', '누워서', '동시에 여러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고 심지어 '운전 중'에도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습관이 결국 영유아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해서는 영유아와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부모인 성인에게도 올바른 미디어 이용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연관된 결과로 영유아 부모가 생각하는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의 적정 시간에 대한 응답과 영유아가 미디어를 이용할 때 제한하고 있는 시간 기준의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나 격차를 나타냈다. 이는 가정 배경에 따라 영유아가 처한 미디어 이용 환경이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 이용하게 될 미디어 이용 습관의 첫 단계가 매우 불평등한 상황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부모 자신의 미디어 이용 습관에 대한 교육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스마트폰, 태블릿 PC, TV는 대체로 영아기에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가 많으며, 20대 부모일수록, 자녀가 둘째 이상일 경우 이용 시작시기가 빠른 편이다. 반면에 PC의 이용 시작시기는 유아기인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는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모 가정일수록 이용 빈도가 높고, 이용 시간도 긴 편이다. 특히, 부나 모의 학력에 따라 이용시간의 편차가 크며,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이용시간이 긴 편이다. TV의 경우는 맞벌이 여부에 따른 이용시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에서 아동의 연령, 부모의 연령대, 자녀의 출생순위, 부모의 학력에 따라 이용양상이 다른 경향이 있으므로 미디어 기기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나 정보제공 시 이러한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이 66.8%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영유아가 처음 스마트폰을 보유한 시기를 분석했을 때 모든 연령에서 작년과 올해 즉,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을 보유한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심심해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 이유로는 유아는 '원격수업/온라인 학습지로 미디어에 친숙해져서'가 많았고, 영아는 '양육자와의 시간증가로 인해 미디어 이용기회가 많아져서'가 많았다. 오히려 '부모와의 놀이보다 미디어 이용을 아이가 더 좋아해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가 집에 장시간 있을 때 미디어 이용 자체를 선호한다기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영유아가 자주 심심해지고, 부모가 미디어 이용 외에 실내에서 가능한 다른 놀이나 활동을 자녀와 충분하게 함께해주기가 어려웠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가정 내 양육이 장시간 주어지는 팬데믹 상황에서 영유아 부모가 자녀와 함께 미디어 외의 놀이나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부모가 영유아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미디어 콘텐츠가 다양하게 보급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부모교육 등을 통해 영유아의 적절한 미디어 이용을 부모가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원격 수업을 위해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였던 경우는 수업을 위해 이용하지 않던 미디어 기기를 새로 접하게 되고 호기심으로 수업 후의 미디어 이용도 증가하게 되었을 수 있는 바, 팬데믹 시대의 수업 방법으로 '원격 수업'방식의 이용이 활용됨에 따라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며,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보호자가 유의하여 지도할 사항에 대한 지침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가정에서의 미디어 지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술적 방안으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들의 활용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이용을 안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 이러한 기술적 방법의 설치/적용이 어려워서 이용을 안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므로 어머니를 위해 쉽고 간편하게 미디어 이용 제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방안 외 부모의 시간을 들여 영유아가 이용하는 콘텐츠를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의 양에 대한 인식이 높지는 않으나 오히려 이용하는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가 이용하는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 내용인지에 대해 잘 판단하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는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자녀가 첫째아이거나, 유아보다는 영아기에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첫 자녀에 대한 관심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녀가 더 생기면서 점차 무뎌지거나 가사나 업무 부담, 자녀양육 부담의 증가로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에 자녀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에 대해 부모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꾸준한 인식의 환기와 자녀 연령에 맞는 부모교육 제공 등 국가 차원의 지원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홉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영유아용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등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는지, 활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국가 기관에서 개발, 배포한 부모용 지도 지침의 인지도 및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0.9%에 불과하였는바, 가이드라인의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영유아 부모들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인지도 자체가 낮고 실제 활용이 못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영유아 부모용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활용률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받아본 경우도 16.3%로 상당히 낮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모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미디어 이용 지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저학력 부모, 기관 미이용 영유아의 부모 등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이 낮은 부모의 교육 경험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 미이용 영유아의 경우 기관 미이용 영유아 부모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모교육 채널을 고민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외 부모교육채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열째, 출산 후 가급적 빠른 시기에 영유아 부모를 위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부모교육의 방향은 기존의 '과의존 예방 교육' 방향에서 한단계 나아

가 좋은 콘텐츠를 선별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유해콘텐츠 제한 등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 적극적 측면의 내용을 추가함과 함께 영아, 유아 등 시기별로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다른 욕구에 부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의 결과에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은 영아 부모에게 더욱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부모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미디어 이용과 영유아의 발달간의 관계를 알게 되어 미디어 이용에 주의하게 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라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지식은 자녀가 미디어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제공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자녀 출산 후 가급적 빠른 시기부터 미디어 이용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영아와 유아 부모에게서 차이가 발견되므로, 부모교육의 내용을 각 시기에 맞는 시리즈 교육으로 개발하여 영아기에는 미디어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미디어 이용의 시작 시기나 얼마나 이용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지도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하나, 이미 미디어를 시작한 경우에는 미디어 이용의 조절능력을 키우고 연령에 맞는 좋은 콘텐츠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부모와 영유아의 미디어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지도 실태

01 응답자 특성

02 보육·교육기관의 미디어 보유 및 보육·교육 활용 실태

03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실태

04 영유아 미디어 이용을 위한 교육 제공 실태

05 보육·교육 활동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의견

06 소결

Ⅳ. 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지도 실태

1. 응답자 특성

기관에서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및 지도 실태 파악을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및 소속기관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가. 소속기관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담임교사의 소속기관 특성은 전체 응답자 508명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48.8%, 51.2%이며, 이중 어린이집은 민간 15.7%, 법인 및 직장 14.0%, 국공립 11.4%, 가정 10.0%였으며, 유치원은 국공립 23.4%, 사립 25.4% 이다.

기관의 원아 수는 51명 이상이 44.3%, 21~50명 26.2%, 20명 이하 29.5%였다. 소속기관이 소재한 지역은 중소도시 36.0%, 대도시 35.6%, 읍/면 28.3%의 분포를 보였다.

〈표 Ⅳ-1-1〉 조사대상 교사의 소속기관 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508)	전체	100.0 (508)
소속기관		기관 설립유형	
유치원	48.8 (248)	국공립 어린이집	11.4 (58)
어린이집	51.2 (260)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직장 어린이집	14.0 (71)
원아 수		민간 어린이집	15.7 (80)
20명 이하	29.5 (150)	가정 어린이집	10.0 (51)
21~50명	26.2 (133)	국공립 유치원	23.4 (119)
51명 이상	44.3 (225)	사립(법인) 유치원	7.7 (39)
지역		사립(사인) 유치원	17.7 (90)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대도시	35.6 (181)		
중소도시	36.0 (183)		
읍/면	28.3 (144)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나. 응답자 특성

조사에 참여한 담임교사의 연령은 40대 이상 39.4%, 30대 32.5%, 20대 28.1%였으며, 3~5세반을 담당하는 경우가 65.9%로 유아 담당이 다소 많았으며, 1~2세반 26.8%, 0세반 7.3%순의 분포를 보였다.

〈표 Ⅳ-1-2〉 조사대상 교사의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508)	전체	100.0 (508)
담당 학급1		연령	
0세반	7.3 (37)	20대	28.1 (143)
1~2세반	26.8 (136)	30대	32.5 (165)
3~5세반	65.9 (335)	40대 이상	39.4 (200)
담당 학급2			
0~2세반	34.1 (173)		
3~5세반	65.9 (335)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2. 보육·교육기관의 미디어 보유 및 보육·교육 활용 실태

가. 미디어 보유 현황 및 이용 현황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중 가장 많은 것은 컴퓨터로 92.5%의 보유율을 보였다.

반면 TV는 보급률은 전체 79.9%로 두 번째였지만 학급에서의 활용률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84.5%를 기록해 컴퓨터보다도 활용도가 더 높았다. 기관별로는 유치원은 96.8%가 보유하고 있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63.8%만 보유하고 있어 기관별 차이가 컸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유율이 35.3%에 불과하였다.

빔프로젝터의 경우 전체의 절반가량(54.5%)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그 중 약 절반가량인 55.6%가 학급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보유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도를 보였다.

특이한 것은 태블릿 PC였는데 보유율은 전체의 약 1/4인 26.2%였으나 학급 활용률은 약 3/4인 72.2%로 높게 나타났다. 즉, 보유하고 있으면 활용률이 높은데 비하여 아직 보급률이 낮아 향후 태블릿 PC의 기관 보급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Ⅳ-2-1〉 어린이집·유치원의 미디어 보유 및 보육·교육 활동에서의 활용 현황

단위 : %, (명)

미디어 유형	기관 보유 및 담당학급[주)] 활용 현황		
	보유율	담당학급 활용률	(사례수)
TV	79.9	84.5	(406)
빔프로젝터	54.5	55.6	(277)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92.5	81.3	(470)
태블릿 PC	26.2	72.2	(133)
인공지능 스피커	5.3	74.1	(27)
가상현실(VR) 기기	1.8	66.7	(9)
전자책 단말기	2.6	76.9	(13)
기관 공용 카메라	31.5	50.6	(160)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2) 응답자가 담임교사로 담당하는 학급을 의미함

연령별 미디어 기기의 활용 현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3, 4, 5세 반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5세반의 경우 거의 모든 유치원이(97.6%) 활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0세반과 2세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Ⅳ-2-2〉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미디어 기기 활용 연령반(복수응답)

단위 : % (명)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기관에서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음	(사례수)
전체	5.4	18.8	30.5	49.5	59.3	71.7	3.2	(499)
소속기관								
유치원	0.0	0.0	0.0	47.2	74.2	97.6	0.0	(248)
어린이집	10.8	37.5	60.6	51.8	44.6	46.2	6.4	(251)
기관 세부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8.8	35.1	64.9	64.9	56.1	56.1	5.3	(57)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직장 어린이집	2.9	25.7	45.7	74.3	71.4	65.7	4.3	(70)
민간 어린이집	9.0	33.3	64.1	51.3	38.5	48.7	5.1	(78)
가정 어린이집	28.3	65.2	71.7	2.2	0.0	0.0	13.0	(46)
국공립 유치원	0.0	0.0	0.0	31.9	70.6	95.8	0.0	(119)
사립(법인) 유치원	0.0	0.0	0.0	51.3	69.2	97.4	0.0	(39)
사립(사인) 유치원	0.0	0.0	0.0	65.6	81.1	100.0	0.0	(90)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미디어의 활용을 시간별로 묻는 설문에 대하여 유치원(58.1%)과 어린이집(45%) 공히 정규 수업 시간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달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응답이 높았는데, 두 기관 간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시간은 하원시간으로 유치원의 경우 하원시간에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19.0%에 달했으나 어린이집은 7.2%에 불과하였다.

〈표 Ⅳ-2-3〉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미디어 기기 주 활용 시간: 1순위

단위 : %(명)

구분	아침 등원 시간	정규 수업 시간	식사 시간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 시간	하원 시간	(어린이집) 낮잠시간 (자지 않으려는 아이들)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보육 시간	기타	기관에서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음	계(수)
전체	3.4	51.5	2.2	15.4	13.0	1.6	2.2	7.4	3.2	100.0(499)
소속기관										
유치원	4.0	58.1	1.6	13.3	19.0	0.0	0.4	3.6	0.0	100.0(248)
어린이집	2.8	45.0	2.8	17.5	7.2	3.2	4.0	11.2	6.4	100.0(251)
X^2(df)						60.701(8)***				
기관 세부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1.8	47.4	8.8	17.5	7.0	0.0	1.8	10.5	5.3	100.0(57)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직장 어린이집	2.9	48.6	0.0	27.1	4.3	4.3	0.0	8.6	4.3	100.0(70)
민간 어린이집	3.8	51.3	1.3	14.1	7.7	2.6	6.4	7.7	5.1	100.0(78)
가정 어린이집	2.2	26.1	2.2	8.7	10.9	6.5	8.7	21.7	13.0	100.0(46)
국공립 유치원	4.2	56.3	1.7	14.3	16.8	0.0	0.0	6.7	0.0	100.0(119)
사립(법인) 유치원	7.7	64.1	0.0	12.8	15.4	0.0	0.0	0.0	0.0	100.0(39)
사립(사인) 유치원	2.2	57.8	2.2	12.2	23.3	0.0	1.1	1.1	0.0	100.0(90)
X^2(df)						132.213(48)***				
원아 수										
20명 이하	3.5	46.5	1.4	15.5	9.9	2.8	2.8	11.3	6.3	100.0(142)
21~50명	1.5	50.8	3.8	15.9	11.4	1.5	2.3	9.1	3.8	100.0(132)
51명 이상	4.4	55.1	1.8	15.1	16.0	0.9	1.8	4.0	0.9	100.0(225)
X^2(df)						26.003(16)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 $p < .001$

〈표 Ⅳ-2-4〉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미디어 기기 주 활용 시간: 1+2순위

단위 : %, 명

아침 등원 시간	정규 수업 시간	식사 시간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 시간	하원 시간	(어린이집) 낮잠시간 (자지 않으려는 아이들)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보육 시간	기타	기관에서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음	(사례수)
7.4	69.9	6.8	39.7	34.7	4.0	8.2	17.8	3.2	(499)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나. 담당학급 보육·교육활동에서의 미디어 활용 실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의 활용 횟수와 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보유율이 높은 컴퓨터, TV, 빔프로젝터, 태블릿 PC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컴퓨터는 주당 평균 3.5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당 평균 이용시간은 18.1분, 주당 평균 63.35분으로 나타나 주당 이용 시간에서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유율이 높은 TV의 경우 주 평균 4.0회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당 평균 15.3분을 이용해 주 평균 61.2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빔프로젝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주당 평균 1.5회 이용에 그쳐 회당 이용시간 18.7분에도 불구하고 주 평균 이용시간은 28.05분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율을 보인 태블릿 PC는 주당 2.3회 이용에 회당 평균 16.5분을 사용하여 주 평균 37.95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5〉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육 활동에서의 활용 현황

단위 : 회, 분, (명)

미디어 유형	담당학급[주)]에서의 보육·교육활동 활용 실태		
	주당 평균 이용횟수	회당 평균 이용시간(분)	(사례수)
TV	4.0	15.3	(343)
빔프로젝터	1.5	18.7	(154)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3.5	18.1	(382)
태블릿 PC	2.3	16.5	(96)
인공지능 스피커	2.8	15.9	(20)
가상현실(VR) 기기	1.5	18.0	(6)
전자책 단말기	1.9	12.5	(10)
기관 공용 카메라	2.6	15.3	(81)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2) 응답자가 담임교사로 담당하는 학급을 의미함

3.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실태

가. 기관에서의 미디어 이용 지도 현황

기관에서 미디어 이용지도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자 대부분은(73.7%) 항상 연령별 권장시간 제한을 택하여 기관에서 가장 일반적인 미디어 지도 유형은 이용 시간의 제한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담당 연령이 1~2세인 경우 항상 연령별 권장시간 이내로 이용시간을 제한한다고 한 경우가 78.4%로 3~5세 담임의 72.8%에 비하여 더 높아, 2세반 이하의 교사들이 연령별 권장시간 제한에 더욱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많은 교사가 선택한 지도방법은 교사와 함께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체 58.4% 교사는 항상 교사와 함께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영유아가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서 교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 역시 빈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하는 콘텐츠를 교사와 영유아가 함께 고르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는 지도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 보육·교육활동에서 미디어 이용 시, 지도 방법별 빈도

단위 : %, (명)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	전혀 하지 않음	가끔	종종	항상	계(수)
교사와 함께 이용	7.1	20.8	13.7	58.4	100.0(452)
교사와 이용 콘텐츠 함께 고르기	11.9	31.9	26.5	29.6	100.0(452)
영유아가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 교사와 함께 이야기하기	8.6	20.4	23.9	47.1	100.0(452)
이용 시간을 연령별 권장시간 이내 제한	4.6	8.4	13.3	73.7	100.0(452)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 활용 실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응답자중 전체의 1/4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25.6%), 가이드라인의 내용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16.9%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2〉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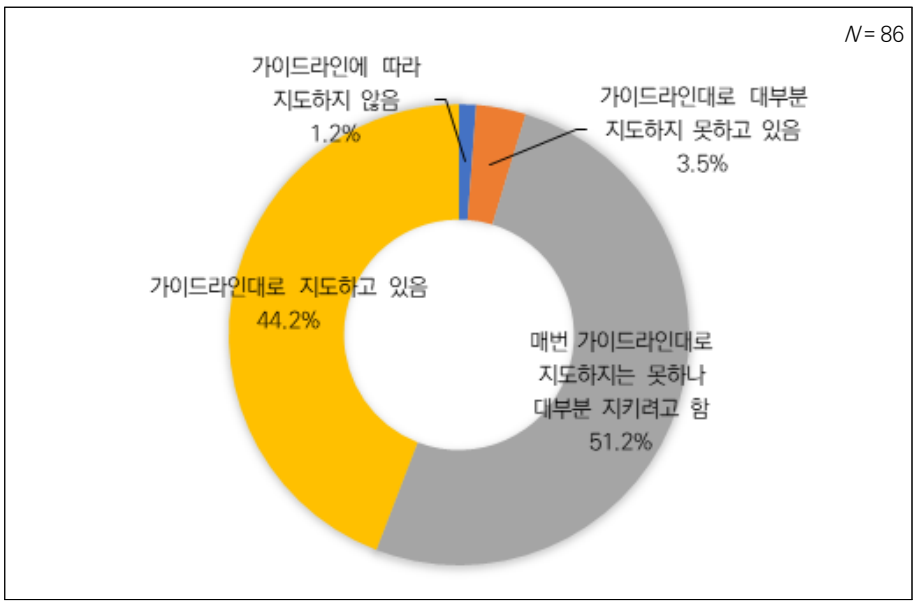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모름	들어본 적 있음	가이드라인을 본 적 있음 (책자 등)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음	계(수)
전체	25.6	32.3	25.2	16.9	100.0 (508)
지역					
대도시	18.8	33.1	30.4	17.7	100.0 (181)
중소도시	27.9	33.9	21.3	16.9	100.0 (183)
읍/면	31.3	29.2	23.6	16.0	100.0 (144)
X^2 (df)			9.383(6)		
소속기관					
유치원	27.8	33.1	24.2	14.9	100.0 (248)
어린이집	23.5	31.5	26.2	18.8	100.0 (260)
X^2 (df)			2.385(3)		
연령					
20대	27.3	43.4	17.5	11.9	100.0 (143)
30대	30.9	27.3	21.2	20.6	100.0 (165)
40대 이상	20.0	28.5	34.0	17.5	100.0 (200)
X^2 (df)			26.097(6)***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 $p < .001$

이처럼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는 교사의 경우는 대부분이(95.4%) 가이드라인을 대체로 지키거나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는 경우의 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Ⅳ-3-1]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른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여부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또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적절하다(매우 적절함+적절함)고 답하였다(82.3%).

〈표 Ⅳ-3-3〉 미디어 이용시간 가이드라인의 적절성

단위 : %(명), 점

구분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①+②	③ 적절함	④ 매우 적절함	③+④	잘 모르겠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6	13.2	15.7	62.6	19.7	82.3	2.0	100.0(508)	3.0(0.7)
소속기관									
유치원	2.8	13.7	16.5	58.5	23.0	81.5	2.0	100.0(248)	3.0(0.7)
어린이집	2.3	12.7	15.0	66.5	16.5	83.1	1.9	100.0(260)	3.0(0.6)
t									0.8
담당 학급									
0~2세반	2.9	15.6	18.5	64.7	13.9	78.6	2.9	100.0(173)	2.9(0.6)
3~5세반	2.4	11.9	14.3	61.5	22.7	84.2	1.5	100.0(335)	3.1(0.7)
t									-2.2*

구분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①+②	③ 적절함	④ 매우 적절함	③+④	잘 모르겠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									
20대	1.4	14.0	15.4	60.8	22.4	83.2	1.4	100.0(143)	3.1(0.7)
30대	0.6	11.5	12.1	63.0	20.6	83.6	4.2	100.0(165)	3.1(0.6)
40대 이상	5.0	14.0	19.0	63.5	17.0	80.5	0.5	100.0(200)	2.9(0.7)
F									2.8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2) 평균은 '전혀 적절하지 않음' 1점~'매우 적절함' 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가이드라인의 시간 제한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사들 중 절반에 가까운 교사는(46.2%) 가이드라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미래의 문제, 즉 영유아 시기의 미디어 이용이 성장한 이후 미디어 과의존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29.4%의 응답자는 장시간의 이용은 영유아의 신체 및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24.2%의 응답자는 장시간 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 즉 발달에 필요한 다른 활동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표 Ⅳ-3-4〉 가이드라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내용	비율
영유아 시기의 미디어 이용이 성장하며 제어하기 힘든 미디어 과의존 및 중독이 될 수 있으므로	46.2
장시간 미디어 이용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9.4
영유아의 장시간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양육자 혹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발달에 필요한 다른 활동이 부족해지므로	24.2
기타	0.2
계(수)	100.0(418)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한편 가이드라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80명(전체 응답자의 15.7%)의 응답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과반수가(52.5%)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그 적정한 시간이 다를 수 있음을 들었다. 즉 영유아에게 절대적인 시간 규제보다는

콘텐츠의 선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표 Ⅳ-3-5〉 미디어 이용시간 가이드라인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이용하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지나친 제약인 것 같아서	연령이 어리다고 해서 시간 제약을 둘 정도로 해로운 것 같지는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52.5	22.5	3.8	21.3	100.0 (80)
소속기관					
유치원	46.3	12.2	2.4	39.0	100.0 (41)
어린이집	59.0	33.3	5.1	2.6	100.0 (39)
$X^2(df)$			17.466(3)**		
담당 학급					
0~2세반	56.3	34.4	6.3	3.1	100.0 (32)
3~5세반	50.0	14.6	2.1	33.3	100.0 (48)
$X^2(df)$			12.619(3)**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 $p < .01$

4. 영유아 미디어 이용을 위한 교육 제공 실태

가. 교사 대상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실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관에 재직하는 중에 미디어 이용 지도에 대한 연수 등 교육을 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의 70.3%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비교적 교육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교사가 재직중인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규모, 소속기관의 유형, 세부유형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Ⅳ-4-1〉 보육·교육기관 재직 중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이수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70.3	29.7	100.0 (508)
지역			
대도시	69.1	30.9	100.0 (181)
중소도시	71.0	29.0	100.0 (183)
읍/면	70.8	29.2	100.0 (144)
$X^2(df)$		0.200(2)	
소속기관			
유치원	69.0	31.0	100.0 (248)
어린이집	71.5	28.5	100.0 (260)
$X^2(df)$		0.407(1)	
기관 세부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69.0	31.0	100.0 (58)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직장 어린이집	81.7	18.3	100.0 (71)
민간 어린이집	68.8	31.3	100.0 (80)
가정 어린이집	64.7	35.3	100.0 (51)
국공립 유치원	63.9	36.1	100.0 (119)
사립(법인) 유치원	74.4	25.6	100.0 (39)
사립(사인) 유치원	73.3	26.7	100.0 (90)
$X^2(df)$		8.378(6)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미디어 이용지도 교육을 제공한 주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63.4%), 민간 기관(39.2%), 한국보육진흥원(24.2%)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교사는 교육청(46.8%), 민간 기관(30.4%), 유아교육진흥원(28.7%)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Ⅳ-4-2〉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제공 주체(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육아종합 지원센터/ 학습자지 원센터	민간 보수교육/ 직무연수 기관	교육청/ 도청(시청)	스마트쉼 센터 등의 강사방문	유아 교육 진흥원	한국 보육 진흥원	대학	기타	(수)
전체	39.5	35.0	24.4	19.6	17.4	14.0	7.8	2.2	(357)
지역									
대도시	43.2	36.0	22.4	16.0	21.6	11.2	7.2	1.6	(125)
중소도시	41.5	35.4	29.2	17.7	8.5	15.4	8.5	3.1	(130)
읍/면	32.4	33.3	20.6	26.5	23.5	15.7	7.8	2.0	(102)
소속기관									
유치원	13.5	30.4	46.8	25.7	28.7	2.9	10.5	2.9	(171)
어린이집	63.4	39.2	3.8	14.0	7.0	24.2	5.4	1.6	(186)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교사들이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을 받은 내용에 대한 복수 응답 질문에 가장 많은 교사들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 올바른 지도방법'을 교육받았다고 응답하였고(77.0%), 미디어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76.8%), 미디어 중독 및 과의존 관련 내용(62.7%)의 순으로 답하였고, 각종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령별 이용 시간 기준을 교육받았다는 응답도 49.3%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나 유해 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기술적 방법, 법과 정책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저조하게 나타났다.

〈표 Ⅳ-4-3〉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내용(복수응답)

단위 : %, (명)

내용	비율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 올바른 지도 방법	77.0
미디어 이용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76.8
영유아 시기 미디어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법	62.7
영유아 시기의 적정 이용 시간 기준	49.3
영유아를 위한 연령별 추천 콘텐츠	17.9
영유아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방법	12.0
유해프로그램, 사이트, 앱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방법	10.1
관련 법과 정책	8.7
기타	0.3
(사례수)	(357)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표 Ⅳ-4-4〉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이 도움된 부분

단위 : %(명)

구분	미디어 이용과 영유아의 발달간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어 미디어 이용에 주의하게 됨	영유아에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범위 등 구체적인 지침을 활용할 수 있게 됨	영유아 미디어 이용 정책의 방향을 알게 되어 수업 시 참고함	영유아의 미디어 중독 경향을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영유아 관찰 시 도움됨	영유아를 위한 좋은 미디어 콘텐츠를 고를 수 있게 됨	영유아 미디어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실제적인 기술을 알고 활용할 수 있게 됨	도움 안됨	계(수)	
전체	42.9	18.8	14.3	11.8	7.6	3.1	1.7	100.0	(357)
담당 학급									
0-2세반	49.6	12.0	10.3	15.4	6.0	5.1	1.7	100.0	(117)
3-5세반	39.6	22.1	16.3	10.0	8.3	2.1	1.7	100.0	(240)
$X^2(df)$	12.980(6)*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 $p < .05$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이 도움이 된 부분으로는 가장 많은 42.9%가 '미디어 이용과 영유아의 발달간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어 미디어 이용에 주의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교사가 담당하는 학급이 0~2세 영아반인 경우 49.6%에 달하여서 3~5세반을 담당하는 교사에(39.6%)에 비해 더욱 도움이 된 부분으로 나타났으며 유아반 담임교사의 경우는 구체적인 지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22.1%)이 영아반 담임교사에 비해(12.0%)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본격적으로 미디어를 수업에 활용하게 되는 유아반 담임교사는 '영유아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알게 되어 수업시 참고하게 됨'을 응답한 비율도 16.3%로 높은데 이는 미디어의 보육·교육활동에서의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을 대비하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국가 정책의 방향에 대한 교육 제공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응답자 대부분은(94.9%)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표 Ⅳ-4-5〉 보육·교육기관 재직 중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필요 여부

단위 : %(명)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수)
94.9	5.1	100.0 (508)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교사를 위한 미디어 교육의 내용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9.5%(1+2순위)는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 올바른 지도방법'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미디어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1순위 혹은 2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모두 35.3%였으며 세 번째로 많은 28.8% 응답자들이 미디어 중독 및 예방법을 필요로 하는 미디어 교육 내용으로 응답하였다.

〈표 Ⅳ-4-6〉 영유아 담당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미디어 교육

단위 : %, (명)

항목	1순위	1+2순위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 올바른 지도 방법	35.3	59.5
미디어 이용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27.0	35.3
영유아 시기의 적정 이용 시간 기준	10.0	17.0
영유아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방법	8.5	25.5
영유아를 위한 연령별 추천콘텐츠	7.7	24.5
영유아 시기 미디어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법	6.8	28.8
유해프로그램, 사이트, 앱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방법	4.6	8.7
기타	0.2	0.6
(사례수)	(482)	(482)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교사 교육의 방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교사는(85.8%)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큰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교사들이(87.8%) 대도시나(84.5%) 읍면지역에(85.2%) 비하여 온라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의 교사들이(82.1%) 20대나(86.2%) 30대(90.1%) 교사에 비하여 온라인을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7〉 선호하는 미디어 교육 방식

단위 : %(명)

구분	온라인교육 (동영상)	온라인교육 (실시간)	집합교육	1:1 컨설팅 또는 장학, 멘토링과 같은 소규모 대화형 교육	기타	계(수)
전체	62.4	23.4	8.3	5.4	0.4	100.0 (482)
지역						
대도시	56.3	28.2	9.2	5.7	0.6	100.0 (174)
중소도시	62.4	25.4	5.8	5.8	0.6	100.0 (173)
읍/면	70.4	14.8	10.4	4.4	0.0	100.0 (135)
$X^2(df)$				11.915(8)		
연령						
20대	70.1	16.1	9.5	4.4	0.0	100.0 (137)
30대	66.3	23.8	6.3	3.1	0.6	100.0 (160)
40대 이상	53.5	28.6	9.2	8.1	0.5	100.0 (185)
$X^2(df)$				15.686(8)*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 $p < .05$

한편 교사들 대부분이(65.8%)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참여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는데, 연령별로 보면 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8〉 세분화된 영유아 미디어 이용(지도) 시리즈 교육 참여 의사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모르겠음	계(수)
전체	65.8	8.7	25.5	100.0 (482)
소속기관				
유치원	65.3	9.6	25.1	100.0 (239)
어린이집	66.3	7.8	25.9	100.0 (243)
$X^2(df)$			0.500(2)	
담당 학급				
0~2세반	66.3	8.1	25.6	100.0 (160)
3~5세반	65.5	9.0	25.5	100.0 (322)
$X^2(df)$			0.105(2)	
연령				

구분	예	아니오	모르겠음	계(수)
20대	51.8	8.8	39.4	100.0 (137)
30대	66.9	9.4	23.8	100.0 (160)
40대 이상	75.1	8.1	16.8	100.0 (185)
$X^2(df)$			22.837(4)***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 $p < .001$

나. 영유아·부모 대상 미디어 이용 교육 제공 실태

1) 개요

올해 기관에서 실시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질문에 과반의 응답자가(54.3%)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평균 횟수는 2.2회였다. 담당 연령별로는 3~5세반의 경우(60.0%)가 0세반이나(45.9%) 1~2세반(42.6%)보다 높았다.

반면 부모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은 27.8%만이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시한 경우에도 횟수는 평균 1.4회였다. 부모교육 실시 사례 역시 담당 연령별로 3~5세반의 경우(30.1%)가 0~2세반(23.1%)보다 높았다.

〈표 Ⅳ-4-9〉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부모 대상 미디어 교육 제공 실태

단위 : %, 회, (명)

구분	교육 제공 여부		평균 교육 횟수	
	실시율	(사례수)	횟수	(사례수)
영유아 대상	54.3	(508)	2.2	(276)
부모 대상	27.8	(508)	1.4	(141)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2)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교육을 의미함.

한편 올해 남은 기간 동안('21년 8월 이후)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영유아 대상 교육이 계획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4.6%였고, 부모교육은 57.5%가 계획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표 Ⅳ-4-10〉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향후 미디어 교육 제공 계획

단위 : %(명)

영유아 대상			부모 대상		
있음	없음	사례수	있음	없음	사례수
74.6	25.4	100.0(508)	57.5	42.5	100.0(508)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2) 2021년 8월 이후 실시될 교육을 의미함.

2)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학부모 대상 미디어 교육 제공 실태

각 기관에서 영유아나 부모를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한 경우 강사를 묻는 질문에 교사나 원장이 실시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한 경우는 전체의 약 1/4인 24.6%였다.

〈표 Ⅳ-4-11〉 영유아·학부모 대상 교육 제공주체(복수응답)

단위 : %, (명)

구분	교사	원장	외부 전문 강사 (스마트쉼센터 등)	기타	(사례수)
전체	59.3	26.6	24.6	1.3	(297)
지역					
대도시	60.8	24.7	20.6	2.1	(97)
중소도시	55.1	26.2	33.6	0.9	(107)
읍/면	62.4	29.0	18.3	1.1	(93)
소속기관					
유치원	72.8	13.6	22.2	0.6	(162)
어린이집	43.0	42.2	27.4	2.2	(135)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2)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교육을 의미함.

미디어 이용에 대한 영유아 혹은 부모대상 교육이 유익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88.4%였다.

〈표 Ⅳ-4-12〉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에 영유아/학부모 대상 교육의 도움수준

단위 : %(명), 점

①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② 도움되지 않는다	①+②	③ 도움된다	④ 매우 도움된다	③+④	잘 모르겠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0.4	3.5	3.9	66.3	22.0	88.4	7.7	100.0(508)	3.2(0.5)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5. 보육·교육 활동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의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이 미디어 콘텐츠별 교실내 활동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꼽은 것은 오락용 동영상, 화상통화 및 메신저였다. 그 외 콘텐츠는 대체로 보육 및 교육활동에서 활용하기에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표 Ⅳ-5-1〉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의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콘텐츠 유형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② 바람직하지 않음	①+②	③ 바람직함	④ 매우 바람직함	③+④	계(수)	평균
정보/교육용 동영상	0.8	5.3	6.1	65.6	28.3	93.9	100.0(508)	3.2
오락용 동영상	39.6	50.2	89.8	9.6	0.6	10.2	100.0(508)	1.7
음악 동영상	2.0	9.1	11.0	69.5	19.5	89.0	100.0(508)	3.1
교육용 앱, 프로그램 (교육용 게임 포함)	7.7	15.7	23.4	61.2	15.4	76.6	100.0(508)	2.8
전자책	6.5	25.4	31.9	59.3	8.9	68.1	100.0(508)	2.7
인터넷 검색용	3.9	16.9	20.9	56.1	23.0	79.1	100.0(508)	3.0
화상통화, 메신저	14.8	36.6	51.4	42.5	6.1	48.6	100.0(508)	2.4
운동용 앱	11.6	26.8	38.4	53.3	8.3	61.6	100.0(508)	2.6
음악용 앱	5.7	18.3	24.0	63.0	13.0	76.0	100.0(508)	2.8
사진, 동영상 촬영	1.8	9.4	11.2	64.4	24.4	88.8	100.0(508)	3.1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2) 평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1점~'매우 바람직함' 4점으로 산정한 결과임.

정보 및 교육용 동영상에 대하여 보육 및 교육활동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대체로(93.9%)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세 이하를 담당하는 경우(87.9%) 3세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97.0%)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정도가 낮았으며(t=5.1, p<.001), 교사의 연령이 많은 경우(40대 이상 89.5%)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았다(F=8.9, p<.001).

〈표 Ⅳ-5-2〉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정보/교육용 동영상

단위 : %(명), 점

구분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② 바람직하지 않음	①+②	③ 바람직함	④ 매우 바람직함	③+④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8	5.3	6.1	65.6	28.3	93.9	100.0(508)	3.2(0.6)
담당 학급2								
0~2세반	1.7	10.4	12.1	70.5	17.3	87.9	100.0(173)	3.0(0.6)
3~5세반	0.3	2.7	3.0	63.0	34.0	97.0	100.0(335)	3.3(0.5)
t								−5.1***
연령								
20대	0.7	2.1	2.8	65.0	32.2	97.2	100.0(143)	3.3(0.5)
30대	0.0	3.6	3.6	61.8	34.5	96.4	100.0(165)	3.3(0.5)
40대 이상	1.5	9.0	10.5	69.0	20.5	89.5	100.0(200)	3.1(0.6)
F								8.9***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2) 평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1점~'매우 바람직함' 4점으로 산정한 결과임.
*** $p < .001$

오락용 동영상을 보육 및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교사는 전체의 1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비율이(19.3%) 다른 기관보다 높았다(F=3.1, p<.01).

〈표 Ⅳ-5-3〉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오락용 동영상

단위 : %(명), 점

구분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② 바람직하지 않음	①+②	③ 바람직함	④ 매우 바람직함	③+④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9.6	50.2	89.8	9.6	0.6	10.2	100.0(508)	1.7(0.7)
기관 세부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55.2	34.5	89.7	10.3	0.0	10.3	100.0(58)	1.6(0.7)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직장 어린이집	52.1	40.8	93.0	7.0	0.0	7.0	100.0(71)	1.5(0.6)
민간 어린이집	33.8	62.5	96.3	2.5	1.3	3.8	100.0(80)	1.7(0.6)

구분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② 바람직하지 않음	①+②	③ 바람직함	④ 매우 바람직함	③+④	계(수)	평균 (표준편차)
가정 어린이집	45.1	45.1	90.2	9.8	0.0	9.8	100.0(51)	1.6(0.7)
국공립 유치원	31.1	49.6	80.7	18.5	0.8	19.3	100.0(119)	1.9(0.7)
사립(법인) 유치원	41.0	53.8	94.9	5.1	0.0	5.1	100.0(39)	1.6(0.6)
사립(사인) 유치원	32.2	58.9	91.1	7.8	1.1	8.9	100.0(90)	1.8(0.6)
F								3.1**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2) 평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1점~'매우 바람직함' 4점으로 산정한 결과임.
** $p < .01$

음악 동영상을 보육 및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89.0%) 교사는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의 유형별로 유치원이(94.4%) 어린이집에(83.8%) 비하여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t=5.5, p<.001), 담당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즉 3~5세반(92.8%), 1~2세반(82.4%), 0세반(78.4%)의 순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F=12.4, p<.001). 그리고 교사의 연령별로도 교사가 젊을수록(20대 93.0%, 30대 92.1%, 40대 이상 83.5%) 음악 동영상을 교육 및 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었다(F=6.5, p<.01).

〈표 Ⅳ-5-4〉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음악 동영상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② 바람직하지 않음	①+②	③ 바람직함	④ 매우 바람직함	③+④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	9.1	11.0	69.5	19.5	89.0	100.0(508)	3.1(0.6)
소속기관								
유치원	0.4	5.2	5.6	67.3	27.0	94.4	100.0(248)	3.2(0.5)
어린이집	3.5	12.7	16.2	71.5	12.3	83.8	100.0(260)	2.9(0.6)
t								5.5***
담당 학급1								
0세반	5.4	16.2	21.6	73.0	5.4	78.4	100.0(37)	2.8(0.6)
1~2세반	3.7	14.0	17.6	69.1	13.2	82.4	100.0(136)	2.9(0.6)

구분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② 바람직하지 않음	①+②	③ 바람직함	④ 매우 바람직함	③+④	계(수)	평균 (표준편차)
3~5세반	0.9	6.3	7.2	69.3	23.6	92.8	100.0(335)	3.2(0.6)
F								12.4***
연령								
20대	1.4	5.6	7.0	73.4	19.6	93.0	100.0(143)	3.1(0.5)
30대	0.0	7.9	7.9	67.9	24.2	92.1	100.0(165)	3.2(0.5)
40대 이상	4.0	12.5	16.5	68.0	15.5	83.5	100.0(200)	3.0(0.7)
F								6.5**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2) 평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1점~'매우 바람직함' 4점으로 산정한 결과임.
** $p < .01$, *** $p < .001$

교육용 앱이나 프로그램을 보육 및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비율은 전체의 76.6% 였다. 이중 기관별로 유치원 교사의 경우(83.9%)가 어린이집 보육교사(69.6%) 보다 더 높았으며(t=5.1, p<.001), 담당 연령별로는 3~5세반 교사(82.7%)가 2세 이하를 담당한 경우(64.7%)보다 높았다(t=5.3, p<.001). 교사의 연령별로도 30대 이하의 교사가 40대 이상의 교사(66.5%)보다 긍정적으로 교육용 앱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1.9, p<.001).

〈표 Ⅳ-5-5〉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교육용 앱, 프로그램

단위 : %(명), 점

구분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② 바람직하지 않음	①+②	③ 바람직함	④ 매우 바람직함	③+④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7.7	15.7	23.4	61.2	15.4	76.6	100.0(508)	2.8(0.8)
소속기관								
유치원	3.2	12.9	16.1	62.9	21.0	83.9	100.0(248)	3.0(0.7)
어린이집	11.9	18.5	30.4	59.6	10.0	69.6	100.0(260)	2.7(0.8)
t								5.1***

구분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② 바람직하지 않음	①+②	③ 바람직함	④ 매우 바람직함	③+④	계(수)	평균 (표준편차)
담당 학급								
0~2세반	14.5	20.8	35.3	56.6	8.1	64.7	100.0(173)	2.6(0.8)
3~5세반	4.2	13.1	17.3	63.6	19.1	82.7	100.0(335)	3.0(0.7)
t								-5.3***
연령								
20대	5.6	13.3	18.9	60.8	20.3	81.1	100.0(143)	3.0(0.7)
30대	4.8	10.3	15.2	66.1	18.8	84.8	100.0(165)	3.0(0.7)
40대 이상	11.5	22.0	33.5	57.5	9.0	66.5	100.0(200)	2.6(0.8)
F								11.9***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2) 평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1점~'매우 바람직함' 4점으로 산정한 결과임.
*** $p < .001$

전자책을 보육 및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교사들은 대체로(68.1%)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연령별로 40대 이상은(59.0%) 보다 젊은 교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F=10.8, p<.001).

〈표 Ⅳ-5-6〉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전자책

단위 : %(명), 점

구분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② 바람직하지 않음	①+②	③ 바람직함	④ 매우 바람직함	③+④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6.5	25.4	31.9	59.3	8.9	68.1	100.0(508)	2.7(0.7)
연령								
20대	3.5	21.7	25.2	65.7	9.1	74.8	100.0(143)	2.8(0.6)
30대	1.8	24.8	26.7	61.2	12.1	73.3	100.0(165)	2.8(0.6)
40대 이상	12.5	28.5	41.0	53.0	6.0	59.0	100.0(200)	2.5(0.8)
F								10.8***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2) 평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1점~'매우 바람직함' 4점으로 산정한 결과임.
*** $p < .001$

인터넷 검색을 교육 및 보육활동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교사들은 긍정적으로(79.1%) 판단하는 비율이 부정적으로(20.9%) 판단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그러나 0~2세반 담당하는 교사는(63.0%) 3~5세반을 담당하는 교사보다(87.5%)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교사의 연령에 따라서도 40대 이상의 교사는(68.0%) 30대 이하의 교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교육 및 보육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9.7, p<.001).

〈표 Ⅳ-5-7〉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인터넷 검색용

단위 : %(명), 점

구분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② 바람직하지 않음	①+②	③ 바람직함	④ 매우 바람직함	③+④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9	16.9	20.9	56.1	23.0	79.1	100.0(508)	3.0(0.7)
담당 학급								
0~2세반	9.2	27.7	37.0	54.3	8.7	63.0	100.0(173)	2.6(0.8)
3~5세반	1.2	11.3	12.5	57.0	30.4	87.5	100.0(335)	3.2(0.7)
t								-7.9***
연령								
20대	2.1	9.1	11.2	58.0	30.8	88.8	100.0(143)	3.2(0.7)
30대	1.8	13.9	15.8	55.2	29.1	84.2	100.0(165)	3.1(0.7)
40대 이상	7.0	25.0	32.0	55.5	12.5	68.0	100.0(200)	2.7(0.8)
F								19.7***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2) 평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1점~'매우 바람직함' 4점으로 산정한 결과임.
*** p < .001

화상통화나 메신저를 보육 및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찬반이 엇갈렸다. 특히 각종 세부 배경 요인별로 찬반이 많이 갈렸다. 지역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읍면지역이 대도시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유치원이(58.1%) 어린이집보다(39.6%)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비율이 높았다(t=4.3, p<.001). 담당 영유아의 연령별로도 3~5세반 담임이(53.4%) 0~2세반 담임보다(39.3%) 더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t=3.5, p<.001), 교사의 연령별로도 20대 교사가(53.1%)

30대 이상 교사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1.1, p>.05).

〈표 Ⅳ-5-8〉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화상통화, 메신저

단위 : %(명), 점

구분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② 바람직하지 않음	①+②	③ 바람직함	④ 매우 바람직함	③+④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4.8	36.6	51.4	42.5	6.1	48.6	100.0(508)	2.4(0.8)
지역								
대도시	17.1	37.6	54.7	40.3	5.0	45.3	100.0(181)	2.3(0.8)
중소도시	13.7	37.7	51.4	42.1	6.6	48.6	100.0(183)	2.4(0.8)
읍/면	13.2	34.0	47.2	45.8	6.9	52.8	100.0(144)	2.5(0.8)
F								1.1
소속기관								
유치원	11.7	30.2	41.9	48.8	9.3	58.1	100.0(248)	2.6(0.8)
어린이집	17.7	42.7	60.4	36.5	3.1	39.6	100.0(260)	2.3(0.8)
t								4.3***
담당 학급								
0~2세반	19.1	41.6	60.7	37.0	2.3	39.3	100.0(173)	2.2(0.8)
3~5세반	12.5	34.0	46.6	45.4	8.1	53.4	100.0(335)	2.5(0.8)
t								-3.5***
연령								
20대	12.6	34.3	46.9	46.2	7.0	53.1	100.0(143)	2.5(0.8)
30대	13.9	38.2	52.1	41.8	6.1	47.9	100.0(165)	2.4(0.8)
40대 이상	17.0	37.0	54.0	40.5	5.5	46.0	100.0(200)	2.3(0.8)
F								1.1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2) 평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1점~'매우 바람직함' 4점으로 산정한 결과임.
*** p < .001

운동용 앱을 보육 및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교사들은 부정적인 판단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았다. 특히 3~5세반 담임은(67.8%) 0~2세반 담임(49.7%)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t=4.7, p<.001).

〈표 Ⅳ-5-9〉 미디어 콘텐츠별 보육·교육활동에서 영유아 이용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 운동용 앱

단위 : %(명), 점

구분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② 바람직하지 않음	①+②	③ 바람직함	④ 매우 바람직함	③+④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6	26.8	38.4	53.3	8.3	61.6	100.0(508)	2.6(0.8)
담당 학급								
0~2세반	17.3	32.9	50.3	46.8	2.9	49.7	100.0(173)	2.4(0.8)
3~5세반	8.7	23.6	32.2	56.7	11.0	67.8	100.0(335)	2.7(0.8)
t								-4.7***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2) 평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1점~'매우 바람직함' 4점으로 산정한 결과임.
*** $p < .001$

한편, 교사들은 이러한 미디어 기기 및 콘텐츠를 활용한 활동이 교육·보육 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기기를 통해 정보/교육용·음악 동영상, 교육용·음악용·운동용 앱, 검색, 동영상 촬영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영유아의 교육·보육 활동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96.3%)의 교사들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매우 도움됨 26.0%+도움됨 70.3%).

특히, 유치원과 담당 학급이 3~5세 유아반인 경우, 교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러한 미디어 기기 및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교육·보육활동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Ⅳ-5-10〉 미디어 기기 및 콘텐츠 기반 보육활동의 효과

단위 : %(명), 점

구분	② 도움이 되지 않음	①+②	③ 도움됨	④ 매우 도움됨	③+④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	3.7	70.3	26.0	96.3	100.0(508)	3.2(0.5)
소속기관							
유치원	2.0	2.0	62.1	35.9	98.0	100.0(248)	3.3(0.5)
어린이집	5.4	5.4	78.1	16.5	94.6	100.0(260)	3.1(0.5)
t							5.3***

구분	② 도움이 되지 않음	①+②	③ 도움됨	④ 매우 도움됨	③+④	계(수)	평균 (표준편차)
담당 학급							
0~2세반	8.1	8.1	80.9	11.0	91.9	100.0(173)	3.0(0.4)
3~5세반	1.5	1.5	64.8	33.7	98.5	100.0(335)	3.3(0.5)
t							-6.8***
연령							
20대	1.4	1.4	66.4	32.2	98.6	100.0(143)	3.3(0.5)
30대	1.8	1.8	67.9	30.3	98.2	100.0(165)	3.3(0.5)
40대 이상	7.0	7.0	75.0	18.0	93.0	100.0(200)	3.1(0.5)
F							8.7***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 $p < .001$

영유아를 위한 교육매체로 유용한 미디어 기기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교사들이 1위로 꼽은 것은 컴퓨터였다(42.3%). 그 뒤로 스마트TV(29.7%), 태블릿PC(9.6%), 스마트폰(4.9%)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컴퓨터와 텔레비전 외에는 모두 한 자릿수 백분율을 기록했으나 2순위는 태블릿 PC가 20.9%로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3순위에서도 태블릿 PC가 가장 높았다(14.8%). 즉 컴퓨터와 텔레비전의 보급 및 활용이 압도적이기에 1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3위였으나 2순위와 3순위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점차 교사들이 태블릿 PC를 교육 및 보육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Ⅳ-5-11〉 영유아의 교육매체로 유용한 미디어 기기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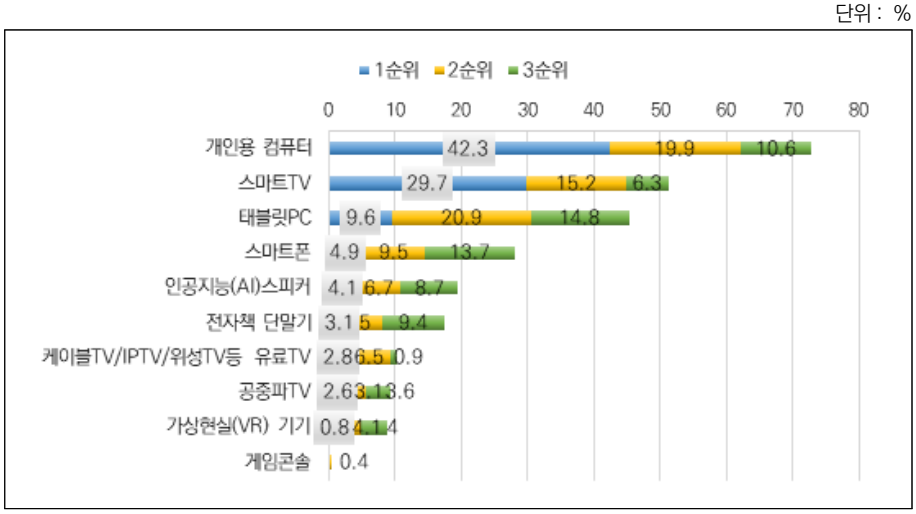
미디어 기기	1순위	1+2순위	1+2+3순위
개인용 컴퓨터	42.3	62.2	72.8
스마트TV	29.7	44.9	51.2
태블릿PC	9.6	30.5	45.3
스마트폰	4.9	14.4	28.1
인공지능(AI)스피커	4.1	10.8	19.5
전자책 단말기	3.1	8.1	17.5
케이블TV/IPTV/위성TV등 유료TV	2.8	9.3	10.2
공중파TV	2.6	5.7	9.3

미디어 기기	1순위	1+2순위	1+2+3순위
가상현실(VR) 기기	0.8	4.9	8.9
게임콘솔	-	0.4	0.4
(사례수)	(508)	(508)	(508)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그림 Ⅳ-5-1] 영유아의 교육매체로 유용한 미디어 기기

단위 : %



주 : 〈표 Ⅳ-5-11〉을 그림으로 구성함

다음으로 영유아가 미래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많이 활용해야 할 미디어 기기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1순위로는 텔레비전이 가장 많이 꼽혔으나 1+2순위 및 1+2+3순위의 합계에서는 태블릿 PC가 가장 높아, 교사들이 영유아가 미래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많이 활용해야 할 미디어 기기로 태블릿 PC를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5-12〉 영유아의 '미래환경 준비'를 위해 활용이 필요한 미디어 기기

단위 : %, (명)

미디어 기기	1순위	1+2순위	1+2+3순위
스마트TV	21.5	31.1	41.7
태블릿PC	17.1	36.6	47.8
개인용 컴퓨터	16.5	28.0	38.0
가상현실(VR) 기기	12.4	30.9	41.9

미디어 기기	1순위	1+2순위	1+2+3순위
인공지능(AI)스피커	12.4	26.4	42.3
전자책 단말기	6.5	15.9	27.4
스마트폰	5.7	14.2	25.2
공중파TV	3.7	5.7	7.3
케이블TV/IPTV/위성TV등 유료TV	3.7	5.3	6.5
게임콘솔	0.4	1.6	2.8
(사례수)	(508)	(508)	(508)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다음으로 영유아가 이용할 경우 '과의존'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유형을 질문한 결과 교사들은 압도적으로 스마트폰의 과의존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및 2, 3순위를 합한 결과에서 모두 스마트폰이 영유아가 이용할 경우 과의존 위험성이 가장 높은 기기로 응답되었고(1순위 56.9%, 1+2순위 69.9%, 1+2+3순위 81.1%), 그 외 1순위 응답에서는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응답률이나 공중파 TV(10.4%), 게임콘솔(10.2%)가 과의존 위험성이 높은 순위로 응답되었다.

1~3순위를 종합한 결과에서는'태블릿PC'의 과의존 위험성이 높다는 응답이 48.4%로 집계되어 스마트폰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즉,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사들이 태블릿 PC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태블릿PC는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성이 있어 장소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가정 내 보급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72], 동영상을 주로 이용하는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경향을 고려할 때 향후 태블릿 PC의 보급률이 더욱 높아질 경우 스마트폰에 육박하는 과의존 위험성을 보일 미디어 기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교육·보육 활동에의 유용성도 높은 기기이나 영유아의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활용이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72) 2013년 수행된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 실태 및 대응 방안'(이정림·도남희·오유정, 2013:47)에서는 당시 영유아 가정의 태블릿PC 보유율이 22.9%에 불과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가정의 태블릿 PC 보유율이 74.4%로 크게 증가함. 〈표 Ⅲ-2-1〉 가정에서의 미디어 종류별 보유 및 이용 현황을 참고할 것.

〈표 Ⅳ-5-13〉 영유아의 과의존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기기

단위 : %, (명)

미디어 기기	1순위	1+2순위	1+2+3순위
스마트폰	56.9	69.9	81.1
공중파TV	10.4	16.9	23.6
게임콘솔	10.2	24.6	40.9
케이블TV/IPTV/위성TV등 유료TV	6.5	19.3	32.5
태블릿PC	5.5	36.0	48.4
스마트TV	5.1	12.8	23.2
개인용 컴퓨터	2.6	7.3	16.3
가상현실(VR) 기기	1.2	4.1	8.1
인공지능(AI)스피커	1.0	3.1	5.3
전자책 단말기	0.6	1.6	2.4
(사례수)	(508)	(508)	(508)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6. 소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전통적인 디지털미디어인 텔레비전과 컴퓨터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교사는 이런 기기들을 보육 및 교육 상황에 적절하게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그 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교사의 판단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사의 연령에 따라서도 디지털 미디어를 교육 및 보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긍·부정적인 평가가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었는데, 팬데믹의 영향으로 원격교육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교육이 확장되어 가는 시기에, 고연령의 경력교사가 새로운 매체인 디지털 미디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교사 연수 및 교육을 계획할 때 특히 고경력, 고연령의 교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수의 방법에 있어서 교사의 연령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선호가 다름을 감안하여 오프라인 연수도 배제하면 안 될 것이다.

특히 교사들이 디지털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아직 연수나 교육의 경험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으며, 심지어 각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이해도

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 정도와 향후 활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두드러진 미디어는 태블릿 PC였는데, 상대적으로 보급 정도는 낮지만 이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젊은 교사의 경우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고연령 교사 미디어 활용 연수의 경우 태블릿 PC 등의 활용에 대한 연수를 더욱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과 정책 요구

01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

02 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

03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현황과 대처 실태

04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요구

05 소결

Ⅴ.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과 정책 요구

앞서 가정과 기관에서의 미디어 보유 및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과 이용 지도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현황 속에서 나타나는 영유아 미디어 이용의 문제점, 지도상의 애로사항과 적정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지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1.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

가정에서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 지도에 있어 어려운 점은 '자녀가 이용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음'이 38.4%로 가장 많았고, '가사 일 등으로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 시간이 부족함'(24.9%), '집에서 지도해도 외부에서 지켜지지 않음'(16.5%) 순으로 나타났고, '적절한 지도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도 12.7%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20대 부모와 30대 및 40대 부모 간의 응답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가사 일 등으로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 시간 부족'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20대 부모는 '적절한 지도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29.4%로 가장 높고, '자녀가 이용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음'은 낮은 반면, 30대와 40대 부모는 '자녀가 이용 약속을 지키지 않음'이 가장 높고 '적절한 지도방법을 모름'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도 유의했는데, 전체 응답자와 응답 경향은 비슷했으나 영아 가구의 경우 '적절한 지도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유아 가구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도 유의했는데, 전체와 응답 경향은 비슷했으나 첫째아의 경우 둘째 이상아 보다 '적절한 지도 방법을 모른다'가 약간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영유아 부모가 자녀와 미디어 이용에 대해 약속을 정하고 나름의 지도방법을 적용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데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유아 자녀의 자기조절력을 키우고 부모가 적절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대 부모, 영아 부모, 첫째아를 키우는 부모는 적절한 지도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디어 이용의 적절한 지도방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Ⅴ-1-1〉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 지도에서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적절한 지도방법을 모름	자녀가 이용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음	가사 일 등으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할 시간이 부족함	집에서 지도해도 외부에서 지켜지지가 않음	기타	계(수)
전체	12.7	38.4	24.9	16.5	7.5	100.0(1,500)
연령						
20대	29.6	14.8	22.2	22.2	11.1	100.0(27)
30대	12.8	35.9	26.3	16.9	8.1	100.0(1,039)
40대	11.5	45.9	21.7	15.0	6.0	100.0(434)
$X^2(df)$			24.657**(8)			
모취업 여부						
취업	11.5	40.7	26.6	16.4	4.9	100.0(654)
미취업	13.4	36.7	23.6	16.6	9.6	100.0(842)
$X^2(df)$			14.837**(4)			
아동 연령						
영아	18.1	34.1	20.5	16.8	10.4	100.0(536)
유아	9.8	40.8	27.3	16.3	5.9	100.0(964)
$X^2(df)$			38.569***(4)			
출생순위						
첫째	16.6	36.2	23.1	15.3	8.8	100.0(727)
둘째 이상	9.1	40.5	26.5	17.6	6.3	100.0(773)
$X^2(df)$			24.762***(4)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1$, *** $p < .001$

2. 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

기관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42.5%의 응답자는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응답자 중에서는 가정에서 미디어 이용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22.6%). 그러나 그 외의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연령에 따라 응답이 엇갈렸는데, 0~2세 담임의 경우에는 영유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18.2%) 두 번째 이유로 들었고, 3~5세 담임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하여 지도할 시간이 부족함을(15.7%) 두 번째 이유로 들었다. 영아의 경우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발달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율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점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으나 유아를 담당한 교사는 이에 대한 비율보다는 다른 업무에 비하여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Ⅴ-2-1〉 미디어 활용 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어려움이 없음	기관에서 지도한 내용이 가정으로 연계되지 않음	업무로 인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할 시간이 부족함	영유아가 이용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음	적절한 지도 방법을 모름	기타	계(수)
전체	42.5	22.6	13.7	10.8	8.2	2.2	100.0 (452)
담당 학급							
0~2세반	42.1	19.8	8.3	18.2	6.6	5.0	100.0 (121)
3~5세반	42.6	23.6	15.7	8.2	8.8	1.2	100.0 (331)
$X^2(df)$	18.479(5)**						

주: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 $p < .01$

3.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현황과 대처 실태

이 절에서는 영유아의 부모들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미디어 과의존'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대해 가정과 기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과의존 실태

먼저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으로부터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거나, 부모 자신이 자녀가 미디어에 과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V-3-1〉에 따르면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성을 의심해 본 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 1,500사례 중 20.1%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이처럼 미디어 과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영유아들이 실제로 가정이나 기관에서 미디어 과의존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는 경우는 54.8%에 해당하였다.

〈표 V-3-1〉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의심 경험 및 과의존 의심 행동 비율

단위 : %, (명)

영유아 미디어 과의존 의심 경험 비율	(사례수)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 비율	(사례수)
20.1	(1,500)	54.8	(301)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제특성별로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의심 경험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아동의 연령, 자녀의 성별, 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의심 경험 비율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을 지적받거나 의심한 경험이(24.0%) 미취업중인 경우에(16.9%) 비해 높았으며, 영아보다는(17.25) 유아일 경우(21.7%) 이러한 미디어 과의존을 의심한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자녀가 여아일 경우에(17.95) 비해 남아인 경우(22.2%), 자녀가 기관을 이용중인 경우(22.2%) 미이용 중인 경우(10.8%)에 비해 이러한 과의존

의심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기관이나 양육자, 부모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지 객관적 지표에 의해 '과의존'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성별에 따라 다른 특성, 연령에 따른 발달 행동의 특성이 '과의존' 행동으로 의심되었을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영유아의 보육·교육기관이나 부모들이 영유아 시기의 '미디어 과의존'의 문제에 상당한 인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유아의 행동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Ⅴ-3-2〉 제특성별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의심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20.1	79.9	100.0 (1,500)
모 취업 여부			
취업	24.0	76.0	100.0 (654)
미취업	16.9	83.1	100.0 (842)
χ^2(df)		11.739**(1)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17.2	82.8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21.7	78.3	100.0 (964)
χ^2(df)		4.380*(1)	
자녀 성별			
남아	22.2	77.8	100.0 (752)
여아	17.9	82.1	100.0 (748)
χ^2(df)		4.309*(1)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여부			
이용	22.2	77.8	100.0 (1,222)
미이용	10.8	89.2	100.0 (278)
χ^2(df)		18.303***(1)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과의존이 의심되는 사례 중 실제 미디어 과의존 때문이라 의심되는 행동을 보인 경우는 165사례에 해당하였는데, 부모들이 응답한 가장 빈번한 과의존 의심 행동은 '산만함'으로 45.5%의 비율을 보였고, '부모나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음' 30.9%, '정상 범주를 넘는 공격 행동 등 거친 행동' 23.6%, '미디어를 보여주지

않으면 식사를 안함' 22.4%, '미디어를 이용하느라 잠자리에 들지 않음' 21.8%, '외출시 미디어를 보여주지 않으면(주변 사람을 방해하는 행동 등) 진정시킬 수 없음' 13.3%, '미디어 기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12.1%, '거친말(욕설)' 11.5% 순으로 응답되었다. 가장 많이 응답된 미디어 과의존 의심행동의 유형은 '집중을 못하는 (도를 넘는) 산만함'이고 거칠고 폭력적인 행동이 정상범주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 우려를 자아내지만, 이외에도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 식사, 수면 등 영유아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본생활습관을 해치는 행동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에서 영유아가 다니는 기관이나 돌봐주는 양육자로부터 미디어 과의존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았거나 부모가 느끼기에 미디어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하였던 사례를 섭외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자녀가 미디어 과의존이 의심된다고 응답한 사례들에서는 하루 중 미디어 이용 시간이 2~3시간 이상이며 식사나 해야 할 일 등을 미디어 이용을 전제로 하는 등 '일상 생활이 미디어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 일단 *투브랑 **스타즈라는 게임을 가장 많이 하구요…(중략)…(평일) 하루에 거의 3시간 정도.…(중략)…근데 부모가 둘 다 자리를 비우거나 이럴때는 무제한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주말에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5시간 정도.…(중략)… 밥 먹을 때는 너무 밥을 안 먹어서 이제 미디어를 틀어줘야 밥을 먹고요.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도 밥 먹을 때도 꼭 미디어를 틀어줘야 밥을 먹고…공부를 하게 한다거나 하면은 꼭 제안을 걸어서 "미디어를 보여주겠다. 이걸 다 끝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례 3. 경기 거주, 5세 남아]

> 학원에서 집에 오면 6시 반경 되니까, 저희가 맞벌이 가구라 집에 오면 저녁 차리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면, 자동으로 그냥 앉아서 본인이 TV를 켜고 *투브에 접속을 한 다음에 …(중략)…밥이 다 돼서 먹으라고 하면 꼭 식탁에서 먹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은 거실에서 TV 보면서 먹겠다.…뭐 평일에는 그래서 거의 잘 때까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한 두세 시간 정도 돼서 씻어야 되거나 양치를 해야 한다거나 하면은 "이것만 보고 할께요. 그 대신 씻고 나서 양치하고 나면 또 하나 더 보여 주세요" .[사례 2. 경기 거주, 4세 여아]

> 밥 먹을 때, 식당 그리고 심지어 캠핑을 가서라도 꼭 그렇게 쉬는 시간이 되면 *투브를 보면서 쉬어야 된다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 주말이면 한 5시간~6시간 넘게 보는 것 같아요. 아예 야외에서 계속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집에 있으면 그냥 보게 되는 것 같아요.[사례 2. 경기 거주, 4세 여아]

〈표 Ⅴ-3-3〉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 양상(중복 응답)

단위 : %,(명)

거친말 (욕설)	거친 행동 (정상범주를 넘는 공격 행동)	산만함	부모나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음	미디어 기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식사를 안함	미디어 이용으로 잠자리에 들지 않음	외출 시 미디어를 보여주지 않으면 진정시킬 수 없음	미디어 기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 함	기타	(사례수)
11.5	23.6	**45.5**	**30.9**	22.4	21.8	13.3	12.1	10.9	(165)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한편, 과의존으로 의심되는 행동까지 보인 경우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미디어 과의존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는지 여부, 전문적 상담·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표 Ⅴ-3-4〉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의심 행동을 보인 경우 '미디어 과의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확인해 본 비율이 17.6%, '전문적 상담·치료'를 받아본 경험 비율은 12.7% 정도로 나타났다. 영유아 부모들의 자녀의 '영유아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자녀의 과의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의존 행동이 의심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는 부족하거나 영유아의 특성상 발달상의 특성과도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Ⅴ-3-4〉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한 대처 경험

단위 : %(명)

미디어 과의존 체크리스트 확인 여부		전문적 상담·치료 경험 여부		계(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7.6	82.4	12.7	87.3	100.0 (165)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나. 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과의존 실태

앞서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실태와 대처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여기서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에서 미디어 과의존이 의심되는 영유아가 얼마나 관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V-3-5〉에 따르면 조사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중 미디어 과의존이 의심되는 영유아가 있다는 경우는 31.7%로, 가정에서의 조사 결과(20.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처럼 기관에서 과의존이 의심되는 영유아 중 미디어 과의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문제 행동을 보인 경우는 60.2%로 이 또한 가정에서 미디어 과의존으로 의심되는 행동이 있었던 비율(54.8%) 보다 높았다. 이는 영유아 부모 대상의 조사 결과는 미디어 과의존으로 의심되는 경우나 과의존 의심 행동 비율이 낮은 기관 미이용 아동도 포함되어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V-3-5〉 기관 내 미디어 과의존 의심 영유아 현황

단위 : %, (명)

미디어 과의존 의심 영유아 비율	(사례수)	미디어 과의존으로 의심되는 문제행동 보이는 아동 비율	(사례수)
31.7	(508)	60.2	(161)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기관 이용 아동중 미디어 과의존 의심 아동 여부, 미디어 과의존 의심 영유아 중 과의존으로 인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 여부를 기관의 제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지역이나 기관 유형 등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미디어 과의존 영유아나 그로 인한 문제 행동은 지역의 규모나 기관의 특성에 관계없이 어디에나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표 V-3-6〉 제특성별 기관 내 미디어 과의존성 의심 영유아 유무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31.7	68.3	100.0 (508)
지역			
대도시	32.6	67.4	100.0 (181)
중소도시	32.2	67.8	100.0 (183)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읍/면	29.9	70.1	100.0 (144)
$X^2(df)$		0.317(2)	
소속기관			
유치원	31.5	68.5	100.0 (248)
어린이집	31.9	68.1	100.0 (260)
$X^2(df)$		0.013(1)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표 V-3-7〉 제특성별 기관 내 미디어 과의존성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 유무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60.2	39.8	100.0 (161)
지역			
대도시	50.8	49.2	100.0 (59)
중소도시	67.8	32.2	100.0 (59)
읍/면	62.8	37.2	100.0 (43)
$X^2(df)$		3.697(2)	
소속기관			
유치원	60.3	39.7	100.0 (78)
어린이집	60.2	39.8	100.0 (83)
$X^2(df)$		0.000(1)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과의존이 의심되는 사례 중 실제 미디어 과의존때문이라 의심되는 행동을 보인 경우는 97사례에 해당하였는데, 조사 대상인 담임교사들이 응답한 가장 빈번한 과의존 때문으로 보이는 문제행동은 '산만함'으로 56.7%에 달하였고, '정상범주를 넘는 공격 행동 등 거친 행동' 21.6%,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음' 12.4%, '기타' 6.2%, '거친말(욕설)' 3.1%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V-3-8〉 기관 내에서 관찰되는 미디어 과의존성으로 인한 문제행동의 유형

단위 : %(명)

산만함 (수업에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짐)	거친 행동 (주변 사람의 행동에 대한 정상범주를 넘는 공격적 행동)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음	거친 말 (욕설)	기타	계(수)
56.7	21.6	12.4	3.1	6.2	100.0 (97)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한편, 기관에서 영유아가 과의존으로 의심되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V-3-9〉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기관에서 재원 영유아가 이러한 의심 행동을 보인 경우 '부모면담을 통해 가정에서의 교육과 지도를 요청'한다는 경우가 78.4%로 가장 주된 대처방법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주임교사나 원감, 원장과 상의하여 지도 방법을 모색함' 26.8%, '보조교사나 도움 인력에게 문제 아동을 전담하여 돌보도록 함' 9.3%로 응답되어 가정에 지도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대부분 기관 내 교직원 내에서 이를 내부적으로 대처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구함' 3.1%, '스마트쉼 센터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함'3.1% 등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전문 인력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희소하였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우도 3.1%로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대처 방법은 가정에서의 지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영아반 보다 유아반에서 더 많고, 보조교사나 도움 인력에게 문제 아동을 전담하여 돌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유아반 보다 영아반에서 더 비율이 높았으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영아반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유아의 경우 의사소통의 수준이 영아보다 높고 훈육과 지도도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정과의 면담을 통해 가정에서의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반대로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영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기타 인력의 도움으로 돌봄으로써 행동의 교정보다는 다른 아동의 수업을 방해하지 못하는 목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Ⅴ-3-9〉 기관에서의 미디어 과의존성으로 인한 문제행동 대처법(복수응답)

단위 : %(명)

	부모면담을 통해 가정에서의 교육과 지도를 요청한다	주임교사나 원감, 원장과 상의하여 지도 방법을 모색함	보조교사나 도움인력에게 문제 아동을 전담하여 돌보도록 함	외부 발달(상담) 전문가에 자문을 구함	스마트쉼 센터 등에 자문을 구함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	기타	(수)
전체	78.4	26.8	9.3	3.1	3.1	3.1	4.1	(97)
담당 학급								
0~2세반	65.4	23.1	15.4	3.8	3.8	7.7	3.8	(26)
3~5세반	83.1	28.2	7.0	2.8	2.8	1.4	4.2	(71)
X^2(df)	3.230(4)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4.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요구

가. 부모의 요구

먼저 영유아 미디어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게 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 후 각각의 정책에 대한 부모들이 느끼는 필요성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Ⅴ-4-1〉에 따르면 제시된 정책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매우 필요함+필요함)'는 응답 비율은 모두 높았지만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4.1%로 가장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외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지침에 대한 홍보 강화' 93.2%, '영유아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93.2%,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연령별 적합한 콘텐츠 기준 개발, 배포' 91.3%, '아동용 앱, 아동용 채널(예:** 키즈 등)에서의 광고 및 알고리즘 생성 제한' 90.8% 등은 조사 응답자의 90% 이상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었다. 이외에도 제시된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59.6%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영유아 부모들은 영유아의 적절한 미디어 이용을 유도하는데 '법적 규제 조치'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에서는 법적 규제까지는 아니지만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는 무분별한 미디어 활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나 대표자 대상의 교육과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유치원에서 *플릭스를 틀어줄 때가 있더라구요. 심지어 제가 한번도 보여주지 않은 건데도 아이가 그거를 알고서 저한테 틀어 달라할 때가 있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변에 알아보니 그런 곳이 꽤 있더라구요. 이게 하원 차량을 태우기 전에 잠깐 틀어 주신다거나 아니면 중간 중간에 시간 빌 때 조금씩 틀어 주신다거나. 네, 뭐 선생님들도 물론 사람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은 시설 같은 데서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사례 9. 대전 거주, 3세 여아]

> 이게 보면 각 기관들 별로 혹은 원장님 별로 교육 철학이 다 다르고, 그런 미디어에 대해서도 기준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중략)…그래서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도 한번 유치원을 바꿨어요.…(중략)…그래서 이런 거는 권고사항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왜냐면 각각 이런 교육 철학이 다르다 보니, 그런 대표자분들에 대한 좀 지속적인 교육 정도로 가이드라인만 주어 지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사례 7. 서울 거주, 6세 여아]

한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육의 대상은 부모,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교사, 영유아 등 크게 3개 집단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그 중 부모 대상의 교육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는 바, 미디어 기기 이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기관'보다는 '가정'에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통해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영유아 시기에는 영유아 스스로의 올바른 이용을 기대하기 보다는 부모 등 성인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영유아 부모의 면담 사례 중 자녀의 과도한 미디어 이용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한 사례에서는 모두 다 알고 있을만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보다는 나라에서 좀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주거나, 콘텐츠의 연령기준을 12세 이하에 좀더 세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용 시간 등 양적인 제한도 필요하지만 미디어 이용이 보편화된 상태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라 사료된다.

> 아기가 어려서 전체 이용가만 틀어주긴 하거든요. 12세 이하 기준도 보여주고요. 근데, 전체 이용가 외에는 12세 기준부터 있는데 그거를 좀더 세분화 해주시면 제가 콘텐츠를 보여줄 때 고민을 덜 하게 될 것 같아요.…(중략)…제가 본 전체 이용가 콘텐츠에서는 '우리 아기가 봤을 때 조금 안좋을 것 같은데'라는 것도 있었고.'이거는 아기가 봐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라는 것도 있었거든요.[사례 1. 경북 거주, 1세 여아]

〈표 Ⅴ-4-1〉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정도

단위 : %, 점

정책방안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③+④	평균
1)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지침에 대한 홍보 강화	1.2	5.5	6.7	61.5	31.7	**93.2**	**3.2**
2)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사 교육 확대	2.3	9.2	11.5	59.2	29.3	88.5	3.1
3)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확대	0.9	5.0	5.9	**54.1**	**40.0**	**94.1**	**3.3**
4) 영유아 대상 미디어 이용 교육 강화 (디지털리터러시 함양)	2.1	9.9	12.0	**61.7**	**26.3**	88.0	3.1
5)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	13.0	**27.3**	40.3	**39.9**	**19.7**	59.6	2.7
6)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연령별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 기준 개발, 배포	1.2	7.5	8.7	**60.2**	**31.1**	**91.3**	**3.2**
7) 미디어 콘텐츠 공급자들이 지켜야 할 영유아용 콘텐츠 적합성 기준을 배포하고, 위반 시 제재 마련	3.2	10.3	13.5	**49.6**	**36.9**	86.5	3.2
8) 영유아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1.9	4.9	6.8	**52.4**	**40.8**	**93.2**	**3.3**
9) 아동용 앱, 아동용 채널(** 키즈 등)의 광고 및 알고리즘 생성 제한	2.0	7.2	9.2	**45.3**	**45.5**	**90.8**	**3.3**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2) 전체 1,500사례를 대상으로 한 결과임

한편, 제특성별로 각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디지털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영유아 대상 미디어 이용 교육 강화'의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즉, 자녀가 영아인 경우(85.1%) 보다는 유아인 경우(89.6%) 영유아 대상 미디어 이용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교육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 등 효과성 면에서 영아기 보다는 유아기가 교육에 적합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영유아용 미디어 이용 교육의 경우, 유아를 대상으로 적합한 방법과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을 확대하며, 영아기에는 부모나 교사 대상의 영아용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표 Ⅴ-4-2〉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영유아 대상 미디어 이용 교육 강화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전체	2.1	9.9	61.7	26.3	100.0 (1,500)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3.5	11.4	61.2	23.9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1.3	9.0	62.0	27.6	100.0 (964)
χ^2(df)			11.573**(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1$

다음으로 정책 방안들 중 아동용 앱, 아동용 채널 등을 이용할 때 제공되는 각종 광고와 선택한 콘텐츠 외에 선택 콘텐츠의 키워드와 연관하여 자동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생성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성별, 아동의 연령에 따라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응답자는 여성일 경우 아동용 앱이나 채널의 광고, 알고리즘 생성 제한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4.2%로 남성의 32.4%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이 94.7%, 남성이 85.0%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여성이 가정에서 남성보다 긴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며 미디어 이용에 대한 지도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녀가 영아일 경우에(41.8%) 비해 유아일 경우(47.5%) 이러한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미디어 이용이 본격화되고 광고에 반응하기 시작하며 알고리즘을 통해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Ⅴ-4-3〉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아동용 앱, 아동용 채널(* 키즈 등)의 광고 및 알고리즘 생성 제한**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전체	2.0	7.2	45.3	45.5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3.5	11.5	52.6	32.4	100.0 (601)
여성	1.0	4.3	40.5	54.2	100.0 (899)
χ^2(df)			85.723***(3)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3.9	7.8	46.5	41.8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0.9	6.8	44.7	47.5	100.0 (964)
χ^2(df)			18.517***(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01$

한편,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 면담에서는 관련 정책으로 영유아가 미디어를 이용할 때 나오는 광고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애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게임을 할 때 보면 중간 광고 같은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연령 제한이 있는데 광고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무분별한 광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법적으로 막아줘야 하는 것 같아요.[사례 10. 경기 거주, 5세 남아]

> 게임 중간에 나오는 광고는 정말 폭력적이고 성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게임 자체는 전체 연령가인데 중간에 나오는 광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영유아에 적합지 않은 광고의) 노출을 법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에요.[사례 10. 경기 거주, 5세 남아]

나. 기관의 요구

앞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살펴 보았는 바, 여기서는 동일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담임교사가 느끼는 필요성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제안된 9가지의 정책 방안 중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는 의견이 98.0%로 필요성 정도가 가장 높은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영유아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96.5%가,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지침에 대한 홍보 강화' 96.3%,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연령별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 기준 개발, 발표'95.7%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본 설문지에 제안된 거의 모든 정책방안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예: 연령별 이용 시간 제한 및 위반시 제재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5.0%에 달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정책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부모에 비해 교사들이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의 순위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Ⅴ-4-4〉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정도

단위 : %, 점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③+④	평균
1)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지침에 대한 홍보 강화	0.4	3.3	3.7	65.2	31.1	**96.3**	3.3
2)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사 교육 확대	0.8	6.5	7.3	69.7	23.0	92.7	3.1
3)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확대	0.4	1.6	2.0	53.5	44.5	**98.0**	3.4
4) 영유아 대상 미디어 이용 교육 강화	1.0	5.1	6.1	68.9	25.0	93.9	3.2
5)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	3.9	21.1	25.0	55.7	19.3	75.0	2.9
6)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연령별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 기준 개발·배포	0.8	3.5	4.3	64.8	30.9	**95.7**	3.3
7) 미디어 콘텐츠 공급자들이 지켜야 할 영유아용 콘텐츠 적합성 기준을 배포하고, 위반 시의 제재방안 마련	1.2	7.5	8.7	60.6	30.7	91.3	3.2
8) 영유아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0.6	3.0	3.5	58.3	38.2	**96.5**	3.3
9) 아동용 앱, 아동용 채널의 광고 및 알고리즘 생성 제한	0.4	4.7	5.1	53.5	41.3	**94.9**	3.4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2) 전체 508사례를 대상으로 한 결과임

[그림 Ⅴ-4-1]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정도(교사)

단위 : 점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기관 대상)'의 결과임.

5. 소결

5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부모용, 기관용)'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있어서의 가정과 기관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가정과 기관에서 관찰되는 미디어 과의존성이 의심되는 영유아와 이에 대한 대처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 지도에 있어 어려운 점은 자녀가 이용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음이 가장 많았고, 미디어 이용지도 시간부족, 지도한 것이 외부에서 지켜지지 않음, 적절한 지도방법을 모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애로사항에 따른 지원은 부모연령대, 자녀의 연령과 출생순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대 부모, 영아 부모, 첫째아 부모에게는 적절한 지도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30대 이상의 부모, 유아 부모, 둘째아 이상의 부모의 경우, 자녀가 부모와 정한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자녀의 자기조절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기관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 지도에서는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42.5%로 상당히 높기는 했으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관에서의 지도 내용이 가정으로 연계되지 않는 것'과 '업무로 인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주된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가 미디어 이용을 적절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기관에서의 지도로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는 공유된 목표 하에 가정과 기관, 지역사회 등 영유아 자녀를 두지 않은 모든 시민에게 미디어 시대의 영유아의 올바른 이용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관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사 및 다른 업무로 인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결과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을 의심해 본 경험은 20.1%이며, 과의존을 의심했던 사례 중 실제 과의존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였던 경우는 54.8%에 해당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담임교사들이 응답한 기관조사 결과에서는 각 기관에 과의존 의심 영유아가 있다는 비율이 31.7%, 이들이 미디어 과의존성으로 인한 문제 행동을 보였던 경우는 60.2%로 더욱 심각한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는 영유아 미디어 과의존성에 대한 우려와 높은 관심으로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로 응답된 수치이지만, 이러한 수치는 영유아 미디어 과의존성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에 의한 객관적 결과로 응답되었다기 보다는 양육자나, 부모,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일부 수치는 성별이나 연령상의 발달 행동의 특성을 오인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는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성 행동을 의심하는 경우 중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본다든지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아보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는 미흡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관에서의 대처에서도 유사한 경향으로 기관에서도 스마트쉼센터 등의 전문기관이나 외부 상담전문가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매우 희소하고, 가정에 지도를 요청하거나 주임교사나 원감, 원장 간의 상의를 통해 지도 방법을 모색하거나, 보조교사 등을 활용해 문제행동을 따로 관리하는 정도로 대처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이나 부모들이 우

려하는 바처럼 영유아의 행동이 미디어 과의존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의견과 판정을 받고 지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활용이나 관련 전문기관, 전문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연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교사나 교직원, 부모 대상의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았는 바, 영유아 부모와 기관에서 모두 '부모 교육'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이 요구하고 있었다. 이외 교사 대상 혹은 영유아 대상의 교육 확대 및 강화의 필요성,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지침에 대한 홍보 강화 등 교육과 가이드라인 확대 및 인식 제고에 대한 강화 요구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 기준 개발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으며, 콘텐츠 제작을 영유아가 하는 경우의 보호 대책, 아용용 앱, 아동용 채널의 광고 및 무분별한 알고리즘 생성의 제한, 미디어 콘텐츠 공급자들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연령별 이용 시간 제한을 두고 위반시 (보호자를) 제재하는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에 대해서는 부모와 교사 대상 조사 모두에서 필요성이 가장 낮게 응답되었다. 영유아 부모 심층면담을 통해 이러한 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한 결과에서도 이는 과도한 규제일 수도 있으며 실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영유아 부모와 기관 조사에서 이는 공통된 응답 경향으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서 '법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이용을 규제하는 방안'은 공감하기 어려워 적절하지 못하다 판단된다.

한편 정책 방안 중 적절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교사나 영유아 대상 교육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기관을 이용하기 전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조절능력이 부족한 영유아 시기에 영유아 자신의 미디어 이용 조절능력과 미디어리터러시 함양을 기대하는데 앞서 보호자, 특히 부모가 적절한 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청소년과 성인과는 다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영유아기에 있

어서는 미디어리터러시 함양을 통해 적극적이고 바른 미디어 이용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앞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도해 주는 '보호' 측면의 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영유아가 좋은 콘텐츠를 선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각과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영유아를 위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공급자측의 노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영유아용으로 개발·운영하는 앱이나 채널에서는 가능한 광고(특히 연령에 맞지 않는 광고)와 자동추천 알고리즘은 생성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I

정책제언

01 정책방향

02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육 확대와 교육 기반 조성

03 보육·교육 활동에서의 미디어 이용 지침의 개발·배포

04 영유아를 위한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의 배포처 확대와 제작·홍보 방식의 다양화

05 영유아의 미디어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정책 방안

0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보호 관련 법령의 영유아 대상 명시

07 영유아용 콘텐츠의 적합성 제고 방안

08 미디어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Ⅵ.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기관에서 보유하는 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이를 영유아가 이용하거나 보육·교육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과 이용 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살펴보고, 실제 2021년의 취학전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실태, 가정 및 기관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의 지도 실태 및 이용 지도에서의 어려움과 정책 요구 등을 종합하여 영유아가 미디어를 적정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의 방향성을 '변화하는 영유아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과 이에 기반한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미디어 환경 조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책방향

가. 변화하는 영유아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결과 영유아 가구에서 이용하는 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전반적인 보급률이 높아진 가운데, 특히 2013년 조사 대비 태블릿PC의 보급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는 TV지만 2013년에 이루어졌던 조사(이정림 외, 2013)에 비해 이용률이 감소했고, 반대로 태블릿 PC는 가정 내 이용 증가세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미디어 기기가 부모의 육아도우미, 영유아의 장난감과 같은 용도로 이용되면서 집안 뿐 아니라 식당·카페, 공공장소, 승용차 안 등 장소를 가리지 않게 되었기에 스마트폰과 더불어 휴대성이 매우 높은 태블릿 PC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도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시대의 변화, 기술의 발전

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영아, 유아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미디어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의 경우는 이용하는 보육·교육기관에서 원격교육을 실시한 이후 교육시간 외의 미디어 이용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지속, 일상화 되면서 향후 미래교육의 방향에서는 원격교육의 방식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한 변화를 예견하고 있으므로, 영유아교육·보육활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를 전제한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급 및 이용되는 미디어가 변화하고 일상화되는 재난상황에서 영유아 대상의 원격 수업의 활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고 이에 따라 영유아의 생활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미디어 환경 조성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및 심층면담에서는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습관은 영유아가 미디어 이용을 선호해서라기보다는 영유아를 돌보는 성인의 시간 확보나 양육의 수월성을 위해 미디어에 노출시킴으로써 학습된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들이 나타났다. 즉, 취학전 영유아에 있어서 미디어의 최초 이용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의해 말 그대로 '노출'된 결과이므로 '적정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미디어 환경'의 조성, 그것도 가급적 빠른 시기에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 제안의 주요한 방향으로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설정하였다.

이에 향후 제안하는 정책들은 두 가지의 주요한 정책방향인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의 대응'과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미디어 환경 조성'의 방향 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육 확대와 교육 기반 조성

가. 부모 대상 가정 내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강화

1) 보육·교육 기관 이용 영유아 부모 대상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제공 의무화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결과에서 영유아의 부모들 중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받았다는 경우가 16.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을 다니는 경우 미이용 영유아의 부모에 비해 부모교육 경험이 조금 높았지만 18.2%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본 조사에서 영유아 부모들은 영유아들이 미디어를 이용할 때 이용하는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콘텐츠를 영유아와 함께 고르고 이용 후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은 하고 있었으나 이용 콘텐츠의 자녀 연령에의 적합성 여부, 좋은 콘텐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즉, 영유아 부모들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교육 경험은 매우 낮아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바람직하게 지도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 등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부모들이 이처럼 영유아 시기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 역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본 조사에서 나타난 영유아들의 미디어 이용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적정 시간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이용 습관도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에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습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인 부모 등 성인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 지침을 포함하여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많은 부모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영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강화를 통해 과의존을 예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여진다. 본 조사 결과에서도 영유아, 부모, 교사 대상의 교육이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는 하였으나, 그 누구보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즉, 아동의 미디어 이용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유아가

접하는 '미디어 환경'의 적정화가 필요하며 부모는 이러한 영유아의 미디어 환경을 구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54조에 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 외에 '영유아 부모'를 추가하여 의무 교육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부모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어, 영아와 유아, 혹은 연령별 미디어 이용의 특성과 관심 사항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디어 이용을 시작하기 전의 어린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미디어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부모 역할의 중요성, 미디어별 적정 이용 시작 시기와 이용 수준과 지도 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미 평균적으로 미디어 이용을 많이 시작하는 연령대에서는 자녀의 미디어 조절능력을 기르기 위한 지침과 과도한 의존성의 체크 방법과 상담 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

〈표 Ⅵ-2-1〉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변경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기관 이용 영유아	기관 이용 영유아, 영유아의 부모
비고		- 영유아 연령별 교육 내용의 차별화 - 전문화, 심화된 시리즈 교육 개발

2) 영유아 건강검진을 활용한 기관 미이용 영유아 부모 미디어 이용 지도 강화

영유아 미디어 이용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의 경험은 영유아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더 낮게 나타났으며, 미이용 가구의 부모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기관의 이용은 미이용 가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부모의 의지가 없다면 기관 이용 영유아에 비해서 기관 미이용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습관을 체크한다거나 적절한 지도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드물 수 있으므로, 좀 더 기관 미이용 영유아 부모의 접근성이 높은 부모교육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에서는 현재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으로 '건강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교육 및 상담'의 항목 중 '전자미디어노출'

을 목표 질환으로 두고 영유아 건강검진 단계 중 2차(4~6개월), 4차(18~24개월), 7차(54~60개월)에 '전자미디어노출'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21: 23), 이러한 영유아건강검진시의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 부모의 수검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시를 이용한 교육의 제공은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부모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채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단,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생후 6개월 미만에서 미디어 기기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는 5% 내외로 다소 적은 편이고 반면 12개월~18개월 사이에 이용을 시작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2차 후 3차에서도 이용 시작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4차와 7차 사이의 간격이 다소 넓은 편으로 1회 정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편, 이러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질 때 국가에서 개발한 영유아 부모용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을 함께 배포하는 것도 가이드라인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모의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Ⅵ-2-2〉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전자미디어 노출'에 대한 건강 교육 및 상담 강화(안)

	제공 회차						
	1차 (생후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54~60개월)	7차 (66~71개월)
변경 전		■		■			■
변경 후		◎	◎	◎	◎		◎

나. 교직원 대상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강화

1) 교직원 대상 보수 교육 강화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응답대상 교사중 70.3%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러한 교육이 미디어 이용과 영유아의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구체적 지침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하였고,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하여 교직원 대상의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다만 응답 대상자 중에서도 약 30%는 이러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으로

응답하여 지속적이며, 더욱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내용으로 교사 대상 교육이 보육·교육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내용으로는 영유아 담당 교사들이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 올바른 지도 방법', '미디어 이용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필수로 포함하고, 이외 보호차원에서 나아가 보육·교육 활동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미디어 콘텐츠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좋은 콘텐츠 식별 방법', '영유아를 위한 연령별 추천콘텐츠' 등의 정보도 교사 교육의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교육·보육 활동에서 미디어를 활용할 때 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정책의 방향에 대한 교육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사 교육에 있어서는 고연령, 고경력 교사를 위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한 교사 대상 조사 결과에서 교사의 연령에 따라 미디어 기기를 교육 및 보육 활동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시각과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고연령·고경력의 교사일수록 디지털 미디어를 교육·보육 활동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연령·고경력 교사들에 대한 교육 방식도 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교육방법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2) 교직원 양성 교육에 미디어 이용 지도 관련 필수이수과목 추가

이미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종사하고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으로 미디어 이용 지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수밖에 없지만 교사 양성단계에서 예비교사의 미디어리터러시를 함양하고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필수이수과목으로 관련 과목을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육관련 교과목 중 총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보건복지부, 2021: 168) 예를 들면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중 '필수교과목'에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추가하거나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과목의 내용에 미디어 이용 지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표 Ⅵ-2-3〉 '미디어 이용 지도'관련 교과목 보육교사 필수교과목 추가(안)

구분		교과목 추가안
교사 인성 영역	필수교과목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교과목	1안) 아동미디어이용지도 추가 2안) 아동안전관리(또는 생활지도) 내용에 '미디어 이용 지도 관련 내용' 포함
	선택교과목	
보육실무영역	필수교과목	

유치원교사의 경우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7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본이수과목(교육부 고시 제2021-31호) 중 '미디어 이용 교육'을 추가하거나, '영유아 발달과 교육' 또는 '유아 건강교육'의 내용에 미디어 이용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다. 휴대성 높은 스마트기기에 대한 보호자용 교육 강화

스마트폰과 게임의 위험성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높은 가운데, 가정에서 영유아는 오히려 태블릿 PC 이용 시의 과의존을 유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태블릿 PC의 가정 내 보유율이 2013년도에 실시된 이정림 외(2013)의 연구 결과 대비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는 아직까지는 TV지만 TV의 영유아 이용률은 2013년도 보다 오히려 하락한 결과를 보였고, 반면에 태블릿 PC를 보유한 가정에서의 영유아 이용률은 2013년 조사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태블릿 PC의 높은 휴대성으로 특히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또한 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행태[73]를 고려시 같은 휴대성 높은 미디어 기기이지만 '스마트폰'에 비해 큰 화면으로 동영상 시청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태블릿 PC는 TV에 비해서는 공간적 제약이 없고 콘텐츠가 비교적 제약되어 있고 연령등급제로 관리되고 있는 일반 TV에 비해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은 경우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에서 영유아가 이용할 경우 더욱 세심한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미디어 기기이다. 현재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과의존 위험이 부모들에게 어

73) 본 보고서의 Ⅲ장 3절을 참조할 것.

느 정도 인식이 된 상황이나 상대적으로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부족한 상황이라 사료된다. 이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과의존 예방 교육'처럼 미디어 기기를 일괄적으로 다루거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스마트폰 과의존 체크리스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용 지침' 등 스마트폰에 한정한 교육과 지침을 제공하기 보다는, 태블릿 PC를 포함한 휴대성 높은 '스마트기기' 이용의 위험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모의 유의점과 지도 지침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라. 미디어 교육 확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부모 대상, 기관의 교사 대상 조사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부모 또는 교사)교육'의 이수 의사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간 미디어 이용 지도 관련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부모들 중 82.0%, 교사들 중(미디어 이용 교육 경험자 포함) 62.5%가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미디어 이용 교육을 받기 원하는 교육 방식으로는 동영상 방식, 실시간 방식을 포함한 온라인 교육의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부모의 경우 75.5%, 교사는 85.8%가 온라인 교육을 오프라인 교육보다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미디어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고 온라인교육에 친밀도도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나 교사가 자신의 미디어리터러시를 함양할 뿐 아니라,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자 할 때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욕구에 맞는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미디어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교육대상의 연령, 특수한 개별적인 요구(발달지연, 장애 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시민의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보육·교육 활동에서의 미디어 이용 지침의 개발·배포

1) 원격 수업 활용에 따른 가정용 미디어 이용 지침 개발·배포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에서 원격수업을 시행한 경우는 30.2%에 달하였는데, 이중 56.1%는 원격수업 이후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수업을 위해 이용하던 미디어 기기에 익숙해지면서 수업 외에 다른 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영유아가 기관에 다닐 때에 비해 가정에서의 미디어 이용 지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원격수업과 더불어 영유아가 이용하는 미디어 기기의 관리 방법과 영유아가 수업 외에 불필요한 미디어 이용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점, 부모의 지도 방법 등을 포함한 '원격 수업 활용에 따른 가정용 미디어 이용 지침'의 개발, 배포가 필요하다. 2020년 유치원의 원격수업 시행을 위해 부모지원 자료가(김은영 외, 2020) 개발되어 누리과정 포털 사이트(www.i-nuri.go.kr)에서 배포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나 영유아 부모가 적극적으로 포털사이트에 접근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원격수업을 시작하는 연령반의 재원아동 가정에 직접 배포하고,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내용에 가정에서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표 Ⅵ-3-1〉 원격 수업 활용에 따른 가정용 미디어 이용 지침(안)

관련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배포처	유치원, 어린이집 (※ 이용가정에 전달)
내용	- 원격수업을 위한 이용 프로그램 설치, 이용법 - 수업용 미디어 기기의 관리 방법 - 원격수업에 따른 가정의 유의사항 - 원격수업에 따른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 지침

2)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용 미디어 이용 지침 개발·배포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담임교사 대상 조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에서는 TV와 PC, 빔프로젝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보유하고 보육·활동에도 상당히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미디어 기기들은 정규보육·교육시간에 가장 많이 활용되며, 특별활동 프로그램이나 특성화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육기관에서 미디어 기기는 영유아들의 등·하원 시간이나 식사 시간 등의 틈새 시간에서 이용되기 보다는 '수업'에서 수업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교사들의 96.3%가 이러한 미디어 기기 및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미디어 기기 및 콘텐츠의 활용도는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미디어 기기 및 콘텐츠를 적절하게 활용하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용 미디어 이용 지침'은 보육·교육 활동에서 활용시 수업의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에서 교육 목적별 적합한 미디어 기기와 활용 방법의 예시를 제공하며, 영유아에게 미디어 이용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경우의 유의점 등 유의사항을 포함한 이용 지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Ⅵ-3-2〉 기관용 보육·교육 활동 미디어 활용 지침(안)

해당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배포처	유치원, 어린이집
내용	- 미디어 기기별 특성과 활용 방법(예시 제공) - 미디어 기기 이용시 유의사항 - 영유아의 미디어 활용 지도 지침

4. 영유아를 위한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의 배포처 확대와 제작·홍보 방식의 다양화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용, 교사용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발한 영유아용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가이드라인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부모 72.6%, 교사 25.6%로 나타나 영유아 부모들의 인지도가 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혀 모르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가이드라인의 존재에 대해 들어보거나 가이드라인을 (책자 등으로) 본 적이 있는 정도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경우가 교사 16.9%이며, 부모는 0.9%로 거의 내용에 대한 인지는 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기에도 미디어에 과의존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제고와 지도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영아용 유아용으로 연령까지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귀중한 정보가 대상자에게 제대로 인지,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 할 수 있다. 교사 설문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95.3%는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지키거나, 항상 가이드라인 대로 지도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활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영유아의 부모 등 보호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배포하고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부모교육, 또는 교사교육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배포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거나 출생신고를 할 경우 등 가능한 빠른 시기에 영아용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도록 보건소·산부인과·소아과 등 부모와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을 주요 배포처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추려 지하철 광고판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가이드라인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자보다는 영상에 익숙한 영유아 부모 세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카드뉴스, 웹툰 등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내원 시 등 전화번호 제공시 모바일로 전송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다.

5. 영유아의 미디어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정책 방안

가. 영유아의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이용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 반영

발달특성상 영유아가 미디어 이용에 자기조절능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미디어의 적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영유아보다는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 교육이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올바른 미디어의 이용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일상화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조사의 결과에서 부모들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있어 '적절한 시간의 양'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특히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따라 영유아가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긍·부정적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 즉, 미디어 기기의 이용이 일상화될 때 '얼마나' 이용하느냐를 넘어서 '무엇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영유아 스스로 콘텐츠의 내용을 선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이 법안은 위원회 심사단계에 있다(박재유, 2021). 이미 영유아기부터 미디어 이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 법안과 같은 맥락에서 3-5세 유아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도 영유아기 부터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이해와 선별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5-1〉 영유아의 미디어의 적정한 이용 능력 함양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안)'

제 13조(교육과정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보호 관련 법령의 영유아 대상 명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1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야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념적으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므로 영유아도 당연히 청소년에 해당되나, 청소년의 연령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보니 이러한 법령들이 영유아를 위한 시책 마련의 근거 법률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청소년'을 유해한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령들에서 대상 연령을 세분화하여 '영유아'를 명시하여 미디어 보호 법령의 주된 대상임을 드러내는 것을 제안한다.

〈표 Ⅵ-6-1〉 영유아의 유해한 미디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법률	개정(안)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청소년·**영유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영유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영유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과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영유아용 콘텐츠의 적합성 제고 방안

가. 연령별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 선별 기준 개발 및 연령별 추천 콘텐츠 목록 제공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부모 조사 결과에서는 부모 중 64.1%가 이용하는 콘텐츠의 연령 적합성 여부를 항상 또는 자주 확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연령별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의 기준을 개발, 배포해 달라'는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조사 결과에서 가정에서 영유아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의 편차는 다소 큰 편이며,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이용 기준 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들이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점은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부모들은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실제 이용하는 TV프로그램의 방송 영상물의 연령 기준이 '전체 연령가'와 '12세 이용가'사이에서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즉, 취학 아동과 구분되는 영유아용 콘텐츠의 선별이 필요하며, 영아와 유아의 구분도 필요하다는 요구를 보이고 있었다. 동영상마다 이러한 연령등급을 표시할 수 없다면, 이용자가 참고하여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의 배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5항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의 분류기준을 세분화하여 취학전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령별 적합한 콘텐츠 선별 기준을 수립해 공표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보육·교육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포하거나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 홍보할 필요도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아동, 특히 영유아의 건전한 미디어 이용을 돕기 위해 이러한 연령 기준에 의해 유익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연령별 추천콘텐츠를 선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발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가이드라인과 함께 추천콘텐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나. 청소년 보호법의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와 유통 규제 영유아에 확대 적용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영유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 기기는 TV이지만 일반 TV외에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TV의 가정 내 보급률 증가에 따라 영유아가 스마트 TV를 이용하는 비율이 50.2%에 달하였고, 이 경우 영유아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검색해서 이용하는 등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면담 사례 중에서도 영유아가 TV를 통해 *투브 동영상을 시청한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발견되었다.

이처럼, 영유아들이 미디어를 이용할 때 교육목적의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동영상 시청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였는데, 영유아들이 동영상을 찾아 시청하는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의 경우 개인들이 올리는 각종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기 때문에 콘텐츠의 연령 적합성이라든가 영유아에게 유해하지 않은 내용인지 등을 판단하여 시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방송법에 의한 방송심의를 받아 내용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TV를 주로 이용할 때에 비해 점점 영유아를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와 유통 규제 등을 영유아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되는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74].

'매체물'에는 게임, 음반, 공연,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 등 총 11가지의 항목이 포함되며[75], 이중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동영상과 관련된 영화나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영상정보 등에 관해 관련 기관의 심의에 의해 '영유아유해매체물' 여부를 결정 또는 확인하여, 해당 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통되는 매체물에 '영유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74)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7761호] 제2조 3.
75)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7761호] 제2조 2.

다. 영유아 대상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의 자체 동영상 심의 기구 설치 의무화

청소년보호법의 유해매체물의 심의와 유통 규제를 영유아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하여도 청소년보호법에서 심의하는 영상매체물의 대상은 사업자가 제작한 것에 한정되므로, 영유아가 즐겨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개인이 올리는 동영상에 대한 규제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도 불법적이거나 유해 콘텐츠 대상외에는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의 적합성'이 확보된 콘텐츠만 유통되도록 법적인 규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적 규제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의 일환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는 업로드되는 동영상의 연령적합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심의기구를 갖추어 심의하고, 연령적합성이 확인된 동영상만 최종 업로드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소아과학회(APP)에서 관련업계 관계자에 대해 제안하는 권고 사항[76]을 참고하여,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동영상 콘텐츠 여부의 심의기구에는 아동 발달 및 심리, 영유아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제안한다.

라. 아동용 앱, 아동용 채널에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광고에 한정한 게시 및 자동추천 알고리즘 배제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는 영유아 부모, 교사 등에 대한 교육 확대,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위한 지침에 대한 홍보 강화,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연령별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 기준 개발·배포 등 '이용자'의 측면에서의 적정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뿐 아니라, 영유아가 이용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영유아용 앱이나 채널을 운영하는 '공급자'의 측면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정책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교사 대상의 조사에서 모두 '아동용 앱, 아동용 채널에서 광고 및 알고리즘

76) 본고의 Ⅱ장 3절을 참조할 것.

생성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 이상 응답되어 이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었다.

면담 결과에서도 아동용 채널을 이용할 때도 성인용 게임 광고가 떠서 당황하였던 경험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용이 명백한 앱이나 채널의 경우, 영리성 광고를 금지하거나 광고에도 연령 등급을 명확히 하여 아동용 앱이나 채널에는 아동 연령에 적합한 광고만 허용되도록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아동에게 미디어를 이용하게 할 때 많은 부모들은 콘텐츠를 선별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최초의 선별된 콘텐츠는 문제가 없었으나 키워드를 통해 자동으로 추천되는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된 영상들이 아동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TV처럼 콘텐츠가 심의를 받는 경우가 아닌, 무제한적으로 개인들이 올리는 영상이 공유되는 채널에 대해서는 키워드에 의해 관련 동영상을 자동 추천하는 알고리즘의 생성을 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8. 미디어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주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 다자녀 가정,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등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적절한 이용 제한 등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나 업무 부담, 다자녀로 인한 양육부담과 관심의 분산, 부모의 인식 부족 등에 의해 해당 계층의 영유아는 생애초기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게 되며, 이는 영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미디어 이용 습관과 이와 연관된 생활습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성이 있다 하겠다. 이에 이처럼 미디어 이용 환경이 취약할 수 있는 계층에 주목하여 찾아가는 부모교육, 적절한 미디어 제한 기술의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혜규·강신욱·박세경·정경희·권소일·김용득·유태균·주무현·최영준·함영진(2015).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희숙·권민균(2008). 유아의 가정에서 미디어 경험에 따른 읽기능력 및 어휘력 차이. 과학논집, 34, 129-142.

게임문화재단(2020). 알쓸게상: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게임 상식.

계보경·서희전·이승훈·이동국·이효정·손정은·황은진(2018). 가상현실(VR) 기술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4a).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건강하게 활용하기 가이드북: 학생용.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4b).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건강하게 활용하기 가이드북: 교사용.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4c).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건강하게 활용하기 가이드북: 학부모용.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a). 디지털 교과서 건강하게 활용하기: 학생용.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b). 디지털 교과서 건강하게 활용하기: 교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a).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영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c).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유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d).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영·유아 보호자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20).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2017a).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가이드 활용매뉴얼: 영유아부터 성인·고령층까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바른 사용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2017b).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스마트폰 쉼(REST)하세요): 영유아 보호자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2017c).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스마트폰 쉼(REST)하세요): 아동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2017d).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스마트폰 쉼(REST)하세요): 청소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2017e).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스마트폰 쉼(REST)하세요): 아동·청소년 보호자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2017f).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스마트폰 쉼(REST)하세요): 성인·고령층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a).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영아 보호자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b).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유아 보호자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c).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아동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d).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청소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e).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아동청소년 보호자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f).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성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g).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고령층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h).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안내서: 영아 보호자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i).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안내서: 유아 보호자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j).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안내서: 아동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k).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안내서: 청소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l).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안내서: 아동청소년 보호자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m).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안내서: 성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n).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안내서: 고령층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o).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아동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p).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청소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q).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성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r).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아동청소년 보호자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2019s).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고령층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a).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영아 보호자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b).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유아 보호자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c).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아동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d).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청소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e). 스마트폰 과

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아동청소년 보호자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f).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성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g).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2p): 고령층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h).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4p): 영아 보호자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i).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4p): 유아 보호자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j).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4p): 아동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k).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4p): 청소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l).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4p): 아동청소년 보호자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m).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4p): 성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스마트쉼센터(2021n).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4p): 고령층용.

관계부처 합동(2013). 생애주기별 인터넷중독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안).

관계부처 합동(2016). 건강한 스마트사회 구현을 위한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안)[2016-2018].

관계부처 합동(2018).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안) [2019-2021].

권장희(2012). 스마트 기기 등 영상미디어가 영유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33-55.

김보라·신혜원(2019).유아의 미디어 이용시간 실태와 자기조절력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28(36), 567-581.

김선영(1994). 유치원 학습활동에서의 컴퓨터 활용의 발달적 적합성에 관한 고찰.

교육학연구, 32(5). 151-166.

김영란·배성문·박경숙 (2016). 어머니가 인식하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3), 337-374.

김윤경·김경미(2020).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감각처리능력의 비교.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18(1), 34-43.

김은영·강은진·권미경·박원순·김혜진·정유나·이미화·김하진·양소헌(2020). 유아 원격교육을 위한 부모 지원자료. 교육부.

김은지·전귀연(2020).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이용이 인지와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미디어 중독 경향성의 매개효과와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이용지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1), 13-29.

김종민·문정주·권미량(2014). 유아기 스마트기기 중독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3(1), 199-219.

나용선(2013).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어린이집 이용 유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3), 31-53.

대한신경정신의학화·한국중독정신의학화·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2015). 안전하고 건강한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권고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독특임위원회.

대한안과학회(2015). VDT관련 안과질환 예방수칙.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3a). 부모님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부모용).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3b).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초등 3학년~6학년용).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3c).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중·고등학생용).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a). 부모님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부모용).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b).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초등 3학년~6학년용).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c).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중·고등학생용).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5a). 부모님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부모용).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5b).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초등 3학년~6학년용).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5c). 스마트폰 사용약속 On Off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중·고등학생용).

박재유(20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교육위원회

방효국·김낙흥 (2013). 만 5세 유아의 스마트폰 게임 사용실태 및 게임 과몰입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6), 43-64.

보건복지부(2021). 2021년 건강검진사업안내.

배상률·이창호·이정림(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배소영·정연구(2015). 미디어 이용은 영유아 언어발달을 촉진하는가? 텔레비전, 스마트폰, 책 읽어주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6), 67-93.

성욱준(2017). 유아동의 인터넷중독 영향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7), 461-472.

스마트쉼센터(2019).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매뉴얼 구성.

여성가족부(2011a). 유아를 위한 미디어 교육(부모용): 건강한 미디어 사용으로 가족사랑을 키워요.

여성가족부(2011b). 유아를 위한 미디어 교육(교사용): 미디어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요.

연세대학교·바른ICT연구소·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실(2020a).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바른 사용 가이드라인: 36개월 미만 영아용.

연세대학교·바른ICT연구소·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실(2020b).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바른 사용 가이드라인: 만 3세 이상 유아용.

윤보람·이영신(2020). 어머니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40(6), 105-130.

이경숙·신의진·전연진·박진아·정유경(2005). 과도한 영상물 노출 양육이 영유아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임상군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75-103.

이민주·이영신·유정은(2015). 유아의 미디어 이용시간 및 성별에 따른 언어 발달 차이. 열린부모교육연구, 7(3), 37-52.

이상희·오새니(2019). 유아기 미디어 이용이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8(2), 89-108.

이상희·이정미(2019).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매개효과 검증, 어린이미디어연구,18(3), 135-160.

이수기·이현경·홍혜경(2014).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현황과 게임 과몰입 경향성. 유아교육연구, 34(3), 239-262.

이영석(1996). 멀티미디어와 아동 발달.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89-125.

이영신·이지현·김지연(2018). 열린부모교육연구, 10(1), 95-114.

이윤경·신윤미·최지은·유희정·박은진 (2018). 영유아 시기의 미디어 기기 노출이 이후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코호트 연구.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3(3), 549–559.

이정림·도남희·오유정(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자(2020).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24(3), 15-27.

이진화·조인경(2018). 유아 미디어이용 정도, 실내·외 놀이가 문제행동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9(3),471-485.

이해국·신윤미(2019). 유아동의 디지털미디어 노출 및 과사용 관련 건강문제에 대한 일차의료의 중재. 의료정책포럼, 17(1), 70-74.

장지우·김선희(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유아의 자기통제력 및 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정도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

회지, 41(1), 61-74.

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a).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즐겨라(중고등학교 학생용).

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b).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키워라(교사용).

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c).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통하라(학부모용).

조윤주(2016). 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또래상호작요에 미치는 영향에서 언어발달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7(5), 53-64.

지옥정·서희전·계보경·고영미·권이정·김미애·김혜정·임수진(2018). 유아교육과 미디어 활용. 창지사

천희영(2015). 만4세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정도와 발달특성, 생활시간 간의 관계 및 이용 정도 예측변인.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153-175.

최대훈(2020). 3~5세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실태와 부모의 인식.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25(12), 293-298.

최진응(2020).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 NARS 현안분석 제175호. 국회입법조사처.

최재정·유미숙(2020).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관한 잠재프로파일링과 영향요인. 놀이치료연구, 24(2), 1-17.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홍광표·조준오(2015). 유아 미디어 및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5(4), 469-491.

행정안전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a).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즐겨라(초등학생용)

행정안전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b).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누려라(중고등학생용)

행정안전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c).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키워라(교사용)

행정안전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d).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통하라

(학부모용)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09a).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즐겨라 (초등학생용)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09b).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누려라 (중고등학생용)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09c).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키워라 (교사용)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09d).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통하라 (학부모용)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a).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 유아 학부모용.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b).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 청소년용.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c).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 청소년학부모용.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d).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 성인용.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e).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 임산부용.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f).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 일반용.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2016). Media and Young Minds.

BIK (2020). The Third Better Internet for Kids Policy Map: Implementing the European Strategy for a Better Internet for Children in European Member States, 10.

Buckingham, D. (2004). 미디어 교육: 학습, 리터러시, 그리고 현대문화(Media education: Literacy, learning and contemporary Culture). (기선정·김아미 역). 서울: 제이앤북. (원저 2003 출판)

Clement, D. M. (1987, November). Computers and young children: A review of research. *Young Children*, 34-44.

Clement, D. M. (1991). Current technology and the early childhood curriculum. In B. Spodeck & O. N. Saracho(Eds.)., *Issues in early childhood curriculum*. N.Y.: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06-131.

Clement, D. M. & Nastasi, B. K. (1993). Electronic media and early childhoodeducation. In B. Spodek(Ed.), *Handbook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Y.: Macmillan Publishers Company, 251-278.

Clement, D. M. & Nastasi, B. K., & Swaminathan, S. (1993, Jan). Young children and computers : Crossroads and directions from research. *Young Children*, *48*(2), 56-64.

Davidson, J. I. (1989). Children and computers together in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N.Y.: Delmar Publishers, Inc.

Hobbs, R. (2004). A review of school-based initiatives in media literacy educ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8*(1), 42-59.

Hoff, E. (2005). How social contexts support and shape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al Review*, *26*(1). 55-88.

Kaden, M. (1990). Issues on computer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C. Seefeldt(Ed.), *Continuity issu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Columbus: Merrill Publishers Company.

Lieberman, D. (1985). Research on children and microcomputers: A review of utilization and effects studies. In M. Chen & W. Paisley (Eds.), *Children and microcomputers: Research on the newest medium*. Beverly Hills : Sage, 95-183.

Linebarger, D. L., & Vaala, S. E. (2010). Screen media and language development in infants and toddlers: An ecologic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30*(2), 176-202.

Potter, W. J. (2011). Media literacy. *The Grade Teacher*, *40*, 26-27.

Swigger. K. M. & Swigger, B. K. (1984). Social Patterns and computer use among preschool children. *AEAS Journal*, *17*, 35-41.

WHO (2019). Guidelines on physical activity, sedentary behaviour and sleep for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Licence: CC BY-NC-SA 3.0 IGO.

【온라인 자료】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2275&lsId=&efYd=201808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2021. 6. 8. 인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연혁. (https://www.law.go.kr/IsJoHstProc.do?Isld=000028&IsiSeq=212081&joSeq=53258439&chrClsCd=010202&mode=100&IsiSeqs=140203,202275, 2021. 6. 16 인출).

규제등록카드. (https://www.better.go.kr/ba.rgst.RegulCardSIPopup.laf?smoda=vies&s_ref-no=0000086728&s_ref_renew_no=01, 2021. 6. 16. 인출).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과잉금지 원칙.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114&cid=43667&categoryId=43667, 2021. 6. 7. 인출).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온택트. (https://terms.naver.com/print.nhn?docId=5944172&cid=43667&categoryId=43667, 2021. 3. 17. 인출).

디지털 시민(2020. 8. 6.). 학교 휴대전화 규제, 무엇이 정답인가. (https://digital-citizen.tistory.com/47#_ftn8, 2021. 6. 10. 인출).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VDT 증후군,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2566, 2021. 6. 14 인출).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실시 안내. (https://childcare.gangbuk.go.kr:60447/index.php?mm=oxbbs&mt=&mp=6_1&oxid=1&cpage=1&key=TITLE_CONTENT&val=%BD%BA%B8%B6%C6%AE%C6%F9%20%B0%FA%C0%C7%C1%B8(%C1%DF%B5%B6)%20%BF%B9%B9%E6%B1%B3%C0%B0&BID=5901&cmd=view, 2021. 6. 11. 인출).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목적. (https://kcmf.or.kr/cms/board/content.php?menuIdx=98, 2021. 6. 16. 인출).

여성가족부. 주제별 정책자료.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902RbfDGyU7-XJcKKUo37ygN.mogef10?mid=plc502&bbtSn=629177, 2021. 6. 14 인출).

유니세프 (2021. 5. 4.)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톺아보기, (https://www.unicef.or.kr/news/story_view.asp?idx=136956, 2021. 6. 10. 인출).

이지민(2019.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U9B0Y2X1X2J1X4B3Q6Z1Z6R4S5E6, 2021. 5. 3. 인출).

중독포럼(2016). 안전하고 건강한 스마트디지털미디어 이용에 대한 권고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독특임위원회. (http://www.addoctopmfr.org/pdf/dm.pdf).

표준국어대사전(2018).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Australia Attornet-General's Department (2021). Landmark privacy reforms to better protect Austalians online, (https://ministers.ag.gov.au/media-centre/landmark-privacy-reforms-better-protect-australians-online-25-10-2021#:~:text=Attorney%2DGeneral%20Michaelia%20Cash%20today,online%20platforms%20operating%20in%20Australia. 2021. 12. 10. 인출).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Victoria, Australia (2020. 6. 15.). Mobile Phones — Student Use. (https://www2.education.vic.gov.au/pal/students-using-mobile-phones/policy?Redirect=1, 2021. 7. 7. 인출).

Department of Education, NSW, Australia (2020. 6. 15.). Student Use of Digital Devices and Online Services Policy. (https://education.nsw.gov.au/content/dam/main-education/en/home/about-us/strategies-and-reports/our-reports-and-reviews/review-into-the-non-educational-use-of-mobile-devices-in-nsw-schools/Policy.pdf, 2021. 7. 7. 인출).

Dore, R. A., Logan, J., Lin, T., Purtell, K. M., & Justice, L. (2020). Characterisics of Children's Media Use and Gains in Language and Literacy Skills. Frontiers in Psychology: Developmental Psychology, 11, 2224. (https://doi.org/10.3389/fpsyg.2020.02224, 2021. 3. 16. 인출)

e-나라지표,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61, 2021. 10. 20 인출)

Iubenda (2021). Legal Requirements for Websites and Apps Used by Children, (https://www.iubenda.com/en/help/5717-legal-requireme

nts-websites-apps-children, 2021, 12, 10, 인출),

Laws & Regulations Database of The Republic of China (2021).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s Welfare and Rights Act,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D0050001, 2021, 12, 10, 인출).

Le Comparateur Assurance (2019. 9. 13.). La plupart des Français sont favorables à l'interdiction du téléphone portable à l'école. https://www.lecomparateurassurance.com/103390-actualites-autres-assurances/plupart-francais-sont-favorables-interdiction-telephone-portable-ecole (2021. 6. 10. 인출).

Lozano Smith Client News Brief (2019. 10. 1). Legislature Addresses Student Use Of Smartphones At School. (https://www.lozanosmith.com/news-clientnewsbriefdetail.php?news_id=2913, 2021. 6. 28. 인출).

MediaSmarts[77], History. (https://mediasmarts.ca/about-us/history, 2021. 6. 11. 인출).

MediaSmarts. Our Mission & Beliefs. (https://mediasmarts.ca/about-us/our-mission-beliefs, 2021. 6. 11. 인출).

MediaSmarts. Sponsors. (https://mediasmarts.ca/about-us/sponsors, 2021. 6. 11. 인출).

MediaSmarts. TELUS. (https://mediasmarts.ca/about-us/sponsors/telus, 2021. 6. 11. 인출).

MediaSmarts. What we do. (https://mediasmarts.ca/about-us/what-we-do, 2021. 6. 11. 인출).

MediaSmarts & TELUS (2018). Helping our kids navigate our digital world: A TELUS Wise parent's guide. (https://mediasmarts.ca/sites/default/files/guides/guide_helping_kids_navigate_digital_world.pdf, 2021. 5. 30. 인출).

Ministere De L'Education (2020. 3.). Interdiction du téléphone portable dans les écoles et les collèges. (https://www.education.gouv.fr/interdiction-du-telephone-portable-dans-les-ecoles-et-les-college

77) Media Smarts: Canada's Centre for Digital and Media Literacy

s-7334, 2021. 6. 10. 인출).

PR용어사전. 디지털미디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11457&cid=42266&categoryId=67997, 2021. 7. 6. 인출).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1). General comment No. 25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GCChildrensRightsRelationDigitalEnvironment.aspx 에서 2021. 6. 10. 인출).

ZERO to THREE. Our Mission and Vision. (https://www.zerotothree.org/about/our-mission-and-vision, 2021. 6. 11. 인출)

ZERO to THREE (2009). Television and the under 3Crowd: Making Good Decisions About " Screen Time" for Young Children. (https://www.zerotothree.org/resources/149-television-and-the-under-3-crowd, 2021. 6. 11. 인출)

【기사】

경향신문(2018. 8. 1). 프랑스 초·중등학교서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1808011354001, 2021. 6. 10. 인출).

동아사이언스(2019. 4. 25). 한국 어린이 하루 1시간18분 스마트폰 본다는데… WHO "1시간 이상 보면 안돼" 경고.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28308, 2021. 5. 27. 인출).

소비자를 위한 신문(2020. 9. 24). 스마트폰 중독 아이들, 예방교육은 유명무실. (http://www.consumertimes.kr/sub_read.html?uid=40007&section=sc4, 2021. 5. 27. 인출).

아이뉴스24(2018. 12. 17.). '영유아셧다운제' 법제화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http://inews24.com/vie2/1146110, 2021. 3. 17 인출).

인공지능신문(2020. 11. 6). SKT-바른ICT연구소, '빠른' 보다 '바른' 디지털 미디어 사용 가이드 라인 제시.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8293, 2021. 6. 12. 인출).

BBC News (2019. 2. 2.). Ban phones in schools, says minister Nick Gibb.

(https://www.bbc.com/news/uk-politics-47095053, (2021. 6. 10. 인출).

BBC News (2019. 3. 12). Canada province to ban mobile phones in pu blic classrooms.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4 7547135, 2021. 6. 10. 인출).

BBC News (2021. 4. 7). Mobile phones should be banned in schools - Gavin Williamson. (https://www.bbc.com/news/technology-5666 3010, 2021. 6. 10. 인출).

Sajid, I. (2021. 10. 25). Australia plans tough law for social media platf orm to protect children: Under new law, social media platforms will seek parental consent for users younger than 16 years. Ana dolu Agency, (https://www.aa.com.tr/en/world/australia-plans-t ough-law-for-social-media-platform-to-protect-children/240227 2, 2021. 12. 10. 인출).

Le News (2016. 9. 16.). Some Swiss schools ban mobile phones in the playground. (https://lenews.ch/2016/09/16/some-swiss-schools-ban-mobile-phones-in-the-playground/, 2021. 7. 7. 인출).

Swissinfo (2020. 1. 30). Débat idéologique sur l'interdiction du smartph one à l'école. (https://www.swissinfo.ch/fre/politique/%C3%A9du cation-et-nouvelles-technologies_d%C3%A9bat-id%C3%A9ologiq ue-sur-l-interdiction-du-smartphone-%C3%A0-l-%C3%A9cole/45 525522, 2021. 6. 10. 인출).

Swissinfo (2020. 4. 2.). School children adapt to distance learning. (https://www.swissinfo.ch/eng/homeschool_school-children-ad apt-to-distance-learning/45662864, 2021. 7. 7. 인출).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6. 5. 13.). 정부, 건강한 스마트 사회 구현을 위한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3차 종합계획 발표-2015 인터넷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1. 24.). 영유아, 노령층 스마트폰 과의존에 민관협력 대응 강화-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4. 11.).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이용자 보호 강화' 일환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범부처 대응체계 운영 계획 및 예방·해소 서비스 통합안내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12. 3. 21.). 질병관리본부-대한안과학회, '눈 건강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 발표.

【기타 자료】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부 최종숙 부장 서면자문(2020. 7. 8.)자료.

【관련 법령】

「교육부 고시 제2021-31호」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舊 국가정보화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Abstract

A Study on Policy Measures to Optimize the Media Use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JeongWon Lee, Wonsoon Park, Jiwon Eom

As the age at which young children start to use media has decreased and media use has become more common, concerns are growing about the negative impact of media use on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Meanwhile, media devices have become increasingly ubiquious, with uses extending from remote learning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hood instituti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o engagement with varied educatioinal content through media from infancy. These trends have led to a growing need for policies and measures to support young children in using media appropriately.

This study is based on the view that the use of media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requires special attention from adults and an appropriate level of guidance.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proposes policies to enable children at home and at childc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o use media at an appropriate level for their development.

The study's methods included a fact-finding survey, Focus group interview, and policy seminar.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508 homeroom teachers from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nd 1,500 parents raising children aged 0-6. The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media use, guidance status, and policy needs in terms of childcare activiti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ome ownership rate of smartphones (99.6%), TVs (94.3%), PCs (90.7%), and tablet PCs (74.4%) was found to be high. A high

ownership rate of artificially intelligent speakers(46.9%) and game consoles(35.3%) was also found. Moreover, qualitative differences in media environments were detected. Unlike in the past, when young children's media use was solely focused on watching TV, it was found that especially in the case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caution is needed in the use of tablet PCs,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in household penetration. This is a result of rising concerns in studies of media use behavior focused on video watching that media dependence is highly likely to occur when infants or toddlers use a tablet PC with a similar portability to a smartphone but with a larger scree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media use habits of adults who should instruct children to use media at home were generally undesirable. Therefore, in order to form the proper media use habit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it seems that the correct media use of adults is necessary. Parents of infants and toddlers showed high rates of media use while eating, before going to bed, while driving, and while lying down, and used multiple media at the same time, indicating that adult media use habits are generally undesirabl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smartphones or tablet PCs by infants and young children was often used as a means to secure time and convenience for adults. In addition,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young children were asked to use the media as a reward for doing something they were required to do(56.2%).

Fourth, the management of media use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at home was found to differ according to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household employment status, and child birth order. Infants and young children's media use was found to be more strictly controlled if their parents had a high educational background or were single-earners, or if they were the first child. This means that children of dual-income families or children of poorly educated parents are at high risk of being placed in a vulnerable media environment.

Fifth, parents of infants and toddl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edia use for young children and tried to instil good media use habits

in their children through various educational methods. However, parents of young children had rarely received any education on how to teach their children to use media properly, and the demand for such education was high.

Sixth, 66.8% of infants and toddlers had increased their use of media devices since the COVID-19 pandemic had begun. This increase seemed to stem from increased play time and staving off boredom from staying at home due to school closures during the COVID-19 crisis. In addition, it seemed that the time for young children to use media had also increase, with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conducting classes online during the pandemic.

Seventh,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were found to be equipped with a wide variety of media devices and used them for classroom education and childcare activities. The media was found to be used more actively as the children's age increased, and the media use in regular classes was high.

Eighth, among the types of media guidance provided by teachers when using media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Limiting the media use time of young children within the recommended time for each age" was found to be the most frequent, with 73.7% of respondents answering "always" to that item. The teaching methods most frequently used by teachers were "use with teachers"(58.4%) and "talk about content with teachers"(47.1%).

Ninth, teachers' awareness of the guidelines for guiding the use of media for young children was found to be very low. However, it was determined that if teachers who knew the guidelines followed them.

Tenth, 70.3% of kindergarten and daycare teachers had experience in guiding young children to use media, and the teachers responded that education that they had received toward this purpose was helpful in guiding young children to use media.

Eleventh, most teachers (96.3%) respondent that activities using media devices and contents were helpful for smooth education and childcare activities. Teachers also emphasized the tablet PC as a media device

that was necessary for children to prepare for the “future environment”.

Twelfth, in terms of policies to optimize the use of media by young children, both parents and teachers answered that the “expansion of parental education to guide young children to use media properly” was the most necessary. Other policies that were highly rated by respondents included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s for the use of media for young children”, “preparing measures to protect infants when creating content”,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age-specific content standards that users can refer to”, “the restriction of advertisement and algorithm creation in children’s apps and children’s channels”. In contrast, “preparing legal regulations for young children’s media use (restrictions on usage time by age, sanctions for violations, etc.)” received a relatively low score by participant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offers two policy directions for appropriate children’s media use. First, policy must resppond to the changing media environment for young children. Second, a media environment suitable for young children needs to be created.

To this end, it is advised that media use guidance education be mandatory for parent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using daycare faciliti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at it be reinforced during health check-ups. Other suggested policies include continuing education for faculty, media use guidance as a required subject in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the development of media use guidelines for institutional and home childcare and educational activities, young children’s media literacy reflecting curricular content, measures to improve the suitability of content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support measures for vulnerable people in media environments.

Keyword: infants and young children, media use, childcare and educational activities, media use guidance

부록

부록 1.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지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

–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를 위한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21년도 기본과제인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영유아들의 미디어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영유아들의 적정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구와 부모, 자녀 특성에 관한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SQ2. 귀하의 출생년도를 기입해주세요.

( ) 년 **[대상자: 20대~40대]**

SQ3. 귀하의 혼인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① 미혼(설문 중단) ② 기혼 ③ 기타

SQ4.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명 수를 기입해 주세요.
만약 자녀가 없으시다면 0을 기입하여 주세요.

( ) 명 **[0~5명] [0명 설문 중단]**

SQ5. 귀하의 자녀의 나이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연령대의 자녀 명 수만 기입해 주시고, 없는 연령대는 기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 0세~만 6세(취학 전 영유아)	_____명 **[1 이상 대상자]**
만 7세~만 12세(초등학생 자녀)	_____명
만 13세~만 15세(중학생 자녀)	_____명
만 16세~만 18세(고등학생 자녀)	_____명
만 19세 이상(대학생 이상 성인 자녀)	_____명
합 계	자동합계 _____명 **[선문 4와 같아야 함]**

SQ6.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지도 2개 삽입]**

가구와 부모, 자녀 특성에 관한 질문

문1. 귀댁의 영유아 자녀 연령을 기입해 주세요. 조사일 기준으로 실제 만 연령을 기입해 주십시오.

[PROG: SQ5의 자녀수만큼 제시, 자녀1이 제일 나이 많은 순]

[PROG: Range: 0-6]

영유아 자녀1	만 ( )세
영유아 자녀2	만 ( )세
영유아 자녀3	만 ( )세
영유아 자녀4	만 ( )세

문2. 현재 귀댁의 가족 구성을 응답해주십시오.

① 부모+자녀
② 한부모+자녀
③ 조부모+부모+자녀
④ 조부모+한부모+자녀
⑤ 조부모+자녀
⑥ 친인척+자녀
⑦ 기타 ( )

문3.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응답해주십시오.

① 150만원 미만
②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④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⑥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⑦ 400만원 이상 ~ 450만원 미만
⑧ 45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⑨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⑩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⑪ 700만원 이상

문4. 귀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5. 귀댁의 응답대상 자녀를 가정에서 낮시간 동안 가장 주되게 돌보는 분은 누구입니까?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조부모
④ 기타 친인척
⑤ 지인, 이웃
⑥ 육아도우미
⑦ 기타

※ 만 0~6세에 해당하는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영유아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막내 자녀 기준)

문6~7. 귀 댁의 본인과 배우자의 연령 등에 관해 응답해주십시오.

[prog: 대상자 나이는 오토코딩 가능]

[prog: 배우자의 나이 19세 이상]

구분	문6. 아버지	문7. 어머니
1) 연령	만 ( )세	만 ( )세
2) 최종학력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전문대(2~3년제)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이상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전문대(2~3년제)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이상
3) 취업여부	① 취업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미취업	① 취업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미취업
4) 근로시간	주당 평균 ( ) 시간	주당 평균 ( ) 시간

※ 근로시간에는 가사 노동 등에 소요한 시간을 제외하고, 일자리에서의 노동시간만을 응답하며 (기존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입), 야근, 휴일 노동 등 초과 노동시간도 합산하여 응답합니다.

문 8. 귀댁의 영유아 부모님이 영유아와 하루 중 함께 하는 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 하루 중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집에 머무르는 동안 자녀를 케어하거나(먹이기, 입히기, 목욕시키기, 가르치기) 놀이하는 시간에 한해 응답해 주십시오. 잠자는 시간은 제외합니다.

(예 1: 아버지가 주중에 영유아와 함께 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40분일 경우 (0)시간 (40)분으로 기입/ 예 2: 하루 평균 1시간인 경우 (1)시간 (0) 분으로 기입)

[prog: 시간 최대 18]

	아버지	어머니
1) 주중	( )시간( )분	( )시간( )분
2) 주말	( )시간( )분	( )시간( )분

다음은 귀댁의 영유아 중 응답대상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만 0~6세에 해당하는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영유아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막내 자녀 기준)

문9. 응답대상 자녀의 출생연월을 응답해주십시오.

[PROG: 문1의 영유아 막내 나이의 출생연도를 오토코딩]

(　　)년 (　　)월

문10. 응답대상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아　　② 여아

문11. 응답대상 자녀의 출생순위는 무엇입니까?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이상

문12. 응답대상 자녀는 현재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용한다면 어떤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예: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놀이학원, 선교원, 유아스포츠단 등)
④ 미이용(☞ 문 13으로)

문12-1. 응답 대상 자녀는 하루에 얼마나 기관을 이용합니까?

① 5시간 미만
② 5~8시간 미만
③ 8시간 이상

문12-2. 응답 대상 자녀는 생후 몇 개월 때 처음으로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까?(현 기관이 아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처음으로 이용한 시점)

[prog:range 1~83]

생후 (　　)개월 때 부터

미디어 보유 및 이용 현황

문13. 귀댁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답해주세요.(중복응답)

13-1.영유아의 부모	13-2.영유아 자녀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문 13-3으로) ※ 부모님이 이용하던 공기계 포함 ② 없음(문 13-4로)

문13-3. (문13-2의 1번 응답자만) 응답 대상 자녀는 언제부터 본인의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만(　　)세　　(☞ 문 14로)

문13-4. (문13-2의 2번 응답자만) 자녀에게 향후 개인용 스마트폰을 사주실(부모님이 이용하던 공기계를 주는 것 포함) 생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언제 사주실 계획입니까?

① 계획 없음 (☞ 문 14로)
② 계획 있음 (사주실 계획이라면 만_____세)　(☞ 문 14로)) **[Q9의 영유아 나이보다 같거나 크게]**

문14. 귀댁에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의 종류와 해당 자녀의 이용 여부를 응답해주십시오.

미디어 유형	문14-1. 보유여부	문14-2. 가족원 중 주양육자의 1일 평균 이용시간(주중·주말을 평균하여 응답)	문14-3. 자녀 이용여부
1) 스마트폰		문 13-1) 또는 문 13-2)에서 ① 응답자만 ① 5시간 이상 ② 3~4시간 ③ 2~3시간 ④ 1~2시간 ⑤ 1시간 미만 ⑥ 거의 이용하지 않음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2) TV	① 보유함 ② 보유하지 않음 ☞ 3)으로	① 5시간 이상 ② 3~4시간 ③ 2~3시간 ④ 1~2시간 ⑤ 1시간 미만 ⑥ 거의 이용하지 않음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미디어 유형	문14-1. 보유여부	문14-2. 가족원 중 주양육자의 1일 평균 이용시간(주중·주말을 평균하여 응답)	문14-3. 자녀 이용여부
☞ 문 14-2)-1 에 ① 응답자만) 2-1) 인터넷 기능이 있는 스마트 TV (애플TV, 크롬박스, 미박스, 딜라이브, 등 셋톱박스나 컴퓨터를 연결한 경우 포함)	① 보유함 ② 보유하지 않음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2-2) 케이블 TV/ IP TV/ 위성 TV 등 지상파 이외의 유료 TV 사용	① 보유함 ② 보유하지 않음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3) 개인용 컴퓨터 (데스크톱 PC, 노트북)	① 보유함 ② 보유하지 않음	① 5시간 이상 ② 3~4시간 ③ 2~3시간 ④ 1~2시간 ⑤ 1시간 미만 ⑥ 거의 이용하지 않음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4) 태블릿 PC (갤럭시탭, 윈도우 탭, 아이패드 등) ※ 교육용 단말기로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보유함 ② 보유하지 않음	① 5시간 이상 ② 3~4시간 ③ 2~3시간 ④ 1~2시간 ⑤ 1시간 미만 ⑥ 거의 이용하지 않음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5) 게임 콘솔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위(Wii),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① 보유함 ② 보유하지 않음	① 5시간 이상 ② 3~4시간 ③ 2~3시간 ④ 1~2시간 ⑤ 1시간 미만 ⑥ 거의 이용하지 않음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5) 인공지능(AI) 스피커 (클로바, 미니씨(c), 누구(NUGU), 지니(Genie) 등)	① 보유함 ② 보유하지 않음	① 5시간 이상 ② 3~4시간 ③ 2~3시간 ④ 1~2시간 ⑤ 1시간 미만 ⑥ 거의 이용하지 않음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6) 가상현실(VR) 기기 (오큘러스, HTC 바이브, 기어 VR 등)	① 보유함 ② 보유하지 않음	① 5시간 이상 ② 3~4시간 ③ 2~3시간 ④ 1~2시간 ⑤ 1시간 미만 ⑥ 거의 이용하지 않음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7) 전자책 단말기 (교보 sam, 아마존 킨들,	① 보유함 ② 보유하지 않음	① 5시간 이상 ② 3~4시간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미디어 유형	문14-1. 보유여부	문14-2. 가족원 중 주양육자의 1일 평균 이용시간(주중·주말을 평균하여 응답)	문14-3. 자녀 이용여부
리디페이퍼, 오닉스, 등)		③ 2~3시간 ④ 1~2시간 ⑤ 1시간 미만 ⑥ 거의 이용하지 않음	
8) 교육용 단말기 (씽크*, 구*, 밀*T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 학습을 위한 탭 활용)	① 보유함 ② 보유하지 않음	① 5시간 이상 ② 3~4시간 ③ 2~3시간 ④ 1~2시간 ⑤ 1시간 미만 ⑥ 거의 이용하지 않음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문15. 다음은 귀댁의 응답대상 영유아와 함께 거주하거나 영유아를 돌보는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해당 여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① 전혀 안함	② 거의 안하는 편임	③ 종종 하는 편임	④ 매번 함
1) 식사 중에 미디어 기기(스마트폰, TV, 태블릿PC 등)를 이용함				
2) 잠자기 전에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3) 운전 중에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단순 통화 제외)				
4) 누워서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5) 한번에 여러 미디어를 동시에 이용함(예: TV를 보면서 스마트폰 검색)				

[스마트폰·태블릿 PC(갤럭시 탭, 아이패드 등) 이용 현황]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아동이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은 아동의 아동 소유 혹은 부모님 소유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입니다.

※ 문 13-1이나 13-2 또는 문14-4)-2(자녀의 태블릿 PC 이용 여부)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문16. 귀댁의 응답대상 자녀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를 언제부터 이용하기 시작했습니까? **[prog: 문9의 영유아 나이만큼만 제시]**

① 생후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③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④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⑤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⑥ 만3세
⑦ 만4세
⑧ 만5세
⑨ 만6세

문16-1. 귀댁의 자녀는 최근 1개월 동안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습니까?

① 한 달에 1~2회 이하
② 한 달에 3~4회 이하
③ 일주일에 1~2회
④ 일주일에 3~4회
⑤ 일주일에 5~6회
⑥ 매일

문16-2. 귀댁의 자녀는 1일 기준 평균 어느 정도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이용합니까? 주중(월~금)과 주말(토, 일)을 구분해 응답해 주십시오.

(예 1: 주중 하루평균 이용 시간이 40분일 경우 (0)시간 (40)분으로 기입/ 예 2: 하루 평균 1시간인 경우 (1)시간 (0) 분으로 기입)

주중(월~금) 1일 평균 이용시간	주말(토, 일) 1일 평균 이용시간
평균(　　)시간(　　)분	평균(　　)시간(　　)분

문16-3. 귀댁에서는 자녀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이용할 때 한 번에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제한한다면 1회에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제한합니까? [PROG: 시간 RANGE 0-12]

1회 평균 (　　)시간 (　　)분

문16-4. 귀댁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각 용도별로 이용 정도(하루 기준)를 응답해 주십시오.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용도별 이용 정도	① 전혀 이용 하지 않음	② 10분 이내	③ 10분~ 30분 이내	④ 30분 ~1시간 이내	⑤ 1시간 이상
1) 인터넷 검색(공부/과제/학습, 관심사 등을 위한 정보 찾기)					
2) 동영상 시청(애니메이션, 유투브, 동영상, 드라마 등)					
3) 게임, 놀이					
4) 교육용 앱 이용					
5) SNS 이용(소통)					
6) 메신저 이용 대화(카톡, 라인 등)					
7) 사진, 동영상 촬영					
8) 통화					
9) 웹툰/ 웹소설 보기					
10) 기타(※ 기타 많이 이용하는 용도를 적어주세요)					

문16-6. 귀하께서는 취학 전 영유아 시기에 다음과 같은 용도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이용 할 때 각 용도별로 적정한 이용 시간(하루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PROG: 시간 RANGE 0-10]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용도별 적정 이용 시간	적정 이용 시간
1) 인터넷 검색(공부/과제/학습, 관심사 등을 위한 정보 찾기)	(　　)시간(　　)분
2) 동영상 시청(애니메이션, 유투브, 동영상, 드라마 등)	(　　)시간(　　)분
3) 게임, 놀이	(　　)시간(　　)분
4) 교육용 앱 이용	(　　)시간(　　)분
5) SNS 이용(소통)	(　　)시간(　　)분
6) 메신저 이용 대화(카톡, 라인 등)	(　　)시간(　　)분
7) 사진, 동영상 촬영	(　　)시간(　　)분
8) 영상통화 (※ 스마트폰의 경우만 응답)	(　　)시간(　　)분
9) 웹툰/ 웹소설 보기	(　　)시간(　　)분
10) 하루 총 이용 시간	(　　)시간(　　)분

문16-7. 귀댁에서 응답대상 자녀에게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의 이유에서 응답대상 자녀에게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를 이용하도록 한 경험이 있는지 각각 답해주십시오.

스마트폰·태블릿PC 허용 목적	① 있음	② 없음
1)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		
2)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등원 준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3) 자리에 앉아 식사를 빨리 하게 하기 위해		
4)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시키기 위해(식당, 카페, 병원, 관공서 등)		
5) 보호자의 일을(예: 식사 준비, 청소, 직장인의 경우 업무) 자녀의 방해 없이 하기 위해		
6) 교육용 어플, 동영상 이용, 온라인 수업(Zoom 등을 활용)을 위해		
7)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 이용하게 함		
8) 잠을 재우기 위해(잠자리 들기 전 책읽기처럼 활용)		
9)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원할 때 허용함		
10) 기타( )		

문16-8. 귀댁의 자녀는 다음의 장소에 있을 경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각 장소별 이용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⑤해당 없음'은 해당 장소에 간 경우가 없는 경우 기입합니다.)

스마트폰·태블릿PC 이용 장소	① 이용하지 않음	② 가끔 이용함	③ 자주 이용함	④ 매번 이용함	⑤ 해당 없음
1) 집안					
2) 다른 사람의 집(친구 집 등 방문 시)					
3) 식당, 카페					
4) 공공장소(마트, 은행, 관공서 등)					
5) 승용차 안					
6) 대중교통 안					
7) 유모차 안					
8) 기타 (※ 기타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적어주세요)					

[TV 이용 현황](TV를 아동이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 문14-2)-3(자녀의 TV 이용 여부)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문17. 귀댁의 자녀는 언제부터 TV를 보기 시작했습니까?

[prog: 문9의 영유아 나이만큼만 제시]

① 생후 6개월 미만
②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
③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④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⑤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⑥ 만3세
⑦ 만4세
⑧ 만5세
⑨ 만6세

문17-1. 귀댁의 자녀는 TV 시청 시 1일 기준 평균 어느 정도 시청을 하나요? 주중(월~금)과 주말(토, 일)을 구분해 응답해 주십시오.

주중(월~금) 1일 평균 시청시간	주말(토, 일) 1일 평균 시청시간
평균(　　)시간(　　)분	평균(　　)시간(　　)분

문17-2. 귀댁에서 응답대상 자녀에게 TV 시청을 허용하는 경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다음의 이유에서 응답대상 자녀에게 TV를 보도록 한 경험이 있는지 각각 답해주십시오.

TV 시청 허용 목적	① 있음	② 없음
1)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		
2)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등원 준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3) 자리에 앉아 식사를 빨리 하게 하기 위해		
4) 보호자의 일을 자녀의 방해 없이 하기 위해(예: 식사 준비, 청소, 직장인의 경우 업무)		
5) 교육용 프로그램(예:EBS), 교육용 어플, 온라인 수업(Zoom 등을 활용)을 위해		
6)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 이용하게 함.		
7) 잠을 재우기 위해(잠자리 들기 전 책읽기처럼 활용)		
8)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원할 때 허용함		
9) 기타(　　)		

문17-3. 귀댁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TV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시청하나요? 각 프로그램별로 시청 정도를(하루 기준) 응답해 주십시오.

TV 프로그램	① 전혀 시청하지 않음	② 10분 이내	③ 10~30분 이내	④ 30분~1시간 이내	⑤ 1시간 이상
1) 여가·놀이(애니메이션, 예능·쇼·오락프로그램, 드라마 등)					
2) 교육(EBS, 교양·시사프로그램)					

[PC(데스크톱, 노트북) 이용 현황]

(PC를 아동이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 문14-3)-3(자녀의 PC 이용 여부)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문18. 귀댁의 자녀는 언제부터 PC를 이용하기 시작했나요?

[prog: 문9의 영유아 나이만큼만 제시]

① 생후 6개월 미만
②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
③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④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⑤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⑥ 만3세
⑦ 만4세
⑧ 만5세
⑨ 만6세

문18-1. 귀댁의 자녀는 PC를 이용하는 날의 경우, 1일 기준 평균 어느 정도 PC를 이용하나요? 주중(월~금)과 주말(토, 일)을 구분해 응답해 주십시오.

[PROG: 시간 RANGE 0-12]

주중(월~금) 1일 평균 이용시간	주말(토, 일) 1일 평균 이용시간
평균(　　)시간(　　)분	평균(　　)시간(　　)분

문18-2. 귀댁에서 응답대상 자녀가 PC를(데스크톱, 노트북)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다음의 각각의 목적으로 응답대상 자녀가 PC를 얼마나 이용하는지(하루기준) 답해주십시오.

PC 이용 목적	① 전혀 이용하지 않음	② 10분 이내	③ 10분~30분 이내	④ 30분~1시간 이내	⑤ 1시간 이상
1) 정보와 지식 검색					
2) 온라인 학습을 위해(학원 등의 온라인 수업 참여, 온라인 교육콘텐츠 접속)					
3) 여가·놀이용(동영상 시청, SNS활동, 게임 등)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과 애로사항

문19. 귀댁의 자녀는 미디어 기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중복 응답 가능)
[PROG: 1과 2번은 같이 나올 수 없음]

① 자녀가 이용을 원할 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함
② 자녀가 이용을 원할 때 보호자의 허락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음
③ 가족이 이용할 때 같이 이용함
④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녀에게 이용하도록 함.
⑤ 기타( )

문20. 귀댁의 보호자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의 기술적 방안들을 알고 있거나 실제로 적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디어 이용제한 기술 적용 경험	① 모른다	② 알고 있지만 적용하지 않는다	③ 알고 있으며 실제 적용해봤다
20-1) 기기 비밀번호 설정			
20-2) 콘텐츠 제한(필터) 설정			
20-3) 미디어 이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앱 설치			

문20-1. (문 20에서 ②에 하나라도 응답한 경우)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알고 있으나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간 여유가 없어서 미루다 못함
②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③ 설치/적용 방법이 어렵거나 번거로워서
④ 기타( )

문21. 귀댁에서는 영유아 자녀가 미디어를 이용할 때 다음과 같은 이용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도 방법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가끔함	③ 자주 함	④ 항상 함
1) 보호자와 함께 이용				
2) 보호자와 이용 콘텐츠 함께 고르기				
3) 보호자가 자녀와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 하기				
4) 유해하거나 이용을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사이트, 앱 차단				
5) 자녀가 이용한 콘텐츠 확인				
6) 미디어 이용 시간 제어 앱 활용 이용 시간 관리				
7)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지 않을때는 꺼놓기				
8) 보호자가 있는 공간에서 이용하게 하기 (예: 태블릿PC, 스마트폰, 게임콘솔 등을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용하게 하지 않음)				

문22.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 지도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적절한 지도 방법을 모름(제대로 지도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 불안함)
② 자녀가 이용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음(예: 정한 시간을 넘겨도 더 보려 고집을 부림)
③ 가사 일 등으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할 시간이 부족함(예: 매번 콘텐츠 확인하고 같이 봐주기 어려움)
④ 집에서 지도해도 외부에서 지켜지지가 않음(예: 조부모댁, 친구집, 기관 등에서 미디어 이용 기기 기준이 지켜지지 않음)
⑤ 기타(　　)

문23. 귀댁의 응답대상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자녀를 돌봐주는 분으로부터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거나 귀하께서 자녀가 미디어에 과의존적이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 문 23-1)
② 없음

※ 미디어과의존: 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며, 미디어 이용의 자율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

문23-1. 응답대상 자녀는 다니고 있는 기관이나 가정에서 이러한 미디어 과의존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 23-2)
② 아니오 (☞ 문 24)

문23-2. 응답대상 자녀는 미디어 과의존으로 의심되는 어떠한 행동을 보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 거친 말(욕설)
② 거친 행동(주변 사람의 행동에 대한 정상범주를 넘는 공격적 행동)
③ 산만함
④ 부모나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음
⑤ 미디어 기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음
⑥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느라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음
⑦ 외출 시 미디어 기기를 보게 하지 않으면 진정시킬 수 없음(주변 사람을 방해하는 행동을 함)
⑧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 함(예: 기관 등원 거부, 숙제 거부 등)
⑨ 기타( )

문23-2. 귀댁에서는 응답 대상 자녀에 대해 '영유아용 미디어 과의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문23-3. 귀댁에서는 이러한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이용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문24. 귀댁에서는 응답대상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미디어 콘텐츠가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지 확인하십니까?

① 항상 확인함 ② 자주 확인함 ③ 가끔 확인함
④ 확인하지 않음 ⑤ 어린이용 콘텐츠 외에는 차단되도록 조치함

문25. 코로나19 이후 응답대상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이 증가하였습니까?

① 예 (☞ 문 25-1)
② 아니오(변함없거나 감소하였음) (☞ 문 26)

문25-1. 코로나 19 이후 응답대상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순으로 2가지까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심심해해서
② 부모와 함께 하는 놀이나 책읽기보다 미디어를 이용한 영상 시청, 놀이를 더 좋아해서
③ 코로나 19 이후 원격수업, 온라인 학습지를 하게 되어 미디어 기기에 친숙해져서
④ 양육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양육자가 이용하는 미디어를 같이 이용하게 될 기회가 많아져서
⑤ 기타( )

문25-2.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이용이 가장 증가한 미디어 기기는 무엇입니까? 가장 이용이 많이 증가한 순서대로 2개까지 답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순위 필수] [문14-1의 보유기기만 제시]**

① 스마트폰
② TV
③ 개인용 컴퓨터
④ 태블릿 PC
⑤ 게임콘솔
⑥ 인공지능 스피커
⑦ 가상현실(VR) 기기
⑧ 전자책 단말기
⑨ 기타( )

문25-3. 응답대상 자녀의 이용이 가장 증가한 미디어 기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어느 정도 이용이 증가했습니까?

① 15% 이내
② 15~30%이내
③ 30~50%이내
④ 50~70%이내

⑤ 70~100%이내
⑦ 100% 이상

문26. 코로나19 이후 응답 대상 영유아가 다니는 기관(반일제이상 기관, 시간제 학원 등 모두 포함)에서 원격수업(온라인 수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 문 26-1)
② 아니다 (☞ 문 27)

문26-1. 원격수업으로 인해 응답 대상 자녀의 미디어 이용이 증가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격수업 시간은 제외하고 평소에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던 시간에 비해 원격수업 시행 후 이용 시간이 증가하였는지 답해 주십시오.
① 예 (☞ 문 26-2)
② 아니오(변함없음) (☞ 문 27)

문 26-2. 원격수업으로 인해 응답 대상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원격수업 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하였습니까?
① 15% 이내
② 15~30%이내
③ 30~50%이내
④ 50~70%이내
⑤ 70~100%이내
⑦ 100% 이상

영유아의 적정한 미디어 이용에 관한 의견

※ 여기서 '적정'의 의미는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발달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나아가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27. 다음의 미디어 유형에 따른 영유아의 적정 시작 연령 및 적정한 하루 최대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적정한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은 각 미디어 유형의 적정한 시작 연령에서 적정하다고 보는 최대 이용 시간을 답해주십시오.

미디어 유형	적정한 이용	
	시작 연령 (0~)	하루 최대 이용 시간
모든 유형의 미디어*		( )시간( ) 분
1) TV	만( )세	( )시간( ) 분
2) 개인용 컴퓨터 (데스크톱 PC, 노트북)	만( )세	( )시간( ) 분
3) 태블릿 PC (갤럭시탭, 윈도우 탭, 아이패드 등)	만( )세	( )시간( ) 분
4) 게임콘솔	만( )세	( )시간( ) 분
5) 기타 (인공지능 스피커, 가상현실 기기 등)		'( )시간( ) 분

문28. 취학전 영유아 시기에 다양한 미디어 유형에 걸쳐 다음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유형		① 전혀 바람직 하지 않음	② 바람직 하지 않음	③ 바람직 함	④ 매우 바람직 함
동영상	1) 정보/교육용 동영상				
	2) 오락용 동영상				
	3) 음악 동영상 및 음악용 앱				
앱, 프로그램	4) 교육용 앱, 프로그램 (교육용 게임 포함)				
	5) 오락용 게임				
	6) 전자책				
	7) 인터넷 검색용				
	8) 화상통화·미팅, 메신저				
	9) SNS (인*타그램, 페*스북, 등)				
	10) 운동용 앱, 프로그램				
	11) 음악용 앱(멜*)				
	12) 사진, 동영상 촬영				

문29-1. 보기의 미디어 유형 중 영유아를 위한 교육매체로 활용하기에 유용한 미디어 기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골라주십시오.

※ 보호자가 영유아를 지도하여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공중파 TV
② 케이블 TV/ IP TV/ 위성 TV 등 유료 TV
③ 스마트 TV(애플 TV, 크롬박스, 미박스 딜라이브 등 셋톱박스나 컴퓨터를 연결한 경우도 포함하여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모든 형태)
④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PC, 노트북)
⑤ 게임콘솔(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wii,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⑥ 태블릿 PC(갤럭시 탭, 윈도우 탭, 아이패드 등)
⑦ 전자책 단말기(sam, 킨들, 리디페이퍼, 오닉스 등)
⑧ 스마트폰
⑨ 가상현실(VR) 기기 (오큘러스, HTC 바이브, 기어 VR 등)
⑩ 인공지능(AI) 스피커(클로바, 미니씨, 누구, 지니 등)

문29-2. 보기의 미디어 유형 중 영유아들의 '미래환경 준비'를 위해 가장 활용이 필요한 미디어 기기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공중파 TV
② 케이블 TV/ IP TV/ 위성 TV 등 유료 TV
③ 스마트 TV(애플 TV, 크롬박스, 미박스 딜라이브 등 셋톱박스나 컴퓨터를 연결한 경우도 포함하여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모든 형태)
④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PC, 노트북)
⑤ 게임콘솔(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wii,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⑥ 태블릿 PC(갤럭시 탭, 윈도우 탭, 아이패드 등)
⑦ 전자책 단말기(sam, 킨들, 리디페이퍼, 오닉스 등)
⑧ 스마트폰
⑨ 가상현실(VR) 기기 (오큘러스, HTC 바이브, 기어 VR 등)
⑩ 인공지능(AI) 스피커(클로바, 미니씨, 누구, 지니 등)

문29-3. 보기의 미디어 유형 중 영유아가 이용 시 '과의존'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유형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공중파 TV
② 케이블 TV/ IP TV/ 위성 TV 등 유료 TV
③ 스마트 TV(애플 TV, 크롬박스, 미박스 딜라이브 등 셋톱박스나 컴퓨터를 연결한 경우도 포함하여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모든 형태)
④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PC, 노트북)
⑤ 게임콘솔(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wii,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⑥ 태블릿 PC(갤럭시 탭, 윈도우 탭, 아이패드 등)
⑦ 전자책 단말기(sam, 킨들, 리디페이퍼, 오닉스 등)
⑧ 스마트폰
⑨ 가상현실(VR) 기기 (오큘러스, HTC 바이브, 기어 VR 등)
⑩ 인공지능(AI) 스피커(클로바, 미니씨, 누구, 지니 등)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정보화진흥원) 등에서는 2017, 2019년에 영유 아의 보호자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귀댁에서는 관련 기관에서 개발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고 활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30-1) 인지 여부	30-2)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① 모름(가이드라인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함) (☞ 문 31) ②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 있음 (☞ 문 31) ③ 가이드라인을 본 적 있음(책자 등) (☞ 문 31) ④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음 (☞ 문 30-2)	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도하지 않음(☞ 문 30-3) ② 가이드라인대로 대부분 지도하지 못하고 있음 (☞ 문 30-3) ③ 매번 가이드라인대로 지도하지는 못하나 대부분 지키려고 함(☞ 문 31) ④ 가이드라인대로 지도하고 있음(☞ 문 31)

문30-3. 가이드라인대로 지도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이드라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② 가이드라인상의 시간이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지침이어서
③ 여러명의 자녀들을 돌보며 지키기에는 어려운 지침이어서
④ 기타( )

문31. 영유아를 위한 국내외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에서는 만2세 미만의 영아는 가급적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2세~취학전 유아는 하루 1시간 이내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 문 31-1)
② 적절하지 않음(☞ 문 31-1)
③ 적절함 (☞ 문 31-2)
④ 매우 적절함(☞ 문 31-2)
⑤ 잘 모르겠음(☞ 문 32)

문31-1. 가이드라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지나친 제약인 것 같아서
② 이용하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융통성 부족, 일률적임)
③ 연령이 어리다고 해서 시간 제약을 둘 정도로 해로운 것 같지는 않아서
④ 기타( )

문31-2. 가이드라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를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① 장시간 미디어 이용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② 영유아의 장시간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발달에 필요한 다른 활동이 부족해지므로
③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제어하기 힘든 미디어 과의존 및 중독이 될 수 있으므로(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④ 기타( )

문32. 귀하께서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 32-1)
② 아니오 (☞ 문 33)

문32-1.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① 자녀가 다니는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 육아지원기관
③ 도서관
④ 직장
⑤ 종교기관
⑥ 기타( )

문32-2.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미디어 이용 관련 교육 내용	
① 미디어 이용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신체적·정신적 건강 포함)	
② 영유아 시기의 적정 이용 시간 기준	
③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 올바른 지도방법	
④ 유해프로그램, 사이트, 앱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방법	
⑤ 영유아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방법	
⑥ 영유아를 위한 연령별 추천콘텐츠	
⑦ 영유아 시기 미디어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법(미디어 중독 체크리스트 포함), 미디어 중독 상담기관 등 관련기관 정보	
⑧ 관련 법과 정책	
⑨ 기타( )	

문32-3. 미디어 이용 교육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 안됨 (☞ 문 32-4)
② 도움 안됨 (☞ 문 32-4)
③ 도움됨 (☞ 문 32-5)
④ 매우 도움됨 (☞ 문 32-5)

문32-4. (문32-3에서 1, 2응답자만) 미디어 이용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다 아는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②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하나하나 신경쓰며 활용하기에 제약이 많아서
(ex. 콘텐츠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하며 자녀와 함께 고를 시간적 여유가 없음)
③ 가정에서 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지도할 내용이어서
④ 교육시간이 짧아 내용이 상세하지 못해서
⑤ 기타( )

문 32-5. 귀하가 받은 교육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가장 도움이 된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답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영유아 미디어 이용 정책의 방향을 알게 되었음
② 미디어 이용과 영유아의 발달간의 관계에 알게 되어 미디어 이용에 주의하게 됨.
③ 미디어 유해 환경을 차단하는 실제적인 기술을 알고 활용할 수 있게 됨
④ 자녀를 위한 좋은 미디어 콘텐츠를 고를 수 있게 됨.

⑤ 자녀의 미디어 중독 경향을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자녀의 상태를 관찰할 때 도움 됨.
⑥ 영유아에게 미디어를 할용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 등 구체적인 지침을 활용할 수 있게 됨.
⑦ 기타(　　)

문33. (문32의 2번 응답자: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관련 부모교육을 받은 적 없는 경우) 향후 기회가 있다면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기 위한 부모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네　　(☞ 문 33-1)
② 아니오　(☞ 문 33-4)

문33-1.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을 받으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두 가지만 중요한 순서대로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자녀에게 어떤 미디어 기기를 언제부터, 얼마나 이용하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② 자녀 연령에 적합한 좋은 미디어 콘텐츠 정보를 알고 싶어서
③ 미디어를 보여달라고 떼쓰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④ 유해한 프로그램, 사이트, 앱 등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⑤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중독)을 미리 예방하고 싶어서
⑥ 미디어 과의존(중독) 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고 싶어서
⑦ 기타(　　)

문33-2.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기 위해 가장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세요. 가장 희망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미디어 이용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② 연령별 적정 이용 시간
③ 연령별 적정 콘텐츠 정보(좋은 프로그램 식별 방법 포함)
④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부모가 해야 할 행동, 지도방법 등)
⑤ 유해프로그램, 사이트, 앱 차단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방법

⑥ 미디어 중독 체크리스트와 예방법(미디어 중독 상담기관 등 관련기관 정보 포함)
⑦ 관련 법과 정책, 지원 정보
⑧ 기타(　　)

문33-3. 교육을 받으신다면, 어떤 방식의 교육을 선호하십니까?

① 집합교육
② 온라인교육(화상회의 앱을 이용한 실시간 교육)
③ 온라인교육(동영상 교육)
④ 1:1 컨설팅 또는 멘토링 같은 소규모 대화형 교육
⑤ 기타(　　)
(☞ 문 34로)

문33-4.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을 받지 않으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두 가지만 중요한 순서대로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법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서(더 알아야 할 내용은 없음)
②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서
③ 교육받을 필요가 없어서(자녀가 미디어 이용을 적절하게 잘하고 있어서)
④ 교육받을 시간이 없어서
⑤ 가정에서의 지도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예: 부모의 지도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제어하기 어려움)
⑥ 기타(　　)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 요구

문34.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다음의 정책 방안에 대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입해주십시오.

정책 방안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1)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지침에 대한 홍보 강화				
2)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사 교육 확대				
3)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확대				
4) 영유아 대상 미디어 이용 교육 강화(디지털리터러시 함양)				
5)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 (ex. 연령별 이용 시간 제한 및 위반시 제재 마련 등)				
6)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연령별 적합한 미디어 콘테츠 기준 개발·배포				
7) 미디어 콘텐츠 공급자들이 지켜야 할 영유아용 콘텐츠 적합성 기준을 배포하고, 위반시 제재 마련				
8) 영유아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ex. 영유아 유튜브 크리에이터 보호)				
9) 아동용 앱, 아동용 채널(ex. 유투브 키즈 등)의 광고 및 알고리즘 생성 제한				

귀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부록 2. 영유아 이용 기관용 설문지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를 위한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21년도 기본과제인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영유아들의 미디어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영유아들의 적정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담임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21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

• **문의처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2본부 3부 전혜진 과장(02-3014-0983)
한국리서치 여론조사2본부 3부 박서연 대리(02-3014-0962)

선정질문. 응답자 및 기관 특성에 관한 질문

선문1. [제시: 리스트 어린이집/유치원명]에 재직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단수]

1. 예 → 선문2
2. 아니오 → 설문중단

선문2. 귀하께서는 담임교사가 맞습니까? [단수]

1. 예 → 선문3
2. 아니오 → 설문중단

선문3. 소속기관의 소재지역 [단수][쿼터]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농어촌지역

선문4. 소속기관의 유형 [단수][쿼터]

1. 유치원
2. 어린이집

선문5. 소속기관의 설립유형

1. 국공립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3.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 민간 어린이집
5. 직장 어린이집
6. 가정 어린이집
7. 국공립 유치원
8. 사립(법인) 유치원
9. 사립(사인) 유치원

선문6. 귀 원의 원아 수는 몇 명입니까?

※ 현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 )명 [로직: 1 TO 999]

//당구장 표시는 문항과 보기 사이에 박스 형태로 구현//
[로직: 선문5=7~9인 경우, 선문7 보기 1~3 숨김 처리]
[로직: 선문5=6인 경우, 선문7 보기 4~6 숨김 처리]
선문7. 귀 원에서 운영하는 연령반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복수]

1. 0세반
2. 1세반
3. 2세반
4. 3세반
5. 4세반
6. 5세반

[SELECTSHOW: 선문7]
//당구장 표시는 문항과 보기 사이에 박스 형태로 구현//
선문8. 귀하께서 담당하신 반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단수]
※ 복식(혼합)연령인 경우, 가장 많은 연령대 유아를 표기

1. 0세반
2. 1세반
3. 2세반
4. 3세반
5. 4세반
6. 5세반

선문9. 귀하는 올해 만으로 몇 세이십니까?

1. 만 ( )세 [로직: 17 TO 100]

선문10.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단수]

1. 남자
2. 여자

A. 미디어 보유/활용 현황 및 보육·교육활동에 있어서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인식

// 1. 보유여부 = 1인 경우만 2. 보육·교육에 이용여부를 질문하고, 아닌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보유여부로 넘어감 //

// 2. 보육·교육에 이용여부 = 1인 경우만 3. 담당 학급 주당 평균 이용 횟수와 4. 회당 이용 시간을 질문하고, 아닌 경우는 다음 항목의 보유여부로 넘어감 //

문1. 귀 원이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의 종류와 보육·교육활동을 위해 이용하는지 여부를 응답해주십시오.

※ 각 미디어 기기별 보유여부는 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보육·교육활동에 이용하는지 여부는 선생님의 담당 학급에서 아이들과 함께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응답해주십시오.
교안 작성을 위해 선생님께서 혼자 개인 PC를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정규시간에 한해서만 이용 여부를 응답해주십시오.

	1. 기관 전체 보유여부 [단수]		2. 담당 학급에서 보육·교육 활동에 이용여부 [단수]	
	보유함	보유하지 않음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1	2	1	2
1. TV				
2. 빔프로젝터				
3. 개인용 컴퓨터 (데스크톱 PC, 노트북)				
4. 태블릿 PC (갤럭시탭, 윈도우 탭, 아이패드 등)				
5. 인공지능(AI) 스피커 (클로바, 미니씨(c), 누구(NUGU), 지니(Genie) 등)				
6. 가상현실(VR) 기기 (오큘러스, HTC 바이브, 기어 VR 등)				
7. 전자책 단말기(교보 sam, 아마존 킨들, 리디페이퍼, 오닉스, yes24 크레마 등)				
8. 기관 공용 카메라				

//지시문(문1의 항목8): ※ 기관 공용 카메라 :
동영상, 스틸사진 촬영용, 연극 등 촬영용, 아동이 직접 영상 제작해보는 활동 등
단, 부모 전달 목적으로 일상생활 촬영하는 것은 제외함//

// 2. 담당학급에서 이용여부에 1=이용함인 항목만 3. 이용 횟수, 4. 이용 시간 질문 //

문1-1. 보육·교육활동을 위해 이용하시는 미디어 기기별 한 주당 평균 이용 횟수 및 1회당 평균 이용 시간을 응답해주십시오.

※ 보육·교육활동에 이용하는 횟수 및 시간은 선생님의 담당 학급에서 아이들과 함께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응답해주십시오.
교안 작성을 위해 선생님께서 혼자 개인 PC를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정규시간에 한해서만 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을 응답해주십시오.
※ 이용 횟수는 1주일 기준 평균 횟수로, 이용 시간은 1회 기준 평균 시간으로 응답해주십시오.

	3. 담당 학급 주당 평균 이용 횟수 [오픈]	**4. 회당 평균 이용 시간 [오픈]**
1. TV	( ) 회 [로직 1 to 50]	( ) 분 [로직 1 to 100]
2. 빔프로젝터	( ) 회 [로직 1 to 50]	( ) 분 [로직 1 to 100]
3. 개인용 컴퓨터 (데스크톱 PC, 노트북)	( ) 회 [로직 1 to 50]	( ) 분 [로직 1 to 100]
4. 태블릿 PC (갤럭시탭, 윈도우 탭, 아이패드 등)	( ) 회 [로직 1 to 50]	( ) 분 [로직 1 to 100]
5. 인공지능(AI) 스피커 (클로바, 미니씨(c), 누구(NUGU), 지니(Genie) 등)	( ) 회 [로직 1 to 50]	( ) 분 [로직 1 to 100]
6. 가상현실(VR) 기기 (오큘러스, HTC 바이브, 기어 VR 등)	( ) 회 [로직 1 to 50]	( ) 분 [로직 1 to 100]
7. 전자책 단말기(교보 sam, 아마존 킨들, 리디페이퍼, 오닉스, yes24 크레마 등)	( ) 회 [로직 1 to 50]	( ) 분 [로직 1 to 100]
8. 기관 공용 카메라	( ) 회 [로직 1 to 50]	( ) 분 [로직 1 to 100]

//지시문(문1-1의 항목8):

※ 기관 공용 카메라 :

동영상, 스틸사진 촬영용, 연극 등 촬영용, 아동이 직접 영상 제작해보는 활동 등 단, 부모 전달 목적으로 일상생활 촬영하는 것은 제외함//

[로직 : 문1의 '2. 보육·교육에 이용여부'에 한 항목이라도 1. 이용함이 있는 경우]

문2. 선생님께서는 보육·교육활동에 미디어를 이용할 때, 영유아에게 다음과 같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척도][STEPBYSTEP]

지도 방법	전혀 하지 않음	가끔	종종	항상
	1	2	3	4
1. 교사와 함께 이용				
2. 교사와 이용 콘텐츠를 함께 고르기				
3. 영유아가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 교사와 함께 이야기 하기				
4. 이용 시간을 연령별 권장시간 이내 제한				

[로직 : 문1의 '2. 보육·교육에 이용여부'에 한 항목이라도 1. 이용함이 있는 경우]

문3. 선생님께서는 보육·교육활동에 미디어를 이용할 때, 영유아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습니까? 가장 어려운 점 한 가지만 응답해주십시오. [단수]

1. 적절한 지도 방법을 모름(제대로 지도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 불안함)
2. 영유아가 이용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음(예: 정한 시간을 넘겨도 더 보려 고집을 부림)
3. 업무로 인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할 시간이 부족함(매번 콘텐츠 확인하고 같이 봐주기 어려움)
4. 기관에서 지도한 내용이 가정으로 연계되지 않음
5. 어려움이 없음
6. 기타 ( )

//당구장 표시는 문항과 보기 사이에 박스 형태로 구현//
[문1-1. 보유여부에서 한 가지 기기라도 ① 보유함에 응답한 경우만 문4 응답]

// 지시문(문4~문5): 기관 전체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문4. 귀 원에서는 미디어 기기를 주로 어떨 때 사용합니까? 주로 사용하는 상황을 표기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담당하는 학급을 포함하여 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2가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복수][RANK: 2]
1. 아침 등원 시간(정규 수업 시작 전)
2. 정규 수업시간
3. 식사 시간
4.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특별활동프로그램 시간
5. 하원 시간
6. (어린이집) 낮잠시간(자지 않으려는 아이들)
7.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 시간
8. 기타 ( )
9. 기관에서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음 [중복선택불가]

[로직: 문1의 2. 담당 학급에서 보육교육 활동에 이용여부에서 하나라도 1. 이용함인 경우, 문4=9 응답 시 경고창 출력]
[경고창 문구: 담당 학급에서 보육교육 활동에 미디어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시 응답해주십시오.]

//당구장 표시는 문항과 보기 사이에 박스 형태로 구현//
[문1-1. 보유여부에서 한 가지 기기라도 ① 보유함에 응답한 경우만 문4 응답]
[선문7.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령반만 출력되도록 함]
[SELECTSHOW: 선문7]
// 지시문(문4~문5): 기관 전체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문5 귀 원에서 미디어 기기를 보육·교육 활동에 이용하는 연령반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 선생님 담당 반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관 전체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만약 다른 반의 상황을 잘 모르시면 다른 반 선생님들께 확인하시고 응답해주십시오.
※ 혼합연령반의 경우 가장 아동 수가 많은 연령기준으로 연령반을 응답해주십시오. (예: 4-5세 혼합반의 총 15명 중 10명이 5세인 경우 5세반으로 응답) [복수]
1. 0세반
2. 1세반

3. 2세반
4. 3세반
5. 4세반
6. 5세반
7. 기관에서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음 [중복선택불가]

[로직: 문1의 2. 담당 학급에서 보육교육 활동에 이용여부에서 하나라도 1. 이용함인 경우, 문5=7 응답 시 경고창 출력]
[경고창 문구: 담당 학급에서 보육교육 활동에 미디어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시 응답해주십시오.]

문6. 선생님께서는 영유아가 보육·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다음의 콘텐츠를 직접, 혹은 교사의 안내를 통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척도][STEPBYSTEP]

콘텐츠 유형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1	2	3	4
동영상	1. 정보/교육용 동영상				
	2. 오락용 동영상				
	3. 음악 동영상				
앱, 프로그램	4. 교육용 앱, 프로그램 (교육용 게임 포함)				
	5. 전자책				
	6. 인터넷 검색용				
	7. 화상통화, 메신저				
	8. 운동용 앱				
	9. 음악용 앱 (예: 멜론, 지니 등)				
	10. 사진, 동영상 촬영				

문6-1. 보육·교육활동 중 이러한 미디어 기기 및 콘텐츠를 활용한 활동을 하는 것이 보육·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2. 도움이 되지 않음
3. 도움됨
4. 매우 도움됨

문7-1. 보기의 미디어 유형 중 영유아를 위한 교육매체로 활용하기에 유용한 미디어 기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골라주십시오. [복수][MAXRANK: 3]

1. 공중파 TV
2. 케이블 TV/ IP TV/ 위성 TV 등 유료 TV
3. 스마트 TV(애플 TV, 크롬박스, 미박스 딜라이브 등 셋톱박스나 컴퓨터를 연결한 경우도 포함하여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모든 형태)
4.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PC, 노트북)
5. 게임콘솔(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wii,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6. 태블릿 PC(갤럭시 탭, 윈도우 탭, 아이패드 등)
7. 전자책 단말기(sam, 킨들, 리디페이퍼, 오닉스 등)
8. 스마트폰
9. 가상현실(VR) 기기 (오큘러스, HTC 바이브, 기어 VR 등)
10. 인공지능(AI) 스피커(클로바, 미니씨, 누구, 지니 등)

문7-2. 보기의 미디어 유형 중 영유아들의 '미래환경 준비'를 위해 가장 활용이 필요한 미디어 기기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골라주십시오. [복수][RANK: 3]

1. 공중파 TV
2. 케이블 TV/ IP TV/ 위성 TV 등 유료 TV
3. 스마트 TV(애플 TV, 크롬박스, 미박스 딜라이브 등 셋톱박스나 컴퓨터를 연결한 경우도 포함하여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모든 형태)
4.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PC, 노트북)
5. 게임콘솔(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wii,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6. 태블릿 PC(갤럭시 탭, 윈도우 탭, 아이패드 등)
7. 전자책 단말기(sam, 킨들, 리디페이퍼, 오닉스 등)
8. 스마트폰
9. 가상현실(VR) 기기 (오큘러스, HTC 바이브, 기어 VR 등)
10. 인공지능(AI) 스피커(클로바, 미니씨, 누구, 지니 등)

문7-3. 보기의 미디어 유형 중 영유아가 이용 시 '과의존'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유형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골라주십시오. [복수][RANK: 3]

1. 공중파 TV
2. 케이블 TV/ IP TV/ 위성 TV 등 유료 TV

3. 스마트 TV(애플 TV, 크롬박스, 미박스 딜라이브 등 셋톱박스나 컴퓨터를 연결한 경우도 포함하여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모든 형태)
4.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PC, 노트북)
5. 게임콘솔(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wii,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6. 태블릿 PC(갤럭시 탭, 윈도우 탭, 아이패드 등)
7. 전자책 단말기(sam, 킨들, 리디페이퍼, 오닉스 등)
8. 스마트폰
9. 가상현실(VR) 기기 (오큘러스, HTC 바이브, 기어 VR 등)
10. 인공지능(AI) 스피커(클로바, 미니씨, 누구, 지니 등)

문8. 보육·교육기관에서 영유아들이 미디어를 친숙하게 접하게 하고, 미디어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문9
2. 필요하지 않음 → 문9
3. 필요함 → 문8-1
4. 매우 필요함 → 문8-1

//당구장 표시는 문항과 보기 사이에 박스 형태로 구현//

[로직: 문8=3,4 인 경우만 응답]

문8-1. 만약 필요하다면 몇 세부터 미디어 이용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소속된 기관과 관계없이 선생님의 생각을 응답해주십시오. [단수]

1. 만 0세
2. 만 1세
3. 만 2세
4. 만 3세
5. 만 4세
6. 만 5세

B.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 활용

문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정보화진흥원) 등에서는 2017년, 2019년에 영유아의 보호자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단수]

1. 모름(가이드라인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함) → 문10
2.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 있음 → 문10
3. 가이드라인을 본 적 있음(책자 등) → 문10
4.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음 → 문9-1

[로직: 문9=4 인 경우만 응답]

문9-1.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단수]

1.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도하지 않음 → 문9-2
2. 가이드라인대로 대부분 지도하지 못하고 있음 → 문9-2
3. 매번 가이드라인대로 지도하지는 못하나 대부분 지키려고 함 → 문10
4. 가이드라인대로 지도하고 있음 → 문10

[로직: 문9-1=1, 2 인 경우만 응답]

문9-2. 가이드라인대로 지도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가이드라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2. 시간 제약으로 보육·교육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지침이어서
3. 인력의 제약으로 보육·교육 현장에서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키기 어려운 지침이어서
4. 기타 ( )

문10. 영유아를 위한 국내외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에서는 만2세 미만의 영아는 가급적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2세~취학전 유아는 하루 1시간 이내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전혀 적절하지 않음 → 문10-2
2. 적절하지 않음 → 문10-2
3. 적절함 → 문10-1
4. 매우 적절함 → 문10-1
5. 잘 모르겠음 → 문11

[로직: 문10=3, 4인 경우만 응답]

문10-1.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장시간 미디어 이용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 영유아의 장시간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양육자 혹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발달에 필요한 다른 활동이 부족해지므로
3. 영유아 시기의 미디어 이용이 성장하며 제어하기 힘든 미디어 과의존 및 중독이 될 수 있으므로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다고 생각함)
4. 기타 ( )

[로직: 문10-2=1, 2인 경우만 응답]

문10-2. 가이드라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지나친 제약인 것 같아서
2. 이용하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융통성 부족, 일률적임)
3. 연령이 어리다고 해서 시간 제약을 둘 정도로 해로운 것 같지는 않아서
4. 기타 ( )

문11. 귀하께서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재직하시면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수]

1. 예 → 문11-1
2. 아니오 → 문12

[로직: 문11=1 인 경우만 응답]

문11-1. 교육을 제공한 사람(기관)은 누구(어디)였습니까?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복수]

1. 교육청/도청(시청)
2. 육아종합지원센터/학습자지원센터
3. 유아교육진흥원
4. 한국보육진흥원
5. 민간 보수교육기관/직무연수기관
6. 대학
7. 스마트쉼센터 등의 강사 방문
8. 기타 ( )

[로직: 문11=1 인 경우만 응답]

문11-2. 교육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복수]

1. 미디어 이용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신체적·정신적 건강 포함)
2. 영유아 시기의 적정 이용 시간 기준
3.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 올바른 지도 방법
4. 유해프로그램, 사이트, 앱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방법
5. 영유아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방법
6. 영유아를 위한 연령별 추천콘텐츠
7. 영유아 시기 미디어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법(미디어 중독 체크리스트 포함)
8. 관련 법과 정책
9. 기타 ( )

[로직: 문11=1 인 경우만 응답]

문11-3. 귀하가 받은 교육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가장 도움이 된 것 하나만 응답해주십시오. [단수]

1. 영유아 미디어 이용 정책의 방향을 알게 되어 수업 시 참고하게 됨
2. 미디어 이용과 영유아의 발달간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어 미디어 이용에 주의하게 됨
3. 영유아 미디어 유해 환경을 차단하는 실제적인 기술을 알고 활용할 수 있게 됨
4. 영유아를 위한 좋은 미디어 콘텐츠를 고를 수 있게 됨
5. 영유아의 미디어 중독 경향을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영유아 관찰 시 도움됨
6. 영유아에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 등 구체적인 지침을 활용할 수 있게 됨
7. 도움이 안되었음 → 문11-3-1

[로직: 문11-3=7 인 경우만 응답]

문11-3-1. 교육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도움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단수]

1. 다 아는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2. 현실적으로 한정된 보육·교육 활동 시간에 활용하기에 제약이 많아서
   (ex. 콘텐츠에 대해 하나하나 영유아들과 함께 고를 시간적 여유가 없음)
3.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 보다는 가정에서 활용할 내용이 중심이어서
4. 교육 시간이 짧아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여서
5. 기타 ( )

문12. 귀하는 영유아 보육·교육활동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미디어 활용과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필요하다 → 문12-1
2. 필요하지 않다 → 문13

[로직: 문12=1 인 경우만 응답]

문12-1. 보육·교육활동에서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과 영유아 지도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다면, 다음 중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복수][RANK: 2]

1. 미디어 이용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신체적·정신적 건강 포함)
2. 영유아 시기의 적정 이용 시간 기준
3.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 올바른 지도 방법
4. 유해프로그램, 사이트, 앱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방법
5. 영유아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방법
6. 영유아를 위한 연령별 추천콘텐츠
7. 영유아 시기 미디어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법(미디어 중독 체크리스트 포함)
8. 관련 법과 정책
9. 기타 ( )

[로직: 문12=1 인 경우만 응답]

문12-2. 교육을 받으신다면, 어떤 방식의 교육을 선호하십니까? [단수]

1. 집합교육
2. 온라인교육(화상회의 앱을 이용한 실시간 교육)
3. 온라인교육(동영상 교육)
4. 1:1 컨설팅 또는 장학, 멘토링과 같은 소규모 대화형 교육
5. 기타 ( )

[로직: 문12=1 인 경우만 응답]

문12-3.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를 위한 미디어 활용 및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 교육을 세분화된 내용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친 시리즈 교육으로 제공한다면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으십니까? [단수]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음

문13. 귀 원에서는 올해(21년 1월부터 7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지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십시오. [단수]

1. 있다 → 문13-1
2. 없다 → 문14

[로직: 문13=1 인 경우만 응답]

문13-1. 올해(21년 1월부터 7월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횟수는 몇 회입니까?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십시오.

1. ( )회 [로직: 1 TO 10]

[로직: 문13=1 인 경우만 응답]

문13-2. 영유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복수]

1. 미디어 이용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신체적·정신적 건강 포함)
2. 영유아 시기의 적정 이용 시간 기준
3. 영유아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방법
4. 영유아를 위한 연령별 추천콘텐츠
5. 영유아 시기 미디어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법(미디어 중독 체크리스트 포함)
6. 관련 법과 정책
7. 기타( )

문14. 귀 원에서는 올해(21년 1월부터 7월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지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십시오. [단수]

1. 있다 → 문14-1
2. 없다 → 문15

[로직: 문14=1 인 경우만 응답]

문14-1. 올해(21년 1월부터 7월까지)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횟수는 몇 회입니까?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십시오.

1. ( )회 [로직: 1 TO 10]

[로직: 문14=1 인 경우만 응답]

문14-2.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복수]

1. 미디어 이용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신체적·정신적 건강 포함)
2. 영유아 시기의 적정 이용 시간 기준
3.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 올바른 지도 방법
4. 유해프로그램, 사이트, 앱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방법
5. 영유아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방법
6. 영유아를 위한 연령별 추천콘텐츠
7. 영유아 시기 미디어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법(미디어 중독 체크리스트 포함)
8. 관련 법과 정책
9. 기타 ( )

[로직: 문13=1 OR 문14=1 인 경우만 응답]

문15. 올해(21년 1월부터 7월까지) 영유아 또는 학부모 대상 교육을 제공한 강사는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복수]

1. 원장
2. 교사
3. 외부 전문 강사(스마트쉼센터 등)
4. 기타 ( )

문16. 영유아 또는 학부모 대상의 교육이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2. 도움되지 않는다
3. 도움된다
4. 매우 도움된다
5. 잘 모르겠음

문17. 귀 원에서는 올해 8월 이후로 영유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지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까? [단수]

1. 있다 → 문17-1
2. 없다 → 문18

문17-1. 올해 8월 이후로 영유아 대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횟수는 몇 회입니까? 8월 이전에 이미 제공한 교육은 제외하고 추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횟수만 기입해주십시오.

1. ( )회 [로직: 1 TO 10]

문18. 귀 원에서는 올해 8월 이후로 학부모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지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까? [단수]

1. 있다 → 문18-1
2. 없다 → 문19

문18-1. 올해 8월 이후로 학부모 대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횟수는 몇 회입니까? 8월 이전에 이미 제공한 교육은 제외하고 추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횟수만 기입해주십시오.

1. ( )회 [로직: 1 TO 10]

문19. 귀 원에는 미디어 과의존성이 의심되는 영유아가 있습니까? [단수]

1. 있다 → 문19-1
2. 없다 → 문20

// 지시문(문19) :

※ 미디어과의존: 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며, 미디어 이용의 자율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

[로직: 문19=1 인 경우만 응답]

문19-1. 그러한 아동 중 미디어의 중독이나 과의존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별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있습니까? [단수]

1. 있다 → 문19-1-1
2. 없다 → 문20

[로직: 문19-1=1 인 경우만 응답]

문19-1-1. 그 아동(들)은 주로 어떠한 문제행동을 보입니까? [단수]

1. 거친 말(욕설)
2. 거친 행동(주변 사람의 행동에 대한 정상범주를 넘는 공격적 행동)
3. 산만함(수업에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짐)
4.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음
5. 기타 ( )

[로직: 문19-1=1 인 경우만 응답]

문19-1-2. 아동이 그러한 행동을 보일 때, 귀 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복수]

1. 보조교사나 도움 인력에게 문제 아동을 전담하여 돌보도록 한다
2. 주임교사나 원감, 원장과 상의하여 지도 방법을 모색한다
3. 외부 발달(또는 상담) 전문가에 자문을 구한다
4. 스마트 쉼 센터 등에 자문을 구한다
5. 부모면담을 통해 가정에서의 교육과 지도를 요청한다
6.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중복선택불가]**
7. 기타 ( )

C.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 요구

문20.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다음의 정책 방안에 대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입해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정책 방안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1	2	3	4
1.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지침에 대한 홍보 강화				
2.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사 교육 확대				
3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확대				
4. 영유아 대상 미디어 이용 교육 강화(디지털리터러시 함양)				
5.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 (ex. 연령별 이용 시간 제한 및 위반시 제제 마련 등)				
6.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연령별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 기준 개발·배포				
7. 미디어 콘텐츠 공급자들이 지켜야 할 영유아용 콘텐츠 적합성 기준을 배포하고, 위반 시의 제재방안 마련				
8. 영유아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ex. 영유아 유튜브 크리에이터 보호)				
9. 아동용 앱, 아동용 채널(ex. 유튜브 키즈 등)의 광고 및 알고리즘 생성 제한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부표

〈부록 표 Ⅲ-2-1〉 아버지가 하루 중 영유아와 함께 하는 시간(주중)

단위 : %(명), 분

구분	60분 미만	60분-120분 미만	120분-180분 미만	180분-240분 미만	240분-300분 미만	300분-360분 미만	360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5.3	23.0	24.5	17.0	9.3	4.4	6.5	100.0(1,480)	147.3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3.5	24.6	24.2	16.9	8.7	5.3	6.8	100.0(207)	150.5
300~400만원 미만	16.9	25.2	23.3	16.4	7.2	2.9	8.0	100.0(373)	145.1
400~500만원 미만	16.4	24.6	26.7	13.7	8.8	4.0	5.8	100.0(329)	137.6
500~600만원 미만	16.7	21.2	22.0	20.8	10.6	2.9	5.7	100.0(245)	148.4
600~700만원 미만	10.9	21.0	29.7	19.6	12.3	4.3	2.2	100.0(138)	141.9
700만원 이상	13.8	17.6	22.3	17.6	11.2	9.0	8.5	100.0(188)	167.5
F									1.533
주 양육자									
부모(어머니, 아버지)	15.8	23.8	25.0	16.7	8.3	3.1	7.3	100.0(1012)	146.2
조부모	19.9	22.7	23.9	19.3	8.0	3.4	2.8	100.0(176)	126.8
기타	11.0	20.2	22.9	16.8	13.7	9.6	5.8	100.0(292)	163.4
F									4.996**
부 학력									
고졸 이하	15.6	28.1	16.3	13.1	12.5	7.5	6.9	100.0(160)	152.7
전문대(2~3년제) 졸업	18.1	23.3	24.3	13.5	8.3	3.5	9.0	100.0(288)	149.1
4년제 대학 졸업	14.9	22.0	25.3	19.0	9.2	3.8	5.7	100.0(837)	145.2
대학원 이상	12.8	22.6	27.7	16.9	8.7	5.6	5.6	100.0(195)	148.9
F									0.213
모 취업 여부2									
취업	12.8	20.0	24.5	17.3	11.2	6.1	8.1	100.0(641)	163.6
미취업	17.4	25.4	24.6	16.6	7.8	3.0	5.3	100.0(835)	134.4
t									4.450***
아동연령									
0세	9.2	13.7	26.7	22.1	11.5	6.9	9.9	100.0(131)	183.2
1세	9.3	19.3	23.6	19.9	14.9	3.7	9.3	100.0(161)	170.4
2세	10.4	21.6	28.2	18.3	10.0	4.1	7.5	100.0(241)	161.6
3세	15.2	22.6	26.7	14.7	10.1	5.1	5.5	100.0(217)	142.1
4세	23.0	24.7	18.9	13.2	9.1	5.3	5.8	100.0(243)	136.2
5세	17.2	27.9	21.7	17.2	7.4	3.3	5.3	100.0(244)	132.1
6세	18.1	25.5	26.3	16.9	5.3	3.3	4.5	100.0(243)	129.3
F									5.311***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9.8	18.9	26.5	19.7	11.8	4.7	8.6	100.0(533)	169.5
유아(36개월 이상)	18.5	25.2	23.3	15.5	7.9	4.2	5.3	100.0(947)	134.7
t									5.049***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16.4	24.4	24.2	16.0	8.7	4.6	5.6	100.0(1204)	141.0
미이용	10.5	16.7	25.7	21.4	12.0	3.6	10.1	100.0(276)	174.6
t									-4.109***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1$, *** $p < .001$

〈부록 표 Ⅲ-2-2〉 어머니가 하루 중 영유아와 함께 하는 시간(주중)

단위 : %(명), 분

구분	60분 미만	60분-120분 미만	120분-180분 미만	180분-240분 미만	240분-300분 미만	300분-360분 미만	360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1	2.4	6.6	9.8	13.4	12.2	54.4	100.0(1,496)	437.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0.9	2.8	4.1	4.6	5.0	11.0	71.6	100.0(218)	508.1
300~400만원 미만	0.5	1.3	4.8	4.2	8.7	11.9	68.5	100.0(378)	517.0
400~500만원 미만	0.6	1.5	5.2	12.2	12.8	12.2	55.5	100.0(328)	448.7
500~600만원 미만	1.2	2.4	7.3	13.1	19.2	11.8	44.9	100.0(245)	380.7
600~700만원 미만	0.7	7.3	13.1	16.1	21.2	11.7	29.9	100.0(137)	318.0
700만원 이상	3.7	2.1	10.0	14.2	20.5	14.7	34.7	100.0(190)	334.4
F									7.404***
주 양육자									
부모(어머니, 아버지)	0.7	1.4	3.5	4.9	7.3	11.3	70.9	100.0(1022)	522.1
조부모	4.6	5.1	14.3	27.4	24.6	12.6	11.4	100.0(175)	225.6
기타	0.7	4.3	12.7	16.4	27.8	15.1	23.1	100.0(299)	269.8
F									10.372***
모 학력									
고졸 이하	0.7	2.8	6.2	4.8	9.7	11.0	64.8	100.0(145)	487.3
전문대(2~3년제) 졸업	1.3	2.9	5.1	11.0	7.8	14.7	57.1	100.0(373)	446.7
4년제 대학 졸업	1.1	2.1	7.7	9.6	15.7	10.8	53.0	100.0(821)	432.6
대학원 이상	1.3	2.5	5.1	12.7	18.5	14.0	45.9	100.0(157)	390.4
F									7.377***
맞벌이 여부									
맞벌이	2.0	4.1	13.1	19.2	25.4	15.2	21.0	100.0(613)	256.6
외벌이	0.6	1.2	2.2	3.3	5.1	10.1	77.6	100.0(883)	562.2
t									4.065***
모 취업 여부2									
취업	2.0	4.4	13.1	19.7	24.6	14.5	21.6	100.0(654)	256.7
미취업	0.5	0.8	1.5	2.1	4.8	10.3	79.9	100.0(842)	576.9
t									4.310***
아동 연령									
0세	1.5	0.8	3.1	1.5	3.8	5.3	84.0	100.0(131)	665.1
1세	1.2	0.6	4.3	9.3	14.9	7.5	62.1	100.0(161)	517.6
2세	0.4	2.1	6.6	8.2	12.8	10.3	59.7	100.0(243)	454.1
3세	0.5	2.8	6.5	12.4	18.0	12.4	47.5	100.0(217)	379.8
4세	2.0	4.9	8.1	12.6	11.4	13.4	47.6	100.0(246)	385.0
5세	1.6	2.8	9.2	11.6	14.8	16.0	44.0	100.0(250)	375.0
6세	0.8	1.6	6.0	9.3	14.9	15.3	52.0	100.0(248)	411.3
F									4.49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0.9	1.3	5.0	6.9	11.2	8.2	66.4	100.0(535)	524.9
유아(36개월 이상)	1.2	3.0	7.5	11.4	14.7	14.4	47.8	100.0(961)	388.0
t									4.711***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1.1	3.0	7.6	11.1	15.5	14.4	47.4	100.0(1,218)	380.5
미이용	1.4	0.0	2.2	4.3	4.3	2.5	85.3	100.0(278)	684.5
t									-3.548***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01$

〈부록 표 Ⅲ-2-3〉 아버지가 하루 중 영유아와 함께 하는 시간(주말)

단위 : %(명), 분

구분	60분 미만	60분-120분 미만	120분-180분 미만	180분-240분 미만	240분-300분 미만	300분-360분 미만	360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2	4.1	6.1	9.0	6.0	8.4	63.2	100.0(1480)	498.3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4	7.2	9.2	10.1	5.8	9.2	55.1	100.0(207)	444.1
300~400만원 미만	5.1	6.2	5.9	11.5	5.6	9.4	56.3	100.0(373)	457.4
400~500만원 미만	2.1	3.0	8.2	8.8	7.9	8.2	61.7	100.0(329)	484.0
500~600만원 미만	2.9	1.2	5.3	8.2	4.9	7.8	69.8	100.0(245)	529.6
600~700만원 미만	2.2	1.4	4.3	5.8	8.0	8.0	70.3	100.0(138)	555.9
700만원 이상	2.7	3.7	1.6	6.4	3.7	7.4	74.5	100.0(188)	580.6
F									24.976***
부 학력									
고졸 이하	6.9	10.0	5.6	8.8	9.4	8.1	51.3	100.0(160)	450.5
전문대(2~3년제) 졸업	4.2	4.5	6.3	11.1	4.9	9.7	59.4	100.0(288)	480.4
4년제 대학 졸업	2.5	3.2	6.5	8.1	5.4	8.5	65.8	100.0(837)	507.6
대학원 이상	2.1	2.1	4.6	9.7	7.7	6.7	67.2	100.0(195)	523.5
F									1.43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	2.4	5.5	6.5	6.4	8.0	67.9	100.0(613)	535.8
외벌이	3.2	5.2	6.5	10.7	5.8	8.8	59.9	100.0(867)	471.7
t									-29.407***
모 취업 여부2									
취업	3.3	2.5	5.6	6.2	6.6	8.0	67.9	100.0(641)	536.5
미취업	3.2	5.3	6.5	11.1	5.6	8.9	59.4	100.0(835)	468.8
t									-30.769***
아동 연령									
0세	0.0	1.5	3.8	7.6	4.6	9.9	72.5	100.0(131)	530.2
1세	1.9	1.9	4.3	5.0	5.6	6.8	74.5	100.0(161)	575.0
2세	2.9	3.7	5.8	5.0	5.8	8.7	68.0	100.0(241)	537.2
3세	4.1	5.5	6.9	8.8	6.0	6.9	61.8	100.0(217)	486.9
4세	6.6	4.5	7.0	7.8	4.5	11.1	58.4	100.0(243)	468.1
5세	2.9	4.9	7.0	13.9	7.8	7.8	55.7	100.0(244)	446.7
6세	2.5	4.5	6.2	12.8	7.0	7.8	59.3	100.0(243)	483.5
F									26.778***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1.9	2.6	4.9	5.6	5.4	8.4	71.1	100.0(533)	546.9
유아(36개월 이상)	4.0	4.9	6.8	10.9	6.3	8.4	58.7	100.0(947)	470.9
t									9.223***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3.6	4.5	6.7	9.6	6.3	8.2	61.0	100.0(1204)	485.0
미이용	1.8	2.2	3.3	6.2	4.7	9.4	72.5	100.0(276)	555.9
t									-16.75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 $p < .001$

〈부록 표 Ⅲ-2-4〉 어머니가 하루 중 영유아와 함께 하는 시간(주말)

단위 : %(명), 분

구분	60분 미만	60분-120분 미만	120분-180분 미만	180분-240분 미만	240분-300분 미만	300분-360분 미만	360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3	1.0	1.3	2.1	2.8	5.5	85.9	100.0 (1496)	653.6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4	1.4	1.4	1.8	3.2	6.0	84.9	100.0 (218)	657.6
300~400만원 미만	2.1	1.3	1.1	2.9	2.1	6.1	84.4	100.0 (378)	644.8
400~500만원 미만	0.9	0.6	0.9	2.7	2.4	7.0	85.4	100.0 (328)	640.2
500~600만원 미만	1.2	0.8	2.0	2.0	2.9	3.3	87.8	100.0 (245)	651.6
600~700만원 미만	0.7	0.7	1.5	0.7	4.4	5.1	86.9	100.0 (137)	659.1
700만원 이상	0.5	1.1	1.6	1.1	3.2	4.7	87.9	100.0 (190)	688.6
F									0.943
모 학력									
고졸 이하	2.1	2.1	1.4	4.1	2.1	7.6	80.7	100.0 (145)	612.0
전문대(2~3년제) 졸업	2.1	0.8	0.8	1.9	2.7	5.4	86.3	100.0 (373)	679.1
4년제 대학 졸업	1.0	0.7	1.6	1.9	2.8	5.8	86.1	100.0 (821)	650.3
대학원 이상	0.0	1.9	1.3	1.9	3.8	2.5	88.5	100.0 (157)	649.3
F									2.426
모 취업 여부2									
취업	2.1	0.6	1.2	2.0	3.1	4.9	86.1	100.0 (654)	652.6
미취업	0.6	1.3	1.4	2.3	2.6	6.1	85.7	100.0 (842)	654.4
t									-0.128
아동 연령									
0세	0.8	0.8	1.5	0.8	2.3	3.1	90.8	100.0 (131)	684.3
1세	0.6	0.0	0.0	1.2	2.5	3.1	92.5	100.0 (161)	702.1
2세	1.2	0.8	1.2	2.1	1.6	3.3	89.7	100.0 (243)	680.2
3세	1.8	1.4	1.8	1.4	1.4	5.1	87.1	100.0 (217)	638.0
4세	1.6	1.6	1.2	2.0	3.7	7.3	82.5	100.0 (246)	642.8
5세	1.2	2.0	1.6	1.6	3.6	7.6	82.4	100.0 (250)	624.4
6세	1.2	0.0	1.6	4.8	4.0	7.3	81.0	100.0 (248)	633.8
F									2.564*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0.9	0.6	0.9	1.5	2.1	3.2	90.8	100.0 (535	687.8
유아(36개월 이상)	1.5	1.2	1.6	2.5	3.2	6.9	83.1	100.0 (961)	634.6
t									3.829***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1.4	1.1	1.1	2.5	3.0	6.1	84.7	100.0 (1218)	642.5
미이용	0.7	0.4	2.2	0.7	1.8	3.2	91.0	100.0 (278)	702.4
t									-3.420**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1, ***p 〈 .001

〈부록 표 Ⅲ-2-5〉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식사 중에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함	거의 안하는 편	종종 하는 편	매번 함	계(수)
전체	22.3	34.4	33.7	9.6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24.1	38.6	31.1	6.2	100.0 (601)
여성	21.0	31.6	35.5	11.9	100.0 (899)
$x^2(df)$			21.131***(3)		
응답자 연령대					
20대	18.5	40.7	18.5	22.2	100.0 (27)
30대	21.3	33.9	34.3	10.6	100.0 (1,039)
40대	24.9	35.3	33.4	6.5	100.0 (434)
$x^2(df)$			14.429*(6)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01

〈부록 표 Ⅲ-2-6〉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잠자기 전에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함	거의 안하는 편	종종 하는 편	매번 함	계(수)
전체	12.0	14.4	38.7	34.9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13.5	18.0	40.1	28.5	100.0 (601)
여성	11.0	12.0	37.8	39.2	100.0 (899)
$x^2(df)$			23.015***(3)		
응답자 연령대					
20대	11.1	7.4	37.0	44.4	100.0 (27)
30대	11.7	12.8	37.2	38.2	100.0 (1,039)
40대	12.7	18.7	42.4	26.3	100.0 (434)
$x^2(df)$			23.841**(6)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1, ***p 〈 .001

〈부록 표 Ⅲ-2-7〉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운전 중에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단순 통화 제외)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함	거의 안하는 편	종종 하는 편	매번 함	계(수)
전체	45.7	32.8	17.2	4.3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41.4	34.1	20.1	4.3	100.0 (601)
여성	48.5	31.9	15.2	4.3	100.0 (899)
$x^2(df)$			9.480*(3)		
응답자 연령대					
20대	44.4	40.7	11.1	3.7	100.0 (27)
30대	44.8	32.4	17.6	5.2	100.0 (1,039)
40대	47.9	33.2	16.6	2.3	100.0 (434)
$x^2(df)$			7.981(6)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부록 표 Ⅲ-2-8〉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누워서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함	거의 안하는 편	종종 하는 편	매번 함	계(수)
전체	9.9	14.7	48.5	26.9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10.0	17.5	51.2	21.3	100.0 (601)
여성	9.9	12.8	46.6	30.7	100.0 (899)
$x^2(df)$			18.804***(3)		
응답자 연령대					
20대	3.7	3.7	51.9	40.7	100.0 (27)
30대	9.4	13.4	46.2	31.0	100.0 (1,039)
40대	11.5	18.4	53.7	16.4	100.0 (434)
$x^2(df)$			39.892***(6)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01

〈부록 표 Ⅲ-2-9〉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한 번에 여러 미디어를 동시에 이용함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함	거의 안하는 편	종종 하는 편	매번 함	계(수)
전체	19.5	22.8	43.0	14.7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20.6	25.5	42.3	11.6	100.0 (601)
여성	18.7	21.0	43.5	16.8	100.0 (899)
$x^2(df)$			10.415*(3)		
응답자 연령대					
20대	29.6	18.5	33.3	18.5	100.0 (27)
30대	18.7	22.1	42.3	16.9	100.0 (1,039)
40대	20.7	24.7	45.4	9.2	100.0 (434)
$x^2(df)$			17.161**(6)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2) 해당 예: TV를 보면서 스마트폰 검색하는 경우
*p 〈 .05, **p 〈 .01

〈부록 표 Ⅲ-4-1〉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1) 보호자와 함께 이용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가끔 함	자주 함	항상 함	계(수)	
전체	7.6	33.0	31.9	27.5	100.0	(1,500)
응답자 연령대						
20대	11.1	25.9	22.2	40.7	100.0	(27)
30대	8.2	31.1	31.6	29.2	100.0	(1,039)
40대	6.0	38.0	33.2	22.8	100.0	(434)
$\chi^2(df)$			14.530*(6)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9.1	30.1	30.6	30.1	100.0	(219)
300~400만원 미만	8.5	33.1	26.7	31.7	100.0	(378)
400~500만원 미만	5.5	37.0	36.1	21.5	100.0	(330)
500~600만원 미만	7.8	37.6	29.8	24.9	100.0	(245)
600~700만원 미만	7.2	28.3	35.5	29.0	100.0	(138)
700만원 이상	7.9	26.8	36.3	28.9	100.0	(190)
$\chi^2(df)$			25.218*(15)			
모 취업 여부						
취업	7.5	34.9	31.5	26.1	100.0	(654)
휴직 중	10.6	28.9	28.9	31.7	100.0	(246)
학업 중	7.1	14.3	42.9	35.7	100.0	(14)
미취업	6.4	33.3	33.0	27.3	100.0	(582)
$\chi^2(df)$			11.366(9)			
아동 연령						
0세	26.0	24.4	17.6	32.1	100.0	(131)
1세	8.1	27.3	26.7	37.9	100.0	(161)
2세	4.5	30.7	27.5	37.3	100.0	(244)
3세	5.5	30.6	37.4	26.5	100.0	(219)
4세	6.9	34.1	32.1	26.8	100.0	(246)
5세	4.4	38.2	37.8	19.5	100.0	(251)
6세	6.5	39.1	35.9	18.5	100.0	(248)
$\chi^2(df)$			123.144***(18)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10.8	28.2	24.8	36.2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5.8	35.7	35.8	22.7	100.0	(964)
$\chi^2(df)$			53.018***(3)			
출생 순위						
첫째	7.0	29.7	29.3	34.0	100.0	(727)
둘째 이상	8.2	36.1	34.3	21.5	100.0	(773)
$\chi^2(df)$			29.441***(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01

〈부록 표 Ⅲ-4-2〉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2) 보호자와 이용 콘텐츠 함께 고르기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가끔 함	자주 함	항상 함	계(수)	
전체	15.8	30.9	28.4	24.9	100.0	(1,500)
응답자 연령대						
20대	40.7	7.4	22.2	29.6	100.0	(27)
30대	17.4	28.0	29.0	25.6	100.0	(1,039)
40대	10.4	39.4	27.4	22.8	100.0	(434)
$x^2(df)$			40.064***(6)			
모 취업 여부						
취업	15.1	34.3	27.1	23.5	100.0	(654)
휴직 중	22.8	24.8	27.2	25.2	100.0	(246)
학업 중	7.1	14.3	28.6	50.0	100.0	(14)
미취업	13.9	30.4	29.9	25.8	100.0	(582)
$x^2(df)$			21.459*(9)			
아동 연령						
0세	48.1	13.0	14.5	24.4	100.0	(131)
1세	29.2	21.1	24.8	24.8	100.0	(161)
2세	13.5	26.2	27.9	32.4	100.0	(244)
3세	7.8	38.4	30.1	23.7	100.0	(219)
4세	8.9	29.3	32.9	28.9	100.0	(246)
5세	10.8	36.7	33.5	19.1	100.0	(251)
6세	11.3	40.7	27.4	20.6	100.0	(248)
$x^2(df)$			190.335***(18)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26.7	21.5	23.7	28.2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9.8	36.2	31.0	23.0	100.0	(964)
$x^2(df)$			96.864***(3)			
출생 순위						
첫째	19.3	23.7	27.4	29.7	100.0	(727)
둘째 이상	12.5	37.8	29.4	20.3	100.0	(773)
$x^2(df)$			48.644***(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01

〈부록 표 Ⅲ-4-3〉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3) 보호자가 자녀와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하기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가끔 함	자주 함	항상 함	계(수)
전체	20.3	31.7	29.9	18.2	100.0 (1,500)
응답자 연령대					
20대	44.4	18.5	11.1	25.9	100.0 (27)
30대	21.8	30.6	28.9	18.8	100.0 (1,039)
40대	15.2	35.0	33.4	16.4	100.0 (434)
$\chi^2(df)$			25.012***(6)		
모 학력					
고졸 이하	19.3	30.3	24.8	25.5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18.8	38.1	28.4	14.7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21.2	28.9	32.2	17.8	100.0 (821)
대학원 이상	19.7	32.5	26.1	21.7	100.0 (157)
$\chi^2(df)$			19.321*(9)		
모 취업 여부					
취업	18.2	33.9	29.5	18.3	100.0 (654)
휴직 중	30.9	24.4	24.8	19.9	100.0 (246)
학업 중	0.0	21.4	28.6	50.0	100.0 (14)
미취업	18.6	32.5	32.5	16.5	100.0 (582)
$\chi^2(df)$			37.148***(9)		
아동 연령					
0세	59.5	9.9	13.0	17.6	100.0 (131)
1세	39.1	21.1	21.1	18.6	100.0 (161)
2세	20.1	32.0	27.5	20.5	100.0 (244)
3세	15.5	33.8	32.9	17.8	100.0 (219)
4세	12.2	36.6	31.3	19.9	100.0 (246)
5세	12.7	35.9	35.5	15.9	100.0 (251)
6세	7.3	38.7	37.1	16.9	100.0 (248)
$\chi^2(df)$			225.720***(18)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35.4	23.3	22.0	19.2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11.8	36.3	34.2	17.6	100.0 (964)
$\chi^2(df)$			130.876***(3)		
출생 순위					
첫째	25.0	26.4	27.0	21.6	100.0 (727)
둘째 이상	15.8	36.6	32.6	15.0	100.0 (773)
$\chi^2(df)$			41.061***(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01

〈부록 표 Ⅲ-4-4〉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4) 유해하거나 이용을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사이트, 앱 차단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가끔 함	자주 함	항상 함	계(수)
전체	28.3	12.9	15.5	43.2	100.0 (1,500)
응답자 연령대					
20대	48.1	11.1	11.1	29.6	100.0 (27)
30대	29.7	11.4	15.3	43.6	100.0 (1,039)
40대	23.7	16.8	16.4	43.1	100.0 (434)
$\chi^2(df)$			16.601*(6)		
모 취업 여부					
취업	27.2	14.7	17.7	40.4	100.0 (654)
휴직 중	36.2	9.3	10.6	43.9	100.0 (246)
학업 중	7.1	21.4	14.3	57.1	100.0 (14)
미취업	26.8	12.4	15.1	45.7	100.0 (582)
$\chi^2(df)$			21.975**(9)		
아동 연령					
0세	61.8	2.3	4.6	31.3	100.0 (131)
1세	42.9	9.3	11.2	36.6	100.0 (161)
2세	30.3	11.1	12.7	45.9	100.0 (244)
3세	26.9	13.2	15.5	44.3	100.0 (219)
4세	22.8	13.4	19.9	43.9	100.0 (246)
5세	17.1	17.9	16.7	48.2	100.0 (251)
6세	17.3	16.9	21.4	44.4	100.0 (248)
$\chi^2(df)$			140.475***(18)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41.8	8.4	10.3	39.6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20.9	15.5	18.5	45.2	100.0 (964)
$\chi^2(df)$			84.084***(3)		
출생 순위					
첫째	34.7	10.9	13.3	41.1	100.0 (727)
둘째 이상	22.4	14.9	17.6	45.1	100.0 (773)
$\chi^2(df)$			30.369***(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1, ***p 〈 .001

〈부록 표 Ⅲ-4-5〉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5) 자녀가 이용한 콘텐츠 확인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가끔 함	자주 함	항상 함	계(수)
전체	23.9	20.7	24.3	31.0	100.0 (1,500)
응답자 연령대					
20대	48.1	14.8	3.7	33.3	100.0 (27)
30대	26.4	17.8	24.5	31.3	100.0 (1,039)
40대	16.6	28.1	25.1	30.2	100.0 (434)
$x^2(df)$			40.135***(6)		
모 취업 여부					
취업	20.6	23.7	26.0	29.7	100.0 (654)
휴직 중	35.0	13.8	16.7	34.6	100.0 (246)
학업 중	0.0	14.3	35.7	50.0	100.0 (14)
미취업	23.5	20.4	25.4	30.6	100.0 (582)
$x^2(df)$			38.357***(9)		
모 취업 여부2					
취업	20.6	23.7	26.0	29.7	100.0 (654)
미취업	26.5	18.4	23.0	32.1	100.0 (842)
$x^2(df)$			12.229**(3)		
아동 연령					
0세	57.3	6.9	14.5	21.4	100.0 (131)
1세	46.0	11.2	16.8	26.1	100.0 (161)
2세	27.0	13.1	24.6	35.2	100.0 (244)
3세	20.5	22.8	22.4	34.2	100.0 (219)
4세	14.2	24.4	24.0	37.4	100.0 (246)
5세	13.9	28.3	29.9	27.9	100.0 (251)
6세	11.7	28.6	30.6	29.0	100.0 (248)
$x^2(df)$			201.855***(18)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40.1	11.0	19.8	29.1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14.9	26.1	26.9	32.1	100.0 (964)
$x^2(df)$			137.349***(3)		
출생 순위					
첫째	30.9	16.5	19.3	33.3	100.0 (727)
둘째 이상	17.3	24.7	29.1	28.8	100.0 (773)
$x^2(df)$			58.491***(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1, ***p 〈 .001

〈부록 표 Ⅲ-4-6〉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6) 미디어 이용 시간 제어 앱 활용 이용 시간 관리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가끔 함	자주 함	항상 함	계(수)
전체	49.3	16.5	14.4	19.7	100.0 (1,500)
응답자 연령대					
20대	51.9	18.5	3.7	25.9	100.0 (27)
30대	52.9	14.4	14.1	18.6	100.0 (1,039)
40대	40.6	21.4	15.9	22.1	100.0 (434)
$\chi^2(df)$			24.059**(6)		
모 학력					
고졸 이하	45.5	16.6	13.8	24.1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48.5	19.6	12.9	19.0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50.2	15.0	15.7	19.1	100.0 (821)
대학원 이상	49.7	17.8	12.1	20.4	100.0 (157)
$\chi^2(df)$			7.930(9)		
모 취업 여부					
취업	49.5	17.4	15.3	17.7	100.0 (654)
휴직 중	54.5	9.8	11.8	24.0	100.0 (246)
학업 중	50.0	7.1	14.3	28.6	100.0 (14)
미취업	46.7	18.7	14.6	19.9	100.0 (582)
$\chi^2(df)$			17.368*(9)		
아동 연령					
0세	71.0	6.9	2.3	19.8	100.0 (131)
1세	65.8	6.8	9.9	17.4	100.0 (161)
2세	50.4	15.6	13.5	20.5	100.0 (244)
3세	47.9	20.1	13.7	18.3	100.0 (219)
4세	43.5	17.9	18.3	20.3	100.0 (246)
5세	41.8	19.5	18.3	20.3	100.0 (251)
6세	40.7	21.4	17.3	20.6	100.0 (248)
$\chi^2(df)$			76.759***(18)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60.1	10.8	9.7	19.4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43.4	19.7	17.0	19.9	100.0 (964)
$\chi^2(df)$			48.799***(3)		
출생 순위					
첫째	57.4	13.1	12.9	16.6	100.0 (727)
둘째 이상	41.8	19.8	15.8	22.6	100.0 (773)
$\chi^2(df)$			37.611***(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1, ***p 〈 .001

〈부록 표 Ⅲ-4-7〉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7)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꺼놓기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가끔 함	자주 함	항상 함	계(수)
전체	19.5	12.7	17.5	50.3	100.0 (1,500)
응답자 연령대					
20대	33.3	14.8	14.8	37.0	100.0 (27)
30대	21.2	11.0	17.0	50.8	100.0 (1,039)
40대	14.7	16.6	18.7	50.0	100.0 (434)
$\chi^2(df)$			18.465**(6)		
모 취업 여부2					
취업	17.4	14.7	18.7	49.2	100.0 (654)
미취업	21.1	11.2	16.5	51.2	100.0 (842)
$\chi^2(df)$			7.426(3)		
아동 연령					
0세	50.4	4.6	5.3	39.7	100.0 (131)
1세	25.5	9.3	16.1	49.1	100.0 (161)
2세	20.1	13.5	14.3	52.0	100.0 (244)
3세	17.4	12.8	16.0	53.9	100.0 (219)
4세	11.0	11.8	23.6	53.7	100.0 (246)
5세	16.3	14.7	19.9	49.0	100.0 (251)
6세	12.5	16.9	20.6	50.0	100.0 (248)
$\chi^2(df)$			121.644***(18)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29.1	10.1	12.7	48.1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14.2	14.1	20.1	51.6	100.0 (964)
$\chi^2(df)$			55.249***(3)		
출생 순위					
첫째	23.8	10.2	16.2	49.8	100.0 (727)
둘째 이상	15.5	15.0	18.6	50.8	100.0 (773)
$\chi^2(df)$			21.334***(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1, ***p 〈 .001

〈부록 표 Ⅲ-4-8〉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8) 보호자가 있는 공간에서 이용하게 하기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가끔 함	자주 함	항상 함	계(수)
전체	11.6	11.9	24.2	52.3	100.0 (1,500)
응답자 연령대					
20대	25.9	7.4	14.8	51.9	100.0 (27)
30대	12.4	11.5	22.9	53.1	100.0 (1,039)
40대	8.8	12.9	27.9	50.5	100.0 (434)
$\chi^2(df)$			13.880*(6)		
모 취업 여부					
취업	9.6	12.1	27.7	50.6	100.0 (654)
휴직 중	21.1	10.2	15.4	53.3	100.0 (246)
학업 중	0.0	7.1	21.4	71.4	100.0 (14)
미취업	10.0	12.5	24.1	53.4	100.0 (582)
$\chi^2(df)$			38.247***(9)		
모 취업 여부2					
취업	9.6	12.1	27.7	50.6	100.0 (654)
미취업	13.1	11.8	21.5	53.7	100.0 (842)
$\chi^2(df)$			10.251*(3)		
아동 연령					
0세	38.9	4.6	8.4	48.1	100.0 (131)
1세	21.7	6.8	14.9	56.5	100.0 (161)
2세	10.2	9.8	19.7	60.2	100.0 (244)
3세	9.1	11.0	27.4	52.5	100.0 (219)
4세	4.5	13.4	27.2	54.9	100.0 (246)
5세	6.4	13.1	30.3	50.2	100.0 (251)
6세	6.5	19.0	31.0	43.5	100.0 (248)
$\chi^2(df)$			184.071***(18)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20.7	7.6	15.5	56.2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6.5	14.2	29.0	50.2	100.0 (964)
$\chi^2(df)$			100.662***(3)		
출생 순위					
첫째	15.0	9.9	18.8	56.3	100.0 (727)
둘째 이상	8.4	13.7	29.2	48.6	100.0 (773)
$\chi^2(df)$			39.455***(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01

〈부록 표 Ⅲ-4-9〉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지나친 제약인 것 같아서	이용하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령이 어리다고 해서 시간 제약을 둘 정도로 해로운 것 같지는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58.1	30.2	7.9	3.7	100.0 (215)
응답자 성별					
남성	51.2	37.8	8.5	2.4	100.0 (82)
여성	62.4	25.6	7.5	4.5	100.0 (133)
$\chi^2(df)$			4.258(3)		
응답자 연령대					
20대	60.0	20.0	20.0	0.0	100.0 (5)
30대	56.0	31.3	8.7	4.0	100.0 (150)
40대	63.3	28.3	5.0	3.3	100.0 (60)
$\chi^2(df)$			2.621(6)		
부 학력					
고졸 이하	60.0	24.0	8.0	8.0	100.0 (25)
전문대(2~3년제) 졸업	54.2	29.2	10.4	6.3	100.0 (48)
4년제 대학 졸업	54.5	34.5	9.1	1.8	100.0 (110)
대학원 이상	73.3	23.3	0.0	3.3	100.0 (30)
$\chi^2(df)$			9.083(9)		
모 학력					
고졸 이하	67.9	25.0	0.0	7.1	100.0 (28)
전문대(2~3년제) 졸업	51.6	35.5	11.3	1.6	100.0 (62)
4년제 대학 졸업	58.4	28.7	8.9	4.0	100.0 (101)
대학원 이상	62.5	29.2	4.2	4.2	100.0 (24)
$\chi^2(df)$			7.209(9)		
모 취업 여부2					
취업	52.5	34.3	9.1	4.0	100.0 (99)
미취업	62.9	26.7	6.9	3.4	100.0 (116)
$\chi^2(df)$			2.396(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59.0	28.2	7.7	5.1	100.0 (78)
유아(36개월 이상)	57.7	31.4	8.0	2.9	100.0 (137)
$\chi^2(df)$			0.840(3)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56.0	34.3	6.3	3.4	100.0 (175)
미이용	67.5	12.5	15.0	5.0	100.0 (40)
$\chi^2(df)$			9.195*(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부록 표 Ⅲ-4-10〉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장시간 미디어 이용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시간 미디어 이용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발달에 필요한 다른 활동이 부족해지므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미디어 과의존 및 중독이 될 수 있으므로	기타	계(수)
전체	45.1	22.5	32.2	0.2	100.0 (1,191)
응답자 성별					
남성	44.4	28.0	27.6	0.0	100.0 (482)
여성	45.6	18.8	35.4	0.3	100.0 (709)
$x^2(df)$			17.781***(3)		
응답자 연령대					
20대	20.0	35.0	45.0	0.0	100.0 (20)
30대	45.4	23.0	31.4	0.1	100.0 (812)
40대	45.7	20.6	33.4	0.3	100.0 (359)
$x^2(df)$			6.636(6)		
부 학력					
고졸 이하	36.2	19.7	44.1	0.0	100.0 (127)
전문대(2~3년제) 졸업	47.3	17.3	35.0	0.5	100.0 (220)
4년제 대학 졸업	45.7	24.7	29.4	0.1	100.0 (676)
대학원 이상	46.4	22.5	31.1	0.0	100.0 (151)
$x^2(df)$			16.428(9)		
모 학력					
고졸 이하	46.8	19.3	33.0	0.9	100.0 (109)
전문대(2~3년제) 졸업	45.2	21.6	33.2	0.0	100.0 (283)
4년제 대학 졸업	44.0	22.9	32.9	0.1	100.0 (672)
대학원 이상	50.4	25.2	24.4	0.0	100.0 (123)
$x^2(df)$			8.940(9)		
모 취업 여부2					
취업	46.6	22.6	30.7	0.0	100.0 (521)
미취업	44.1	22.4	33.2	0.3	100.0 (666)
$x^2(df)$			2.534(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47.9	23.4	28.7	0.0	100.0 (411)
유아(36개월 이상)	43.6	22.1	34.1	0.3	100.0 (780)
$x^2(df)$			4.811(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01$

〈부록 표 Ⅲ-5-1〉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을 받으려는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어떤 기기를 언제부터, 얼마나 이용해야 하는지 알고자	② 연령에 적합한 좋은 미디어 콘텐츠 정보를 알고자	③ 미디어를 보여달라고 떼쓰는 아이 지도방법	④ 유해 사이트, 앱 등을 차단관리 방법	⑤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중독) 예방	⑥ 미디어 과의존(중독) 상담 및 지원	⑦ 기타	계(수)
전체	27.2	21.4	24.4	3.1	23.1	0.9	0.0	100.0 (1,030)
응답자 성별								
남성	32.5	17.5	22.9	2.6	23.6	0.9	0.0	100.0 (424)
여성	23.4	24.1	25.4	3.5	22.8	0.8	0.0	100.0 (606)
$\chi^2(df)$				14.151*(5)				
모 취업 여부2								
취업	26.7	24.0	26.7	3.0	18.3	1.4	0.0	100.0 (438)
미취업	27.6	19.4	22.6	3.2	26.9	0.3	0.0	100.0 (588)
$\chi^2(df)$				15.747**(5)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32.9	17.3	27.0	1.3	20.9	0.5	0.0	100.0 (392)
유아(36개월 이상)	23.7	23.8	22.7	4.2	24.5	1.1	0.0	100.0 (638)
$\chi^2(df)$				23.351***(5)				
출생 순위								
첫째	29.9	19.5	26.8	2.1	20.7	1.0	0.0	100.0 (518)
둘째 이상	24.4	23.2	21.9	4.1	25.6	0.8	0.0	100.0 (512)
$\chi^2(df)$				13.213*(5)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24.6	22.2	24.7	3.7	23.8	1.0	0.0	100.0 (810)
미이용	36.8	18.2	23.2	0.9	20.5	0.5	0.0	100.0 (220)
$\chi^2(df)$				16.798**(5)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2) ① 자녀에게 어떤 미디어 기기를 언제부터, 얼마나 이용하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② 자녀 연령에 적합한 좋은 미디어 콘텐츠 정보를 알고 싶어서, ③ 미디어를 보여달라고 떼쓰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④ 유해한 프로그램, 사이트, 앱 등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⑤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중독)을 미리 예방하고 싶어서, ⑥ 미디어 과의존(중독) 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고 싶어서, ⑦ 기타

*p 〈 .05, **p 〈 .01, ***p 〈 .001

〈부록 표 Ⅲ-5-2〉 영유아 미디어 이용 교육에 희망하는 내용(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미디어 이용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② 연령별 적정 이용 시간	③ 연령별 적정 콘텐츠 정보	④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	⑤ 유해 사이트, 앱 차단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방법	⑥ 미디어 중독 체크리스트와 예방법	⑦ 관련 법과 정책, 지원 정보	⑧ 기타	계(수)	
전체	22.0	13.6	17.1	35.1	3.3	8.4	0.3	0.1	100.0	(1,030)
응답자 성별										
남성	26.7	14.4	14.9	29.7	1.9	12.0	0.5	0.0	100.0	(424)
여성	18.8	13.0	18.6	38.9	4.3	5.9	0.2	0.2	100.0	(606)
$\chi^2(df)$					32.245***(7)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24.5	15.1	13.0	38.5	1.0	7.9	0.0	0.0	100.0	(392)
유아(36개월 이상)	20.5	12.7	19.6	33.1	4.7	8.8	0.5	0.2	100.0	(638)
$\chi^2(df)$					23.569**(7)					
출생 순위										
첫째	20.5	16.0	17.8	36.9	2.1	6.4	0.2	0.2	100.0	(518)
둘째 이상	23.6	11.1	16.4	33.4	4.5	10.5	0.4	0.0	100.0	(512)
$\chi^2(df)$					17.892*(7)					

주1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2) ① 미디어 이용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② 연령별 적정 이용 시간, ③ 연령별 적정 콘텐츠 정보(좋은 프로그램 식별 방법 포함), ④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부모가 해야 할 행동, 지도방법 등), ⑤ 유해프로그램, 사이트, 앱 차단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방법, ⑥ 미디어 중독 체크리스트와 예방법(미디어 중독 상담기관 등 관련기관 정보 포함), ⑦ 관련 법과 정책, 지원 정보, ⑧ 기타

*p 〈 .05, **p 〈 .01, ***p 〈 .001

〈부록 표 Ⅲ-5-3〉 영유아 미디어 이용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법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서	부모 교육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	교육받을 필요가 없어서 (자녀가 미디어 이용을 적절하게 잘 하고 있어서)	교육 받을 시간이 없어서	가정에서의 지도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기타	계(수)
전체	18.1	12.4	26.1	29.2	12.4	1.8	100.0 (226)
응답자 성별							
남성	11.1	19.7	27.4	32.5	8.5	0.9	100.0 (117)
여성	25.7	4.6	24.8	25.7	16.5	2.8	100.0 (109)
$\chi^2(df)$				22.028**(5)			
모 취업 여부2							
취업	19.6	15.2	23.9	30.4	8.7	2.2	100.0 (92)
미취업	17.2	10.4	27.6	28.4	14.9	1.5	100.0 (134)
$\chi^2(df)$				3.393(5)			
출생 순위							
첫째	14.9	10.9	27.7	31.7	13.9	1.0	100.0 (101)
둘째 이상	20.8	13.6	24.8	27.2	11.2	2.4	100.0 (125)
$\chi^2(df)$				2.935(5)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부록 표 Ⅲ-6-1〉 다음의 미디어 유형에 따른 영유아의 적정 시작 연령: 1) TV

단위 : %(명), 세

구분	2세 이하	3~4세	5~6세	7세 이상	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체	46.3	40.0	10.5	3.2	100.0 (1,500)	0.0	15.0	2.8
응답자 성별								
남성	39.3	42.9	12.6	5.2	100.0 (601)	0.0	13.0	3.1
여성	50.9	38.0	9.1	1.9	100.0 (899)	0.0	15.0	2.6
$t(df)$					4.995***(1,498)			
응답자 연령대								
20대	70.4	22.2	7.4	0.0	100.0 (27)	0.0	5.0	2.0
30대	49.8	38.2	9.4	2.6	100.0 (1,039)	0.0	15.0	2.7
40대	36.4	45.4	13.4	4.8	100.0 (434)	0.0	15.0	3.2
$F(df)$					22.670***(1,499)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63.1	26.5	7.3	3.2	100.0 (536)	0.0	8.0	2.3
유아(36개월 이상)	36.9	47.5	12.3	3.2	100.0 (964)	0.0	15.0	3.1
$t(df)$					-8.965***(1,498)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01$

〈부록 표 Ⅲ-6-2〉 다음의 미디어 유형에 따른 영유아의 적정 시작 연령: 2) 개인용 컴퓨터 (데스크톱 PC, 노트북)

단위 : %(명), 세

구분	2세 이하	3~4세	5~6세	7세 이상	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체	11.9	16.1	26.1	45.8	100.0 (1,500)	0.0	16.0	5.8
응답자 성별								
남성	11.6	14.3	25.6	48.4	100.0 (601)	0.0	15.0	5.9
여성	12.1	17.4	26.5	44.0	100.0 (899)	0.0	16.0	5.7
t(df)					1.589(1,498)			
응답자 연령대								
20대	29.6	29.6	7.4	33.3	100.0 (27)	0.0	10.0	4.4
30대	13.8	15.6	26.6	44.1	100.0 (1,039)	0.0	16.0	5.7
40대	6.5	16.6	26.3	50.7	100.0 (434)	0.0	15.0	6.3
F(df)					10.737***(1,499)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19.6	12.5	25.6	42.4	100.0 (536	0.0	15.0	5.4
유아(36개월 이상)	7.7	18.2	26.5	47.7	100.0 (964)	0.0	16.0	6.0
t(df)					-4.018***(976.010)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01

〈부록 표 Ⅲ-6-3〉 다음의 미디어 유형에 따른 영유아의 적정 시작 연령: 3) 태블릿 PC (갤럭시탭, 윈도우 탭, 아이패드 등)

단위 : %(명), 세

구분	2세 이하	3~4세	5~6세	7세 이상	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체	17.2	33.7	29.0	20.1	100.0 (1,500)	0.0	33.0	4.6
응답자 성별								
남성	16.1	31.9	30.4	21.5	100.0 (601)	0.0	18.0	4.7
여성	17.9	34.8	28.0	19.2	100.0 (899)	0.0	33.0	4.6
t(df)					0.908(1,498)			
응답자 연령대								
20대	40.7	40.7	0.0	18.5	100.0 (27)	0.0	13.0	3.5
30대	19.6	34.4	27.5	18.5	100.0 (1,039)	0.0	33.0	4.5
40대	9.9	31.6	34.3	24.2	100.0 (434)	0.0	15.0	5.1
F(df)					11.088***(1,499)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28.5	27.1	21.8	22.6	100.0 (536)	0.0	18.0	4.3
유아(36개월 이상)	10.9	37.3	33.0	18.8	100.0 (964)	0.0	33.0	4.8
t(df)					-3.520***(939.856)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01

〈부록 표 Ⅲ-6-4〉 다음의 미디어 유형에 따른 영유아의 적정 시작 연령: 4) 게임콘솔

단위 : %(명), 세

구분	2세 이하	3~4세	5~6세	7세 이상	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체	10.9	9.6	24.8	54.7	100.0 (1,500)	0.0	25.0	6.7
응답자 성별								
남성	11.1	9.5	24.6	54.7	100.0 (601)	0.0	25.0	6.7
여성	10.7	9.7	24.9	54.7	100.0	0.0	19.0	6.7
t(df)					0.367(1,498)			
응답자 연령대								
20대	25.9	11.1	22.2	40.7	100.0 (27)	0.0	17.0	5.5
30대	12.6	9.6	24.0	53.8	100.0 (1039	0.0	20.0	6.6
40대	5.8	9.4	27.0	57.8	100.0 (434)	0.0	25.0	7.1
F(df)					5.027**(1,499)			
부 학력								
고졸 이하	16.3	9.4	23.8	50.6	100.0 (160)	0.0	19.0	6.2
전문대(2~3년제) 졸업	10.8	9.4	28.1	51.7	100.0 (288)	0.0	17.0	6.4
4년제 대학 졸업	10.9	10.4	23.3	55.4	100.0 (837)	0.0	25.0	6.8
대학원 이상	6.7	7.2	26.7	59.5	100.0 (195)	0.0	19.0	7.2
F(df)					3.647*(1,479)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17.5	6.7	21.3	54.5	100.0 (536)	0.0	25.0	6.5
유아(36개월 이상)	7.2	11.2	26.8	54.9	100.0 (964)	0.0	19.0	6.8
t(df)					-1.340(930.076)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1

〈부록 표 Ⅲ-6-5〉 하루 최대 이용 시간: 모든 유형의 미디어

단위 : %(명), 분

구분	60분 미만	60분 이상 ~120분 미만	120분 이상 ~180분 미만	180분 이상	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체	18.4	37.3	27.7	16.6	100.0 (1,500)	0.0	330.0	97.3
응답자 성별								
남성	17.6	33.1	28.0	21.3	100.0 (601)	0.0	330.0	104.7
여성	18.9	40.0	27.6	13.5	100.0 (899)	0.0	330.0	92.3
t(df)	3.572***(1,162.439)							
응답자 연령대								
20대	37.0	29.6	22.2	11.1	100.0 (27)	0.0	180.0	70.6
30대	18.8	37.0	28.1	16.2	100.0 (1,039)	0.0	330.0	96.3
40대	16.4	38.5	27.2	18.0	100.0 (434)	0.0	330.0	101.2
F(df)	3.261*(1,499)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26.3	33.2	25.0	15.5	100.0 (536)	0.0	330.0	89.3
유아(36개월 이상)	14.0	39.5	29.3	17.2	100.0 (964)	0.0	330.0	101.7
t(df)	-3.541***(1,053.365)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01

〈부록 표 Ⅲ-6-6〉 하루 최대 이용 시간: 1) TV

단위 : %(명), 분

구분	60분 미만	60분 이상 ~120분 미만	120분 이상 ~180분 미만	180분 이상	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체	44.6	44.2	9.1	2.1	100.0 (1,500)	0.0	300.0	54.1
응답자 성별								
남성	40.4	47.6	10.1	1.8	100.0 (601)	0.0	300.0	55.0
여성	47.4	41.9	8.5	2.2	100.0 (899)	0.0	300.0	53.5
t(df)				0.780(1,498)				
응답자 연령대								
20대	70.4	18.5	11.1	0.0	100.0 (27)	0.0	120.0	40.9
30대	43.3	46.5	8.3	1.9	100.0 (1,039)	0.0	300.0	53.7
40대	46.1	40.3	11.1	2.5	100.0 (434)	0.0	240.0	55.8
F(df)				2.298(1,499)				
지역 규모								
대도시	45.6	43.5	9.2	1.7	100.0 (588)	0.0	300.0	53.5
중소도시	45.9	43.4	8.7	2.0	100.0 (710)	0.0	300.0	53.0
읍면지역	37.1	49.0	10.4	3.5	100.0 (202)	0.0	300.0	60.0
F(df)				3.047*(1,499)				
부 학력								
고졸 이하	39.4	44.4	10.6	5.6	100.0 (160)	0.0	240.0	61.2
전문대(2~3년제) 졸업	45.8	38.5	12.2	3.5	100.0 (288)	0.0	300.0	58.3
4년제 대학 졸업	44.3	46.7	7.8	1.2	100.0 (837)	0.0	240.0	51.7
대학원 이상	48.2	42.1	9.2	0.5	100.0 (195)	0.0	300.0	51.6
F(df)				4.908**(1,479)				
모 학력								
고졸 이하	43.4	42.1	10.3	4.1	100.0 (145)	0.0	240.0	58.0
전문대(2~3년제) 졸업	42.4	42.6	11.8	3.2	100.0 (373)	0.0	300.0	58.2
4년제 대학 졸업	45.9	44.6	8.0	1.5	100.0 (821)	0.0	300.0	52.1
대학원 이상	45.2	47.8	6.4	0.6	100.0 (157)	0.0	180.0	50.2
F(df)				3.608*(1,495)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48.7	40.1	9.7	1.5	100.0 (536)	0.0	240.0	50.8
유아(36개월 이상)	42.3	46.5	8.8	2.4	100.0 (964)	0.0	300.0	56.0
t(df)				-2.652**(1,498)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1

〈부록 표 Ⅲ-6-7〉 하루 최대 이용 시간: 2) 개인용 컴퓨터 (데스크톱 PC, 노트북)

단위 : %(명), 분

구분	60분 미만	60분 이상 ~120분 미만	120분 이상 ~180분 미만	180분 이상	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체	55.9	38.5	5.0	0.7	100.0 (1,500)	0.0	300.0	41.4
응답자 성별								
남성	51.4	41.8	6.0	0.8	100.0 (601)	0.0	300.0	43.8
여성	58.8	36.3	4.3	0.6	100.0 (899)	0.0	180.0	39.8
t(df)				2.353*(1,498)				
응답자 연령대								
20대	70.4	18.5	7.4	3.7	100.0 (27)	0.0	180.0	39.1
30대	55.1	40.0	4.4	0.4	100.0 (1,039)	0.0	300.0	40.9
40대	56.7	35.9	6.2	1.2	100.0 (434)	0.0	180.0	42.9
F(df)				0.671(1,499)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55.2	38.4	5.8	0.6	100.0 (536)	0.0	180.0	40.8
유아(36개월 이상)	56.2	38.5	4.6	0.7	100.0 (964)	0.0	300.0	41.8
t(df)				-0.544(1,498)				

주1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부록 표 Ⅲ-6-8〉 하루 최대 이용 시간: 3) 태블릿 PC (갤럭시탭, 윈도우 탭, 아이패드 등)

단위 : %(명), 분

구분	60분 미만	60분 이상 ~120분 미만	120분 이상 ~180분 미만	180분 이상	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체	53.1	40.3	5.9	0.7	100.0 (1,500)	0.0	300.0	45.6
응답자 성별								
남성	49.1	44.4	5.7	0.8	100.0 (601)	0.0	300.0	46.9
여성	55.8	37.6	6.0	0.6	100.0 (899)	0.0	300.0	44.7
t(df)				1.298(1,498)				
응답자 연령대								
20대	63.0	22.2	14.8	0.0	100.0 (27)	0.0	120.0	43.9
30대	52.7	41.0	5.7	0.6	100.0 (1,039)	0.0	300.0	45.5
40대	53.5	39.9	5.8	0.9	100.0 (434)	0.0	240.0	45.8
F(df)				0.055(1,499)				
부 학력								
고졸 이하	46.9	43.1	7.5	2.5	100.0 (160)	0.0	240.0	50.4
전문대(2~3년제) 졸업	53.1	40.6	5.6	0.7	100.0 (288)	0.0	300.0	45.8
4년제 대학 졸업	54.6	40.1	5.0	0.2	100.0 (837)	0.0	180.0	43.7
대학원 이상	52.3	37.9	8.7	1.0	100.0 (195)	0.0	300.0	49.1
F(df)				3.104*(1,479)				
모 학력								
고졸 이하	45.5	44.8	8.3	1.4	100.0 (145)	0.0	240.0	50.8
전문대(2~3년제) 졸업	48.8	43.2	7.0	1.1	100.0 (373)	0.0	300.0	48.1
4년제 대학 졸업	55.4	39.3	4.9	0.4	100.0 (821)	0.0	180.0	43.7
대학원 이상	58.6	35.7	5.1	0.6	100.0 (157)	0.0	300.0	43.6
F(df)				3.368*(1,495)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54.3	39.0	6.3	0.4	100.0 (536)	0.0	180.0	43.2
유아(36개월 이상)	52.5	41.1	5.6	0.8	100.0 (964)	0.0	300.0	46.9
t(df)				-2.181*(1,498)				

주1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부록 표 Ⅲ-6-9〉 하루 최대 이용 시간: 4) 게임콘솔

단위 : %(명), 분

구분	60분 미만	60분 이상 ~120분 미만	120분 이상 ~180분 미만	180분 이상	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체	58.5	36.2	4.7	0.6	100.0 (1,500)	0.0	300.0	39.3
응답자 성별								
남성	53.4	40.3	5.8	0.5	100.0 (601)	0.0	300.0	41.2
여성	61.8	33.5	4.0	0.7	100.0 (899)	0.0	300.0	38.0
t(df)				1.874(1,237.576)				
응답자 연령대								
20대	66.7	22.2	11.1	0.0	100.0 (27)	0.0	120.0	35.9
30대	57.5	37.9	3.8	0.8	100.0 (1,039)	0.0	300.0	39.2
40대	60.4	32.9	6.5	0.2	100.0 (434)	0.0	180.0	39.6
F(df)				0.164(1,499)				
부 학력								
고졸 이하	53.8	36.9	9.4	0.0	100.0 (160)	0.0	150.0	41.7
전문대(2~3년제) 졸업	57.3	38.5	3.1	1.0	100.0 (288)	0.0	300.0	40.5
4년제 대학 졸업	60.8	34.8	4.1	0.4	100.0 (837)	0.0	180.0	37.2
대학원 이상	53.3	39.0	6.2	1.5	100.0 (195)	0.0	300.0	44.4
F(df)				3.149*(1,479)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57.8	35.8	5.8	0.6	100.0 (536)	0.0	180.0	38.5
유아(36개월 이상)	58.8	36.4	4.1	0.6	100.0 (964)	0.0	300.0	39.7
t(df)				-0.696(1,074.649)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부록 표 Ⅲ-6-10〉 하루 최대 이용 시간: 5) 기타(인공지능 스피커, 가상현실 기기 등)

단위 : %(명), 분

구분	60분 미만	60분 이상 ~120분 미만	120분 이상 ~180분 미만	180분 이상	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체	82.7	15.0	2.1	0.3	100.0 (1,500)	0.0	300.0	19.9
응답자 성별								
남성	80.9	16.5	2.3	0.3	100.0 (601)	0.0	300.0	20.7
여성	83.9	14.0	1.9	0.2	100.0 (899)	0.0	210.0	19.4
t(df)	0.830(1,167.070)							
응답자 연령대								
20대	88.9	7.4	3.7	0.0	100.0 (27)	0.0	120.0	16.2
30대	83.3	14.5	1.7	0.4	100.0 (7039)	0.0	300.0	19.6
40대	80.6	16.6	2.8	0.0	100.0 (434)	0.0	120.0	20.9
F(df)	0.551(1,499)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80.6	16.4	2.6	0.4	100.0 (536)	0.0	300.0	21.2
유아(36개월 이상)	83.8	14.2	1.8	0.2	100.0 (964)	0.0	240.0	19.2
t(df)	1.264(987.685)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부록 표 Ⅲ-6-11〉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1) 정보/교육용 동영상

단위 : %(명)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계(수)
전체	2.5	7.1	72.9	17.5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2.8	7.8	69.6	19.8	100.0 (601)
여성	2.3	6.7	75.1	15.9	100.0 (899)
$\chi^2(df)$			5.648(3)		
응답자 연령대					
20대	11.1	3.7	70.4	14.8	100.0 (27)
30대	2.6	7.5	71.3	18.6	100.0 (1,039)
40대	1.8	6.5	76.7	15.0	100.0 (434)
$\chi^2(df)$			13.240*(6)		
부 학력					
고졸 이하	3.1	5.6	69.4	21.9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1.0	7.3	76.0	15.6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2.9	7.3	72.5	17.3	100.0 (837)
대학원 이상	3.1	7.7	72.3	16.9	100.0 (195)
$\chi^2(df)$			6.999(9)		
모 학력					
고졸 이하	1.4	4.8	68.3	25.5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2.1	7.2	75.9	14.7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2.6	7.7	73.2	16.6	100.0 (821)
대학원 이상	4.5	6.4	68.8	20.4	100.0 (157)
$\chi^2(df)$			14.213(9)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5.8	8.8	69.4	16.0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0.7	6.2	74.8	18.3	100.0 (964)
$\chi^2(df)$			40.245***(3)		

주1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01

〈부록 표 Ⅲ-6-12〉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2) 오락용 동영상

단위 : %(명)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계(수)
전체	24.9	49.7	24.4	0.9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20.6	47.1	30.8	1.5	100.0 (601)
여성	27.8	51.5	20.1	0.6	100.0 (899)
$\chi^2(df)$			29.010***(3)		
응답자 연령대					
20대	33.3	48.1	18.5	0.0	100.0 (27)
30대	24.7	50.0	24.2	1.2	100.0 (1,039)
40대	24.9	49.3	25.3	0.5	100.0 (434)
$\chi^2(df)$			3.224(6)		
부 학력					
고졸 이하	28.8	40.6	30.6	0.0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24.3	52.8	22.9	0.0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23.3	51.7	23.4	1.6	100.0 (837)
대학원 이상	29.7	44.6	25.1	0.5	100.0 (195)
$\chi^2(df)$			19.654*(9)		
모 학력					
고졸 이하	19.3	53.1	27.6	0.0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24.4	46.6	27.6	1.3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25.7	51.6	21.9	0.7	100.0 (821)
대학원 이상	26.8	44.6	27.4	1.3	100.0 (157)
$\chi^2(df)$			12.261(9)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33.8	43.7	21.8	0.7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20.0	53.1	25.8	1.0	100.0 (964)
$\chi^2(df)$			34.878***(3)		

주1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 p 〈 .001

〈부록 표 Ⅲ-6-13〉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3) 음악 동영상 및 음악용 앱

단위 : %(명)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계(수)
전체	7.5	23.7	64.4	4.3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7.8	27.3	59.6	5.3	100.0 (601)
여성	7.3	21.4	67.6	3.7	100.0 (899)
$\chi^2(df)$			11.358*(3)		
응답자 연령대					
20대	14.8	11.1	70.4	3.7	100.0 (27)
30대	7.7	23.2	64.2	4.9	100.0 (1,039)
40대	6.7	25.8	64.5	3.0	100.0 (434)
$\chi^2(df)$			7.849(6)		
부 학력					
고졸 이하	5.6	16.9	72.5	5.0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6.9	23.3	64.6	5.2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8.2	25.6	62.2	3.9	100.0 (837)
대학원 이상	7.7	22.1	66.2	4.1	100.0 (195)
$\chi^2(df)$			9.376(9)		
모 학력					
고졸 이하	4.1	22.8	68.3	4.8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6.4	23.1	64.3	6.2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7.8	25.0	63.7	3.5	100.0 (821)
대학원 이상	12.1	19.1	65.6	3.2	100.0 (157)
$\chi^2(df)$			14.448(9)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13.6	24.4	57.3	4.7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4.1	23.3	68.4	4.1	100.0 (964)
$\chi^2(df)$			47.966***(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01

〈부록 표 Ⅲ-6-14〉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4) 교육용 앱, 프로그램 (교육용 게임 포함)

단위 : %(명)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계(수)
전체	4.7	10.1	66.1	19.1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4.7	10.6	63.9	20.8	100.0 (601)
여성	4.8	9.8	67.5	17.9	100.0 (899)
$\chi^2(df)$			2.569(3)		
응답자 연령대					
20대	14.8	3.7	66.7	14.8	100.0 (27)
30대	4.9	11.0	63.9	20.2	100.0 (1,039)
40대	3.7	8.5	71.2	16.6	100.0 (434)
$\chi^2(df)$			14.631*(6)		
부 학력					
고졸 이하	5.6	8.1	61.9	24.4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2.4	11.1	66.7	19.8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5.3	9.6	67.1	18.0	100.0 (837)
대학원 이상	5.6	12.3	65.1	16.9	100.0 (195)
$\chi^2(df)$			10.342(9)		
모 학력					
고졸 이하	3.4	5.5	66.9	24.1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4.0	10.2	65.4	20.4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4.9	10.2	67.2	17.7	100.0 (821)
대학원 이상	7.0	14.0	61.1	17.8	100.0 (157)
$\chi^2(df)$			12.077(9)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9.0	11.8	61.0	18.3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2.4	9.2	68.9	19.5	100.0 (964)
$\chi^2(df)$			37.067***(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01

〈부록 표 Ⅲ-6-15〉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5) 오락용 게임

단위 : %(명)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계(수)
전체	31.7	47.8	19.7	0.8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26.8	46.1	26.5	0.7	100.0 (601)
여성	35.0	48.9	15.1	0.9	100.0 (899)
$\chi^2(df)$			32.069***(3)		
응답자 연령대					
20대	37.0	51.9	7.4	3.7	100.0 (27)
30대	32.4	47.0	19.9	0.7	100.0 (1,039)
40대	29.7	49.5	19.8	0.9	100.0 (434)
$\chi^2(df)$			6.707(6)		
부 학력					
고졸 이하	33.1	43.1	23.1	0.6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30.6	50.0	19.1	0.3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30.5	49.0	19.7	0.8	100.0 (837)
대학원 이상	38.5	43.1	17.4	1.0	100.0 (195)
$\chi^2(df)$			8.055(9)		
모 학력					
고졸 이하	22.8	55.9	20.0	1.4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29.2	46.9	22.8	1.1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33.7	47.4	18.3	0.6	100.0 (821)
대학원 이상	35.0	44.6	19.7	0.6	100.0 (157)
$\chi^2(df)$			12.449(9)		
모 취업 여부2					
취업	27.7	48.8	22.8	0.8	100.0 (654)
미취업	34.8	47.0	17.3	0.8	100.0 (842)
$\chi^2(df)$			11.679**(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41.6	40.1	17.4	0.9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26.2	52.1	21.0	0.7	100.0 (964)
$\chi^2(df)$			38.381***(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1, ***p 〈 .001

〈부록 표 Ⅲ-6-16〉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6) 전자책

단위 : %(명)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계(수)
전체	16.7	28.8	46.2	8.3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15.5	26.5	47.4	10.6	100.0 (601)
여성	17.5	30.4	45.4	6.8	100.0 (899)
$\chi^2(df)$			9.545*(3)		
응답자 연령대					
20대	25.9	14.8	48.1	11.1	100.0 (27)
30대	16.6	28.3	46.2	9.0	100.0 (1,039)
40대	16.4	30.9	46.1	6.7	100.0 (434)
$\chi^2(df)$			6.165(6)		
부 학력					
고졸 이하	19.4	20.0	51.9	8.8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13.2	32.6	46.5	7.6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16.5	29.4	45.9	8.2	100.0 (837)
대학원 이상	20.5	28.7	41.5	9.2	100.0 (195)
$\chi^2(df)$			12.830(9)		
모 학력					
고졸 이하	6.2	29.0	54.5	10.3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15.5	27.9	47.2	9.4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17.3	29.2	45.3	8.2	100.0 (821)
대학원 이상	25.5	29.3	40.8	4.5	100.0 (157)
$\chi^2(df)$			24.953**(9)		
모 취업 여부2					
취업	15.0	28.0	48.6	8.4	100.0 (654)
미취업	17.9	29.6	44.3	8.2	100.0 (842)
$\chi^2(df)$			3.756(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22.9	24.3	42.4	10.4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13.2	31.3	48.3	7.2	100.0 (964)
$\chi^2(df)$			32.877***(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1, ***p 〈 .001

〈부록 표 Ⅲ-6-17〉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7) 인터넷 검색용

단위 : %(명)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계(수)
전체	15.5	27.6	50.7	6.1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16.3	28.3	49.1	6.3	100.0 (601)
여성	15.0	27.1	51.8	6.0	100.0 (899)
$\chi^2(df)$			1.152(3)		
응답자 연령대					
20대	22.2	11.1	59.3	7.4	100.0 (27)
30대	15.8	27.2	49.7	7.3	100.0 (1,039)
40대	14.5	29.5	52.8	3.2	100.0 (434)
$\chi^2(df)$			13.774*(6)		
부 학력					
고졸 이하	16.3	22.5	54.4	6.9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13.9	29.5	51.4	5.2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15.1	27.1	51.3	6.6	100.0 (837)
대학원 이상	20.5	30.8	43.6	5.1	100.0 (195)
$\chi^2(df)$			9.984(9)		
모 학력					
고졸 이하	11.7	28.3	51.0	9.0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14.5	27.3	51.5	6.7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15.6	27.4	51.4	5.6	100.0 (821)
대학원 이상	20.4	29.3	45.2	5.1	100.0 (157)
$\chi^2(df)$			8.013(9)		
모 취업 여부2					
취업	14.1	28.7	50.5	6.7	100.0 (654)
미취업	16.5	26.8	51.0	5.7	100.0 (842)
$\chi^2(df)$			2.552(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21.6	26.9	44.8	6.7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12.1	28.0	54.0	5.8	100.0 (964)
$\chi^2(df)$			26.494***(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01

〈부록 표 Ⅲ-6-18〉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8) 화상통화·미팅, 메신저

단위 : %(명)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계(수)
전체	24.8	33.2	39.1	2.9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21.8	33.8	40.9	3.5	100.0 (601)
여성	26.8	32.8	37.9	2.4	100.0 (899)
$\chi^2(df)$			5.953(3)		
응답자 연령대					
20대	22.2	22.2	55.6	0.0	100.0 (27)
30대	24.5	32.7	39.6	3.2	100.0 (1,039)
40대	25.6	35.0	37.1	2.3	100.0 (434)
$\chi^2(df)$			5.660(6)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7.4	32.9	38.4	1.4	100.0 (219)
300~400만원 미만	22.0	32.5	42.9	2.6	100.0 (378)
400~500만원 미만	23.6	29.1	44.8	2.4	100.0 (330)
500~600만원 미만	26.5	42.0	27.3	4.1	100.0 (245)
600~700만원 미만	21.7	30.4	44.2	3.6	100.0 (138)
700만원 이상	29.5	32.6	34.2	3.7	100.0 (190)
$\chi^2(df)$			31.226**(15)		
부 학력					
고졸 이하	28.1	31.9	38.1	1.9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30.6	30.6	37.2	1.7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22.7	34.6	39.3	3.3	100.0 (837)
대학원 이상	23.6	31.3	42.1	3.1	100.0 (195)
$\chi^2(df)$			10.871(9)		
모 학력					
고졸 이하	25.5	35.2	37.2	2.1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26.8	30.0	40.2	2.9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24.0	35.2	37.8	3.0	100.0 (821)
대학원 이상	22.3	28.7	46.5	2.5	100.0 (157)
$\chi^2(df)$			7.788(9)		
모 취업 여부2					
취업	22.8	34.1	39.4	3.7	100.0 (654)
미취업	26.1	32.5	39.1	2.3	100.0 (842)
$\chi^2(df)$			4.509(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28.0	30.0	39.0	3.0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23.0	35.0	39.2	2.8	100.0 (964)
$\chi^2(df)$			5.969(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1$

〈부록 표 Ⅲ-6-19〉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9) SNS (인*타그램,페*스북 등)

단위 : %(명)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계(수)
전체	47.9	39.4	12.1	0.7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42.8	41.3	15.5	0.5	100.0 (601)
여성	51.3	38.2	9.8	0.8	100.0 (899)
$\chi^2(df)$			16.415**(3)		
응답자 연령대					
20대	40.7	44.4	14.8	0.0	100.0 (27)
30대	49.5	37.8	12.1	0.6	100.0 (1,039)
40대	44.5	42.9	11.8	0.9	100.0 (434)
$\chi^2(df)$			4.971(6)		
부 학력					
고졸 이하	48.1	37.5	13.1	1.3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49.3	37.2	13.2	0.3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45.6	41.8	12.2	0.4	100.0 (837)
대학원 이상	54.4	34.4	9.2	2.1	100.0 (195)
$\chi^2(df)$			15.427(9)		
모 학력					
고졸 이하	41.4	40.0	16.6	2.1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47.2	39.9	12.1	0.8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47.7	40.0	11.8	0.5	100.0 (821)
대학원 이상	54.8	35.7	9.6	0.0	100.0 (157)
$\chi^2(df)$			12.618(9)		
모 취업 여부2					
취업	43.3	40.8	14.8	1.1	100.0 (654)
미취업	51.2	38.5	10.0	0.4	100.0 (842)
$\chi^2(df)$			15.325**(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54.1	33.8	11.2	0.9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44.4	42.5	12.6	0.5	100.0 (964)
$\chi^2(df)$			14.905**(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1$

〈부록 표 Ⅲ-6-20〉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10) 운동용 앱 프로그램

단위 : %(명)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계(수)
전체	27.9	29.9	38.1	4.1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24.5	31.3	39.1	5.2	100.0 (601)
여성	30.3	29.0	37.4	3.3	100.0 (899)
$\chi^2(df)$			8.161*(3)		
응답자 연령대					
20대	25.9	22.2	48.1	3.7	100.0 (27)
30대	29.1	28.5	38.2	4.2	100.0 (1,039)
40대	25.3	33.9	37.1	3.7	100.0 (434)
$\chi^2(df)$			6.134(6)		
부 학력					
고졸 이하	30.0	23.8	38.8	7.5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27.8	31.3	37.8	3.1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26.6	30.8	38.9	3.6	100.0 (837)
대학원 이상	32.8	28.7	33.8	4.6	100.0 (195)
$\chi^2(df)$			11.945(9)		
모 학력					
고졸 이하	24.8	25.5	42.8	6.9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24.9	31.6	38.9	4.6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29.1	30.2	37.1	3.5	100.0 (821)
대학원 이상	31.8	28.7	36.3	3.2	100.0 (157)
$\chi^2(df)$			9.535(9)		
모 취업 여부2					
취업	25.7	30.1	39.9	4.3	100.0 (654)
미취업	29.7	29.8	36.6	3.9	100.0 (842)
$\chi^2(df)$			3.314(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36.4	25.6	34.1	3.9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23.2	32.4	40.2	4.1	100.0 (964)
$\chi^2(df)$			30.056***(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01

〈부록 표 Ⅲ-6-21〉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11) 음악용 앱 (멜*)

단위 : %(명)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계(수)
전체	23.1	29.2	44.9	2.9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20.0	29.1	48.1	2.8	100.0 (601)
여성	25.1	29.3	42.7	2.9	100.0 (899)
$\chi^2(df)$			6.502(3)		
응답자 연령대					
20대	22.2	29.6	44.4	3.7	100.0 (27)
30대	24.1	27.3	45.4	3.2	100.0 (1,039)
40대	20.7	33.6	43.5	2.1	100.0 (434)
$\chi^2(df)$			7.254(6)		
부 학력					
고졸 이하	25.0	26.3	40.6	8.1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25.0	31.3	41.7	2.1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22.7	29.4	46.2	1.7	100.0 (837)
대학원 이상	21.5	27.7	46.2	4.6	100.0 (195)
$\chi^2(df)$			26.233**(9)		
모 학력					
고졸 이하	22.8	33.1	39.3	4.8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23.9	26.3	45.6	4.3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22.3	30.7	45.1	1.9	100.0 (821)
대학원 이상	24.8	25.5	47.1	2.5	100.0 (157)
$\chi^2(df)$			12.003(9)		
모 취업 여부2					
취업	19.1	30.1	47.6	3.2	100.0 (654)
미취업	26.0	28.6	42.8	2.6	100.0 (842)
$\chi^2(df)$			10.244*(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28.7	24.4	43.1	3.7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19.9	31.8	45.9	2.4	100.0 (964)
$\chi^2(df)$			20.830***(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1, ***p 〈 .001

〈부록 표 Ⅲ-6-22〉 콘텐츠 유형별 영유아의 이용에 대한 의견: 12) 사진, 동영상 촬영

단위 : %(명)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계(수)
전체	5.7	18.3	67.3	8.7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6.2	19.8	67.4	6.7	100.0 (601)
여성	5.5	17.2	67.3	10.0	100.0 (899)
$\chi^2(df)$			6.284(3)		
응답자 연령대					
20대	3.7	3.7	85.2	7.4	100.0 (27)
30대	6.1	16.7	67.0	10.3	100.0 (1,039)
40대	5.1	23.0	67.1	4.8	100.0 (434)
$\chi^2(df)$			22.643**(6)		
부 학력					
고졸 이하	7.5	16.3	65.6	10.6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4.9	18.8	70.1	6.3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5.7	18.6	66.7	9.0	100.0 (837)
대학원 이상	6.2	17.4	67.2	9.2	100.0 (195)
$\chi^2(df)$			5.082(9)		
모 학력					
고졸 이하	4.1	20.0	66.9	9.0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7.2	18.5	66.8	7.5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5.0	18.3	68.5	8.3	100.0 (821)
대학원 이상	7.0	16.6	63.1	13.4	100.0 (157)
$\chi^2(df)$			9.204(9)		
모 취업 여부2					
취업	4.4	18.3	68.0	9.2	100.0 (654)
미취업	6.7	18.3	66.7	8.3	100.0 (842)
$\chi^2(df)$			3.590(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8.2	15.3	66.2	10.3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4.4	19.9	67.9	7.8	100.0 (964)
$\chi^2(df)$			15.535**(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1$

〈부록 표 Ⅲ-6-23〉 영유아를 위한 교육매체로 활용하기에 유용한 미디어 기기(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공중파 TV	② 유료 TV	③ 스마트 TV	④ 개인용 컴퓨터	⑤ 게임 콘솔	⑥ 태블릿 PC	⑦ 전자책 단말기	⑧ 스마트 폰	⑨ 가상현실 기기	⑩ 인공지능 스피커	계(수)	
전체	19.9	16.3	20.3	3.7	0.6	26.5	5.6	5.8	0.1	1.2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14.3	15.3	23.1	4.5	0.7	27.0	7.7	6.2	0.2	1.2	100.0	(601)
여성	23.6	16.9	18.5	3.2	0.6	26.3	4.2	5.6	0.0	1.2	100.0	(899)
$x^2(df)$						30.974***(9)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17.7	20.3	24.4	2.6	0.7	20.9	6.5	5.6	0.0	1.1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21.1	14.0	18.0	4.4	0.5	29.7	5.1	5.9	0.1	1.2	100.0	(964)
$x^2(df)$						32.382***(9)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2) ① 공중파TV, ② 케이블TV/ IPTV/ 위성TV 등 유료TV, ③ 스마트TV(애* TV, 크*박스, 미*스 딜라이브 등 셋톱박스나 컴퓨터를 연결한 경우도 포함, ④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PC, 노트북), ⑤ 게임콘솔(닌*도 스위치, 닌*도 wii, 플*이스테이션, 엑*박스 등), ⑥ 태블릿 PC(갤*시 탭, 윈*우 탭, 아*패드 등), ⑦ 전자책 단말기(s*m, 킨*, 리*페이퍼, 오*스 등), ⑧ 스마트폰, ⑨ 가상현실(VR) 기기 (오*러스, H*C 바이브, 기* VR 등), ⑩ 인공지능(AI) 스피커(클*바, 미*씨, 누*, 지* 등)

***$p < .001$

〈부록 표 Ⅲ-6-24〉 영유아들의 '미래환경 준비'를 위해 활용이 필요한 미디어 기기(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공중파 TV	② 유료 TV	③ 스마트 TV	④ 개인용 컴퓨터	⑤ 게임 콘솔	⑥ 태블릿 PC	⑦ 전자책 단말기	⑧ 스마트 폰	⑨ 가상현실 기기	⑩ 인공지능 스피커	계(수)	
전체	8.3	6.7	16.3	6.1	0.6	29.8	6.7	12.3	6.6	6.7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8.2	7.5	17.6	6.7	0.7	24.3	7.0	13.8	7.8	6.5	100.0	(601)
여성	8.5	6.1	15.4	5.7	0.6	33.5	6.5	11.3	5.8	6.8	100.0	(899)
$x^2(df)$						17.301*(9)						
아동 연령2												
영아	7.5	8.2	20.1	5.6	0.4	27.1	7.8	11.6	5.8	6.0	100.0	(536)
유아	8.8	5.8	14.1	6.3	0.7	31.3	6.0	12.8	7.1	7.1	100.0	(964)
$x^2(df)$						18.151*(9)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2) ① 공중파TV, ② 케이블TV/ IPTV/ 위성TV 등 유료TV, ③ 스마트TV(애* TV, 크*박스, 미*스 딜라이브 등 셋톱박스나 컴퓨터를 연결한 경우도 포함, ④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PC, 노트북), ⑤ 게임콘솔(닌*도 스위치, 닌*도 wii, 플*이스테이션, 엑*박스 등), ⑥ 태블릿 PC(갤*시 탭, 윈*우 탭, 아*패드 등), ⑦ 전자책 단말기(s*m, 킨*, 리*페이퍼, 오*스 등), ⑧ 스마트폰, ⑨ 가상현실(VR) 기기 (오*러스, H*C 바이브, 기* VR 등), ⑩ 인공지능(AI) 스피커(클*바, 미*씨, 누*, 지* 등)

*$p < .05$,

〈부록 표 Ⅲ-6-25〉 영유아의 '과의존' 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미디어 기기(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공중파 TV	② 유료 TV	③ 스마트 TV	④ 개인용 컴퓨터	⑤ 게임 콘솔	⑥ 태블릿 PC	⑦ 전자책 단말기	⑧ 스마트 폰	⑨ 가상현실 기기	⑩ 인공지능 스피커	계(수)
전체	6.5	7.2	7.3	3.4	7.7	12.1	0.5	52.9	2.0	0.5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5.0	8.0	8.3	4.5	7.5	10.5	0.8	53.1	2.0	0.3	100.0 (601)
여성	7.5	6.7	6.6	2.7	7.9	13.1	0.2	52.8	2.0	0.6	100.0 (899)
$x^2(df)$						14.706(9)					
아동 연령2											
영아	6.9	8.4	7.8	3.7	6.5	11.9	0.7	51.5	1.9	0.6	100.0 (536)
유아	6.2	6.5	7.0	3.2	8.4	12.1	0.3	53.7	2.1	0.4	100.0 (964)
$x^2(df)$						6.070(9)					

주 :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2) ① 공중파TV, ② 케이블TV/ IPTV/ 위성TV 등 유료TV, ③ 스마트TV(애* TV, 크*박스, 미*스 딜라이브 등 셋톱박스나 컴퓨터를 연결한 경우도 포함, ④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PC, 노트북), ⑤ 게임콘솔(닌*도 스위치, 닌*도 wii, 플*이스테이션, 엑*박스 등), ⑥ 태블릿 PC(갤*시 탭, 윈*우 탭, 아*패드 등), ⑦ 전자책 단말기(s*m, 킨*, 리*페이퍼, 오*스 등), ⑧ 스마트폰, ⑨ 가상현실(VR) 기기 (오*러스, H*C 바이브, 기* VR 등), ⑩ 인공지능(AI) 스피커(클*바, 미*씨, 누*, 지* 등)

〈부록 표 Ⅴ-3-1〉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54.8	45.2	100.0 (301)
모 취업 여부2			
취업	56.1	43.9	100.0 (157)
미취업	54.2	45.8	100.0 (142)
$x^2(df)$		0.100(1)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48.9	51.1	100.0 (92)
유아(36개월 이상)	57.4	42.6	100.0 (209)
$x^2(df)$		1.865(1)	
출생 순위			
첫째	51.5	48.5	100.0 (136)
둘째 이상	57.6	42.4	100.0 (165)
$x^2(df)$		1.122(1)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부록 표 Ⅴ-4-1〉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1)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지침에 대한 홍보 강화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전체	1.2	5.5	61.5	31.7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2.2	7.3	61.1	29.5	100.0 (601)
여성	0.6	4.3	61.8	33.3	100.0 (899)
$x^2(df)$			15.225**(3)		
응답자 연령대					
20대	0.0	11.1	66.7	22.2	100.0 (27)
30대	1.4	5.4	59.5	33.7	100.0 (1,039)
40대	0.7	5.5	66.1	27.6	100.0 (434)
$x^2(df)$			9.947(6)		
부 학력					
고졸 이하	0.6	5.6	61.3	32.5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1.0	7.6	61.8	29.5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1.4	5.4	62.6	30.6	100.0 (837)
대학원 이상	1.0	3.6	56.9	38.5	100.0 (195)
$x^2(df)$			8.978(9)		
모 학력					
고졸 이하	0.7	5.5	65.5	28.3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1.1	7.5	61.7	29.8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1.0	4.9	61.3	32.9	100.0 (821)
대학원 이상	3.2	4.5	59.2	33.1	100.0 (157)
$x^2(df)$			11.406(9)		
모 취업 여부2					
취업	1.1	6.6	61.0	31.3	100.0 (654)
미취업	1.3	4.8	62.0	31.9	100.0 (842)
$x^2(df)$			2.479(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2.2	6.0	59.7	32.1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0.6	5.3	62.6	31.5	100.0 (964)
$x^2(df)$			8.276*(3)		

주1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1

〈부록 표 Ⅴ-4-2〉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2)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사 교육 확대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전체	2.3	9.2	59.2	29.3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3.3	11.3	58.6	26.8	100.0 (601)
여성	1.6	7.8	59.6	31.0	100.0 (899)
$\chi^2(df)$			12.136**(3)		
응답자 연령대					
20대	3.7	3.7	63.0	29.6	100.0 (27)
30대	2.7	9.4	57.9	29.9	100.0 (1,039)
40대	1.2	9.0	62.0	27.9	100.0 (434)
$\chi^2(df)$			5.785(6)		
부 학력					
고졸 이하	1.9	10.0	58.1	30.0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1.7	9.4	60.1	28.8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2.6	9.3	59.6	28.4	100.0 (837)
대학원 이상	1.5	8.7	56.9	32.8	100.0 (195)
χ^2(df)			2.928(9)		
모 학력					
고졸 이하	0.0	11.7	61.4	26.9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2.9	10.5	58.2	28.4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2.2	8.8	59.1	30.0	100.0 (821)
대학원 이상	3.2	6.4	59.9	30.6	100.0 (157)
χ^2(df)			8.600(9)		
모 취업 여부2					
취업	2.1	9.5	59.8	28.6	100.0 (654)
미취업	2.4	9.0	58.7	29.9	100.0 (842)
$\chi^2(df)$			0.473(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2.8	11.2	57.3	28.7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2.0	8.1	60.3	29.7	100.0 (964)
$\chi^2(df)$			5.270(3)		

주1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1

〈부록 표 Ⅴ-4-3〉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3)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확대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전체	0.9	5.0	54.1	40.0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1.8	7.3	56.1	34.8	100.0 (601)
여성	0.3	3.4	52.7	43.5	100.0 (899)
$x^2(df)$			27.039***(3)		
응답자 연령대					
20대	0.0	14.8	40.7	44.4	100.0 (27)
30대	1.1	4.7	52.7	41.5	100.0 (1,039)
40대	0.7	5.1	58.1	36.2	100.0 (434)
$x^2(df)$			10.871(6)		
부 학력					
고졸 이하	0.0	5.6	54.4	40.0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1.4	6.3	53.5	38.9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1.1	5.0	55.6	38.4	100.0 (837)
대학원 이상	0.5	3.1	48.7	47.7	100.0 (195)
$x^2(df)$			10.009(9)		
모 학력					
고졸 이하	0.0	5.5	60.7	33.8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1.3	5.9	55.5	37.3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0.6	4.8	53.3	41.3	100.0 (821)
대학원 이상	2.5	3.8	47.8	45.9	100.0 (157)
$x^2(df)$			14.847(9)		
모 취업 여부2					
취업	0.8	5.4	52.8	41.1	100.0 (654)
미취업	1.1	4.8	55.0	39.2	100.0 (842)
$x^2(df)$			1.316(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1.5	6.0	53.4	39.2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0.6	4.5	54.5	40.5	100.0 (964)
$x^2(df)$			4.582(3)		

주1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01$

〈부록 표 Ⅴ-4-4〉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4) 영유아 대상 미디어 이용 교육 강화

단위 : %(명)

구분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계(수)
전체	2.1	9.9	61.7	26.3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3.7	13.0	61.6	21.8	100.0 (601)
여성	1.1	7.8	61.8	29.3	100.0 (899)
$x^2(df)$			28.436***(3)		
응답자 연령대					
20대	0.0	14.8	59.3	25.9	100.0 (27)
30대	2.3	9.8	60.6	27.2	100.0 (1,039)
40대	1.8	9.7	64.5	24.0	100.0 (434)
$x^2(df)$			3.612(6)		
부 학력					
고졸 이하	0.0	7.5	65.6	26.9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2.1	9.0	62.8	26.0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2.4	11.5	60.0	26.2	100.0 (837)
대학원 이상	2.6	7.2	64.1	26.2	100.0 (195)
$x^2(df)$			9.613(9)		
모 학력					
고졸 이하	0.0	6.2	69.7	24.1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2.4	10.7	62.7	24.1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2.2	10.5	60.2	27.2	100.0 (821)
대학원 이상	3.2	8.3	60.5	28.0	100.0 (157)
$x^2(df)$			10.223(9)		
모 취업 여부2					
취업	1.7	10.6	61.6	26.1	100.0 (654)
미취업	2.5	9.4	61.9	26.2	100.0 (842)
$x^2(df)$			1.648(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3.5	11.4	61.2	23.9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1.3	9.0	62.0	27.6	100.0 (964)
$x^2(df)$			11.573**(3)		

주1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1, ***p 〈 .001

〈부록 표 Ⅴ-4-5〉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5)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전체	13.0	27.3	39.9	19.7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19.8	25.1	38.6	16.5	100.0 (601)
여성	8.5	28.8	40.8	21.9	100.0 (899)
$\chi^2(df)$			43.309***(3)		
응답자 연령대					
20대	11.1	25.9	40.7	22.2	100.0 (27)
30대	13.8	27.6	38.7	19.9	100.0 (1,039)
40대	11.3	26.7	42.9	19.1	100.0 (434)
$\chi^2(df)$			3.145(6)		
부 학력					
고졸 이하	10.6	26.3	40.0	23.1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13.2	31.3	37.8	17.7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12.1	26.5	41.7	19.7	100.0 (837)
대학원 이상	19.0	26.2	35.4	19.5	100.0 (195)
$\chi^2(df)$			12.092(9)		
모 학력					
고졸 이하	13.1	26.2	44.1	16.6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11.5	27.9	39.7	20.9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12.7	27.6	39.7	20.0	100.0 (821)
대학원 이상	17.8	26.1	37.6	18.5	100.0 (157)
$\chi^2(df)$			5.777(9)		
모 취업 여부2					
취업	12.1	26.0	42.4	19.6	100.0 (654)
미취업	13.7	28.5	38.0	19.8	100.0 (842)
$\chi^2(df)$			3.311(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14.2	27.6	39.0	19.2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12.3	27.2	40.5	20.0	100.0 (964)
$\chi^2(df)$			1.213(3)		

주1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01$

〈부록 표 Ⅴ-4-6〉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6)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연령별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 기준 개발, 배포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전체	1.2	7.5	60.2	31.1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2.3	9.5	62.9	25.3	100.0 (601)
여성	0.4	6.1	58.4	35.0	100.0 (899)
$x^2(df)$			28.330***(3)		
응답자 연령대					
20대	0.0	14.8	55.6	29.6	100.0 (27)
30대	1.3	7.6	58.9	32.2	100.0 (1,039)
40대	1.2	6.7	63.6	28.6	100.0 (434)
$x^2(df)$			5.254(6)		
부 학력					
고졸 이하	0.6	8.8	60.0	30.6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1.4	5.6	58.7	34.4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1.3	8.2	60.3	30.1	100.0 (837)
대학원 이상	1.0	5.6	63.6	29.7	100.0 (195)
$x^2(df)$			5.832(9)		
모 학력					
고졸 이하	1.4	6.9	66.9	24.8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1.6	8.0	59.5	30.8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0.9	7.8	59.7	31.7	100.0 (821)
대학원 이상	1.9	4.5	58.6	35.0	100.0 (157)
$x^2(df)$			8.214(9)		
모 취업 여부2					
취업	0.8	7.5	61.2	30.6	100.0 (654)
미취업	1.5	7.4	59.5	31.6	100.0 (842)
$x^2(df)$			2.156(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1.7	8.4	59.3	30.6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0.9	7.0	60.7	31.4	100.0 (964)
$x^2(df)$			2.741(3)		

주1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01$

〈부록 표 Ⅴ-4-7〉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7) 미디어 콘텐츠 공급자들이 지켜야 할 영유아용 콘텐츠 적합성 기준을 배포하고, 위반시 제재 마련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전체	3.2	10.3	49.6	36.9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5.2	11.1	53.9	29.8	100.0 (601)
여성	1.9	9.7	46.7	41.7	100.0 (899)
$\chi^2(df)$			30.408***(3)		
응답자 연령대					
20대	0.0	14.8	40.7	44.4	100.0 (27)
30대	3.2	9.9	48.4	38.5	100.0 (1,039)
40대	3.5	10.8	53.0	32.7	100.0 (434)
$\chi^2(df)$			6.680(6)		
부 학력					
고졸 이하	3.8	13.1	45.6	37.5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3.8	8.3	50.0	37.8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2.7	11.1	51.3	34.9	100.0 (837)
대학원 이상	3.6	8.2	46.2	42.1	100.0 (195)
$\chi^2(df)$			8.606(9)		
모 학력					
고졸 이하	4.1	15.2	55.9	24.8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3.5	10.7	50.1	35.7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2.6	9.7	48.0	39.7	100.0 (821)
대학원 이상	5.1	7.6	51.0	36.3	100.0 (157)
$\chi^2(df)$			17.344*(9)		
모 취업 여부2					
취업	3.1	10.6	50.2	36.2	100.0 (654)
미취업	3.3	10.1	49.2	37.4	100.0 (842)
$\chi^2(df)$			0.365(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4.5	11.0	48.5	36.0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2.5	9.9	50.2	37.4	100.0 (964)
$\chi^2(df)$			5.094(3)		

주1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5, ***p 〈 .001

〈부록 표 Ⅴ-4-8〉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8) 영유아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전체	1.9	4.9	52.4	40.8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3.0	8.2	58.4	30.4	100.0 (601)
여성	1.1	2.8	48.4	47.7	100.0 (899)
$x^2(df)$			61.139***(3)		
응답자 연령대					
20대	0.0	18.5	40.7	40.7	100.0 (27)
30대	2.0	4.2	50.0	43.8	100.0 (1,039)
40대	1.6	5.8	59.0	33.6	100.0 (434)
$x^2(df)$			25.730***(6)		
부 학력					
고졸 이하	2.5	4.4	50.6	42.5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1.7	5.9	47.9	44.4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2.2	5.6	54.8	37.4	100.0 (837)
대학원 이상	0.5	1.5	51.3	46.7	100.0 (195)
$x^2(df)$			15.771(9)		
모 학력					
고졸 이하	2.8	4.8	56.6	35.9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2.1	5.6	51.5	40.8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1.6	5.0	52.3	41.2	100.0 (821)
대학원 이상	1.9	3.2	51.6	43.3	100.0 (157)
$x^2(df)$			4.167(9)		
모 취업 여부2					
취업	1.4	3.8	54.7	40.1	100.0 (654)
미취업	2.3	5.8	50.6	41.3	100.0 (842)
$x^2(df)$			5.844(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3.0	4.7	53.0	39.4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1.2	5.1	52.1	41.6	100.0 (964)
$x^2(df)$			6.186(3)		

주1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01$

〈부록 표 Ⅴ-4-9〉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별 필요성: 9) 아동용 앱, 아동용 채널(ex. 유투브 키즈 등)의 광고 및 알고리즘 생성 제한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전체	2.0	7.2	45.3	45.5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3.5	11.5	52.6	32.4	100.0 (601)
여성	1.0	4.3	40.5	54.2	100.0 (899)
$\chi^2(df)$			85.723***(3)		
응답자 연령대					
20대	7.4	22.2	37.0	33.3	100.0 (27)
30대	1.9	6.4	44.0	47.7	100.0 (1,039)
40대	1.8	8.3	49.1	40.8	100.0 (434)
$\chi^2(df)$			20.569**(6)		
부 학력					
고졸 이하	2.5	6.3	37.5	53.8	100.0 (160)
전문대(2~3년제) 졸업	2.1	7.3	43.4	47.2	100.0 (288)
4년제 대학 졸업	2.0	8.0	48.1	41.8	100.0 (837)
대학원 이상	1.5	4.6	44.1	49.7	100.0 (195)
$\chi^2(df)$			12.921(9)		
모 학력					
고졸 이하	0.7	11.0	49.7	38.6	100.0 (145)
전문대(2~3년제) 졸업	2.9	6.4	45.3	45.3	100.0 (373)
4년제 대학 졸업	1.6	6.8	45.7	45.9	100.0 (821)
대학원 이상	3.2	7.0	40.8	49.0	100.0 (157)
$\chi^2(df)$			11.491(9)		
모 취업 여부2					
취업	1.4	4.6	48.0	46.0	100.0 (654)
미취업	2.5	9.1	43.5	44.9	100.0 (842)
$\chi^2(df)$			14.761**(3)		
아동 연령2					
영아(0-36개월 미만)	3.9	7.8	46.5	41.8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0.9	6.8	44.7	47.5	100.0 (964)
$\chi^2(df)$			18.517***(3)		

주 :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영유아 부모 대상)'의 결과임.
**p 〈 .01, ***p 〈 .001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330
9 791190 485975
ISBN 979-11-90485-97-5